

패전 후 귀환 일본인 기억의 다이내미즘과 식민지·제국의식

일시 : 2014년 11월 21일 (금) 10:00-18:00

장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일정

9:30 등록 및 접수

10:00 개회
소장인사

10:10~12:10

<제1부> : 제국의 해체와 식민지의식

사회 : 강대웅(광운대)

제1발표 : 만주국 붕괴와 만몽개척단 -'비극'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 國文學研究資料館)

제2발표 : 패전 직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인식의 형성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立教大學)

토론 : 김영숙(아주대), 박환무(건국대)

12:10~13:20 점심식사

13:20~15:10

<제2부> : 귀환 일본인들의 조선·한국 인식과 '공적기억'

사회 : 송규진(고려대)

제3발표 : 귀환한 조선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과 조선인식-우방협회를 중심으로-(이형식:고려대)

제4발표 : 경성제대 교수들의 전후(정준영:서울대)

토론 : 서민교(동국대), 송병권(고려대)

15:10~15:20 휴식

15:20~18:00

<제3부> : 재조일본인과 '제국의식'

사회 : 정병욱(고려대)

제5발표 : 일본인 귀환자의 조선 회고와 조선관 (이연식:시립대)

제6발표 : 식민자 2세 출신자의 문학과 '조선', 그리고 전후 일본사회(신승모:동국대)

제7발표 : 여성식민자의 식민지 경험과 그 변천 - 제국의 붕괴·귀환을 둘러싸고- 히로세 레이코(広瀬玲子, 北海道情報大學)

토론 : 기유정(서강대), 홍윤표(성신여대), 한승미(연세대)

목 차

제1부 : 제국의 해체와 식민지의식

1. 만주국 붕괴와 만몽개척단 -‘비극’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
: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 國文學研究資料館)09
2. 패전 직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인식의 형성—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立教大學).....29

제2부 : 귀환 일본인들의 조선·한국 인식과 ‘공적기억’

3. 귀환한 조선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과 조선인식-우방협회를 중심으로-
: 이형식(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75
4. 경성제대 교수들의 전후
: 정준영(서울대).....93

제3부 : 재조일본인과 ‘제국의식’

5. 일본인 귀환자의 조선 회고와 조선관
: 이연식(시립대)113
6. 식민자 2세 출신자의 문학과 '조선', 그리고 전후 일본사회
: 신승모(동국대).....127
7. 여성식민자의 식민지 경험과 그 변천 - 제국의 붕괴·귀환을 둘러싸고-
: 히로세 레이코(広瀬玲子, 北海道情報大學)141

제1부 : 제국의 해체와 식민지의식

1.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 國文學研究資料館): 만주국 붕괴와 만몽개척단 -‘비극’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
2.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立教大學): 패전 직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인식의 형성-『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 : 강태웅(광운대)

토론 : 김영숙(아주대), 박환무(건국대)

만주국 붕괴와 만몽개척단-‘비극’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

머리말

1945년 8월 9일에 소련군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만주(관동주를 포함)·조선 북부(북위 38도선 이북)·남사할린(북위 50도 이남)과 북동 아시아 전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대전 말기의 만주(만주국 및 관동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은 약 155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소련과의 전쟁에 휩쓸려 난민이 되었으며, 전투가 끝난 후에도 본국으로의 귀환이 늦어져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 수는 약 24만 5,000명(그 중 일소전쟁 중은 약 6만 명)에 이르렀다¹⁾. 특히, 소련과 만주국 국경 근처에 배치되었던 개척단원들(의용군·보국농장을 포함하여 약 27만 명, 그 중 장년 남자 약 4만 7,000명이 소련과의 개전 때 소집됨)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전투에 휩쓸려 근교 도시로 피난한 가운데 약 7만 2,000명이 사망, 약 1만 1,000명이 귀국을 못 하는(그 중 사망 추정자는 6,500명) 비극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대량 희생과 귀환 체험의 비극성 때문에 대전 후 시작된 귀환에 대하여 일본인이 갖는 이미지는 소련군의 무차별 공격과 현지인의 습격에 의해 도망치거나 압박을 받아 집단 자결하는 개척단원,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남자들, 전쟁터에서 도망쳐도 기아와 전염병으로 차례차례 쓰러져가는 난민, 소련군의 폭행을 두려워하는 여성들, 그리고 전후 30년 지나서 드러난 중국 잔류 고아 등 일정한 ‘틀’로 고정화되어 있다. 이러한 틀은 미디어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공되어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살아남아서 귀환해온 개척단원들에게 귀환 후의 생활 재건은 어려웠다. 개척단원은 만주에 건너갈 때 고향의 토지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많아서 고향에서의 생활을 재건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긴급 개척정책으로 개척단원을 재입식시켰지만 대부분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농업 경영은 실패하였다. 이처럼 전후에도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개척단원의 피해자의식은 보다 강해져 특수한 역사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에 휘둘린 그들의 특이한 역사관은 위령비로서 표상되어갔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만주개척단을 둘러싼 역사를 검증함으로써 귀환이라는 역사적 체험이 일본인의 역사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I. 만몽개척단의 역사적 배경

1) 厚生省援護局編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あゆみ』(ぎょうせい、1978年、891・197頁). 이 밖에 만주에서 조선 북부로 피한 사람들은 약 6만 명, 그 중 약 2만 명이 패전 후 만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후생성 추산에 따름. 참고로 조선 북부에서의 귀환자 총수는 약 30만 명, 사망자 약 2만 6,000명. 남사할린으로부터의 귀환자는 밀항에 의한 탈출을 제외하고 29만 명).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삼시간에 만주 전역을 지배하에 넣었다. 본래 만주사변은 관동군 참모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가 전사 연구와 일련교 교의에서 이끌어낸 그의 독특한 사상인 세계최종전쟁론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즉, 닥쳐올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은 만주를 손에 넣어 고도 국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이었다²⁾.

이처럼 군사전략상의 필요에서 일으킨 만주사변이었기 때문에 이시하라 등은 당초 만주를 일본이 완전히 지배하는 만몽영유론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사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관계를 의식하는 정부와 육군 중앙은 만몽영유론에 반대하였으며 정치적 대립 속에 괴뢰국가 건설이라는 타협을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것이 만주국이다.

만주국 탄생으로 이시하라 등 관동군 막료가 구상하고 있던 만몽영유론은 부정되었으나 그 결과, 이번에는 만주이민구상이 떠오르게 되었다.

1932년 3월에 탄생한 만주국은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만주국을 구성하는 5민족(일본인·만주족·한족·조선인·몽고인)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내세웠다. 이것은 중화민국의 ‘오족공화(五族共和, 한·청·몽·티벳·위구르)’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였다.

그렇지만 만주국은 일본인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관동군이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국 전 인구 3,000만 명 가운데 일본인은 겨우 20만 명에 그쳐 압도적 소수파라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주는 일본의 조차지로서 만주국에는 포함되지 않음).

소수파인 일본인이 만주를 지배하는 모순을 감추고 오족협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서는 만주국 안의 일본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시하라는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단, 만주사변 전부터 재만 일본인의 중핵이었던 도시 주민(상공업자나 회사원·관리 등)으로는 대량 증가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것이 농업이민이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후의 산업 근대화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농촌의 잉여인구는 도시로 향했고 그래도 넘치는 인구는 이민으로 해외에 건너갔다. 후에 만몽개척단 최대 송출지가 되는 나가노현(長野県)은 본래 남미 이민이 빈번히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더욱이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의 일본 경제는 경공업중심으로서 그 중에서도 생사가 수출의 주력 상품이었는데 공황으로 생사 가격이 폭락하면서 양잠업을 현금 수입원으로 하던 농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결과 농촌의 피폐가 심각해졌다.

만주사변은 이러한 배경 아래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의 폐쇄성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은 만주에서의 군사적 성공에 열광하였다. 게다가 만주사변 후의 일본경제는 군사비의 팽창을 토대로 상승하여 국민의 군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농촌 재건에 열심이었던 농본주의자 가토 간지(加藤完治)는 농촌 구제의 방책으로서 만주이민을 제창하였으며 농림성 차관인 이시구로 다다아츠(石黒忠篤)와 동경제국대학 교수 하시모토 덴자에몬(橋本傳左衛門)과 손을 잡으면서 만주이민계획이 구체화되어 갔다.

더욱이 가토 등의 계획에 이민행정을 관할하는 척무성이 주목하였다. 약소 관청이었던 척무성으로서는 만주이민이 관청의 이익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가토와 척무성

2) 만주이민의 송출 경위와 무장이민에서 보통이민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加藤聖文 「滿洲移民計畫の形成と『国策化』」 (『歴史評論』第719号, 2010年2月) 참조.

의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게 되었다.

한편, 관동군에서는 만몽영유계획이 부정되는 가운데 1931년 말에는 이민계획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1932년이 되자 만주국 군 고문으로서 현지의 치안 숙정을 지휘하던 도미야 가네오(東宮鉄男, 장작립 폭살사건의 실행범)가 재향군인회가 주체가 되는 무장이민계획을 이시하라에게 제안하였다. 이시하라가 도미야와 가토를 연대시키면서 만주이민계획은 만주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무장 이민으로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1932년부터 시작된 무장이민은 만주의 기후와 풍토를 무시하고 현지민과의 협조도 얻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이탈자 속출과 현지민의 무장투쟁을 초래하여 4년간 5회에 걸쳐 이뤄진 이민의 성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장이민계획의 실패는 만주이민계획을 중지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으며, 역으로 이민계획은 무장이민에서 농민을 주체로 하는 보통 이민으로 전환되어 규모도 확대된 국책으로 수행되게 되었다.

1936년 2.26사건 후에 탄생한 히로타 고우키(広田弘毅) 내각은 농촌 대책으로서 20년에 걸쳐 만주에 100만 호(500만 명)를 이민으로 보내는 일대 국가 프로젝트를 결정하였고, 정부가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책으로서 민주 이민은 ‘국책’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부현(府縣)·시정촌(市町村)에 대해 이민 송출의 수치 목표가 결정되어 이민 송출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전국 각 지방에서는 영화나 강연회에 의해 ‘왕도낙토(王道樂土)’ 만주 선전이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다. 시정촌에서는 만주 현지를 시찰하여 왕도낙토가 진짜라는 보고서가 넘쳐났다. 이렇게 하여 많은 개척단이 결성되어 만주로 건너갔다. 그러나 활발한 선전활동에도 자발적으로 개척단원이 되어 만주로 건너가려는 사람은 소수파이고 주위의 압력을 받기 쉬운 가난한 소작농민이 개척단원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내키지 않으면서도 만주로 많은 농민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입식된 토지는 원야가 아니라 이미 개간된 토지였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대한 토지를 손에 넣은 그들로서는 겨울철 혹한을 제외하면 만주는 분명 ‘왕도낙토’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는 만주국이 현지인 지주로부터 싼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만주국에서는 소련의 계획경제에 영향을 받은 산업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만주 이민도 중요한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량 이민이 들어오게 되자 만주국은 그들의 입식지를 서둘러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싼 가격으로 반강제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일본에서는 소작인으로서 고생했던 그들이 광대한 토지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개척단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현지인(구 지구에 고용되었던 소작인)을 소작인으로 부리면서 금세 지주화되어갔다.

그러나 국책으로서 시작된 만주이민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중일전쟁으로 계획이 크게 틀어졌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내에서는 정치나 경제, 문화까지도 전쟁에 총동원되었으며 농촌의 청년남자는 차례로 전쟁터에 보내져 만주 이민의 목표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병역 연령에 달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주목하여 일찍이 1938년부터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정식으로는 만주개척청소년의용대)이 창설되었다. 학교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된 17세 전후의 청소년은 부모 슬하를 떠나 가토 간지가 운영하는 이바라기현(茨城県)의 우치하라(内原)훈련소 등에서 기초훈련을 받은 후 유사시에는 전투원이 되도록 소련과의 국경 근

처에 차례로 보내졌다. 이렇게 하여 중일전쟁 후의 만주이민은 의용군이 주체가 되어갔다. 그리고 젊은 의용대원이나 개척단원의 만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이 '대륙의 신부'로서 만주로 건너갔다.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가 고정화되는 가운데 모든 경제활동은 전쟁 수행에 수렴되게 되었다. 산업조합화와 경제통제에 의해 폐업한 중소기업자 가운데는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런 단계가 되자 농업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모순의 돌파구로서 만주이민이 이용되게 되었다. 그 최종적 형태가 1944년 이후의 본토 공습에 의해 집이나 재산과 직업을 잃은 이재민의 만주이민이었다.

II. 소련군의 침공과 개척단의 비극

1944년 9월 18일大本영은 관동군에 대하여 장기 지구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대륙명(大陸命) 제1130호), 관동군은 이듬해 1월 17일까지 연경선(대련-신경)·경도선(신경-도문)을 방위선으로 하여 조선과의 국경을 따라 만주 동남부의 산악지대에서 장기 지구전계획을 책정하였다. 즉, 패전 약 6개월 전에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많은 일본인 개척단이 있는 소련과 만주 국경지역을 포기하였던 것이다³⁾.

한편, 소련은 1943년 11-12월에 열린 테헤란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양국에 대해 대일 참전을 약속하였으며 이듬해 11월의 혁명기념일에 스탈린이 적대관계가 아니었던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처음으로 지명하여 비난하였다. 1945년 2월에는 알타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2-3개월 후 대일참전을 결정, 4월에는 일소중립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통고하고 대일 참전의 준비를 갖추었다.

소련의 대일 참전 준비와 관동군의 방위계획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졌는데 관동군은 5월 7일 독일 항복 전후부터 극동소련군이 증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개전 시기 판단에 있었다. 만주의 기후를 생각하면 7월이나 8월 개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소련과의 전력 차가 큰 것을 인식하고 있던 관동군 수뇌부는 개전을 가을 이후로 보는 희망적 관측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5월 30일,大本영은 관동군에 대해서 대소 작전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전 만주의 4분의 3을 포기하고 동부 산악지대와 조선 북부에서 대소 지구전을 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욱이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재만 일본인 가운데 성인 남성의 대량 동원(썩쓸이 동원)을 개시하였다. 개척단에서도 경영의 중핵인 성인 남성의 다수가 소집되었는데 이것이 개척단 비극의 요인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관동군은 1945년 2월 24일, '관동군 재만 거류민 처리계획'을 책정하여 변경지구의 노약자와 부녀자의 대피와 청장년 남자의 소집을 계획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소련과의 개전 위기가 높아진 5월 이후가 되자 이 계획의 실시를 협의하였으나, 현지민의 동요와 소련군의 진입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大本영이 허가하지 않아 계획은 실현되지 못 했다. 즉, 소련과의 개전 직전에 관동군도大本영도 개척단을 버렸던 것이다.

3) 패전 전후의 관동군의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加藤聖文 「戦後東アジアの冷戦と満洲引揚-国共内戦下の『在満』日本人社会」 (『東アジア近代史』 第9号, 2006年3月) 참조.

이러한 가운데 소련의 대일 참전이 이뤄졌으며, 개전 1주일 만에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다. 일본 정부는 포츠담선언 수락과 동시에 재외 공관에 대해 재류 민간인의 현지 정착을 지시하였다. 당시의 일본은 수송용 선박 부족·기뢰에 의한 항만 봉쇄·식량과 주택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병사를 포함하여 내지 인구의 10% 가까이 이르는 650만 명이 넘는 모든 해외 재류 일본인의 조기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런데 이러한 정부 방침이 안일한 관측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만주 잔류 일본인의 피해상황에 관해서는 현지 기관이나 관동군도 처음에는 전투중이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고 8월중에는 정전협정 조인과 소련군에 대한 행정권 이양 등 전쟁 종결 수속에 관심이 집중되어 소련과 만주국 국경 부근 개척단의 비참한 상황이나 소련군의 군기가 열악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9월에 들어서부터였다.

그러나 9월 5일에 관동군 총사령부는 소련군에 의해 완전히 접수되어 관동군은 소멸하였다. 또한 소련은 대일 참전시 소련군 총사령부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소련군 점령지역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9월이 되자 만주의 일본인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력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련군의 만주 침공은 8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나 15일을 지나도 전투가 계속되어 관동군과의 정전 합의는 19일에 이뤄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국지적인 전투는 각지에서 이어져 동부 국경에 있던 호두(虎頭)요새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1900명 전원이 옥쇄한 것은 26일이었다.

이 사이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다수는 개척단원이었다. 개척촌은 만주국 전역에 산재해 있었으나, 다수가 소련 국경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련군은 국경 주변에 있는 개척촌을 군사거점으로 보고 화포·전차 등 중장비로 공격하였다⁵⁾.

또한 소련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마을에서도 현지인에 의한 습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여 집단 자결이 이어졌다. 현지인에 의한 습격은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빼앗긴 현지인의 복수라고 하지만 실태는 보다 복잡했다.

만주국 건국 전 동북 농지의 대부분은 군벌이나 지방 유력자(중국인이나 만주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그 아래서 중국인 소작농이 농경하는 구도는 일본의 지주·소작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만주사변 후 중국 본토로 피한 동북군벌 관계자(장학량 등)의 사유지는 ‘역산(逆産)’으로서 만주국이 접수하였다. 이들 접수 용지는 개척 시책이 실시되자 개척단에 배분되었으나 정책이 보다 대규모화되자 역산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지주로부터 토지를 대대적으로 사들이게 되었다. 그 때 매수가격이 부당하게 헐값이었던 것이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지주가 토지를 팔자 소작인은 경지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처럼 불만을 가진 지주나 소작인이 패전 후 권력의 배후를 잃고 무력화된 개척단의 재산(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서 개척단원의 개인 재산까지)을 노린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었다.

현지인에 의한 개척단 습격은 계획적이었으며 몇 개 집단이 연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만드

4) 패전 후의 현지 정착 방침과 그 붕괴에 관해서는, 加藤聖文「大日本帝国の崩壊と残留日本人引揚問題-国際関係のなかの海外引揚」(増田弘編『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2年) 참조.

5)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는 소련 국경 부근에 오사드니치라는 퇴역군인 주체의 무장농민촌을 배치하여 소련군 진공시의 저항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소련군은 폴란드 침공 때 이들 마을을 가장 먼저 공격하였는데 소련군의 인식으로 보면 만주의 개척촌도 오사드니치와 마찬가지로였다.

시 토지에서 쫓겨난 현지인에 의한 복수만은 아니었다. 또한 마을을 떠나 도피하는 가운데 약탈 목적의 습격을 당한 경우, 도피하는 데 현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습격을 당하지 않고 장기간 개척촌에 잔류하는 경우 등 개척단에 따라 패전 후 상황은 다양하여 사정이 크게 달랐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패전 전까지의 개척단원과 현지인의 관계(좋았든가 나빴든가, 교섭이 없었든가 등)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개척단원의 다수는 8월중에 현지를 이탈하여 하얼빈·장춘 등 주요도시로 향하였으나 피난도중 또는 피난처(난민수용소)에서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사인은 전염병(티프스·설사) 또는 영양실조였으며 유아와 노인의 다수가 사망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여성은 현지인에게 팔려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후에 중국 잔류 일본인으로서 1970년대 이후 그 존재가 밝혀졌다. 더욱이 싹쓸이소집으로 병사가 된 개척단원이거나 의용군에 속했던 청소년은 소련군에 억류되어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던 주민(관리나 회사원, 상공업자)과 농촌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개척단원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생활수준은 너무나 달랐으며, 패전 전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패전 후 개척단원이 난민으로서 도시에 유입하면서 그들에 대한 식량·의복 지원 등을 통해 처음으로 양자가 접촉하게 되었으나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경제적 격차는 확연하였다. 즉, 난민이 된 개척단원은 피난도중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잃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소련 점령군에 의한 폭행과 약탈의 피해를 입었지만 기본적인 주거·의복·재산을 여전히 소유하였다. 특히 만주국 붕괴 후의 만주에서는 소련군·국민정부·중국 공산당이 각각 발행한 지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만주국시대에 유통되던 국폐(만주국 중앙은행권)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본인의 생활은 일정 정도 보장되었다⁶⁾.

만주 귀환자의 사망률은 전체가 16%인데 비해 개척단원으로 한정하면 사망률은 30%로 2배 가량 높아진다. 이 수치의 차이는 일본과 소련의 개전 후부터 귀환까지의 사이에 개척단원이 처했던 환경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살아남은 개척단원의 전후

만주에서 귀국한 개척단원에게 전후의 생활 재건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식량 부족 해소를 위해 1945년 11월에 긴급 개척사업실시요령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복원 병사나 공습 피해자, 그리고 귀환자를 대상으로 황실 소유지·군용지의 농지 해방과 미경작지로의 입식을 추진하였다.

개척단원은 만주로 건너갈 때 재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귀환 후의 생활기반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개척단원이 긴급 개척정책의 중핵이 되어 미경작지에 입식하였으나 그 시점까지 미경작지였다는 것은 농작물이 생육하지 않는 토지이거나 교통이 끊어진 오지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고도경제성장에 맞는 고랭지 야채나 유제품으로 전환하지 못한 다수 입식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면서 일본사회 발전에서 낙후되어갔다.

이처럼 개척단원의 전후는 보상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우함 속에서 그들은 독특한 역사

6) 만주국 붕괴 후의 재만 일본인의 생활에 관해서는, 전계 「戦後東アジアの冷戦と満洲引揚」 참조.

관을 갖게 되었는데 그 표상이 위령비이다⁷⁾.

패전 후 만주에서 희생된 사람은 25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만주에 묻혔다. 전후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일본인이 다시 만주에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희생자의 유골 수집도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이런 가운데 위령비를 건립하여 희생자를 위로하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커다란 책무가 되었다.

개척단 희생자의 위령비는 1940년대 말 무렵부터 각지에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⁸⁾. 단, 이 무렵의 위령비는 본래 죽은 자에 대한 공양탑으로서 정치적 주장이나 역사관은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정치적 주장이나 역사관을 반영한 위령비가 건립되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며, ‘위령비’에서 ‘순난비(殉難碑)’로의 커다란 전환이 보인다.

이러한 위령비의 성격 전환 배경에는 재외 사유재산 국가보상청구운동이라는 정치적 운동이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귀환하면서 잃게 된 재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는 움직임은 1946년 11월 29일에 귀환자단체연합회(전련)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추진된 재외 사유재산 반환 청구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해외에 남기고 온 일본 재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좌절되었으며, 1952년 11월 16일에 전련의 행동단체로서 재외자산보상획득기성동맹(외자동)이 결성되어 귀환자에 대해 잃어버린 사유재산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불을 나라에 청구하는 재외 사유재산 보상 청구로 전환되었다⁹⁾.

그러나 사유재산 보상 요구로 운동이 전환된 것은 귀환자 사이에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전련이 추진한 재외 사유재산 보상 청구운동에 대해 전 개척단원들이 결성한 개척자흥회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실은 메이지시대부터 만주나 조선에 건너가 토착화되어 그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과 달리 국책에 따라 만주에 보내진 개척단원들은 사유재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토지나 건물을 정산해버렸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정착할 곳이 없었으며, 정부에 의한 새로운 입식지 알선과 입식 후의 지원이 절실한 문제였다. 더욱이 귀환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한 개척단원은 국가에 의한 배상보다 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현장을 더욱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여기서 같은 귀환자라 할지라도 개척단원과 그 외의 사람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났다.

개척단원과 그 밖의 귀환자와의 균열을 상징하는 것이 고치현(高知県)의 사례이다. 1954년 9월에 고치현 재외 귀환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심 의제는 재외 사유재산 보상 요구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고치현 개척민자흥회는 보상 요구 촉진 결의 일색의 분위기에 대해 강한 위화감을 표명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부흥회가 독자적으로 ‘순난자 동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신사와 비의 건립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6년 7월 14일 전 대동아대신이었던 아오키 가즈오(青木一男)의 휘호로 ‘만주개척민순난지비(滿洲開拓民殉難之碑)’와 개척신사의 제막식이 고치현 호국신사 경내에서 행해졌다. 개척단과 관계있는 기념비의 다수는 이 ‘순난비’ 또는 ‘척혼비(拓魂碑)’이지만 이 비명에서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공양이 아니라 국책으로 추진된 만주이민이라는 국가사업에 순사했다는 현창적 의미를 강렬하게 담고 있음을

7) 해외 귀환과 관련된 기념비에 관해서는, 加藤聖文「引揚者をめぐる境界-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安田常雄編『シリーズ戦後日本社会の歴史 4 社会の境界を生きる人びと』(岩波書店, 2013年) 참조.

8) 대표적인 것이 미나미시나노(南信濃)개척단이 건립한 나가노현 아치무라(阿智村) 초묘지(長命寺)의 ‘순난자 공양비’(1949년 4월 15일)로서, 이것은 지장보살형인데 아무런 설명문도 없는 것이다.

9) 이 문제는 1957년 5월 17일에 ‘귀환자 급부금 등 지급법’이 성립되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전련이 요구한 것은 실현되지 못 하여 운동은 실패하였다.

이해할 수 있다¹⁰⁾.

고치현의 움직임에 이어서 1957년 12월에 개척자흥회는 츠키치(築地) 혼간지(本願寺)에서 행해진 13회기 법요에서 순난비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1959년 8월 10일에 도쿄 다마(多摩)지구의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聖蹟桜ヶ丘)에 ‘척혼비’를 건립하였는데, 이 곳은 개척단의 ‘성지’가 되었다¹¹⁾. 그러나 이 비의 명명자로서 스스로 제자(題字)의 붓을 든 것은 만주이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토 간지였다. 가토는 전후에도 농본주의자로서 농업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언동에서는 국책으로 행한 만주 개척에 대한 반성은 일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전후가 되어 만주 개척을 미화하는 경향이 강해져 있었다. 이러한 가토의 사상을 반영하여 척혼비는 건립되었다. 고치현의 ‘순난비’와 비교하여 ‘척혼비’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책에 대한 정신(挺身)과 순사라는 의미가 강하며, 전전의 ‘충혼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각지에서 건립되는 개척단 관계의 기념비는 ‘척혼비’가 가 되었다.

이런 특이성을 갖는 개척단의 기념비 가운데에서도 만주개척청소년의용대(만몽청소년의용군)의 위령비는 보다 첨예한 것이었다.

1978년 8월 15일 아키타현(秋田県) 호국신사 경내에서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위령비’의 건립 제막식이 행해졌다. 위령비 건립을 추진한 대표 다카하시 마사오(高橋政雄)는 만주 개척은 이상향 건설을 위해 행해진 ‘황국 소년의 자부심’이라고 자리매기는 한편,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고상한 이념을 부르짖었다¹²⁾.

이같은 침략의 정당화와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사상이 의용군의 위령비에 함께 내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용대원이 걸어간 역사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용대원은 전시에 실시된 황국사관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였다. 더욱이 패전 후는 내지의 같은 세대 청소년과는 달리 시베리아에 억류되는 등 가혹한 인생을 걸어왔다. 그리고 귀환 후에는 시베리아 출신(=공산주의자)이라는 사회의 편견을 겪는 등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한 의용대원은 적었다. 의용대의 위령비는 사춘기다운 사춘기를 보내지 못하고 늙어버린 그들의 역사적 비극을 비틀어진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에 극단적으로까지 추진된 황국사관 교육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단의 위령비는 전전에는 이상향 실현에 대한 헌신적 노력, 전후에는 세계평화의 상징,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패전시의 비극적 최후라는 도식이다. 원통하게 죽어간 개척단원에 대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고상한 이상으로 순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상징화로는 왜 그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가노현 요미가키(読書) 분촌 국민학교의 교원으로서 패전 후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마 히로미(相馬弘海)는 요미가키개척단 위령제의 조사에서 ‘요미가키개척단원의 60%를 넘는 사람들이 만주 땅에서 원통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자자손손 영원히 전하고 싶다. 전쟁 중에 오키나와에서도 비극이 많았지만 손을 내밀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요미가키개척단의 비극은 손을 내밀어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살아남은 자로서 개척단원의

10) 고치현의 만주개척순난비 건립 경위에 관해서는 三宮徳三郎『高知県満州開拓史』(高知県満州開拓史刊行會, 1970年) 참조. 비는 고치현 호국신사에 세워졌는데, 본래 계획은 다른 장소가 후보지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호국신사로 정해졌다. 이처럼 각지에서 위령비 건립을 거부당하고 최종적으로 호국신사로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11) 満洲開拓史刊行會編・発行『満洲開拓史』(1966年・増補版1980年).

12) 高清水碑會編・発行『鎮魂 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慰靈碑建立記念誌』(1979年).

원통한 죽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를 대변하였다¹³⁾.

오키나와 전투의 민간인 사망자보다 많은 희생자를 낸 만주 귀환, 그 다수가 개척단원이었다는 사실은 전후 일본사회 안에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부끄러운 마음을 전하여 일본인 전체의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만주 개척이라는 국책이 안고 있던 결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그들 살아남은 개척단원이야말로 고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위령비 또한 그러한 죽은 자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참된 것은 아니었다. 척훈비 비문의 제자를 만주이민정책의 최대 책임자인 가토 간지가 맡고, 전후에도 가토가 ‘만주 개척의 아버지’로서 개척단원, 즉 의용대원으로부터 숭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다수가 자발적이 아니라 마을 안의 사정에 의해 할 수 없이 만주로 건너간 개척단원의 비극을 생각할 때 보낸 쪽(마을에 남은 사람들)의 책임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간신히 살아 돌아온 도달한 고향에서는 개척단 송출을 둘러싼 책임문제가 터부시되고 말았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보면, 개척단의 위령비는 촌락 공동체 내부의 응어리와 책임론을 봉인하는 암묵의 교환조건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만주 개척단과 관계된 위령비에는 개척단원의 비극과 너무도 강렬한 비극성 때문에 덮여 버린 전쟁 책임의 소재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¹⁵⁾.

13) 中日新聞特別取材班編『風雪の日々今も－読書開拓団の50年』(中日新聞本社、1988年) .

14) 고치현 하타군(幡多郡) 도가와무라(十川村)(전후에 十和村이었다가 현재는 四万十町)는 1942년에 분촌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이 만주로 건너가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비뽑기가 행해졌을 정도였다(田辺末隆編『満州国第十二次集団万山十川開拓団史資料集』、十和村教育委員会、1981年、30-36頁). 궤전으로 374명이 사망, 145명이 간신히 귀환하는 고치현내 최대 희생자를 내었으나 전후에도 응어리는 소멸되지 않아 위령비는 건립되었지만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터부시되었다고 한다(「万山十川開拓団—その軌跡」『高知新聞』1983년 6월24-29일 연재) .

15) 만주개척단의 위령비 건립에 관해서는 역사편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편찬을 포함한 만주 관계자에 의한 역사편찬과 그것에 나타난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加藤聖文「満洲体験の精神史—引揚の記憶と歴史認識—」(劉傑・川島真編『1945年の歴史認識—<終戦>をめぐる日中対話の試み』(東京大学出版会、2009年) 참조.

満洲国崩壊と満蒙開拓団－「悲劇」をめぐる加害と被害

加藤 聖文

mifuyokiutoka@gmail.com

はじめに

1945年8月9日にソ連軍は日本への攻撃を開始し、満洲（関東州を含む）・朝鮮北部（北緯38度線以北）・南樺太（北緯50度以南）と北東アジア全域を占領するにいたった。大戦末期の満洲（満洲国および関東州）に居住していた日本人は約155万人を数えた。彼らは日ソ戦に巻き込まれて難民となり、戦闘終了後も本国への引揚が遅れたために多くの犠牲者を出した。その数は約24万5,000人（うち日ソ戦中は約6万人）にもものぼった¹⁾。とりわけ、ソ満国境近くに点在していた開拓団員ら（義勇隊・報国農場を含めて約27万人：うち壮年男子約4万7,000人が日ソ開戦時に召集）に被害が集中し、戦闘に巻き込まれるか近郊の都市へ避難するなかで約7万2,000人が死亡、約1万1,000人が未帰国（うち死亡推定者は6,500人）という悲劇をもたらした。

こうした犠牲者の多さと引揚体験の悲劇性によって、大戦後に始まった引揚に対して日本人が抱くイメージは、ソ連軍の無差別攻撃と現地人の襲撃によって逃げ惑い追い詰められて集団自決する開拓団員、シベリアへ連行される男たち、戦場から逃れても飢餓と伝染病で次々と倒れる難民、ソ連兵の暴行に怯える女性たち、そして戦後30年経って名乗りを上げる中国残留孤児、といったある一定の「型」として固定化されている。この型はメディアによって繰り返し流され、今なお再生産されている。

また、生き延びて引揚げて来た開拓団員にとって、引揚後の生活再建は困難であった。開拓団員は、満洲へ渡るに際して故郷の土地や財産を処分していたケースが多く、故郷での生活再建は難しかった。政府は緊急開拓政策によって開拓団員の再入植を行うが、ほとんどは耕作に適さない荒蕪地であったため彼らの農業経営は失敗した。このように戦後も困窮生活を強いられたことで開拓団員の被害者意識はより強固なものとなり、特殊な歴史観を形成するにいたった。歴史に翻弄された彼らの特異な歴史観は、慰霊碑として表象されていった。

本報告では、このような満洲開拓団をめぐる歴史を検証することで、引揚という歴史的体験が日本人の歴史観形成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のかを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

I. 満蒙開拓団の歴史的背景

1) 厚生省援護局編『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あゆみ』（ぎょうせい、1978年、891・197頁）。なお、これ以外に満洲から朝鮮北部への疎開者は約6万人、その内、約2万人が敗戦後に満洲へ戻ったとされる（厚生省の推計による。ちなみに、朝鮮北部からの引揚者総数は約30万人・死亡者約2万6000人。南樺太からの引揚者は密航による脱出を除いて29万人）。

1931年9月18日、関東軍は満洲事変を引き起こし、またたくまに満洲全域を支配下に入れた。そもそも満洲事変は、関東軍参謀であった石原莞爾が、戦史研究と日蓮教義から導き出された彼独特の思想である世界最終戦争論を抜きにしては語るができない。すなわち、来るべき世界大戦の勝者となるために、日本は満洲を手に入れ、高度国防国家を築き上げることが不可欠とされていたのである²⁾。

このように、軍事戦略上の必要性から引き起こされた満洲事変であったため、石原らは当初、満洲を日本が完全に支配する満蒙領有論を唱えていた。しかし、事変が拡大する中で、対外関係を意識する政府と陸軍中央は満蒙領有論に反対し、政治的せめぎ合いの中で傀儡国家建設という妥協が図られた。こうして誕生したのが満洲国である。

満洲国の誕生によって、石原ら関東軍幕僚が構想していた満蒙領有論は否定されたことになるが、その結果、今度は満洲移民構想が浮上することになる。

1932年3月に誕生した満洲国は、「五族協和」をスローガンにかかげて、満洲国を構成する五民族（日本人・満洲人・漢人・朝鮮人・蒙古人）は平等であるという理念を掲げた。これは中華民国の「五族共和」（漢・満・蒙・蔵《チベット》・回《ウイグル》の五族）に対抗するイデオロギーでもあった。

とはいえ、満洲国は日本人が実質的な支配者であり、なかでも関東軍が実権を握っていた。しかし、満洲国の全人口3000万人のうち、日本人はわずか20万人に止まり、圧倒的少数派という矛盾を抱えていた（大連を中心とした関東州は、日本の租借地であって、満洲国には含まれない）。

少数派の日本人が満洲国を支配するという矛盾を覆い隠し、五族協和が実現していると見せるためには、満洲国内の日本人を増加させる必要がある。石原は全人口の10%にあたる300万人は必要と考えていた。ただし、満洲事変前から在満日本人の中核であった都市住民（商工業者や会社員・官吏など）では、大量増加を見込むことは不可能である。そこで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が農業移民であった。

日本では明治以降の産業の近代化によって人口が急増し、農村の余剰人口は都市へと向かい、それでもあふれる人びとは移民となって海外へ渡っていった。のちに満蒙開拓団最大の送出県となる長野県は、もともと南米への移民が盛んに行われていた地域であった。

さらに、1929年に始まった世界大恐慌は、日本経済に大打撃を与えた。当時の日本経済は軽工業中心で、なかでも生糸が輸出の主力商品であったが、恐慌によって生糸価格が暴落し、養蚕業を現金収入としていた農家が経済的に困窮した結果、農村の疲弊が深刻化していった。

満洲事変はこうした背景のなかで起きたため、社会の閉塞感を感じていた人びとは満洲での軍事的成功に熱狂した。しかも、満洲事変後の日本経済は軍事費の膨張という裏付けのなかで上昇に転じ、国民の軍部に対する支持は高まっていった。

このような社会的背景のなかで、農村の立て直しに熱心であった農本主義者の加藤完治が、農村救済の方策として満洲移民を唱え、農林省次官の石黒忠篤や東京帝大教授の那須皓、京都帝大教授の橋本傳左衛門と結びつくなかで、満洲移民計画が具体化していった。

さらに加藤らの計画に移民行政を所轄する拓務省が着目した。弱小官庁であった拓務省にとって満洲移民は省益拡大をもたらすものであり、ここに加藤と拓務省の密接な関係が築かれることになった。

2) 満洲移民の送出経緯と武装移民から普通移民への転換に関しては、加藤聖文「満洲移民計画の形成と『国策化』」（『歴史評論』第719号，2010年2月）参照。

一方、関東軍では、満蒙領有計画が否定されるなかで1931年末には移民計画が持ち上がっていた。そして、1932年になると満洲国軍顧問として現地の治安肅正を指揮していた東宮鉄男（張作霖爆殺事件の実行犯）が在郷軍人主体の武装移民計画を石原に提起する。石原は東宮と加藤を連携させ、満洲移民計画は満洲国の治安維持を担う武装移民として実現した。しかし、1932年から始まった武装移民は、満洲の気候風土を無視し、現地民との協調もないまま強引に行われたため退団者の続出と現地民の武装闘争を招き、4年間かけて5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移民の成果は満足でき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しかし、武装移民計画の失敗は満洲移民計画を中止させる要因とはならず、逆に移民計画は武装移民から農民主体の普通移民へ転換し、規模も拡大した国策として遂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

1936年に起きた二・二六事件後に誕生した広田弘毅内閣は、農村対策として満洲へ20年かけて100万戸（500万人）を移民として送り込むという一大国家プロジェクトを決定し、政府が取り組む本格的な政策として満洲移民は「国策」となった。そして、全国の府県・市町村に対して移民送出の数値目標が設定され、移民送出の圧力が加えられていった。

全国の各地方では映画や講演会によって「王道楽土」満洲の宣伝が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市町村からは満洲への現地視察が行われ、王道楽土が本物といった報告書が氾濫した。こうして、多くの開拓団が結成されて満洲へ渡っていった。しかし、盛んな宣伝活動にもかかわらず、自発的に開拓団員となって満洲へ渡ろうとする人は少数派で、周囲の圧力を受けやすい貧しい小作農民が開拓団員に選ばれるケースが多かった。

このように嫌々ながら満洲へ多くの農民が渡っていったが、彼らが入植した土地は、原野ではなくすでに開墾された土地であった。日本では想像できなかった広大な農地を手に入れた彼らにとって、冬の厳しさを別にすれば確かに満洲は「王道楽土」であった。しかし、こうした農地は満洲国が現地人地主から安値で半強制的に買収したものであった。

満洲国ではソ連の計画経済に影響された産業開発五カ年計画を実施しようとしていたが、満洲移民も重要な政策の柱であった。しかし、実際に大量に移民が送り込まれることになると、満洲国は彼らの入植地を大急ぎで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その結果、安値で半強制的に農地を買収するという安易で簡便な方法が採られたのである。こうした事情を知らされないまま、日本では小作人として苦しんできた彼らは、広大な土地を手にす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開拓団によって土地を奪われた現地人（旧地主に雇われていた小作人）を小作人とし、たちまちのうちに地主化していった。

しかし、国策として開始された満洲移民計画は、開始早々から始まった日中戦争によって計画は大きく狂っていった。

戦争が長期化すると国内では政治や経済から文化までも戦争に総動員されていったが、農村の成年男子は相次いで戦場へ送り出され、満洲移民の目標数を確保できなくなっていった。そうしたなかで、兵役年齢に達しない青少年が目を付けられ、早くも1938年から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正式には満洲開拓青年義勇隊）が創設された。学校を通じて全国から集められた17歳前後の青少年は、親元から引き離され、加藤完治が運営する茨城県の内原訓練所などで基礎訓練を受けた後、有事の際には戦闘員となるべくソ連との国境近くにとんと送られていった。こうして日中戦争後の満洲移民は彼ら義勇軍が主体となっていった。そして、若い義勇隊員や開拓団員の満洲定着を図るため、今度は若い女性たちが「大陸の花嫁」として満洲へ渡っていった。

さらに、日中戦争の長期化は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戦争を中心とした経済構造が固定化されるなかで、すべての経済活動は戦争遂行に収斂されていった。産業合理化と経済統制によって廃業した中小商工業者のなかには、満洲移民となる人びとも出現した。この段階になると農業経験の有無は関係なく、社会矛盾のはげ口として満洲移民が利用されていった。その最終的なかたちが1944年以降の本土空襲によって家や財産や職業を喪った罹災者の満洲移民化であった。

II. ソ連軍の侵攻と開拓団の悲劇

1944年9月18日、大本営は関東軍に対して長期持久戦への転換を求め（大陸命第1130号）、関東軍は翌年1月17日までに連京線（大連-新京）・京図線（新京-図們）を防衛線として朝鮮との国境に沿った満洲東南部の山岳地帯での長期持久戦計画を策定した。すなわち、敗戦の半年前には対ソ戦に備えて多くの日本人開拓団が点在するソ満国境地域を放棄していたのである³⁾。

一方のソ連は、1943年11-12月に開かれたテヘラン会談において米英両国に対して対日参戦を約束し、翌年11月の革命記念日においてスターリンが敵対関係にはなかった日本を侵略国とはじめて名指しで非難、翌1945年2月にはヤルタ会談でドイツ降伏から2-3ヶ月後の対日参戦を決定、4月には日ソ中立条約の不延長を通告し、対日参戦の準備を整えつつあった。

ソ連の対日参戦準備と関東軍の防衛計画はほぼ同時期に行われていたが、関東軍は5月7日のドイツ降伏前後から極東ソ連軍が増強されている事実も掴んでいた。しかし、問題は実際の開戦時期の判断にあった。満洲の気候を考えると7月か8月の開戦は充分予想できたが、ソ連軍との戦力差が歴然としていたことを認識していた関東軍首脳部は、開戦は秋以降という希望的観測に囚われていたため対応が遅れたのである。

そうしたなか、5月30日になって大本営は関東軍に対して対ソ作戦準備の命令を下した。これによって関東軍は当初の計画に基づき全満洲の4分の3を放棄し、東部山岳地帯と朝鮮北部において対ソ持久戦に持ち込むための準備を開始することになる。さらに、兵力不足を補うために在満日本人の内、成人男性の大量動員（「根こそぎ動員」）を開始した。開拓団でも経営の中核であった成人男性の多くが召集されたが、これが開拓団の悲劇の一因へと繋がる。

なお、関東軍は1945年2月24日に「関東軍在満居留民処理計画」を策定し、辺境地区の老幼婦女子の退避と青壮年男子の召集を計画したことがあった。そして、日ソ開戦の危機が高まった5月以降になってこの計画の実施を協議したが、現地民の動揺とソ連軍の進入を誘発するとの理由から大本営が許可せず、計画は実現されなかった。すなわち、日ソ開戦直前には関東軍も大本営も開拓団を見捨てていたのである。

こうしたなかでソ連の対日参戦が起これ、開戦1週間で日本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た。日本政府はポツダム宣言受諾と同時に在外公館に対して在留民間人の現地定着を指示した。当時の日本は、輸送用船舶の不足・機雷による港湾封鎖・食糧と住宅の不足といった深刻な問題を抱えており、政府が兵士を含めて内地人口の1割近くにのぼる650万人を越す全ての海外在留日

3) 敗戦前後の関東軍の作戦計画については、加藤聖文「戦後東アジアの冷戦と満洲引揚-国共内戦下の『在満』日本人社会」（『東アジア近代史』第9号、2006年3月）参照。

本人の早期引揚は不可能と判断したのはやむを得なかったといえる⁴⁾。

だが、こうした政府の方針は、見通しの甘い観測に基づくものであったことがたちまちのうちに露呈することになる。満洲の残留日本人の被害状況については、現地出先機関や関東軍でも当初は戦闘中のため完全に把握できず、8月中は停戦協定の調印とソ連軍への行政権委譲といった戦争終結の手續きに関心が集中し、ソ満国境周辺の開拓団の悲惨な状況やソ連軍の軍紀が劣悪で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るのは9月に入ってからであった。

しかし、9月5日に関東軍総司令部はソ連軍によって完全に接收され、関東軍は消滅した。また、ソ連は対日参戦の際、ソ連軍総司令部は連合軍最高司令官の指揮下に置かれまいと一方的に宣言していたため、ソ連軍占領地域にアメリカが介入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このように、9月になって満洲の日本人は何の支援もないまま自力で生き延び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ていた。

ソ連軍の満洲侵攻は8月9日から始まったが、15日を過ぎても戦闘は続き、関東軍との停戦合意は19日になってからであった。しかし、その後も局地的な戦闘は各地で続き、東部国境にあった虎頭要塞で民間人を含む1900名全員が玉砕したのは26日であった⁵⁾。

この間に発生した民間人犠牲者の多くが開拓団員であった。開拓村は満洲国全域に散在していたが、多くはソ連国境周辺に集中していた。ソ連軍は国境周辺にある開拓村を軍事拠点と捉えており、火砲・戦車などの重装備で攻撃した。

また、ソ連軍の攻撃を受けなかった村でも現地人による襲撃によって犠牲者が続出し、集団自決が相次いだ。この現地人による襲撃は、一般的には土地を奪われた現地人の報復と言われているが、実態はより複雑である。

満洲国建国前の東北農地の大半は軍閥や地方有力者（中国人や満洲人）によって占有されていた。その下で中国人の小作人が農耕するという構図は日本の地主・小作の関係と大きく変わらない。そして事変後、中国本土に逃れた東北軍閥関係者（張学良など）の私有地は「逆産」として満洲国が接收した。これら接收農地は、開拓施策が実施されると開拓団に配分されたが、政策がより大規模化すると逆産だけでは足りなくなり、地主から土地を大々的に買収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際、買収価格が不当に安価であったことが彼らの不満を生み出し、反乱の起因となった。さらに、地主が土地を売ったことによって小作人は耕作地を失い、生活が困窮していった。このような不満を持つ地主や小作人が敗戦後、権力の後ろ盾を失い無力化した開拓団の財産（土地・建物といった共有財産から開拓団員の個人財産まで）を狙ったのは自然の流れであった。

現地人による開拓団の襲撃は計画的であり、またいくつかの集団が連携して行ったもので、必ずしも土地を追い出された現地人による報復といったものだけではなかった。また、村を離れて逃避行の最中に掠奪目的の襲撃に遭遇したり、現地人に避難を手助けされたり、襲撃にも遭わず長期間開拓村に残留するなど開拓団によってそれぞれ敗戦後のケースは様々であって、事情は大きく異なる。このような差異が生じた理由は、単純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少なくとも敗戦前までの開拓団員と現地人との関係（良好だったか、不良だったか、没交渉だったかなど）がなんらかの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

4) 敗戦後の現地定着方針とその崩壊については、加藤聖文「大日本帝国の崩壊と残留日本人引揚問題－国際関係のなかの海外引揚」（増田弘編『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慶應義塾大学出版会，2012年）参照。

5) 第2次大戦前にポーランドは、ソ連国境周辺にオサドニッツィという退役軍人主体の武装農民村を配置し、ソ連軍進攻時の抵抗拠点としていた。ソ連軍はポーランド侵攻の際、これらの村を真っ先に攻撃したが、ソ連側の認識からすれば満洲の開拓村もオサドニッツィと同じであった。

開拓団員の多くは8月中には現地を離脱し、ハルビン・長春など主要都市を目指すことになるが、避難途中または避難先（難民収容所）での死亡率が圧倒的に高く、その死因は伝染病（チフス・赤痢など）か栄養失調であり、乳幼児と老人の多くが死亡した。また、社会的立場の弱い子供や女性は現地人に売られることで生き残るしかなかった。彼らは後に中国残留日本人として1970年代以降、その存在が明らかとなる。さらに、根こそぎ召集によって兵士となった開拓団員や義勇軍に属していた青少年はソ連軍に抑留され、シベリアへ送られていった。

もともと満洲に居住していた日本人は、都市で恵まれた生活を送る住民（官吏や会社員、商工業者）と農村で厳しい生活を送る開拓団員の2種類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彼らの生活レベルはあまりにも違っており、敗戦前はほとんど交流が無かった。敗戦後になって開拓団員が難民として都市に流入し、彼らへの食糧・衣服支援などを通じて初めて両者の接触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が、決して対等な関係ではなく経済的な格差は歴然としていた。すなわち、難民となった開拓団員は逃避行の途中でほとんど財産といえるものを失っていた。一方、都市に居住していた日本人はソ連占領軍による暴行掠奪の被害はあったものの、基本的な住居・衣服・財産を依然として所持していた。とくに満洲国崩壊後の満洲ではソ連軍・国民政府・中国共産党それぞれが発行した紙幣が流通していたが、なかでもっと強かったのは満洲国時代に流通していた国幣（満洲国中央銀行券）であったため、短期的には日本人の生活は一定程度保障されていた⁶⁾。

満洲引揚者の死亡率は全体で16%であったのに比して、開拓団に限ると死亡率は30%と2倍近くにのぼる。この数値の差は、日ソ開戦後から引揚までの間、開拓団員の置かれた環境がいかに過酷であったかを証明しているといえる。

Ⅲ. 生き残った開拓団員の戦後

満洲から引揚げて来た開拓団員にとって戦後の生活再建は容易ではなかった。政府は食糧不足解消のために1945年11月に緊急開拓事業実施要領を閣議決定し、復員兵士や空襲罹災者、そして引揚者を対象として皇室御料地・軍用地の農地解放と未耕作地への入植を推進した。

開拓団員は渡満する際、財産を処分していたため、引揚後の生活基盤が失われているケースが多かった。そのため、開拓団員が緊急開拓政策の中核となり、未耕作地へ入植していったが、この時点まで未耕作地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農作物が生育しない土地であるか交通途絶の山奥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結局、高度経済成長に適応した高原野菜や乳業への転換が図れなかった多くの入植者は経済的に困窮し、日本社会の発展に取り残されていった。

このように、開拓団員の戦後は報われるものではなかった。そうした不遇のなかで彼らは独特の歴史観を抱くようになり、それが表象されたのが慰霊碑であった⁷⁾。

敗戦後に満洲で犠牲となった者は25万人近くにのぼるが、その多くは満洲に埋もれたままであった。戦後の国共内戦と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によって、日本人が再び満洲へ渡ることは不可能となり、犠牲者の遺骨収集も実現されなかった。そうしたなかで慰霊碑を建立して犠牲者を供養することが生き残った者たちの大きな責務となっていた。

6) 満洲国崩壊後の在満日本人の生活に関しては、前掲「戦後東アジアの冷戦と満洲引揚」参照。

7) 海外引揚に関わる記念碑に関しては、加藤聖文「引揚者をめぐる境界—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安田常雄編『シリーズ戦後日本社会の歴史 4 社会の境界を生きる人びと』（岩波書店，2013年）参照。

開拓団犠牲者の慰霊碑は1940年代末頃から各地で建立され始めた⁸⁾。ただ、この頃の慰霊碑は本来的な死者に対する供養塔であって、政治的主張や歴史観は見られない。何らかの政治的主張や歴史観を反映した慰霊碑が建立されるようになるのは、1950年代半ば以降であり、「慰霊碑」から「殉難碑」へと大きな転換が見られた。

こうした慰霊碑の性格転換の背景には、在外私有財産国家補償請求運動という政治運動があったことを見落としてはならない。引揚によって失った在外私有財産の補償を日本政府に求める動きは、1946年11月29日に引揚者団体連合会（全連）が結成されてから始まるが、当初進められてきた在外私有財産返還要求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よって日本は海外に残してきた日本資産を放棄したため挫折し、1952年11月16日に全連の行動団体として在外資産補償獲得期成同盟（外資同）が結成されて、国が引揚者に対して失われた私有財産に相当する補償金の支払いを求める在外私有財産補償請求へと転換した⁹⁾。

しかし私有財産補償要求へと運動が転換したことが、引揚者の中の分裂を引き起こした。全連が推進した在外私有財産補償請求運動に対して元開拓団員が結成していた開拓自興会は積極的に加わらなかった。実は、明治期から満洲や朝鮮などに渡って土着化しそれなりの財産を蓄えていた人々とは違って、国策によって満洲へ送り込まれた開拓団員にとって私有財産と呼べるような蓄えはほとんど無かった。むしろ、渡満前に土地や建物を精算してしまったために帰国後は定着先が無く、政府による新しい入植地斡旋と入植後の支援が切実な問題であった。さらに、引揚犠牲者の大半を占め悲劇を一身に背負っている開拓団員は国家による補償よりも犠牲者に対する慰霊と顕彰をもっとも強く望んでいた。ここに同じ引揚者でも開拓団員とそれ以外のものとの決定的な相違が見られたのである。

開拓団員とその他の引揚者との分裂を象徴したのが高知県の事例である。1954年9月に高知県在外引揚者大会が開催されたが、そこでの中心議題は在外私有財産補償要求であった。しかし、その場に列席していた高知県開拓民自興会長福留福太郎は、補償要求促進決議一色の会場に対して強烈な違和感を表明し、犠牲者への哀悼が何ら示されないことを批判し、これを機に自興会独自で「殉難者同志を犬死にさす事」のないよう神社と碑の建立を決定した。そして、1956年7月14日、元大東亜大臣であった青木一男の揮毫による「満洲開拓民殉難之碑」と開拓神社の除幕式が高知県護国神社境内にて取り行われた。開拓団に関わる記念碑の多くはこの「殉難碑」または「拓魂碑」であるが、この碑名から単なる一個人の供養ではなく、国策として進められた満洲移民という国家事業に殉じた顕彰の意味合いを強烈に含んでいることが理解できる¹⁰⁾。

高知県での動きに次いで、1957年12月に開拓自興会は、築地本願寺で行われた十三回忌法要で殉難碑建立計画を発表した。そして、1959年8月10日に東京多摩地区の聖蹟桜ヶ丘に「拓魂碑」を建立し、この地は開拓団の「聖地」となった¹¹⁾。しかし、この碑の命名者で自ら題字の筆を取ったのは満洲移民の生みの親といわれた加藤完治であった。加藤は戦後も農本主義者と

8) 代表的なものは旧南信濃開拓団が建立した長野県阿智村長命寺の「殉難者供養碑」（1949年4月15日）で、これは地蔵型で何の説明文もないものである。

9) この問題は、1957年5月17日に「引揚者給付金等支給法」が成立し補償ではなく見舞金が支給されることで結着したが、全連が求めた要求は実現されず運動は失敗した。

10) 高知県の満洲開拓殉難碑建立の経緯については、三宮徳三郎『高知県満洲開拓史』（高知県満洲開拓史刊行会、1970年）参照。なお、碑は高知県護国神社に建てられたが、当初の計画は別の場所が候補地であり、紆余曲折の末、護国神社となった。このように各地で慰霊碑建立を断られて最終的に護国神社になるケースは以外と多い。

11) 満洲開拓史刊行会編・発行『満洲開拓史』（1966年・増補版1980年）。

して農業学校を經營していたが、彼の言動からは国策として行われた満洲開拓への反省は一切見られず、むしろ戦後になって満洲開拓を美化する傾向が強まっていた。そのような加藤の思想を反映して、拓魂碑は建立された。高知県の「殉難碑」と比べて「拓魂碑」はより積極的な国策への挺身と殉死という意味合いが強く、戦前の「忠魂碑」に通ずるものであった。そして、これ以後、各地で建立される開拓団関係の記念碑は「拓魂碑」となっていった。

こうした特異性を持つ開拓団の記念碑のなかでも満洲開拓青年義勇隊（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の慰霊碑はより先鋭なものとなっていった。

1978年8月15日に秋田県護国神社境内で「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慰霊碑」の建立除幕式が執り行われた。慰霊碑建立を進めた代表の高橋政雄は、満洲開拓は理想郷建設のために行われた「皇国少年の誇り」であると位置づける一方で「世界の恒久平和」を祈るためと高邁な理念を掲げていた¹²⁾。

このような侵略の正当化と世界平和を祈るという相矛盾する思想が義勇軍の慰霊碑には同居しているが、そこには義勇隊員の辿ってきた歴史が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義勇隊員は、戦時中に進められた皇国史観教育にもっとも強い影響を受けた世代であった。しかも、敗戦後は内地の同じ世代の青少年と違ってシベリヤに抑留されるなど過酷な人生を歩んだ。そして、引揚後はシベリア帰り（＝共産主義者）という社会の偏見にさらされ、満足できる生活を送った義勇隊員は少なかった。義勇隊の慰霊碑は、思春期らしい思春期を送らずに老成してしまった彼らの歴史的悲劇をゆがんだ形で表わしており、戦時中に極端なまでに進んだ皇国史観教育の負の遺産であるといえる。

開拓団の慰霊碑は、戦前は理想郷実現への献身的な努力、戦後は世界平和の象徴、そして間を繋ぐものが敗戦時の悲劇的最期という凶式になっている。無念の想いで死んでいった開拓団員に対して生き残ったものたちがその死を「犬死」とさせないためには、何らかの高邁な理想への殉死と位置づけようとするのは自然な感情ともいえる。しかし、このような死の抽象化では、なぜ彼らが死な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という具体的な原因を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

長野県読書分村国民学校の教員として敗戦後も奇跡的に生き延びた相馬弘海は、読書開拓団慰霊祭での弔辞において「読書開拓団員の六割を超える人々が満州の地で無念の死を遂げた事実を、子々孫々に永遠に伝えたい。戦争中の沖縄にも悲劇が多かったが、手を上げれば命は助かった。読書開拓団の悲劇は手を上げても助からなかったことなのです」と生き残った者として開拓団員の無念の死をくみ取って語り継がねばならない責務を代弁している¹³⁾。

沖縄戦の民間人死者よりも多くの犠牲者を出した満洲引揚、その多くは開拓団員であった事実は戦後日本社会のなかで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その忸怩たる想いを語り伝え日本人全体の記憶としていくには、彼らの死をいたずらに抽象化してはなるまい。本来必要なことは満洲開拓という国策が抱えていた欠陥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り、彼ら生き残った開拓団員こそ告発者たり得たのである。

しかし、戦後においてその責任の所在は明らかにされなかったし、彼らもその声をあげ得なかった。慰霊碑もまたそのような真の死者の声に応えたものではなかった。拓魂碑の題字は満洲移民政策の最大の責任者であるはずの加藤完治によるものであって、戦後も加藤は「満洲開拓の父」として開拓団員、とりわけ義勇隊員から崇め奉られていたことからそれは明らかで

12) 高清水碑会編・発行『鎮魂 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慰霊碑建立記念誌』（1979年）

13) 中日新聞特別取材班編『風雪の日々今も－読書開拓団の50年』（中日新聞本社、1988年）

あろう。

また、多くが自発的ではなく村内の事情によってやむなく渡満していった開拓団員の悲劇を考える場合、送り出した側（村に残ったものたち）の責任問題に触れざるを得なくなる。しかし、かろうじて生き延びてきた開拓団員がたどり着いた故郷では、開拓団送出をめぐる責任問題がタブー視されてしまった。そういった面から考えると、開拓団の慰霊碑は、村落共同体内部のわだかまりと責任論を封印するという暗黙の交換条件によって建立されたという側面もあったといえる¹⁴⁾。

満洲開拓団に関わる慰霊碑には、開拓団員の悲劇と余りにも強烈な悲劇性の故に覆い隠されてしまった戦争責任の所在という問題を抱えているのである¹⁵⁾。

14) 高知県幡多郡十川村（戦後に十和村を経て現在は四万十町）は1942年に分村に指定されたものの村民が渡満に消極的であったため一部の集落では籤引きが行われたほどであった（田辺末隆編『満洲国第十二次集団万山十川開拓団史資料集』、十和村教育委員会、1981年、30-36頁）。敗戦によって374人が死亡、145人がかろうじて帰還するという高知県内最大の犠牲者を出したが、戦後において村内のわだかまりは解消されず、慰霊碑は建立されても責任論を公言することはタブーであったという（「万山十川開拓団—その軌跡」『高知新聞』1983年6月24-29日連載）。

15) 満洲開拓団の慰霊碑建立に関しては、歴史編纂事業が同時に進めら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うした歴史編纂を含めて満洲関係者による歴史編纂とそこにあらわれる歴史認識については、加藤聖文「満洲体験の精神史—引揚の記憶と歴史認識—」（劉傑・川島真編『1945年の歴史認識—<終戦>をめぐる日中対話の試み』（東京大学出版会、2009年）参照。

패전직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인식의 형성

-재외재산조사회 설치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I. 들어가는 말

식민지 통치에 관련된 일본 패전 후의 “총괄”로서 가장 먼저 상기되는 것은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1947년 6월경부터 편찬 작업 시동, 그 해 12월경 탈고, 1949~1950년까지 인쇄. 이하 『역사적 조사』)이다. 이는 대장성과 외무성 공관 기관인 재외재산조사회(1946년 9월 1일 설치)아래 구 식민지의 통치기구·기업관계자나 연구자가 관여하여 편찬되었다. 내용은 「총론」 「조선편」 「대만편」 「사할린편」 「남양군도편」 「만주편」 「북지(北支)편」 「중남지편」 「해남도편」 「남방편」 「구미기타제지역편」의 11편, 전37책으로 구성된다. 『역사적 조사』는 일본 패전 이전의 식민지·점령지·이민지에서서의 관민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두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통치 방식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묶어 낸 것이다.

『역사적 조사』의 「서문」에는 일본 패전까지 축조된 “재외재산”은 “일본 및 일본인이 해외에서 행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이며, 그 “생성 과정”은 “회자되듯이 제국주의적 발전사가 아니며, 국가 혹은 민족의 침략사도 아니다”라고 한다[사료 1]. 『역사적 조사』 「조선편」의 각 논고에서도 곳곳에서 보이듯이, 식민지 등에서의 경제활동·통치총체에 대한 평가는 일본의 통치가 식민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시혜론》과 일본 본국과 식민지 등의 수지 관계는 일본 본국에서 식민지 등으로 흘러 간 돈이 웃돈다는 《반출론》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시혜론》과 《반출론》(《시혜론》 자체는 일본패전이전부터 이미 나왔지만)는 그 후 일본에서도 식민지 통치의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재생산이 반복되고 있다(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망언’의 원형(증보 3판)』 헤이본샤, 2002년).

따라서 『역사적 조사』는 패전 이후 일본의 아시아 인식의 원형으로 파악된다. 『역사적 조사』에 대해 다카사키 소지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일본 측이 자주 토로한 조선 통치 인식의 선구적 계보 안에(다카사키 소지 「한일 회담의 경과와 식민지화 책임-1945년 8월~1952년 4월」 『역사학 연구』 545, 1985년 9월. 동 『검증 한일 회담』 이와나미 신서, 1996년),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는 “전후 일본인의 아시아 인식의 출발점”으로(고바야시 히데오 『일본 기업의 아시아 전개』 일본경제평론사, 2000년) 규정했다. 한편 『역사적 조사』 「조선편」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眞人)가 조선 관계의 전직 관료·학자·기업단체에 의해 앞서 진행된 조사 활동이 재외재산조사회 설립 후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위를 밝혔다(나미키 마사히토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 편·보론-『일본인의 해외발전에 관한 역사적 조사』 및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연구조사』를 중심으로」 이무라 데쓰오(井村哲郎) 편 『1940년대의 동아시아-문헌해제』(아시아경제연구소, 1997년).

본고에서는 일본패전 직후 단계에서 『역사적 조사』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발상이나 논점이 중앙 관청·관련 기업단체·조선 관계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외재산조사회에 의한 『역사적 조사』 편찬을 통해 일정한 인식으로 다듬어지는 과정 및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관계자의 존재에 대해 검증한다.

II. 외무성에 의한 조사활동

패전을 맞은 일본에게 식민지의 분리는 배상에 대한 대응 및 국내 경제의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송병권 「일본의 전후 경제재건 구상과 조선 인식의 연속성」 (『아세아연구』 제141호, 2010년)참조). 관계성청에 따른 배상대책자료 작성 시에 식민지 등에 일본이 보유한 재외 재산의 “자산 총액”·“자산 평가액” 산출은 대장성이, 식민지의 실함에 의한 “물자자급률의 영향”과 “우리 나라 경제력에 미칠 영향”을 외무성이 담당하게 되었다(외무성 조사국 「배상관계 기초자료 및 연구사항 목차 및 분담표」 1945년 11월 15일 정정). 외무성 「해외자산상실에 수반되는 영향과 대책」(1945년 10월 25일)에서 언급되는 필요 연구사항 가운데는 「외지 및 점령지에서의 우리 측 기여의 구체적 분석(농업 생산력 증대, 공장, 광산, 운수 시설 등 건설, 교육 보급)」「내지와 단절된 조선경제의 동향」「조선경제의 일본 내지의존도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대장성 재정사실 편 『쇼와 재정사-종전 이후 강화까지』 제1권, 동양경제신보사, 1984년 237쪽 ※중복인용). 식민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기여”라는 논점이 배상문제와의 관계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 외무성에서는 조사국이 학식자들에게 의뢰하여, 조선통치의 성격과 조선경제의 향후 전망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잇달아 정리하였다. 사사오 노부오(佐々生信夫)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 조선 통치정책의 성격과 문제』(1945년 12월), 스즈키 타케오(鈴木武雄)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1946년 3월), 스즈키 다케오 『“독립” 조선경제의 장래』(1946년 6월)가 그에 해당한다. 사사오 노부오에게 위촉한 것이 1945년 9월이다(전계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 조선통치정책의 성격과 문제』에 수록된 외무성 조사국제3과 「머리말」).

1946년 2월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경성제국대학·타이베이제국대학 등에 소속경험이 있는 학식자를 포함하여 외무성 주최의 “외지경제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 석상에서는 조선통치의 성격을 두고 사사오 노부오(도쿄산업대학 강사)와 스즈키 다케오(전 경성제국대학교수)의 견해가 대조를 이뤘다. 사사오노는 “본질적으로는 역시 영국의 인도통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식민지 통치의 일반적 성격을 일본의 조선통치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료 2-④]. 이에 대해 스즈키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특히 조선통치가 소위 제국주의적인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통치에 보이는 특수적인 측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사료 2-⑤]고 반박했다(외무성 조사국 「외지경제간담회의사 개요」 1946년 2월 8일).

이어 스즈키 타케오는 “‘일본’을 변호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취만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륙진출 자체도 우리 나라로서는 실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사료 2-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일본의 대륙진출은 모두 제국주의적이며 착취였다”는 주장을 “목인한 것이 되며 장래에도 일본인이 필

요이상으로 주눅 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자료 2-⑤]. 한편, 다이라 데이조(平貞藏, 전 만철 촉탁)는 식민지통치의 성격을 파악하는 의의로 배상문제 등과 함께 “금후 일본이 대륙 등에 진출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전철을 ○(○은 관독곤란 부분. 이하 동)하지 않기 위해, 또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장래 이들 지역과 결부될 필요가 있다면 오해에서 오는 장애가 제거되어 한층 더 결부되기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료 2-⑥]. 이는 아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치와 점령의 역사를 둘러싸고 아시아에서 예상되는 “오해에 의한 장애”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식민지통치에 대한 파악의 방향성이 배상문제 외에 일본패전까지의 역사적 경위에 대한 “자학적”자세의 저지와 아시아로의 경제적 재진출이라는 과제까지 생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해외사업전후대책중앙협의회의 조사활동

배상관계에서 재외재산문제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식민지 등에 경제기반을 구축했던 기업 관계자였다. 조선사업자회(1945년 11월 1일 창립)를 비롯해 지역단위의 기업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들 기업연합체의 횡단적 조직으로서, 1945년 11월 30일 해외사업전후대책중앙협의회(이하 중앙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주된 활동 내용은 식민지 등의 분리에 따른 업무정지나 재산동결 등에 대처, 재외재산 조사연구, 재외재산 보상과 관계자의 ‘갱생’지원에 관한 정부에 대한 요청 등이었다(선재원(宣在源) 「귀환기업단체의 활동-전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경제 복귀과정」, 하라 아키라(原朗)편 『부흥기의 일본경제』 동경대학출판회, 2001년). 협의회에는 지역별 부회와 업태별 부회가 있는데, 전자는 사할린부회(사할린사업자회), 조선부회(조선사업자회), 대만부회(대만사업협회), 남양군도부회(남양군도관계회사연락협의회), 만주 부회(만주관계사업연락회), 북지부회(화우회), 중남지부회(일화경제협회), 남방부회(남방농림협회), 구미 호인등부회(요코하마정금은행), 후자는 무역부회(미쓰이물산), 금융부회(요코하마정금은행), 토건부회(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 외지대책위원회), 담배부회(해외담배업자협의회), 섬유부회(재화일본방적동업회)로 구성되었다.

1946년 3월, 외무성 관리국 관계자도 포함되어 열린 중앙협의회 제9차 이사회에서 “우리 나라 해외사업의 종래 활동상황을 구체적 사례에 대해 조사수집하고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정확한 관념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는 요망이 “중요하고 적절한 제안”으로 평가되어 준비착수에 합의하였다(「중앙 협의회 제9회 이사회 의사요록」 1946년 3월 29일). 그리고 그 해 4월 중앙 협의회 제10차 이사회에서 조사 취지를 둘러싼 논의를 거쳐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및 활동상황조사」에 관한 의뢰문이 산하 단체로 발송되었다.

조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원래 식민지 등에서의 기업 활동은 “어디까지나 공존공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발족, 육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중에 군부에 의해 이용당한 사태만을 가지고 어찌됐든 그 발전동기가 당초부터 군사침략을 의도한 것처럼 곡해되어”, 그 탓에 “배상자산의 국가보상에 관련하여 내외의 이해와 동정을 잃고 있는 것은 자못 유감”이기에, “다년에 걸쳐 상대국과 주민의 경제개발, 민생향상에 공헌한 일”을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하여 입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 보고를 원한다[**사료 3-②**]는 것이 중앙협회의 요청이다(해외사업전후대책중앙협의회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및 활동상황조사에 대하여」 조선부회 앞, 1946년 4월 11일). 조사 요령이나 조사항목[**사료 3-②·③**]에는 특히 “현지주민”이나 “현지민생”에 대한 “기여”와 “좋은 영향”에 대해 “구체적 사례”나 “계수적”인 “비교설명”을 통해 밝히는 데 비중을 두었다(전계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및 활동상황조사에 대하여」 / 중앙협의회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조사 건」 조선부회 앞, 1946년 6월 15일). 기업활동의 “본래의 평화적 성격”을 “입증” 하기 위해 “기여”나 “좋은 영향”의 “사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어 중앙협의회 제10회 이사회의 논의[**사료 3-①**]에서 조사의 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 주목된다(「제10회 중앙협의회 이사회 의사요록」 1946년 4월 12일).

“이것은 취지가 취지인 만큼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잘못하면 우리들의 침략사를 기록한 것이 될 것이다. 상당한 학자와 식자가 고민하여 취사선택을 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제출받아 가장 입맛에 맞게 조합했으면 한다.”

“...전쟁중에 기여했다, 해외에서 착취했다, 일본의 팽창정책에 기여했다, 등등의 말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삭제한다는 취지이길 바란다. 전쟁 전부터 일본의 평화발전을 위하여 해외에서 특히 현지주민의 민생을 위하여 기여했다는 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조사에 대한 정리에서 “침략”이나 “착취”등의 요소를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취사선택”을 한 데이터를 “가장 입맛에 맞게 조합”하여 논지를 세우라고 서술되고 있다.

덧붙여 조사보고서는 “우리 나라 해외사업의 평화적 성격 조사보고서 편찬위원”이 1947년 5월에 완성하여, 원고는 외무성과 대장성에 제출했다(「중앙협의회 이사회요록」 1948년 1월 9일, 중앙협의회 『이사회 요록』 / 「본국 경제 및 상업단체관계 잡건 해외사업전후대책 중앙협의회」, 외무성 기록 제5차 공개분)고 하지만, 실제 보고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다만 상술한 조사취지는 중앙협의회가 관계각료·귀중 양원의장에게 제출한 「재외자산의 국가보상에 관한 진정서」(1946년 7월 27일)에 활용되었다.

IV. 일본패전직후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활동

외무성 등의 중앙관청, 그리고 일본 패전 직후부터 식민지 등에 연루된 학자들과 기업단체들은 각각 접점을 가지고 있었고, 3자는 각각 의도를 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해외재산조사의 조사활동에 규합되면서 그 안에서 일정한 인식을 만들어 간다. 이 3자를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핵심인물의 한 사람으로 스즈키 다케오를 들 수 있다.

스즈키 다케오(1901~1975년)는 재정·금융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로, 패전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지냈고 나중엔 동경대학교수와 무사시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에는 전쟁 수행상 조선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전시기의 스즈키 다케오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송병권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민족문화연구』 제37호, 2002년)참조).

스즈키는 서울에서 패전을 맞아하고 11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사사오 노부오의 보고서에 「독후감」을 투고한 것으로 보면 귀국 직후부터 외무성과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외지경제 간담회” 참가와 외무성의 보고서 작성 위촉이 이어

져[**사료 4**], 외무성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46년 3월에 들어서면 조선사업자회와의 접촉이 확인된다. 조선사업자회에서는 이즈음 조선에서의 일본기업의 활동이 대동아전쟁 이전부터 조선개발, 민생복리증진에 공헌하였고, “일시적으로 군벌로부터 침략전쟁에 이용당했음에 지나지 않은 실정”을 밝히기 위해 “구체적 자료”의 편찬을 생각했다(『조선 사업자회 회보』 제1호, 발행 연월일 기재 없음). 조선사업자회의 조사의뢰를 받은 스즈키는 조선사업자회 이사회(3월 25일)석상에서 “조선통치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보면 결코 침략주의적, 제국주의적 이념에 따라 다스렸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함과 동시에 “관계요로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참고자료의 복안”을 피로했다(『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호, 연월일 기재 없음). 조선사업자회는 회보지에 스즈키의 “복안”을 소개하고 소속기업에 자료제공을 호소한다(앞과 같음.) 한편 이 시기에 조선사업자회 광업부회에서는 “성대교수(스즈키 다케오)의 논문을 골자로 하여 각 사로부터 재료를 정비할 것을 중앙협의회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한다”라고 보고되었다(「제10회 조선사업자회 광업부회 보고사항 및 의제」 1946년 3월 27일 「부회관계」 첩). 이는 조선사업자회를 통해 스즈키의 견해가 조사활동의 “골자”로서 중앙협의회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후 스즈키의 “복안”은 일본통치 하에서 조선경제의 발전과 착취여부를 둘러싼 내용 등을 논점으로 하여 『조선산업의 발전과 재선(在鮮)일본계 기업』으로 정리되었다(1946년 4월). 또 조선사업자회가 작성한 『재외재산 보상요청에 관한 자료』(1946년 7월)에는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을 주장하는 스즈키의 기고문이 수록되었다[**사료 4**]. 조선사업자회에게 스즈키는 자신들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하여 이해를 대변해 주는 존재로서 비쳐졌던 것이다

또 스즈키는 구 조선총독부 관계자 조직인 구우구락부(舊友俱樂部)와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구우구락부에서는 “조선시정의 기록”의 작성을 사업으로 기획하고 기획주임으로 스즈키를 추천하였다(『구우구락부 회보』 제1호, 1946년 8월 5일). 구 조선총독부 관계자 그룹에서도 당초부터 스즈키가 조사·연구 면에서 주도적 인물로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조선 시정의 기록”의 집필예정자에는 『역사적 조사』 「조선편」 담당자와 겹치는 사람이 많다[**사료 4**, **사료 6**].

스즈키 다케오는 외무성 등 중앙관청, 조선관계의 민간기업, 구 조선총독부 관계자와 모두 접점을 가졌으며, 각 방면을 그 3자를 주선하는 결절점으로서 위치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스즈키는 행정 기구·관계자·자료를 이어주는 조직화 측면, 그리고 식민지 통치 인식에 관한 이론구축 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스즈키가 외무성과 조선사업자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대되는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스즈키의 “정책적 현실적인 입장”(전계 「외지경제 간담회 의사개요」)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관련 연구로 송병권 「스즈키 다케오의 조선통치론, 전전과 전후적 맥락」(『대구사학』 제115호, 2014년)이 있지만 이번에는 참조하지 못했다).

V. 맺음말

1946년 8월 중앙협의회 제19차 이사회 석상에서 대장성 측이 중앙협의회에 대해 배상문제 대책과 관계하여 재외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의향을 보였고(『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2호, 1946년 8월 26일), 중앙협의회의 “노력적 봉사협력”을 요청했다(『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4호, 1946년 9월 9일). 정부에 “그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 적다”는 점과, “민간

측의 자료수집”을 추진하는 데 관련기업단체의 협력은 불가결한 것이었다(『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 1946년 10월 7일). 1946년 9월 1일 해외재산조사회가 설치되자 중앙협회의 조직과 인력을 인재를 그대로 옮겨놓는 형태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즈키 다케오에 대해서는 1947년 상반기에 대장성 관리국에서 『역사적 조사』 편찬에 대한 협력 및 편집위원 추천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복각간행 중지 가치분집행사건자료집』 제2집,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의 간행을 추진하는 모임 사무국, 1974년 36쪽). 또 이와 동 시기에 구우구락부에서 실시 좌절되었던 「조선통치의 결산보고서」(「조선시정의 기록」과 동일문건?)작성 작업이 대장성의 보조를 받아 스즈키를 중심으로 속행이 전망되어 이것이 『역사적 조사』의 「조선편」으로 편입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나미키 마사히토·전계 논문).

재외재산조사회는 재외재산에 관한 자료수집 및 평가액 추계의 산출을 첫 번째 과제로 했지만, 재외 재산의 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재산이 축적된 역사적 경위와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작업으로 떠올랐다. 그것이 『역사적 조사』의 편찬이며, 양자는 표리일체의 작업이었다. 『역사적 조사』의 편집위원이 「총론」부분의 집필 방침을 놓고 벌인 논의[사료 5-①·②]에서는 상술한 견해와 시각이 답습되고, 집약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 논의에서 발견되는 것은 일본패전 이전의 일본의 대외팽창은 순수한 경제활동의 축적이고, 침략적 요소는 어디까지나 한정적으로 본질이 아니며, “자학적”인 역사인식은 부인되어야 하고, 일본의 통치는 현지에서 “민도의 향상”에 기여한 것이며 일본과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결합은 한 시기의 “침략”이나 “전쟁”에 의해서 단절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는 인식이다(「제1회 편집회의 기록」 1947년 7월 14일 및 「총론의 집필방침」, 「역사적 조사 관계 조선 부회」 철). 그리고 이들 요소는 이 글 첫머리에서 제시한 『역사적 조사』의 「서문」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내용으로부터 일본패전 직후 식민지 등의 통치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다.

(1) 패전직후 『역사적 조사』 편찬 이전 단계부터, 각 방면의 조사활동을 통해 이후의 역사인식의 원형·골자가 되는 발상·논점이 이미 준비되었다. 당초에는 단발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중앙관청·기업단체·학식경험자의 상호교류 안에서 일정한 인식이 형성되어 갔으며, 그 집대성이 『역사적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2) 이러한 통치인식 형성에 있어서는 재외재산을 둘러싼 배상·보상 문제가 끼어 있었던 점 외에, 아시아로의 경제적 재진입, “자학적”자세의 배제 등의 현실적 과제가 크게 의식되는 등, 일종의 작위가 작용하였던 흔적이 있었다. 패배와 함께 일본의 관민 관계자에게 밀어 닦친 다양한 현실문제가 이러한 인식을 필요로 한 측면이 있었다.

(3) 이러한 통치인식 형성에 이론화·조직화의 양면에서 조선관계자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스즈키 다케오는 그 이론적 지주인 동시에 각 방면의 결절점이 되는 존재였다. 또 기업단체의 조사활동에서도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사업자회가 중앙협회에 조금 앞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敗戦直後の日本における植民地統治認識の形成

一在外財産調査会設置までの時期を中心に

宮本正明

I. はじめに

植民地統治に関わる日本敗戦後の“総括”として第一に想起されるのは、『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1947年6月頃から編纂活動始動、同年12月頃脱稿、1949～1950年にかけて印刷。以下、『歴史的調査』）である。これは、大蔵省と外務省の共管機関である在外財産調査会（1946年9月1日設置）のもと、旧植民地等の統治機構・企業の関係者や研究者の関与を得て編纂された。内容構成は「総論」「朝鮮篇」「台湾篇」「樺太篇」「南洋群島篇」「満洲篇」「北支篇」「中南支篇」「海南島篇」「南方篇」「欧米其他諸地域篇」「総目録」の11編、全37冊である。『歴史的調査』は、日本敗戦以前の植民地・占領地・移民先における官民の経済活動を中心に据えつつ、当該地での統治のありかたも含めて包括的にまとめたものになっている。

『歴史的調査』の「序」には、日本敗戦までに築かれた「在外財産」は「日本及び日本人の海外に於ける正常な経済活動の結果」であり、その「生成過程」は「言はるるような帝国主義的發展史ではなく、国家或は民族の侵略史ではない」と述べられている【史料1】。『歴史的調査』「朝鮮篇」の各論稿でも随所に散見されるように、植民地等での経済活動・統治総体に対する評価は、日本の統治が植民地等の経済的發展に貢献したとする《施恵論》や、日本本国と植民地等の収支関係は日本本国から植民地等へのカネの流れが上回っていたとする《持ち出し論》などを基調としている。《施恵論》や《持ち出し論》（《施恵論》自体は日本敗戦以前から既に見られたものであるが）は、その後の日本においても、植民地統治の歴史認識をめぐって再生産が繰り返されている（高崎宗司『「妄言」の原型（増補3版）』平凡社、2002年）。

そのため、『歴史的調査』は敗戦後の日本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原型としてとらえられている。『歴史的調査』について、高崎宗司は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なかで日本側がしばしば吐露した朝鮮統治認識の先駆的系譜のなかに（高崎宗司「日韓会談の経過と植民地化責任—1945年8月～1952年4月」『歴史学研究』545、1985年9月。同『検証日韓会談』岩波新書、1996年）、また小林英夫は「戦後日本人のアジア認識の出発点」として（小林英夫『日本企業のアジア展開』日本経済評論社、2000年）位置づけた。一方、『歴史的調査』「朝鮮篇」の成立過程については並木真人が、朝鮮関係の元官僚・学識者・企業団体によって先行して進められていた調査活動が在外財産調査会設立後にその事業の一環として組み込まれていく経緯を明らかにしている（並木真人「『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朝鮮篇・補論—『日本人の海外発展に関する歴史的調査』および『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研究調査』を中心に」、井村哲郎編『1940年代のアジア—文献解題』アジア経済研究所、1997年）。

本報告では、日本敗戦直後の段階から『歴史的調査』の叙述を支える基本的な発想や論点が中央官庁・関連企業団体・朝鮮関係者により提起されていることに着目する。そして、それらが在外財産調査会による『歴史的調査』編纂を通じて一定の認識として練りあげられていく過程およびその背景、そしてその過程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朝鮮関係者の存在について検証する。

II. 外務省における調査活動

敗戦を迎えた日本にとって植民地等の分離は、賠償への対応や国内経済の再建にあたって重要な問題であった(宋炳卷“일본의 전후 경제재건 구상과 조선 인식의 연속성” [『아세아연구』 第141号, 2010年] 参照)。関係省庁による賠償対策資料作成にあたっては、植民地等に日本が保有した在外財産の「資産総額」・「資産評価額」算出が大蔵省、植民地等の失陥による「物資自給率ノ影響」や「我国経済力ニ及ボセル影響」が外務省の担当とされた(外務省調査局「賠償関係基礎資料及研究事項目次及分担表」1945年11月15日訂正)。外務省「海外資産喪失ニ伴フ影響ト対策」(1945年10月25日)で挙げられる要研究事項のなかには「外地および占領地における我方の寄与の具体的分析(農業生産力の増大、工場、鉱山、運輸施設等の建設、教育の普及)」「内地と切断せられたる朝鮮経済の動向」「朝鮮経済の日本内地依存度の研究」が含まれている(大蔵省財政史室編『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第1巻、東洋経済新報社、1984年、237頁 ※重引)。植民地等に対する日本側の「寄与」という論点が、賠償問題との関係で既に提起され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

また、外務省では調査局から学識者に依頼して、朝鮮統治の性格や朝鮮経済の今後の見通しに関する調査報告書をあいついでまとめている。佐々生信夫『経済的観点より見たる我国朝鮮統治政策の性格と其の問題』(1945年12月)・鈴木武雄『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1946年3月)・鈴木武雄『「独立」朝鮮経済の将来』(1946年6月)がそれにあたる。佐々生信夫に対する委嘱があったのが1945年9月のことである(前掲『経済的観点より見たる我国朝鮮統治政策の性格と其の問題』所収の外務省調査局第三課「はしがき」)。

1946年2月には、南満洲鉄道株式会社(満鉄)・京城帝国大学・台北帝国大学などに所属経験のある学識者をまじえ、外務省主催の「外地経済懇談会」が開催された。懇談会の席上では、朝鮮統治の性格をめぐる佐々生信夫(東京産業大学講師)と鈴木武雄(元京城帝国大学教授)の見解が対照をなした。佐々生信夫は「本質的ニハ矢張り例ヘバ英国ノ印度統治ニ最モ代表的ニ觀ラルル如キ植民地統治ノ一般的性格ヲ日本ノ朝鮮統治ニモ之ヲ認メザルヲ得ナイ」

【史料2-④】と主張したのに対し、鈴木武雄は「日本ノ統治ニ觀ラルル特殊のナ面モ亦之ヲ看過シテハナラナイ」【史料2-⑤】と反論した(外務省調査局「外地経済懇談会議事概要」1946年2月8日)。

さらに鈴木武雄は、「『日本』ヲ弁護スル為」に、「単ニ搾取許リヲシタノデハナイトイフダケデナシニ、ヨリ根本的ニハ大陸進出トイフコト自体モ我国トシテハ真ニ止ムヲ得ナカツタ一面モアル」という点を鮮明にする必要があると訴えた【史料2-⑤】。そうしなければ「過去ニ於ケル日本ノ大陸進出ハ凡テ帝国主義的デアリ搾取デアツタ」という見方を「黙認シタコトトナリ将来トモ日本人ハ必要以上ニ肩身ノ狭イ思ヒヲセネバナラナイデアラウ」と言うのである【資料2-⑤】。一方、平貞蔵(元満鉄嘱託)は植民地等の統治の性格を把握する意義とし

て、賠償問題などとともに、「今後尚日本ガ大陸等ニ進出セネバナラナイトスレバ其ノ場合前轍ヲ□〔一字判読困難〕マナイ為ニ又ソレヲ繰返スコトヲ許サナイ為」、「将来尚之等ノ地域ト結び付ク必要アリトスレバ誤解ニヨル障害ガ取除カレテヨリ一層結び付キ易クスル為」に必要であると述べた【史料2-⑥】。これは、アジアとの経済関係を改めて取り結ぶためには、日本による統治・占領の歴史をめぐりアジアで予想される「誤解ニヨル障害」を解きほぐすことが必要である、という点を念頭に置いた発言と見ることもできる。

これらの議論を通じて、植民地等の統治に対する把握の方向性が、賠償問題のほかに、日本敗戦までの歴史的経緯に対する“自虐的”姿勢の阻止や、アジアへの経済的再進出といった課題もふまえて考え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

Ⅲ.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における調査活動

賠償との関係で在外財産の問題について強く意識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植民地等に経済基盤を築いていた企業関係者であった。朝鮮事業者会（1945年11月1日創立）をはじめ、地域単位での企業団体がつくられるが、これら企業連合体の横断的組織として、1945年11月30日に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以下、中央協議会）が設立された。

その主な活動内容は、植民地等の分離に伴う業務停止や財産凍結などへの対処、在外財産の調査研究、在外財産の補償や関係者の「更生」支援に関する政府への要請などであった（宣源「引揚企業団体の活動——戦前期海外進出企業の国内経済復帰過程」、原朗編『復興期の日本経済』東京大学出版会、2002年）。協議会には地域別部会と業態別部会が置かれ、前者は、樺太部会（樺太事業者会）、朝鮮部会（朝鮮事業者会）、台湾部会（台湾事業協会）、南洋群島部会（南洋群島関係会社連絡協議会）、満洲部会（満洲関係事業連絡会）、北支部会（華友会）、中南支部会（日華経済協会）、南方部会（南方農林協会）、欧米豪印等部会（横浜正金銀行）から、後者は、貿易部会（三井物産）、金融部会（横浜正金銀行）、土建部会（日本建設工業統制組合外地対策委員会）、煙草部会（海外煙草業者協議会）、繊維部会（在華日本紡績同業会）から構成されていた。

1946年3月、外務省管理局関係者もまじえて開催された中央協議会第9回理事会において、「吾国海外事業従来ノ活動状況ノ具体的事例ニ付調査蒐集シ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適確ナル観念ヲ明確ニスル資料」を作成して政府に提出したいとの要望が「重要且ツ適切ナ案件」と認められ、準備を進めることで合意が得られた（「〔中央協議会〕第9回〔理事会〕議事要録」1946年3月29日）。そして同年4月、中央協議会第10回理事会での調査趣旨をめぐる議論を経て、「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並ニ活動状況調査」に関する依頼文が傘下団体に発送された。

調査の趣旨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元来、植民地等での企業活動は「飽ク迄共存共栄ノ精神ヲ基盤トシテ発足育成」された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戦時中軍部ニ利用セラレタル事実ノミヲ以テ動モスレバ其発展動機カ頭初〔当初〕ヨリ軍事侵略ヲ意図セルモノノ如ク曲解」されている。そのため「賠償資産ノ国家補償ニ関連シ内外ノ理解ト同情ヲ失ヒ居ル事ハ頗ル遺憾」であるから、そこで「多年ニ亘リ相手国並ニ住民ノ経済開発、民生向上ニ貢献セルコト」を個別具体的な形で提示するべく、「適切ナル事例」の報告を求めたい【史料3-②】、というのが中央協議会からの要請である（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

和的性格並ニ活動狀況調査ニ就テ」朝鮮部会宛、1946年4月11日）。その調査要領や調査項目【史料3-②・③】においては、とりわけ「現地住民」や「現地民生」に対する「寄与」や「好影響」について、「具体的事例」や「計数的」な「比較説明」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ことに比重が置かれている（前掲「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並ニ活動狀況調査ニ就テ」/中央協議会「吾国海外事業ノ平和的性格調査ノ件」朝鮮部会宛、1946年6月15日）。企業活動の「本来ノ平和的性格」を“立証”するために、「寄与」や「好影響」の“事実”が必要とされたのである。

さらに、中央協議会の第10回理事会での議論【史料3-①】のなかで、調査のとりまとめに関わって次のような発言がなされているのが注目される。「之ハ趣旨ガ趣旨デアルノデ下手ヲスルト逆効果ヲ来ス場合モ考ヘラレル。即チ下手ニイツタラ我々ノ侵略史ヲ書イタ事ニナルカモシレナイ。相当ノ学者、識者ヲ煩ハシテ取捨選択スルツモリデアルガ」 / 「色々ナ材料ヲ出シテ頂イテ最モ都合ノイ、様ニ組合セテ行き度イ」 / 「戦争中ニ寄与シタトカ海外ニ於テ搾取ヲシタトカ日本ノ膨張政策ニ寄与シタト云フ様ナ事ハ出来ルダケ避ケ或ハ除クト云フ趣旨デアツテ頂キ度イ。戦争前カラ日本ノ平和発展ノ為ニ海外ニ於テ殊ニ現地住民ノ民生ノ為ニ寄与シタト云フ事ニ重点ガアラウカト思フ」（「第10回 [中央協議会] 理事会議事要録」1946年4月12日）。ここには、調査のとりまとめにあたっては、「侵略」や「搾取」などの要素を排除するという前提のもと、「取捨選択」をおこなったデータを「最モ都合ノイ、様ニ組合セ」て立論すべきことが語られている。

なお、調査報告書は「吾国海外事業ノ平和的性格調査報告書編纂委員」により1947年5月に完成、原稿は外務省・大蔵省に提出されたという（「[中央協議会] 理事会要録」1948年1月9日、中央協議会『理事会要録』） / 「本邦経済及び商業団体関係雑件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外務省記録第5回公開分）が、報告書の現物は未確認である。ただ、上述の調査趣旨は中央協議会が関係閣僚・貴衆両院議長に提出した「在外資産ノ国家補償ニ関スル陳情書」（1946年7月27日）に生かされている。

IV. 日本敗戦直後における鈴木武雄の活動

外務省などの中央官庁、そして日本敗戦直後から植民地等に関わりを持っていた学識者や企業団体はそれぞれ接点を有しており、その三者はそれぞれの思惑を抱えながら、最終的には在外財産調査会の調査活動に糾合され、そのなかで一定の認識を練りあげていく。この三者を結びつけるうえ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キーパーソンの一人として、鈴木武雄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鈴木武雄（1901～1975年）は財政・金融分野を専門とする経済学者であり、敗戦まで京城帝国大学教授をつとめ、その後は東京大学教授や武蔵大学学長などを歴任した。とりわけ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は戦争遂行上における朝鮮の位置づけ・役割をめぐる議論を活発に展開した（戦時期の鈴木武雄の主張内容については宋炳燾“1940년대 스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民族文化研究』第37号、2002年] 参照）。

鈴木は敗戦をソウルで迎え、11月に日本に戻った。佐々生信夫の報告書に「読後感」を寄せていることから、帰国直後から外務省との関係が既に見出せる。それ以降も「外地経済懇談会」への参加や外務省による報告書作成の委嘱があいついでおり【史料4】、外務省との結びつきが深まっていく様子がうかがえる。

1946年3月に入ると、朝鮮事業者会との接触が確認されるようになる。朝鮮事業者会ではこの頃、朝鮮における日本企業の活動が「大東亜戦争以前ヨリ朝鮮開発、民生福利増進ニ貢献セルモノニシテ一時的ニ軍閥ヨリ侵略戦争ニ利用セラレタルニ過ギサル実情」を明らかにするため、「具体的資料」の編纂を考えていた（『朝鮮事業者会会報』第1号、発行年月日記載なし）。朝鮮事業者会から調査依頼を受けた鈴木は、朝鮮事業者会理事会（3月25日）の席上で「朝鮮統治ノ性格ニ関シ之ヲ本質的ニ観テ決シテ侵略主義帝国主義的理念ヲ以テ律セラレルベキニアラザル所以」を説明するとともに「関係要路ニ提示セントスル参考資料ノ腹案」を披露した（『朝鮮事業者会会報』第2号、年月日記載なし）。朝鮮事業者会では会報誌上で鈴木の「腹案」を紹介して資料提供を所属企業に呼びかける（同前）一方、同時期に朝鮮事業者会鉱業部会では「城大教授〔鈴木武雄〕ノ論文ヲ骨子トシテ各社ヨリ材料ヲ整備スヘキコトヲ中央協議会理事会ニ提案」する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第10回朝鮮事業者会鉱業部会報告事項並ニ議題」1946年3月27日、「部会関係」綴）。これは、朝鮮事業者会を通じて鈴木の見解が調査活動の「骨子」として中央協議会に提供され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その後、鈴木「腹案」は、日本統治下における朝鮮経済の発展や搾取如何をめぐる内容などを論点として、『朝鮮産業の発展と在鮮 [マ] 日本系企業』へとまとめられた（1946年4月）。また、朝鮮事業者会の作成した『在外財産補償要請ニ関スル資料』（1946年7月）には在外財産の国家補償を主張する鈴木「寄稿文」が収録された【史料4】。朝鮮事業者会にとっては、自己の主張に理論的根拠を与え、その利害を代弁してくれる存在として、鈴木「腹案」の姿が映っていたものと思われる。

また、鈴木は、旧朝鮮総督府関係者の組織である旧友倶楽部との間にもパイプを有していた。そして、旧友倶楽部ではその事業として「朝鮮施政ノ記録」の作成が企図されており、その企画主任として鈴木を推している（『旧友倶楽部会報』第1号、1946年8月5日）。旧朝鮮総督府関係者のグループにおいても、当初から鈴木が調査・研究面での主導的人物と目さ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なお、「朝鮮施政ノ記録」の執筆予定者には『歴史的調査』の「朝鮮篇」の担当者と重なっている者が多い【史料4、史料6】。

鈴木武雄は、外務省などの中央官庁、朝鮮関係の民間企業、旧朝鮮総督府の関係者のいずれにも接点を有し、各方面を取り結ぶ立ち位置を持つ人物であった。鈴木は、行政機構・関係者・資料を結びつける組織化の面、そして植民地等の統治認識に関わる理論構築の面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こうした役割を果たし得たのは、鈴木が外務省や朝鮮事業者会のニーズを的確に把握し、期待される回答を提示できる人物であったからに他ならず、それは鈴木「政策的、現実的ナ立場」（前掲「外地経済懇談会議事概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ったと言える（なお、関連研究として宋炳卷“스즈키 타케오의 조선통치론, 전전과 전후적 맥락” [『대구사학』第115号、2014年]があるが、今回参照できなかった）。

V. 小括

1946年8月、中央協議会第19回理事会席上で大蔵省側が中央協議会に対し、賠償問題対策の関係から在外財産調査につき本格的に着手する意向を示し（『朝鮮事業者会会報』第22号、1946年8月26日）、中央協議会の「労力的奉仕協力」を要請した（『朝鮮事業者会会報』第24号、1946年9月9日）。政府に「其ノ方面ニ精通シタ人が少ナイ」ことや、「民間側ノ資料蒐集」を進めるうえで、関連企業団体の協力は不可欠なものであった（『朝鮮事業者会会報』第

28号、1946年10月7日）。1946年9月1日に在外財産調査会が設置されると、中央協議会の組織と人員をそのままスライドさせる形で始動している。他方、鈴木武雄に対しては1947年上半期に大蔵省管理局から『歴史的調査』編纂への協力および編輯委員の推薦に関する要請があった（『「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復刻刊行中止仮処分執行事件資料集」第2集、『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の刊行を促進する会事務局、1974年、36頁）。またこれと同時期には、旧友倶楽部で一時頓挫していた「朝鮮統治の決算報告書」（「朝鮮施政ノ記録」と同一のものか？）作成作業が大蔵省の補助を得て鈴木を中心に続行できる見通しとなり、これが『歴史的調査』の「朝鮮篇」として組み込まれていくと見られる（並木真人・前掲論稿）。

在外財産調査会は在外財産に関する資料収集および評価額推計の算出を第一の課題としていたが、在外財産の算定を進めるなかで、その財産が集積されてきた歴史的経緯と性格をまとめることが不可避の作業として浮上した。それが『歴史的調査』の編纂であり、両者は表裏一体のものであった。『歴史的調査』の編輯委員が「総論」部分の執筆方針をめぐってかわした議論【史料5-①・②】のなかからは、上述の見解・視角が踏襲され、集約されてい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議論から見出されるのは、日本敗戦以前における日本の対外膨張は純粋な経済活動の蓄積であり、侵略的要素はあくまでも限定的であってその本質ではなく、“自虐的”な歴史認識は否認されるべきであり、日本の統治は現地における「民度の向上」に寄与したのであり、日本とアジア地域との経済的な結びつきは一時期の「侵略」や「戦争」によっても断絶し得ないほど宿命論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とらえかたである（「第一回編輯会議記録」1947年7月14日および「総論ノ執筆方針」、「歴史的調査関係 朝鮮部会」綴）。そして、これらの要素は本稿冒頭で示した『歴史的調査』の「序」においても貫かれている。

これまで提示してきた内容から、日本敗戦直後における植民地等の統治認識の形成過程に関して確認できることを3点にわたってまとめておきたい。

(1) 敗戦直後、『歴史的調査』編纂以前の段階から、各方面からの調査活動を通じて、その後の歴史認識の原型・骨子となる発想・論点が既に準備されていた。当初は単発的に提示されていたものが、中央官庁・企業団体・学識経験者の相互交流のなかで一定の認識が形づくられていき、その集大成が『歴史的調査』であったと言える。

(2) こうした統治認識の形成にあたっては、在外財産をめぐる賠償・補償問題が介在したほか、アジアへの経済的再進出・“自虐的”姿勢の排除などの現実的課題が強く意識されるなど、ある種の作為が働いている形跡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敗戦に伴い日本の官民の関係者に突きつけられた様々な現実問題がこうした認識を必要とさせた側面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3) こうした統治認識の形成に際し、理論化・組織化の両面において朝鮮関係者が無視できない役割を果たしている。特に鈴木武雄は、その理論的主柱であるとともに、各方面の結節点となる存在であったと言える。また企業団体の調査活動の点でも、時期的に見ると朝鮮事業者会のほうが中央協議会に少し先行する動きを見せている。（了）

【史料1】『歴史的調査』の「序」（1947年12月、『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総目録』3・4頁）

「然し、吾々の仕事の序論であり、結論でもあり、構想の基盤をなす考え方は、次の通り要約出来ると思う。日本及び日本人の在外財産は、日本及び日本人の海外に於ける正常な経済活

動の成果である。一つ一つの出来事を取り上げるならば、ある時期、ある場所に於ては、所謂侵略、掠奪によつて加算されたものがあつたかも知れない。特に日華事変から太平洋戦争に入つては、軍の行動に便乗した悪質の取引によるものがあつたろう。が然し、日本及び日本人の在外財産の生成過程は、言わゆるような帝国主義的發展史ではなく、国家或は民族の侵略史でもない。日本人の海外活動は、日本人固有の経済行為であり、商取引であり、文化活動であつた。このことは、日本人みずからまづはつきり認識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吾々がこの仕事を続けながら考えたことは、在外企業体の清算、賠償、補償等、在外財産に関する一切の仕事は、自ら顧みて恥ぢない信念の上のみ成り立つということである。〔中略〕

なお、吾々は、今、次の仕事の性格を考えている。再建日本の活動範囲は、狭少な国土内に制限されたが、国際文化国家群の一員として吾々は、今後より以上に、広く、正しく世界を眺めなければならない。又日本が再建されるためには、再建後は、東亜各地域との経済的連繋は如何にある可きかという問題も、この素材から更に掘り下げ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後略〕

【史料2】外務省調査局「外地経済懇談会議事概要」（1946年2月8日）

①出席者

阿部勇（元満鉄調査部次長）、鈴木武雄（元京城帝国大学教授）、佐々生信夫（東京産業大学）、平貞蔵（元満鉄嘱託）、北山富久二郎（元台北帝国大学教授）、並木正吉（平貞蔵の弟子）、外務省管理局・調査局の関係者

②趣旨

「敗戦ノ結果我国ハ、朝鮮、台湾、樺太、南洋群島等ノ外地及ビ満洲、北支等ノ勢力圏ヲ失ツタガ、今後トモ之等ノ地域ト我国トノ関係特ニ其ノ経済的關係ハ、之ニ因ツテ切断サレルコトナク、寧ロ従来ノ支配、被支配關係ヲ清算シタ姿ニ於テ従前ニモ増シテ一層深メラルベキ面モ決シテ尠クハナイ。今日此ノ相互ノ新シイ關係ノ発足ニ際シ、過去ニ於ケル之等ノ地域ニ対スル日本ノ統治、支配ノ実績ヲ客観的、科学的ニ回顧スルコトハ蓋シ今後ニ於ケル特ニ相互ノ経済ノ必然的、有機的關係（或ハ其ノ逆ノ關係）ヲ誤リナク把握スル為ノ第一歩デアアル。当課ニ於テハ以上ノ様ナ観点カラ、先ヅ朝鮮統治ニ関シ東京産大佐々生信夫氏ニ研究ヲ委嘱シタル処、短期間ノ内ニ『経済的観点ヨリ見タル我国朝鮮統治ノ性格ト其ノ問題』（調三資料第三号）ナル極メテ真摯ナル労作ヲ得タノデ、之ヲ機トシテ更ニ一段ト調査ヲ拡大、進行セシメル為、昭和二十一年二月五日外務省異参事官室ニ於テ次ノ人々ノ御出席ヲ願ツテ第一回ノ懇談会ヲ開催シタ」

③議事内容

「（1）調査ニ当ツテ我国植民地統治ノ特殊的性格ト一般的性格ノ何レニ重点ヲ指向スベキカ
（2）新事態ノ展開ハ（イ）日本経済ニ如何ナル影響ヲ齎スデアラウカ（ロ）各地域ノ経済ニ如何ナル変化ヲ齎スデアラウカ（ハ）今後尚我国ト各地域トガ必然的、有機的ニ結合スベキ面アリトセバ其ノ在リ方如何〔以下（3）・（4）略〕」

④佐々生信夫の発言

「従来我国ニ於テハ朝鮮統治ニ付テ、例ヘバ『皇民化』又ハ『内鮮一体』等ノ言葉ガ示ス様ニ其ノ特殊性ノミガ余リニ強調サレ過ギテキタガ實際ニ研究ヲ進メテ行クト本質的ニハ矢張り例ヘバ英国ノ印度統治ニ最モ代表的ニ觀ラレル如キ植民地統治ノ一般的性格ヲ日本ノ朝鮮統治ニモ之ヲ認メザルヲ得ナイ」

⑤鈴木武雄の発言

「日本ノ植民地統治特ニ朝鮮統治ガ所謂帝国主義的ナモノデアツタコトハ之ヲ否定シ去ルコトハ出来ナイトシテモ日本ノ統治ニ觀ラルル特殊的ナ面モ亦之ヲ看過シテハナラナイ、殊ニ終戦後過去ニ於ケル日本ノ大陸進出ハ凡テ帝国主義的デアリ搾取デアツタ様ニ国外ハ勿論国内ニ於テモ言ハレテキルガ、必ズシモソウト許リハ言ヘナイノデアツテ、之ハ現在彼ノ地ニ残留リテキル人達ノ為ニモ又今後ドウシテモ平和的ニ再ビ進出セネバヤツテ行ケヌ日本全体トシテモ實際問題トシテ一考ヲ要スル問題デアル」

「右ノ様ニ單ニ搾取許リヲシタノデハナイトイフダケデナシニ、ヨリ根本的ニハ大陸進出トイフコト自体モ我国トシテハ真ニ止ムヲ得ナカツタ一面モアルノデアツテ戦犯容疑者等ノ個人ハ姑ク措キ「日本」ヲ弁護スル為ニドウシテモ此ノコトヲ何等カノ形デ、ハツキリサセル必要ガアルト思フ、ソウデナイト今言ハレテキルコトヲ黙認シタコトトナリ将来トモ日本人ハ必要以上ニ肩身ノ狭イ思ヒヲセネバナラナイデアラウ」

⑥平貞蔵の発言

「日本ノ過去ニ於ケル外地等ノ統治、支配ガ正シク把握サレ明カニサレルコトハ先ツ第一現在尚之等ノ地域ニ残留シテキル日本人ノ為ニ 第二ニ今後尚日本ガ大陸等ニ進出セネバナラナイトスレバ其ノ場合前轍ヲ□マナイ為ニ又ソレヲ繰返スコトヲ許サナイ為ニ 第三ニ将来尚之等ノ地域ト結び付ク必要アリトスレバ誤解ニヨル障害ガ取除カレテヨリ一層結び付キ易クスル為ニ 第四ニ賠償問題等ニ関連シ是非トモ必要デアル」

【史料3】 「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並ニ活動狀況調査」に関する依頼書および議論

①調査依頼通達草案をめぐる議論（「第一〇回 [中央協議会] 理事会議事要録」1946年4月12日、「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関係」綴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友邦文庫」]）

「四、海外事業本来ノ性格並ニ平和的活動狀況ノ具体的事例調査方ニ関スル本会通達草案（幹事会）

田村専務理事案文ヲ朗読、字句ノ訂正アリタル後本件ノ趣旨ニ就テ島幹事ヨリ敷衍シテ説明アリタリ

島幹事「説明書ノ中ニモアツタ様ニ我々ハ海外事業ニ対シ絶大ノ努力ヲ傾倒シ来レルガ世間ニ於テハ我々ノ本来ノ意図ガ曲解サレテ居リ延イテ在外資産ト云フモノニ対シテハ同情ガナク、補償ナゾトハ以テノ外ナリトモ云ハレテ居ル。ソノ論ハ若イ学者ノ間ニモ相当アリ友人ノ間ニモ見受ケル。然シ海外事業ヲ担当シテ居ル人間ハ決シテ然ラズトノ堅イ確信ヲ持ツテキル。極ク最近ノ戦時情勢下ニ於テハ悪用サレタル事実ハ認メルガソレハ過去数十年ノ長イ間ノゴク一小部分ノ事デ最初カラ其ノ意図ハナイ。本協会ノ目的タル賠償並ニ補償ト云フ事ハ我々業者ノ全ク望ヲカケテキル重大事デアル。ソノ目的ヲ達成スル為ニハ是非トモ今申上ケタ趣旨ヲ資料ニシテ内外ノ誤解ヲ一掃シナケレバナラヌ。而シテ多忙ナ時ナルモ差当リ一ヶ月ノ裕余ヲミテ皆サンカラ広ク適切ナ資料ヲ出シテ頂ク様ニオ願スル次第デアル。之ハ趣旨ガ趣旨デアルノデ下手ヲスルト逆効果ヲ来ス場合モ考ヘラレル。即チ下手ニイツタラ我々ノ侵略史ヲ書イタ事ニナルカモシレナイ。相当ノ学者、識者ヲ煩ハシテ取捨選択スルツモリデアルガ兎ニ角イ、資料ダト思ハレル事ハ洩ラサズ御報告願ヒ度イ。 [中略]」

[中略]

島幹事「私一個ノ考ヘデアルガ斯ウ云フ目的ヲ達成スル為ニ一番適切ナ方法ハナルベク古イ時代ノモノ日清戦争以前ノモノナドガイ、例ダト思フ。日本ノサーベルノ及バナカツタ外地

例へば中南米ノ如キ好イ例ヲ捕ヘタラ条件ナシニ相手方ヲ納得セシメルト思フ。又アフリカ、南米方面ノ開拓ト云フ面デモイ、色々ナ材料ヲ出シテ頂イテ最モ都合ノイ、様ニ組合セテ行き度イ。〔中略〕」

会長「〔中略〕戦争中ニ寄与シタトカ海外ニ於テ搾取ヲシタトカ日本ノ膨張政策ニ寄与シタト云フ様ナ事ハ出来ルダケ避ケ或ハ除クト云フ趣旨デヤツテ頂キ度イ。戦争前カラ日本ノ平和発展ノ為ニ海外ニ於テ殊ニ現地住民ノ民生ノ為ニ寄与シタト云フ事ニ重点ガアラウカト思フ。イヅレニシテモ資料ガナイト見当モツキマセンカラドウカ各部会ノ方々サウ云フ趣旨デアルト云フ事ヲヨクオ含ミノ上資料ヲ出シテ頂キ度イ。尚ソノ取扱ヒト云フ事ハ今後ハ幹事会ニ一任シテ全部ガ揃ヒマシタラ此ノ理事会デスウ云フ事ニ出来上ツタカラ政府ナリ然ルベキ筋ニ申達スルト云フ決議ヲ此処デ御相談スルト云フ事ニシテ取計ヒ度イト思フ」

〔発言者明記なし〕「マ司令部ノ方ヲ対象ニスル訳デスネ」

会長「最後ノ目標ハマ司令部デイ、ガ差当リハ日本政府又ハ国内与論ニ対シテ反省ヲ促スト云フ事ニアル。今日ノ現状ニ於テハマ司令部ノ海外事業者ニ対スル態度ハ冷酷峻厳デアルカラヨホドイ、材料ガナイ限リハ中々困難ト思フ。兎ニ角日本政府ニ先ヅ認識シテモラウ。政府ニシツカリト認識シテモラツテマツク司令部ノ方ニ対シテハ政府ト共ニ説明スル。サウ云フ処迄到達シ度イト思ツテキル。日本文ト英文ト多少違ヒハアル。日本政府ニハ書イテモイ、ガマツク司令部ニハ書カナイ方ガイ、ト云フ事ガアルカモシレヌガ全体トシテハ□ジニシタライ、ト思フ。〔以下略〕」

②調査の趣旨および要領（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並ニ活動状況調査ニ就テ」朝鮮部会宛、1946年4月11日、「我国海外事業本来の平和的性格並に活動状況調査についての依頼書及書式」〔前掲「友邦文庫」〕）

「過去数十年ノ久シキニ亘リ粒々辛苦開拓ニ建設ニ努メタル治水、発電、植林、採掘、運輸等ノ産業面又ハ交易、金融等ノ経済面ニ投シタル数千円ニ達スル諸施設其他有形無形ノ努力ノ結晶ハ〔敗〕戦（後）ノ結果挙ゲテ連合国ニ対スル賠償ニ供セラレムトスルハ已ムヲ得サル処トシテ吾等亦日本ノ為有効ニ役立ち得ルナラバ本懐トスル次第ナルモ今日迄ノ諸情勢ヨリ判断スルニ之等海外事業カ戦時中軍部ニヨリ利用セラレタル事実ノミヲ以テ動モスレバ其発展動機カ頭初ヨリ軍事侵略ヲ意図セルモノノ如ク曲解セラレ為メニ賠償資産ノ国家補償ニ関連シ内外ノ理解ト同情ヲ失ヒ居ル事頗ル遺憾トスル所ナリ。

地域的或ハ事業ノ性質上然ク指摘サル、トモ不得已場合モアルベキカ吾等発展ノ動機ハ然ラズ、飽ク迄共存共栄ノ精神ヲ基盤トシテ発足育成セラレタルモノニシテ多年ニ亘リ相手国並ニ住民ノ経済開発、民生向上ニ貢献セルコト個々ノ具体的事例カ能ク之ヲ立証スルヲ以テ此際公正ナル認識ヲ得ル為メ右ニ該当スル適切ナル事例ノ報告ヲ求メ中央協議会ニ於テ取纏メノ上外務大蔵其他関係当局ニ提出シ交渉資料トシテ有効ニ活用セラレム事ヲ期スルモノナリ

調査報告ノ要領

〔中略〕

四、当該事業ニ依リ相手国又ハ相手方ニ如何ナル好影響ヲ与ヘシカ事業開始前ト完成後トヲ計数的ニ比較説明ノ事〔後略〕」

③調査事項（中央協議会「吾国海外事業ノ平和的性格調査ノ件」〔朝鮮部会宛、1946年6月15日〕、前掲「我国海外事業本来の平和的性格並に活動状況調査についての依頼書及書式」）

「〔前略〕曩ニ御報告頂ケル分ハ本研究上御記載不十分ノ個所乃至ハ全ク御記載洩レノ個所相当散見セラレ特ニ同項目中第三項『原住民トノ関係』ハ其性質上重点ヲ置カルベキモ

ノニモ不拘御記載甚々簡略ニ過ギル憾有之候間重ネテ恐縮乍ラ不取敢別紙第三項ニ関スル部分至急御執筆相煩度及御願候 [中略]

記

一、別紙第三項『原住民トノ關係』第一目ヨリ第八目迄ヲ御高覽、御報告会社ニ於テ該当スル個所ヲ出来ル限り詳細ニ且具体的ニ御記載願ヒタキコト

[中略]

三、原住民トノ關係(特ニ他國トノ比較ヲ行フ事)

- (1) 技術員ノ養成 (2) 労働者ノ採用狀況(原住民、内地人トノ比較) 失業救済、福利施設ノ具体例、賃金労働条件等 (3) 販売又取引政策 価格低廉ニ依ル民生ヘノ寄与及ソノ具体例 (4) 製品ノ用途及販路ニ於テ現地民生ヘノ寄与 (5) 資本金ノ構成及ソノ変遷 特ニ現地人ノ持株 (6) 事業以外ノ民生施設其他病院、寄附行為等 (7) 他ノ原地会社トノ協同關係 (8) 以上ノ具体的事例特ニ原住民ノ反響ノ事例)

【史料4】 1945年8月~47年7月における鈴木武雄の言動

1945年

8月15日 ●ソウルで敗戦を迎える

11月 ●仙崎到着。浜田山(東京都杉並区)の弟の居宅へ。

●高橋亀吉の招致で日本経済研究所へ(『鈴木武雄—経済学の50年』鈴木洋子、1980年、119~120頁)。日本経済研究所の評議員兼囑託(『朝鮮喪失の経済的影響と日鮮 [マ] 経済關係の将来』の「序」、1頁)

12月20日●佐々生信夫『経済的観点より見たる我国朝鮮統治政策の性格と其の問題』。卷末に鈴木武雄「佐々木信夫氏『経済的観点より見たる我が朝鮮統治政策の性格とその問題』の読後感」を寄稿。

1946年

2月5日 ●外地経済懇談会に出席。

3月1日 ●鈴木武雄『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

3月頃カ ●朝鮮事業者会との接触開始か。資料提供を要請。

…「城大鈴木教授ヨリ、朝鮮統治ノ性格ニ関シ之ヲ本質的ニ觀テ決シテ侵略主義帝國主義的理念ヲ以テ律セラルベキニアラザル所以ヲ數個ノ観点ヨリ具体的ニ説明シ、關係要路ニ提示セントスル参考資料ノ腹案ニ付披露セラル」(朝鮮事業者会理事会、『朝鮮事業者会会報』[以下、会報]第2号、1946年4月1日、「友邦文庫」)

…「朝鮮に於ける各種事業の在外資産が賠償の対象となり国家の補償を得るゝやう各種の調査を基礎に政府に対し要望し来つてゐるのであるが諸般の問題も容易に解決を見られざるやに思料せらるゝを以て本会は各方面の認識の是正を図ることが緊要と信じ中央協議会の問題に移すと共に一方本会としても朝鮮事業者が過去数十年に亘つてあらゆる艱難辛苦を重ねつゝ半島の経済開発に、民度の向上に寄与貢献し来つた事実を適例を以て具体的に立証致したく之が資料の調査に着手することゝしたが専門家の協力を仰ぐべく元京城帝国大学教授鈴木武雄氏を煩はすことゝした。茲に取敢へず同氏立案の要点を御紹介する。尚會員各位に於かれても夫々の立場から適當なる資料の御提供をお願い致したい。

(一) 日本の朝鮮領有は朝鮮の市場独占といふ日本資本主義の要求に根拠を有したで

あらかうか？

(二) 日本統治下朝鮮の経済は発展したか？

(三) 日本統治下朝鮮の経済的躍進は否定し得べからざる事実なるもそれが日本資本に依つて遂行されたといふことは矢張り日本による朝鮮の搾取を意味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であらうか？

(四) 日本は朝鮮の文化向上に努力したか？

(五) 朝鮮に進出した日本人諸事業は専ら日本軍部と結托して日本の軍事的侵略的大陸膨張の為に奉仕したのではないか？

(六) 日本は朝鮮から米を収奪したか？

等の仮定質問に対し事実を挙げて反証する腹案である。」(同前)

…「2、外地事業者ハ軍閥ノ手先トナリタリトノマ司令部ノ見解ニ対シテハ誤解ヲ一掃スベク城大教授ノ論文ヲ骨子トシ各社ヨリ材料ヲ整備スヘキコトヲ中央協議会ニ提案スルコト、トス」(中央協議会幹事会 [1946年3月22日]、「第十回朝鮮事業者会鉱業部会報告事項並ニ議題(1946年3月27日)」、「部会関係」綴)

…「(一) 日本ノ海外事業本来ノ活動状況ヲ具体的事例ニ付各部会ヨリ蒐集シテ政府当局ニ提出シマ司令部ノ海外事業ニ対スル現在ノ観念ヲ是正セシムル交渉上ノ資料トスル件本件ハ重要且適切ナル提案ト認ムルニ付資料ヲ取纏メ幹事会ニ於テ推敲シタル後ナルベク速カニ提出ノ準備ヲ進メルコトニナツタノテ朝鮮事業者会テモ前回ノ鈴木城大教授ノ腹案ナドヲ骨子トシテ各部会又ハ商社ヨリ提供ノ資料ト併セ整理シテ右幹事会ニ提出スルコトヲ申合セタ」(中央協議会第9回理事会 [1946年3月29日]、『会報』第3号、1946年4月8日)

4月 ●鈴木武雄「朝鮮産業経済の発展と在鮮日本系事業」。

…「おしらせ ○会報(二号)でお知らせ致しました元京城帝国大学教授鈴木武雄氏の論文は理事会の御意見もありましたので印刷に附し希望の向に実費(約五円程度)でお分ちすることに致しました。内容は朝鮮に於ける事業者としては是非知つて置きたいもの、そして種々活用を願ひたいものです。皆様の御一読を特にお勧め申し上げます。」(『会報』4号、1946年4月15日)

…「(ロ) 鈴木教授ノ論文ヲ約三〇頁ニ取纏メタルモノ三〇〇部印刷中ナリ 必要ナル向ハ部会ヲ通シ申込マレタシ、但シ実費一部五円程度ナリ、猶未ダ発表スル時期ニアラザル為外部ニハ出サザル様シタシ」(「第十三回朝鮮事業者会鉱業部会報告 [1946年4月17日]」、「部会関係」綴)

4月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我国海外事業本来の平和的性格並に活動状況調査」に際し協力要請者の一人として名が挙がる。

…「(イ) 在外事業ノ性格ハ平和的開発ノ本領トシ一時的ニ戦時中軍閥ニ利用セラルル結果トナリタルニ過ギザル実態ヲ具体的資料ノ蒐集整理ニ依リ明確ナラシムルコト、シ、国際経済研究所(東大教授川野重任以下十数名)ニ委嘱シ之ガ検討ヲ煩ハスコト、尚其ノ他城大教授鈴木武雄氏、伊沢道男氏等可然権威者ヲ差加ヘ協力ヲ煩ハスコト、資料ハ出来次第ニ逐次提供アリタキコト等ヲ打合セタ」(中央協議会幹事会 [1946年4月19日]、『会報』第5号、1946年4月22日)

5月 ●『世界』第5号に鈴木武雄「朝鮮統治への反省」掲載。

5月 ●朝鮮事業者会を通じて資料提供を要請。

…「在鮮事業ハ平和的の事業デアリ朝鮮ノ經濟開發民生文化ノ向上ニ多大ノ寄与貢獻ヲナシ来ツタモノナル本来ノ性格ヲ諸種ノ反証ニ依リ解明ニ努力セラレテキル元城大鈴木教授ニハ今回見方ヲ変へ朝鮮經濟ハ日本經濟ノ一環カラ分離独立スルコトニヨツテ将来ドウナルデアラウカトノ展望ヲ試ミラレムトシテ居ル。従ツテ曩ニ執筆サレタ論文ノ裏付ケトモナル貴重ナ調査トナルデアラウ。付テハ御手数ナガラ朝鮮ヲ含ミ一環ノ事業ヲ営マレツ、アツタ各社ニ於カレテハ朝鮮ノモツ部門ガ其ノ事業ノ如何ナル部分デアツタカソレヲ切離スコトニヨツテドウナルカ、ト云ツタ具体的ナ資料ヲ提供シテ戴キタイトノコトデアル。」（『会報』第6号、1946年5月6日）

6月20日 ●鈴木武雄 『「独立」朝鮮經濟の将来』。

6～7月頃カ ●鈴木武雄 「旧領土内外財産に対する補償の要請」執筆（朝鮮事業者会『在外財産補償要請ニ関スル資料』1946年7月29日 所収）。

7月18日 ●旧友俱樂部において「独立朝鮮經濟ノ前途」と題する講演会開催（『旧友俱樂部会報』第1号、1946年8月5日、「友邦文庫」）。

7月頃カ ●旧友俱樂部「朝鮮施政ノ記録」（＝「朝鮮統治の決算報告書」？）の企画主任となる。

…「（当俱樂部当面ノ事業）朝鮮施政ノ記録作成

過去三十六年ノ施政ノ実績ヲ公平的確ニ調査解明シ記録トシテ保存スルコトハ有意義デアリ且当クラブガ此ノ調査ニ当ルコトハ適當デアルト云フ見解カラ今回鈴木武雄氏ヲ企画主任トシ左記諸氏ニ執筆ヲ煩ハシ今秋中ニ原案ヲ纏メ上ゲル事ニナツタ。

記

四方博、水田直昌、北村輝雄、佐藤裕、尾高朝雄、山田信一、鈴木武雄、塩田正洪、石塚峻、石田常英、笠井章、加藤韓三、加藤鼎、佐々木仁、西亀〔三圭カ〕、中村信介（同前）

1947年

夏以前 ●大蔵省管理課長から在外財産調査会への協力要請

…「昭和二二年の夏以前（三・四・五・六月のいずれかの月に）大蔵省管理局の意を受けた管理課長から、私〔鈴木武雄〕に対し在外財産調査会の仕事に協力するよう直接依頼があった」（『「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復刻刊行中止仮処分執行事件資料集』第2集、『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の刊行を促進する会事務局、1974年、36頁）

7月 ●旧友俱樂部「朝鮮統治の決算報告書」が大蔵省の補助を得て続行

…「〔略〕陳者予て御依頼申上置候「朝鮮統治の決算報告書」原稿御執筆方の件は当俱樂部の財政逼迫の為一時進行中止の余儀なき状態に有之候処其の後大蔵省の好意的御支援により毎月相当額の補助を頂くこととなり再び鈴木教授を中心に続行することゝ相成候〔略〕」（北村輝雄書翰、1947年7月15日、「歴史的調査関係 朝鮮部会」綴、「友邦文庫」）

【史料5】『歴史的調査』の「総論」編纂方針

① 第一回編輯會議記録（1947年7月14日）（前掲「歴史的調査関係 朝鮮部会」綴）

「二、総論の編輯方法について

イ、年代の区切について

日清戦争までとか日露戦争までとかするやり方は日本が武力により勢力を伸長した様
に思はれ易くこの調査の趣旨と相反する恐れがあるので戦争以外で日本の勢力の伸長を見極
めるのに適当な事件により時期を区切る様にしたい。満州事変それに大戦は引き合ひに出す
ことは致し方ないとして結局文字の用ひ方の違ひにとどめるが一応次の如く決定する

- 1、台湾領有まで
- 2、朝鮮併合まで
- 3、満州事変勃発まで
- 4、太平洋戦争迄の四つの区切りとす

ロ、研究の角度

右の四つの機関を通じて東亜各地に対する日本の進展を主として経済史的な立場から記述す
るのであるが、便宜上次の五つの角度から検討を加える

- (1)日本と東亜との経済的相関々係所謂外国貿易のみでなしに日本の植民地各地に対す
る移出入貿易を加えての意味の貿易を中心に各地に対する経済的な比重を考慮する
- (2)日本を中心とした民族人口移動の歴史
- (3)日本の植民地政策外地政策日本政府の対外的な機関の変遷
- (4)貿易外収支主として資金移動関係
- (5)民度の向上

以上あまり細かいことをごたごとと取扱はず、全体を通じて一つの太い線をうまく浮か
し上らせる様なきれいな例題を取り上げる。太い線とは何かと云へば日本と東亜との経済的な
関係が絶対的なものであると云ふこと、□々な事情がからみ合つて時に侵略と云ふことが表
はれたり、戦争と云ふことが現はれたりしたことはあったが、根本的には日本と東亜は緊密
に結ばるべきものであり所謂切つても切れない縁にあると云ふことを強調する。この切つて
も切れないと云ふことを主張するのが眼目である。そして戦争を放棄した日本の今後の東亜
とのつながりは如何なる新しい形で現るべきかを含みに残す。

それに先般局長のお話にあつた様な現地に於ける民度の向上に如何に貢献したかと云ふ
様なトピック例へば朝鮮の出生率の激増、台湾は廿五ヶ年間に人口が倍になつた満州の
衛生状態が非常に良くなつたと云ふ様なことを総論の結論に織込むことが出来れば先づ
先づと云ふ所ではあるまいか。」

②「総論ノ執筆方針」(前掲「歴史的調査関係 朝鮮部会」綴)

「一、基本的ナ考へ方(連絡会議ニ於ケル打合事項)

日本ノ植民地発展乃至対外地施策ノ歴史ハ純然タル経済活動ノ歴史デアツテ、一時的ニ又
一部ニハ国防上必然的ナ発展過程ガアツタトシテモ、夫等ハ本質的ニハ慈ニ取り上ゲル程
ノ意義ヲ持タナカツタシ、又、今日ノ必要モ認メラレナイ。従ツテ、本調査ニハ歪曲サレ
タ又、卑下シタ態度ハ有り得ナイ。

二、時代ノ区画(以下編輯会議ニ於ケル打合事項)

一応「台湾ノ領有」「日韓併合」「満州事変ノ勃発」「大東亜戦争〔「太平洋戦争」と訂
正〕ノ開始」ヲ以テ時代ノ区画トスルガ、之ハ戦争乃至事変ニ関連ヲ持タセタ考へ方デナ
ク、純経済史的ナ見方カラ来タモノデアル。侵略史的ナ外見ガ強イトスレバ考へ直ス。

三、記述ノ重点

日本ト経済的ナ繋リヲ持ツタ主トシテ東亜各地域、換言スレバソノ時代トシテ日本カラ見テノ東亜经济圈トノ関連性ヲ基調トシタ日本経済史ト言ツタモノガ、本筋トナルコトハ当然デアルガ、具体的ニハ日本本土間ノ移出入ヲ含ム全日本貿易ノ進展ヲ通シテ見タ忠実ナ記述ヲ主眼トスル。

同時ニ (1)日本ヲ中心トシタタ東亜諸民族ノ人口動態的觀察 (2)日本ノ植民地政策乃至対外地施策ノ解剖ト之ニ関係ノアル国家机关等ノ変遷 (3)日本ヲ中心トシテノ貿易外收支就中日本政府及民間ノ対外投資 (4)日本ノ海外発展ニ伴ツテ招来サレタト見ル可キ東亜諸地域ノ文化乃至民度ノ向上ノ諸点ヲ大キナ項目トシテ取り上ゲル。

【史料6】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の「朝鮮篇」執筆者（「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執筆者」、「友邦文庫」）

序章 「朝鮮の概貌」…四方博（元京城帝国大学教授）

第1章 「旧来朝鮮の政治経済社会文化の性格」…四方博

第2章 「朝鮮開国より日韓併合への途」…四方博

第3章 「朝鮮統治の最高方針」…塩田正洪（元朝鮮総督府鉱工局長）

第4章 「朝鮮政治機構の近代化」…山名酒喜男（元朝鮮総督府総督官房総務課長）

第5章 「警察行政と其の実績」…北村輝雄（元朝鮮総督府刑務局防護課長・東京事務所長）

第6章 「司法及行刑と其の実績」…佐藤豁（元朝鮮総督府高等法院検事・法務局刑事課長）

第7章 「教育文化政策と其の実績」…森田芳夫（元国民総力朝鮮連盟事務局編集課長・清和女塾主事）

第8章 「衛生行政と其の実績」…西亀三圭（元朝鮮総督府警務局衛生課長・小鹿島更生園長）

第9章 「産業及経済政策」…日浅不加之

第10章 「農業の発達」…石塚峻（元朝鮮総督府穀物検査所長・朝鮮食糧営団副理事長）

第11章 「林業の発達」…岸本清人（元朝鮮総督府財務局土地調査課長・平安南道財務部長）

第12章 「水産業の発達」…岸本清人

第13章 「鉱業の発達」…笠井章（元朝鮮総督府殖産局勤務）

第14章 「工業の発達」…相川尚武

第15章 「貿易及び商業の発達」…岩附健吾・馬場勇（元朝鮮銀行調査部勤務）

第16章 「金融の発達」…高田治一郎

第17章 「財政の発達」…成瀬仁喜太（元朝鮮総督府財務局司計課理事官）

第18章 「交通通信の発達」…田中保太郎（元朝鮮総督府交通局監理課長）・佐々木仁（元朝鮮総督府逓信局工務課長・国際電気通信京城支社長）

第19章 「土木及治水」…角田孝志（元朝鮮総督府慶尚南道内務部土木課技手）

第20章 「在外朝鮮人の保護」…原田大六（元朝鮮総督府司政局外務課長・総督官房企画課長）

第21章 「戦争と朝鮮統治」…塩田正洪

附録 「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鈴木武雄（元京城帝国大学教授）

附録 「『独立』朝鮮経済の将来」…鈴木武雄

【史料7】 関連略年表

1945年

8月21日 内務省より朝鮮総督府へ「法人権益の現状調査の注意通牒」。

- 10月6日 GHQ/SCAP覚書「外貨資産及関係事項の報告」(SCAPIN第96号)。
- 11月1日 朝鮮事業者会設立。
- 11月8日 大蔵省令第95号「連合国最高司令官ノ要求ニ係ル事項ヲ実施スル為在外財産等ノ報告ニ関スル件」。
- 11月30日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設立。
- 12月7日 ポーレー賠償調査団の中間報告発表、翌年4月1日に最終報告書提出(最低必要水準以上の重工業施設・在外財産を賠償に充当)。
- 1946年
- 4月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吾国海外事業本来ノ平和的性格並ニ活動状況調査」に関する依頼通知。
- 5月カ 朝鮮事業者会、会員各社の在朝鮮財産状況の調書をとりとまとめ、外務省へ提出。
- 5月 極東委員会、対日中間賠償案可決。
- (7月頃カ) 旧友俱樂部において「朝鮮施政ノ記録」作成決定。
- 9月1日 在外財産調査会設置。
- 9月26日 在外財産調査会の幹事・委員による第1回会合。
- 1947年
- 1月28日 ストライク賠償調査団来日、2月18日に第1次報告書を提出(現行の賠償計画に基づく産業施設撤去の中止を勧告)。
- 5月 海外事業戦後対策中央協議会による調査報告書完成、外務省・大蔵省に提出。
- 6月13日 在外財産調査会の部会長会議開催、『歴史的調査』編纂につき第1回会合。
- 6月18日 在外財産調査会の総務部会・各地域部会および大蔵省側代表による第1回会合。
- 6月22日 同前・第2回会合。
- 7月14日 『歴史的調査』第1回編輯会議。
- 7月23日 『歴史的調査』第3回編輯会議
- 11月12日 ストライク賠償調査団、再来日。
- 12月頃 『歴史的調査』原稿完成、在外財産調査会へ提出。
- 1948年
- 3月4日 在外財産調査会、第20回の推計。最終報告として大蔵省からGHQ/SCAPへ提出。
- 3月9日 ストライク賠償調査団、第2次報告書公表(撤去は旧軍用施設に限定し、重化学工業の主要施設を撤去の対象外とするよう勧告)。
- 4月26日 ジョンストン報告書(旧軍用施設の撤去範囲の削減を勧告)。
- 5月12日 マッコイ声明(在外財産没収と既済の中間賠償をもって賠償打切)。
- 1949年
- 1月16日 在外財産調査会廃止。
- 1950年
- 7月 『歴史的調査』全冊の印刷完了
- 1951年
- 9月8日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調印。

패전직후 일본정부 · 조선관계자의 식민지 통치인식의 형성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성립의 역사적 전제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들어가는 말

본고는 패전직후에 일본정부와 구식민지 관계자 · 관계단체가 전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형성해 갔는지, 그 일단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후술에서 언급하는 사료는, 이른바 식민지와 조차지 · 위임통치령에 그치지 않고 ‘만주’처럼 실질상 식민지 혹은 전시기 점령지 등, 일본의 세력권 전체에 걸쳐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조선통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식민지 이외의 영역을 포함한 일본통치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우선 ‘식민지 인식’이라 하겠다.

식민지 통치에 관련된 ‘총괄’로서 제일 먼저 상기되는 업적은 1947년에 완성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이하, 『역사적 조사』)이다. 이것은 대장성과 외무성의 공관(共管) 기관인 재외재산조사회 아래, 구식민지 등의 통치기구 · 기업의 관계자 및 연구자의 관여로 편찬된 것으로, 「총론」 「조선편」 「대만편」 「사할린편」 「남양군도편」 「만주편」 「북지(北支)편」 「중남지편」 「해남도편」 「남방편」 「구미기타제지역편」의 11편, 전37책으로 구성된다(『역사적 조사』 편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동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1947년 6월경이고, 탈고가 같은 해 12월, 전책 인쇄 완료는 1950년 7월이다). 이 『역사적 조사』는 전전의 식민지 · 점령지, 이민지에서 일본 관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해당지의 통치 양태와 함께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역사적 조사』의 「서문」(1947년 12월)에서 조사의 “서론이자 결론이기도 한, 구상 기반을 이룬 사고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일본 및 일본인의 재외재산은 해외에서 일본 및 일본인이 행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이다. 하나하나 사건을 들자면, 어느 시기와 장소에서 소위 침략, 약탈에 의해 가산된 것이 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일화사변(日華事變)에서 태평양전쟁에 들어서는 군의 행동에 편승한 악질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및 일본인의 재외재산 생성과정은 회자되듯이 제국주의적 발전사가 아니며, 국가 혹은 민족의 침략사도 아니다. 일본인의 해외활동은 일본인 고유의 경제행위이며, 상거래이자 문화 활동이었다.”¹⁾

이 서술은 직접적으로는 전전의 일본 세력권에서 형성된 “재외재산”의 성격에 대한 가치 판단인데, 이런 발상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식민지와 점령지 통치의 총체에 대한 평가에도 부연된다. 『역사적 조사』의 개별논고 중에서도 통치영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 “독립” 후 사회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시혜론’ 내지 ‘근대화론’이나, 일본 본국과 통치영역의 수지관계에서 보자면 본국에서 통치영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상회했다고 하는 ‘반출론’ 등, 식민지 통치의 역사적 인식을 둘러싸고 아직도 자주 등장하는 논점이 명시적으로 서술되는 것

1)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총목록』(대장성 관리국) 3쪽.

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제국주의”나 “침략”이란 요소를 부인하는 『역사적 조사』 「서문」의 발상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이른 바 역사적 인식의 기점을, 『역사적 조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일한회담 경과와 식민지화 책임-1945년 8월~1952년 4월」(『역사학연구』 제55호, 1985년 9월)과 『검증 일한회담』(이와나미서점, 1996년)은, 『역사적 조사』를 훗날 일본·한국의 국교정상화교섭 중에 일본 측 대표가 종종 드러내는 조선통치인식의 선구적 계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일본기업의 아시아전개』(일본경제평론사, 2000년)는 『역사적 조사』를 “전후 일본인의 아시아 인식의 출발점”으로 정리한다. 한편, 『역사적 조사』 자체에 대한 해설로는 이무라 데쓰오(井村哲郎) 편 『1940년대의 동아시아-문헌해제』(아시아경제연구소, 1997년)에 실린 고바야시 히데오(전체와 「대만편」)·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真人, 「조선편」)·하마구치 유코(浜口裕子, 「만주편」)의 논고가 있다. 특히 나미키는 「조선편」과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보론-『일본인의 해외발전에 관한 역사적 조사』 및 『일본인의 해외발전에 관한 연구조사』를 중심으로」에서 해당 편의 개요와 의의를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관계가 있던 관료·학식자 그룹과 기업단체의 연휴 아래서 선행하여 추진된 조사활동이 재외재산조사회 성립 후에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편입되어 「조선편」으로 엮여지는 과정을 신중하게 복원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역사적 조사』로 집약되는 동안에도, 패전직후부터 그 전제가 되는 논점과 시각이 각 방면에서 속출하여 제시된 점에 착목한다. 그리고 『역사적 조사』의 서술을 지탱한 발상의 원형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또 어떤 형태로 분출하였는지, 각 방면에서 제기된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역사적 조사』 「서문」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인식으로 다듬어 지는지, 또 그 때 핵심인물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의무성에 의한 조사활동의 개시

패전 후 일본정부가 직면한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연합국 측에 대한 배상문제이다. 일본에 부과된 배상부담은 일본경제 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식민지 분리²⁾이라는 현

2) 조선에 대해 연합국 측은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7일)에서 ‘독립’을 시사하였고,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에서는 일본의 주권을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 및 연합국 측이 결정한 작은 섬들에 한정하여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항복 후에도 ‘중전처리회의’ 결정사항의 하나인 「조선에 있어서 우리 쪽의 주권의 전이시기에 관한 건」에서 “조선에 관한 주권은 독립문제를 결정하는 강화조약비준일 까지 법률상 우리 쪽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중전처리회의결정’ 1945년 8월 24일, 「중전처리에 관한 건」(내각총리대신관방총무과자료, 국립공문서관본관: 2A-010-자00056100)). 그러나 조선은 일본 항복 후 북부가 소비에트 연방, 남부가 미국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된 탓에, 같은 사료 중에 이어서 상정되어 있듯이 일본 측의 주권은 “사실상 휴지상태”에 빠졌다. 참고로 ‘약간의 외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총사령부 각서’(1946년 1월 29일)에서도 일본의 관할권에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조약비준까지는 법적으로 조선의 영유권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일본정부의 견해는 그 후에도 일관되어 유지된다.

또, ‘중전처리회의’란 최고전쟁지도회의의 폐지로 1945년 8월 23일 “중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수상·외상·육상·해상·국무대신(고노에 후미마로)·참모총장·군령부총장·내각서기관장으로 구성된다(대장성재정사실편 『소화재정사-중전에서 강화까지』 제1권(동양경제신문사, 1984년), 218쪽. 「중전처리회의설치 건」(1945년 8월22일, 전체 「중전처리에 관한 건」).

실도 그와 관련하여 자리매김 된다.

초점의 하나는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된 구 식민지와 점령지역에 일본이 보유했던 재산(정부·법인·개인), 즉 재외재산 조치의 행방이다.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년 9월22일)에서 “일본국의 침략에 대한 배상”으로서 “일본국 보유하는 영역 외에 존재하는 일본국재산을 관계 연합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인도할 것”³⁾의 문장에 축약되어 있는데, 그 방침을 더욱 명확하게 내세운 것은, 미국대통령의 특사로서 대일배상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온 폴리(Pauley)에 의한 대일배상구상이다. 폴리는 1945년 12월 7일에 「일본 배상에 관한 중간보고」 내용을 공표했는데, 내용 중에 “...모든 일본인에 의한 일본 본토 이외(대만, 조선, 만주와 기태 중국, 말레이 동인도의 각 지방 및 그 외 연합국 및 중립국을 포함)의 지역에 소유한 자산의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박탈할 것”⁴⁾이 명기되어 있다. 재외재산 몰수가 현실화 하는 경우 그 규모여하는 재외재산이 배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의 문제와 함께, 일본 측에 요구되는 배상총액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또 하나의 초점은, 식민지 등의 상실이 장래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일본 국내경제 재건에 관해서는 연합군 측이 상정하는 ‘평화적 일본경제’의 허용범위를 주시하면서 전쟁종결에 수반하는 대외환경의 변용과 전쟁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식민지 등의 결함이 전전과 달리 금후 일본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외무성조사국 『금후의 국내경제시책에 관한 일고찰』(1945년 9월 18일)은 이미 “예상되는 경제적 곤란의 주요인”의 하나로 “영토 및 해외세력권 상실의 영향”을 들어, “이런 지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물자가 외화부담이 된다”는 것 외에,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 상실” “이런 지역 재류 국민의 생활비 상실”을 열거하고 있다⁵⁾. 식민지 등의 상실을 비롯하여 일본경제의 전제조건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현실적인, 또 합리적인 생활수준 확보를 근거로 연합국 측의 ‘과중’한 배상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 근거 준비에 연결된다.

폴리사절단의 방일직전인 1945년 11월 5일에는 일본정부의 관계성청에 의한 배상대책 자료작성 준비의 지시가 있었다⁶⁾. 배상에 관한 기초자료 작성과 연구항목 설정에는 재외재산의 ‘투자총액’ 및 ‘자산평가액’이 대장성의 부담이 되는 한편,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만주)의 자원 부존량 주요물자 생산량” “이의 상실에 의한 본국 물자 자급률의 영향”과 “외지 및 세력권 상실이 우리 나라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외무성의 분담사항으로 배정되었다⁷⁾. 또 시기를 전후하여 외무성에서는 “해외자산 상실에 따른 영향과 대책”(1945년 10월 25일)도 조제하고 있으며 가깝게 예상되는 “연합군 측의 배상문제 검토개시”를 주시하면서, “외지투자상실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여 “우리 측의 합리적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는 요점이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⁸⁾. 더욱이 동 사료에는 “요연구사항”으로서 “상실 해외자산총액”, “상실연수 총액과 내지 인구 1인당 금액”, “외지 및 점령지에 대한 우리 측 기여의 구체적 분석(농업생산력 증대, 공장, 관산, 운유시설 등의 건설, 교육보급)”,

3) 외무성특별자료부편 『일본점령 및 관리중요문서집』 제1권(1949년), 106쪽.

4) 외무성조사국 『경제자료』 제4집(1946년 1월), 117쪽.

5)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오모리 도쿠코(大森とく子)편 『자료·전후 일본의 경제정책구상』 제1권(동경 대학출판회, 1990년), 54쪽.

6) 전계 『소화제정사』 제1권, 219쪽.

7) 외무성조사국 「배상관계기초자료 및 연구사항목차 및 분담표」(1945년 11월 15일 정정), 「배상관계기초자료」(「점령하 대일배상관계 1건」, 외무성기록제4회공개분: b'3.1.1.1), 86쪽, 96쪽.

8) 전계 『소화제정사』 제1권, 237쪽에서 중복인용.

“점령지에 우리 측이 준 손해 평가”, “해외자원상실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측의 경제적 존립상 취득을 필요로 하는 물자”, “위의 물자확보상의 유보요망사항” “지역별 취득을 요하는 주요물자⁹⁾”, “주요해외기업의 장래”, “내지에서 절단되는 조선경제의 동향”, “조선경제의 일본내지의존도 연구”가 열거되고 있다¹⁰⁾. 식민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기여”라는 ‘시혜론’으로 파생될 수 있는 논점이 배상문제라는 현실적 과제와의 관계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등의 존재가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측하고 그 상실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작업은 주로 외무성에 부과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패전 후 대동아성의 폐지, 조선 등 식민지의 관할을 담당하던 내무성의 권한축소에 수반되어, 동아시아 제지역과 함께 구 식민지 관련 사무가 외무성으로 이관된 까닭이다¹¹⁾. 외무성 조사국이 사사오 노부오(佐々生信夫)¹²⁾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에게 연구를 위촉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선통치 성격과 문제』(조3자료 제2호, 1945년 12월 20일),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반성과 반비판』(조3자료 제7호, 1946년 3월 1일), 『「독립」 조선경제의 장래』(조3자료 제12호, 1946년 6월 20일) 등 조선관계 보고서를 속속 등사인쇄에 부친 것도 앞서 서술한 과제에 대한 분석작업을 구현해 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또 사사오에 따르면 “작년 말 (외무성) 조사국으로부터 (중략) 제안이 있어 (중략) 약 2개월 동안 (중략) 일단 논문의 체제로 정리하였다”¹³⁾고 하여 외무성의 의뢰는 10월 내지 11월경으로 추정된다).

사사오 보고서 인쇄를 계기로 외무성은 다음 해인 1946년 2월 5일 ‘외지경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출석자는 아베 이사무(阿部勇)·스즈키 다케오·사사오 노부오·다이로 데이조(平貞藏)·기타야마 후쿠지로(北山富久二郎)·나미키 마사요시¹⁴⁾로 일찍이 경성제국대학·

9) 구체적 물자는 다음과 같다. 조선-철광석·무연탄·비철금속·쌀·흑연, 대만-쌀·설탕·장뇌, 사할린-목재·석탄·펠트·수산물, ‘만주’-대두·대두박·잡곡·소금·마그네사이트·마그네시아 클링커, ‘북지’-점결탄·소금, ‘중지’·해남도-탄광석, ‘북지’·‘중지’-유지원료·면화. 또한 전계 『금후의 국내경제시책에 관한 일고찰』에서는 1937년도에 이들 자원의 유입액으로 조선에서 5.72억 엔, 대만 4.10억 엔, 사할린 1.21억 엔, ‘만주’·관동주 2.94억 엔, 중국 1.44억 엔이라고 나온다.(전계 『자료·전후 일본의 경제정책구상』 제1권, 54쪽).

10) 전계 『소화재정사』 제1권, 237쪽.

11) 외무성백년사편찬위원회 편 『외무성의 백년』(하라쇼보, 1979년), 761~762쪽. 외무성에서는 조사국제3과경제반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제건의 기본계획 책정이 추진되어, 『일본경제제건의 기본문제』(외무성특별조사위원회, 1946년 3월, 개정판 동년 9월)를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4의 『경제자료』 외에 「조3자료」라고 제목한 일련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후출의 사사오 노부오·스즈키 다케오의 보고서도 이 「조3자료」에 속한다(외무성조사국제3과 「조삼경제반보고서」 1946년 7월 31일, 전계 『자료·전후 일본의 경제정책구상』 제1권, 126~127쪽). 외무성조사국제3과는 오키타 사브로(大來佐武郎, 1914년~1993년, 경제안정본부조사과장, 외무대신 등 역임)을 통해 경제안정본부총재관방조사과로 ‘계승’되었다(아사이 요시오(淺井良夫) 『경제안정본부과와 오키타 사브로』(세조대학경제연구소연구보고 No.11, 1997년, 7쪽).

12) 사사오 노부오는 소속이 동경산업대학(현 히토쓰바시대학)이었다는 외에 현 단계에서는 상세한 경력을 파악할 수 없다. 야마다 유조(山田雄三) 편 『국민소득분석』(일본평론사, 1947년)에 사사오의 보고요지 ‘더글러스의 한계생산력 측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의 ‘편자주’에 “얼마 전 생각지 못한 재화로 사망한 사사오 군이...”라고 있어(동서, 335쪽), 동서 간행시점에는 이미 고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3) 사사오 노부오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조선통치정책의 성격과 그 문제』의 개요보고」(1946년 2월 5일). 이것은 후출의 「외지경제간담회」 석상에서 사사오가 말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료는 이 사료는 스즈키 구미(鈴木久美) 씨가 제공해 주셨다.

14) 아베 이사무(1898년~?)는 1923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입사, 조사부차장·신경지사조사국장 등을 역임. 스즈키 다케오에 대해서는 후술. 다이로 데이조(1894~1978년)은 경제평론가로 전전은 법정대학교수·남만주철도주식회사 관계의 각종 촉탁을 역임하는 한편, ‘소화숙’창설에도 관여하고, 전후에는 제1경제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기타야마 후쿠지로(1901~1984년)은 경제학자로, 1930년~42년에 걸쳐 타이베이제국대학 조교수로

타이베이제국대학 ·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부 등을 통해 식민지 등에 관여했던 학식경험자가 중심이었으며, 외무성의 관리국 · 조사국 관계자를 포함하여 토론장이 마련된 것이었다. 외무성에서는 패전에 따른 식민지와 세력권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종래의 지배, 피지배 관계를 청산한 모양새로” 이후에도 더욱 이들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유지 · 심화가 불가결하다는 전망 아래, “오늘날 상호 새로운 관계 발족에 임하여, 과거에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통치, 지배 실적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회고하는 일은, 생각건대 금후의 특히 경제의 필연적, 유기적 관계(혹은 그 역관계)를 오류 없이 파악하기 위한 제일보”라고 생각했다¹⁵⁾. 이런 취지에서 외무성은 조사의 단서로서 사사오 노부오에게 연구를 위촉한 것이며, 이어서 보고서인쇄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조사 진전을 피하여 ‘외지경제간담회’를 열었던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사에 임하여 우리 나라 식민통치의 특수한 성격과 일반적 성격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신사태 전개는 1) 일본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2) 각 지역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3) 금후 우리 나라와 각 지역이 필연적, 유기적으로 결합해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떠한가”, “조사목적은 한층 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덧붙여 본 조사의 필연성에 대하여)” “각 지역별 조사를 몇 명에게 위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¹⁶⁾.

특히 일본의 식민지 통치 조사에 즈음하여 “제국주의”나 “침략”, “착취”를 수반하는(수반한다고 여겨지는) 구미의 식민지 지배와 공통적 측면과,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다르다고 여겨지는) 독자성의 측면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사오와 스즈키의 견해가 대조를 이루었다. 사사오는 조사보고에서 일본통치가 조선경제 전체에 진전(공업화와 생산력 확대)에 완수한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인에게 은혜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석상에서도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통치에 대하여 예를 들면 ‘황민화’ 또는 ‘내선일체’ 등의 말이 나타내듯이 그 특수성만이 너무 강조되었는데, (중략) 본질적으로는 역시 영국의 인도통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식민지 통치의 일반적 성격을 일본의 조선통치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⁷⁾.

이에 대하여 스즈키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특히 조선통치가 소위 제국주의적인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통치에 보이는 특수적인 측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 “단순히 착취만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륙진출 자체도 우리 나라로서는 실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는 “현재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금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다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실제문제”와의 관계이다. 한 가지 더 들고 있는 것은, 장래를 잘 생각하여 “‘일본’을 변호하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위에서 말한 점을 “분명하게 해 두지” 않으면 “과거에 일본의 대륙진출은 모두 제국주의적이며 착취였다”는 주장을 “묵인한 것이 되며 장래에도 일본인이 필요이상으로 주눅 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¹⁸⁾.

근무하면서 동경제국대학교수로 전직, 전후에는 대장성세무강습소장 · 학습원대학교수 역임. 나미키 마사요시(1918년~?)은 “다이라의 제자로 종전당시 다이라 씨 댁에 더부살이를 했던” 인물로(오키타 사브로 『이코노미스트의 역할』 일본경제신문사, 1973년, 16쪽), 패전직후에는 외무성특별조사위원회 사무 등을 담당, 그 후 농림성농업총합연구소장 · 식량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

15) 외무성조사국 『외지경제간담회의사개요』(1946년 2월 8일), 1쪽.

16) 위의 책, 2~3쪽.

17) 위의 책, 3쪽.

실은 스즈키는 사사오의 조사보고 권말에 「독후감」을 투고했는데, “실제적”이라는 점을 축으로 비판을 전개하였다. “지금 실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정책(분국의 이익을 위한)이었다는 점”보다도 “서양의 그것(= 식민지 정책, 사료 인용중 괄호 안은 인용자의 주기임. 이하 동)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쪽이다. 혹은 “아카데미한 논문”이라면 어쨌든 “조선의 분리 독립이 금후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 여하”라는, 부여된 “실제적인 과제”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모양새다¹⁹⁾. 사사오의 보고에 대해 “양심적인 노작”이라 평하면서도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승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²⁰⁾고 생각한 외무성에게는, “이 작업이 실제적 의도”²¹⁾를 적확하게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스즈키의 자세는 니즈(needs)에 지극히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후에 외무성이 스즈키에게 위촉하여 앞서 언급한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 및 『‘독립’ 조선경제의 미래』로 묶어 낸 것도, 양자의 방향성이 부합한 데 따른 점이 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출식자 중 한 사람인 다이라는 이러한 조사의 의의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우선 1) “현재 이들 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일본인을 위해”, 2) “금후 일본이 대륙 등에 진출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전철을 ○(○은 관독곤란 부분. 이하 동)하지 않기 위해, 또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3) “장래 이들 지역과 결부될 필요가 있다면 오해에서 오는 장애가 제거되어 한층 더 결부되기 쉽게 하기 위해”, 4) “배상문제 등에 관련”으로 정리하고 있다²²⁾. 전전 식민지 통치에 대한 파악과 평가의 방향성은, 배상문제 외에 전전 일본의 통치, 점령에 대한 “오해” 등, 아시아 각 지역에서 예상되는 “장애”를 제거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이들 지역으로 경제적인 재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과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외사업전후대책중앙위원회와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 조사」

앞서 언급한 배상문제의 귀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중 하나는, 일본의 세력권에 경영기반을 구축했던, 혹은 깊은 관계를 가졌던 기업이었다. 패전 직후부터 각 기역단위에서 관련 기업의 연휴조직이 만들어 지는데, 조선에 대해서는 1945년 11월 1일, 조선사업자회가 창립되었다²³⁾.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지역단위의 기업연합체를 형으로 규합하는 중앙조직으로서, 해외사업전후대책중앙위원회(이하 ‘중앙협의회’²⁴⁾)가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 지역별 부회(‘사할린’ ‘대만’ ‘남양군도’ ‘만주’ ‘북지’ ‘중남지’ ‘남방’ ‘구미호인등’)와 업

18) 위의 책, 3~4쪽.

19) 스즈키 다케오 「사사키(원문대로)노부오씨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선통치 성격과 문제』의 독후감」, 전계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선통치 성격과 문제』, 141~142쪽.

20) 전계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선통치 성격과 문제』 수록의 외무성 조사제3과 「들어가는 말」

21) 전계 「독후감」, 142쪽.

22) 전계 「외지경제간담회의사개요」, 6~7쪽.

23) 「조선사업자외창립 안내 건」(1945년 12월), 「조선사업자외설립관계문서」(「우방문고」 M3-26, 학습원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24) 해외사업전후대책 중앙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宣在源 「귀환기업단체의 활동-전전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경제복귀과정」(하라 아키라(原朗)편 『부흥기의 일본경제』 동경대학출판회, 2001년)을 참조.

태별 부회(‘무역’ ‘금융’ ‘토건’ ‘담배’ ‘섬유’)가 설치되어, 지역별 부회는 각각 대응지역의 기업연합체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중앙협의회에 참가한 조선사업자회는 조선부회를 구성하였다²⁵⁾. 중앙협의회는 “재외사업 및 재산의 동경. 해외와 본국의 경제적 관계차단 재외회사의 내지사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등, 당면한 사태 대처와 함께, “재외재산의 전면적 조사연구”, “금후의 사업 혹은 재산의 평가 혹은 인도 등의 경우”에 있어 관청에의 협조 · 건의, “정부의 재외재산 조사 실시”에 협력 · 지원 등을 활동 목적으로 들어²⁶⁾, 재외재산의 보상과 관계자의 “갱생” 지원 등을 요청하여 정부와 절충을 거듭해 간다.

1946년 3월 22일, 중앙협의회의 간사회에서 한 가지 의제가 부상했다. “해외사업자는 전시 중 일시적으로 불문곡직하고 군벌에 이용당한 사태에 몰렸던 것도 본래는 다년에 걸쳐 현지 주민의 민생향상, 경제개발에 공헌한 것임을 구체적 반증을 들어 관계요로에 제시해야 하는 자료수집법”에 대하여 중앙협의회에서 “선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²⁷⁾. 덧붙여 외무성 관리국 경제부 등 정부관계자도 참석하여 개최된 중앙협의회 제9회 이사회(1946년 3월 29일) 석상에서 “우리 나라 해외사업 종래의 활동상황을 구체적 사례에 대해 조사수집하고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적확한 관념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싶다는 요망이 “중요하고 적절한 제안”으로 평가되어 준비착수에 합의하였다²⁸⁾. 그 후 중앙협의회 제10회 이사회(1946년 4월 12일)에서 간사회가 조사취지 문안을 제출하여 논의한 후에,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 상황 조사」 의뢰서가 산하 각 단체에 송부되었다.

의뢰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의 동기와 주안점이 서술되었다. “과거 수십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숭한 고생을 하여 개척과 건설에 노력한 치수, 발전, 식림, 채굴, 운유 등의 산업면, 또는 무역, 금융 등의 경제면에 투자한 수천 억 엔에 달하는 제반시설, 기타 유형무형의 노력의 결정”이 연합국에 대한 배상에 합쳐지는 것은 “일본을 위해 유효하게 도움이 된다면 본망(本望)으로 여기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시 중에 군부에 의해 이용당한 사태만을 가지고 어찌됐든 그 발전동기가 당초부터 군사침략을 의도한 것처럼 곡해되어”, 그 탓에 “배상자산의 국가보상에 관련하여 내외의 이해와 동정을 잃고 있는 것은 자못 유감”이다. 애초에 식민지 등에서의 기업 활동은 “어디까지나 공존공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발족, 육성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다년에 걸쳐 상대국과 주민의 경제개발, 민생향상에 공헌한 일”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하여 입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 보고” 제출을 요청한다. 이 보고들을 중앙협의회에서 정리하여 외무성 · 대장성이 관계 당국과의 “교섭자료”로 활용한다²⁹⁾.

25) 중앙협의회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에 관한 진정서」 (1946년 7월27일, 조선사업자회 『재외재산보상요청에 관한 자료』 (1946년 7월 29일, 「우방문고」 M3-32)제출시점에서 지역별부회·업태별부회의 대표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할린부회=사할린사업자회, 대만부회=대만사업자회, 남양군도부회=남양군도관계회사연락협의회, 만주부회=만주관계사업연락회, 북지부회=화우회, 중남지부회=일화경제협회, 남방부회=남방농림협회, 구미호인등부회=요코하마정금은행, 무역부회=미쓰이물산, 금융부회=요코하마정금은행, 토건부회=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 외지대책위원회, 담배부회=해외담배업자협의회, 섬유부회=재화일본방직동업회.

26) 「해외사업자전후대책중앙협의회 회칙」, 「우리 나라 경제 및 상업단체관계잡건 해외사업 전후대책 중앙협의회」 (외무성기록 제5회 공개분: E'1.2.1.2-5), 29쪽.

27)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호(1946년 4월 1일, 「우방문고」 M3-37), 1정.

28) 「제9회 의사요록」, 「해외사업 전후대책 중앙협의회관계 (철)」 (「우방문고」 M3-66).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3호(1946년 4월 8일), 1정.

29) 중앙협의회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조사에 대하여」,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조사에 대한 의뢰서 및 서식」 (「우방문고」 M3-68). 본문 인용에도 보듯이, 식민지 등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곡해”가 있기 때문에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에 대해 “내외의 이해와 동정을 잃

그런데 중앙협의회 제10회 이사회에서 이 조사에 관한 통고안을 둘러싸고 설명과 논의가 있었음은 앞서 서술한 대로인데, 그때 의사요록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던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취지가 취지인 만큼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잘못하면 우리들의 침략사를 기록한 것이 될 것이다. 상당한 학자와 식자가 고민하여 취사선택을 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제출받아 가장 입맛에 맞게 조합했으면 한다.”

“...전쟁중에 기여했다, 해외에서 착취했다, 일본의 팽창정책에 기여했다, 등등의 말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삭제한다는 취지이길 바란다. 전쟁 전부터 일본의 평화발전을 위하여 해외에서 특히 현지주민의 민생을 위하여 기여했다는 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한다.”³⁰⁾

여기서는 조사를 결정하면서 “침략”이나 “착취” 요소를 제외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취사선택” 한 데이터를 “가장 입맛에 맞게 조합”하여 입론해야 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또, 당초 의뢰서 가운데 “조사보고 요령”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상대국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사업개시 전과 완성 후를 계수적으로 비교·설명할 것³¹⁾”이 포함되어 있듯이, 이 조사는 “현지주민”에 대한 “기여”정도를 “계수적”으로 밝히는 데 중점이 있다. 조사의뢰는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켜”, “약 백건”의 응답이 회수되었다고 하는데, “원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성질 상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의 회답에는 “기재가 너무 간략한 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협의회는 1946년 6월 15일자로 재차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서장을 발송했다³²⁾. 거기에는 “원주민과의 관계(특히 타국과 비교할 것)”로서 1)“기술원 양성” 2)“노동자 채용상황(원주민, 내지인 비교), 실버구제, 복리시설의 구체사례, 임금노동조건 등” 3)“판매 및 거래 정책, 저렴한 가격으로 민생에 기여 및 그 구체사례” 4)“제품의 용도 및 판로에 있어 현지 민생에의 기여” 5)“자본금 구성과 변천, 특히 현지인의 소유주” 6)“사업이외 민생시설 기타 병원, 기부행위 등” 7)“다른 현지회사와의 협동관계” 8)“이상 구체사례, 특히 원주민의 반향사례” 등 세부에 걸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³³⁾.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원주민”에 대한 “기여” ‘사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고 있다”는 현상인식이 의뢰서에 나타난다. 이러한 “곡해”와 동시에 “송환자”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의 일단으로서도 의식되었다. 시기는 좀 나중이지만, 정부요로와 신문관계자를 포함한 좌담회 석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선전이나, 무엇인가 때문에, 해외에 나갔던 일본인은 모조리 제국주의의 앞잡이, 자본주의적 착취의 앞잡이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나카야스 요사쿠(中保興作, 조선귀환자동포보호회 이사, 전 경성일보 주필)의 발언). 「장상에게 귀환자 문제를 듣는 모임」, 『귀환동포』 제3호(1946년 7월), 18~19쪽), 혹은 “이번에 중전이 되어 자칫하면 오랫동안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곳(조선·대만·사할린·관동주·남양군도) 쪽에서 침략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듯이 인식하고 있다. 또 그런 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침략의 앞잡이로서 죄가 무겁다고 여겨지기 쉽다”(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조선귀환자동포보호회 회장, 전 총독부식산국장)의 발언.

「구 영토내 개인재산 보상문제 좌담회」 교정쇄, 『귀환동포』 제5·6호(1946년 10월), 14~15쪽. 또 인용부분은 GHQ의 사전검열로 삭제되어, 간행본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옹송당(雄松堂)마이크로필름 『점령군 검열잡지』 수록의 교정본을 참조함)는 형태로, “귀환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앙협의회에서 이 조사의 “최종 목표는 맥아더 사령부에 당분간은 일본정부 또는 국내여론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데에 있다”(「제10회 이사회 의사요록」(전계 「해외사업 전후대책 중앙협의회관계(철)」)고 되어 있는 것도, 정부와 일본사회에 이러한 “곡해” “오해”의 ‘불식’과 ‘시정’이 급무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0) 전계 「제10회 이사회 의사요록」

31) 전계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조사에 대한 의뢰서 및 서식」

32) 중앙협의회 「우리 나라 해외사업의 평화적 성격조사 건」, 전계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조사에 대한 의뢰서 및 서식」

33) 위와 같음.

더욱이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조사가 의제로서 중앙협의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조선사업자회에서 그 복선이 될 만한 조사실시가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1946년 3월 18일 조선사업자회 이사회에서는 “조선관계사업자는 대동아전쟁 이전부터 조선개발, 민생복리증진에 공헌하였고, 일시적으로 군벌로부터 침략전쟁에 이용당했음에 지나지 않은 실정을, 요컨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편찬해서 신속히 당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령부 및 각 방면의 계몽에 이바지하는 조치를 찾을 것”이 논의되고 있었다³⁴⁾. 직접적 근거가 되는 사료는 찾을 수 없지만, 중앙협의회에 대하여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및 활동상황 조사」 실시를 제안한 것은 조선사업자회였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 후 경과를 보면, 1946년 4월 말에 다카미야 스스무(高宮晋)·가와노 시게토(川野重任)·야마다 유조(山田雄三)의 세 명의 학식자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 조사보고서 편찬위원”을 마련한 일, 그리고 조사보고가 1947년 5월에 완성되어 “원고 일괄, 외무성, 대장성에 제출”된 것이 사료에 기술되었다³⁵⁾. 이번에 그 ‘완성원고’의 소재확인만 안 되었지만, 조사의 취지 자체는, 1946년 7월 27일자로 관계각료·귀중 양원의장 앞으로 제출된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에 관한 진정서」에서도 국가보상을 요청하는 논거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거기에는 “해외사업”이 농업·공업에 비롯하여 학교·병원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현지의 경제·문화 및 “민도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부분에 그치지 않는 “다수의 평화적 성격 및 연혁”을 가졌고, 이런 성과와 시설은 그대로 “접수국의 경제력 증강”으로 이어지며, “이미 일본의 군사력에는 공헌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보상중단의 대상이 되는 “내지”의 군수산업과 “해외사업”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 기술되었다³⁶⁾. 중앙협의회가 앞서 서술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지 얼마 뒤에, 일본정부에서도 재외재산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 측이 중앙협의회에 그런 의향을 보인 것은 1946년 6월 8일이다. 중앙협의회 제19회 이사회·제10회 보상위원회(1946년 8월 15일) 석상에서 설명을 했던 대장성 관리과장은 “재외재산조사회는 정부의 책임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예산에 상당액을 계상하여 대규모로 게다가 신속하게 처리를 바란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으며, “언젠가 배상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연 재외재산에 대해서도 자료로서 유권적인 것을 작성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중앙협의회의 협력 아래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력도 내주길 바란다”는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³⁷⁾. “본래 정부의 사무이지만 그 방면의 실체에 정통한 사람이 적”³⁸⁾고, 역할의 하나인 “민간 측의 자료수집”³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단체의 협력은 불가결하였다. 정부 측은 재외재산조사회의 위원·간사로서 중앙협의회의 지역별·업태별 부회에서 각 부회의 대표자·간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⁴⁰⁾, 재외재산조사회에 설치된 지역부회는 중앙협

34)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1호(발행일 기재없음), 1정.

35) 중앙협의회 「이사회요록」 1948년 1월 9일(중앙협의회 「이사회요록」, 「우방문고」 M3-76), 2~3쪽. 전계 「우리 나라 경제 및 상업단체관계 잡건 해외사업 전후대책 중앙협의회」, 50쪽. 다카미야 스스무(高宮晋, 1908~86년)은 경영학 전문으로, 동경제국대학·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역임. 가와노 시게토(川野重任, 1911년~)은 농업경제학전문으로 동경제국대학교수·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 야마다 유조(山田雄三, 1902~96년)은 국민소득분석으로 알려진 경제학자로 동경상과대학·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역임.

36) 전계 『재외재산보상요청에 관한 자료』, 2~3쪽.

37)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2호(1946년 8월 26일), 3정.

38) 재외재산조사회의 간사·위원의 첫 회합(1946년 9월 26일)에서 정부 측 설명.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1946년 10월 7일), 2정.

39) 위와 같음, 2정.

40) 조선관계자에서는, 총무부회 위원으로 호즈미 신로쿠로(전 총독부식산국장)·미즈타 나옴사(전 청독부재무국장), 조선부회 위원으로 시라이시 무네키(白石宗城, 조선사업자회이사장, 전 조선질소비료조사역)·야마

의회의 지역부회의 틀을 거의 답습하였다. 재외재산조사회는 중앙협의회 조직과 인재를 그대로 옮겨놓는 형태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측은 중앙협의회 “노력적 봉사협력⁴¹⁾”을 요청하면서도 “이 조사회의 조사는 재외재산보상의 자료로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두기 바란다⁴²⁾”고 뜻을 박는 것도 잊지 않았다.

3. 재외재산조사회와 『역사적 조사』

“일본으로서는 재외재산이 이 정도나 있던 만큼 국내시설의 배상에 대해서도 이것만큼은 고려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재외재산의 대가를 종합해 두는 것은 배상회의의 기초자료로서 절대 필요하다는 결론에 관계각료 간에 의견이 일치했⁴³⁾”기에, 정부 측에서 재외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설치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재외재산조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외무, 대장 양성 합의에 관한 건」(외무차관발·대장차관 앞 통달, 1946년 8월 29일)에 의해, 1946년 9월 1일 재외재산조사회(이하 조사회)가 성립하여 같은 해 9월 26일 조사회의 간사·위원의 첫 회합이 열렸다.

조사회는 대장대신과 외무대신의 관리 하에 ‘재외재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관제에 의존하지 않고 양성 공동의 내부규정⁴⁴⁾”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상 “비공식⁴⁵⁾”으로 평가되었다. 회장에는 외무대신, 부회장에는 대장차관을 지명, 서무는 외무성관리국 경제부·대장성 특수재무부(배상·재외재산조사 등을 주관, 1947년 4월에 관리국으로 개조)의 공동관장으로 하였다⁴⁶⁾.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외무·대장 양성의 공관이지만, “사실상 [대장] 차관이 전부 했”다는 관계자의 증언⁴⁷⁾이나, “본 조사사업은 본래 외무성과 대장성의 공관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 관한 한, 대장성 관리국이 종합하였다”는 기술⁴⁸⁾에서 추론하면, 전체적으로는 대장성 주

구치 시게마사(山口重政, 동회 전무이사, 전 조선식산은행 부행장), 총무·조선양부회의 간사로 후지모토 슈조(藤本修三, 동회 촉탁, 전 경성세무감독국장)이 재외재산조사회에 참가하였다.

41) 중앙협의회 제20회 이사회·제12회 보상위원회(1946년 8월 29일)에서 대장성 특수재무부장의 설명.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4호(1946년 9월 9일), 2정.

42)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 3정. 무엇보다 기업단체 측은 정부의 이러한 자세를 납득한 위에 재외재산조사회의 활동에 협력했던 것은 아니다. “준비회(재외재산조사회)는 재외법인재산의 평가가 업무로 보상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상중단과 같은 극히 불공평한 조치로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조선사업자회 회보』 제44호(1946년 3월 31일), 3정).

43) 중앙협의회 제20회 이사회(1946년 8월 29일).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4호, 2정.

44) 「재외재산조사회 규정」(1946년 8월 28일 실시).

45) 대장성관리국 관리과 「중전시의 일본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미정고, 이하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1948년 2월 2일), 「재외재산조사회 관계자료목록」(국립공문서관 쓰쿠바분관: 06-023/평12대장/02779100). 재외재산조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이 조사회에 관한 신문보도 같은 것도 사령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표한다고 약속했으므로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의가 나와(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 3정), 『조선사업자회 회보』 지상에도 “이 준비회(재외재산조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할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는 기술이 보인다(전계 제44호, 3쪽). 일본정부가 재외재산조사회가 추계한 재외재산액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 『역사적 조사』를 오랫동안 ‘비공개’로 해 온 것도 이 ‘비공식’이라는 조직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6) 전계 「재외재산조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외무, 대장 양성 합의에 관한 건」 및 「재외재산조사회 규정」.

47) 미즈타 마사나오 「구 조선제정에 대하여」, 대장성대신관방조사기획과 『외지재정금융사』(1979년), 7~8쪽. 미즈타 마사나오 『조선재정여화』(우방협회, 1981년), 8쪽.

48) 『역사적 조사 총목록』의 「범례」, 5쪽. 다만 여기서 참조한 『총목록』은 무사시대학도서관 소장의 「스

도성이 강한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조사회는 회장·부회장 이하 위원 33명, 간사 38명(위원·간사는 “관계 각 청 관리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위촉), 유급축탁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⁴⁹⁾. 조사회에는 총무부회와 지역부회가 설치되어 전자는 “조사방침 확립, 통화가 다른 지역의 평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송금과 예금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고, 동시에 각 부회의 연락조정을 담당하였다. 후자는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북지” “중남지” “남방제1[구육군점령지역]” “남방제2[구해군점령지역]” “구미 등”의 10개 부회로 나뉘어 “각 지역의 관계, 실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집계결과를 총무부회에 보고하게 되었다⁵⁰⁾.

조사회의 제1 과제는 재외재산에 관한 자료수집과 평가액추계 산출이다. 따라서 대장성령 제95호⁵¹⁾에 의거해 관계기업이 제출한 “약28만 건”에 달하는 재외재산보고서의 관리·미보고분의 정리·민간 측의 자료수집이 요구되었고⁵²⁾, 주로 “(1)성령95호에 의한 보고서 (2)각 부회에서 각각 담당지구 상사에 직접, 절충하여 수집한 자료 (3)외무성보유자료 (4)현지에서 가지고 돌아간 현지조사서류 (5)wg사회가 직접 수집한 문상(文狀)기록류⁵³⁾”를 기반으로 하여 그 집계작업이 개시되었다. 조사과정과 집계방법에 대해서는 사료부족과 지면 관계상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다⁵⁴⁾. 1947년 3월 4일에 한번 정리한 뒤에도 추계작업을 반복하여, 대장성은 1948년 12월 21일 제20회 추계를 최종보고로서 GHQ에 제출했다⁵⁵⁾는 언급

즈키 다케오 선생 기증도서」 가운데 있다. 이것은 「법례」의 문장에 이동이 조금씩 보이고, 각 권의 상세 목차에 쪽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총목록』의 이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한 부분도 현재 볼 수 있는 『총목록』의 「법례」에는 보이지 않는다.

49) 대장성재정사실 편 『소화재정사-중전에서 강화까지』 제4권(동양경제신보사, 1977년), 627쪽.

50)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 3정. 전계 「재외재산조사회 규정」.

51)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재외재산 등의 보고에 관한 건」(1945년 11월 8일)이다. GHQ각서 「금, 은, 백금 및 재외재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분리보관과 보고에 관한 건」(SCAPIN 제 96호, 1945년 10월 6일)에 의해, 일체의 재외재산에 관한 보고의 제출과 외국외환자산의 분리보관이 지령된 데 대응한 것. 또 대장성령 제95호에 의한 보고서 정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성에서 일본은행으로 위임되었다(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일본은행에 제출된 「개인」의 보고서는 53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며(1945년 11월~1946년 3월 제출분 14만 건, 1946년 4월~7월 제출분 14만 5천 건, 그 이후 제출분 10만 건, “금후의 보고 예상 수” 15만 건), 그 가운데 일본은행 측에서 조사를 완료한 분이 14만 건, 조사 중인 분이 14만 5천 건이며, 그 밖의 분에 대한 조사가 재외재산조사회에 위임되었다고 한다(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44호, 4~5쪽).

52)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8호, 2정.

53) 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54) 최종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중요상사의 기업자산을 산술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 기업자산을 추정”하여, 거기에 고유재산분을 가산하고, 그 “유형적 재산의 순계”를 산출하는 형태로 추계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업자산을 주체로 하는 총액조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개인재산·육해군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는 기업재산에 비해서 훨씬 소액이므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고 한다(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외무성관리국 경제과 「재외재산조사회 개요」(1949년 3월 10일, 전계 「재외재산조사회 관계자료목록」). 상세한 조사방법 및 자산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전기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등을 참조.

또 재외재산조사회의 제1회조사결과가 1946년 10월 28일, GHQ의 민간재산관리국(C.P.C.)에 제출된 것을 수용하여, C.P.C. 및 외무성·대장성·일본은행의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매월2회, 1949년 3월 10일 현대 액 20회의 회의가 마련되었다(전계 「재외재산조사회 개요」). 재외재산조사회와 “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C, P, C.의 위원회의 하청과 같은 형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표현도 보인다(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55) 전계 『소화 재정사』 제1권, 752쪽. 이 대장성 보고(Japanese External Asserts Report Submitted by Ministry of Finance, 21 Dec.1948)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해방직후 한국소재 일본인자산관련자료』(선인, 2005년)에 수록되어 있다. 또 그 추계액(민간기업·정부자산. 군·개인자산을 제외)을, 전시기 점령지를 제외한 일본의 세력권에 한정하여 들면, 조선 약707억 8900만 엔, 대만 약88억 9000만 엔, 사할린 약93억 5600만 엔, 남양군도 약7억6800만 엔, ‘만주’ 약1311억 9200만 엔, 등으로 되어 있다(전계 『소화 재정사』 제

으로 그치겠다.

또 다른 과제는 조사회에서 수치화된 재외재산이 어떤 경위로 축적 되었는지, 그 “역사적 생성과정⁵⁶⁾”의 기록 작업이며, 이것이 『역사적 조사』로서 결실맺게 된다. 이것은 재외재산의 산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체 어떠한 거래의 결과로서 이러한 입차대조표가 남겨졌는가, 혹은 이러한 통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전체적인 설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가, 각지, 각 시기, 각종의 기업을 일관하는 설명내지 주장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⁵⁷⁾는 문제의식이 환기된 까닭이다. 조사회에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역사적 조사』 편찬의 실시가 결정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편찬작업이 시동되는 것은 후술하듯이 1847년 6월경이라 여겨진다. 어찌됐든 『역사적 조사』 편찬은 조사회의 “부수적인 일⁵⁸⁾”로 부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재외재산이 집적되어 간 역사적 경위와 성격을, 통치의 전반적인 양태에 부응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조사회의 활동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 조사』의 편집회의에서도 “본 조사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횡단적인 조사, 그 가운데서도 기업재산의 집계적 보고, 여기에 현재 우리들이 종사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보강으로 한 몸을 구성하는 방침⁵⁹⁾”이라고 했듯이, 이 두 작업은 표리일체였다.

『역사적 조사』 편찬은 조사회의 부회장회의의 결정(1947년 6월 13일)에 따라, 총무부회 · 각 지역부회 · 대장성에서 대표자가 출석하여 제1회 회합이 1947년 6월 18일에 열린⁶⁰⁾ 이후에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그 후 총무부회에 편집위원을 둔 것으로 보이며, 1947년 7월 14일에는 제1회 편집회의가 열렸다. 편집위원은 『역사적 조사』 전체 구성과 편집방향의 확정, 표기 · 체제의 통일을 위한 결정, 각 부회와의 연락 외에 「총론」 집필을 담당하였다⁶¹⁾.

1권 563쪽). 재외재산조사회는 제20회 추계를 제출한 직후인 1949년 1월 16일자로 해산되었으며, 관련 사무는 대장성 관리국에 흡수된다.

56) 전계 『역사적 조사』의 「서문」, 2쪽.

57) 위와 같음, 1쪽.

58)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복각간행증지가처분집행사건」의 동경지방법원 제10회 공판(1975년 6월 25일)에서 스즈키 다케오의 증언(『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복각간행증지가처분집행사건 자료집(이하 『자료집』), 제2집(『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간행을 촉진하는 모임 사무국, 1974년, 36쪽). 다만 인용부분은 스즈키의 증언을 요약한 문장이다. 이 ‘사건’은 류케이서사(龍溪書舍)에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의 복각간행이 기획되었을 때, 국가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대장성의 신청으로 1973년에 복각금지처분이 집행되었기에 소송이 걸렸다. 1977년에 동경지방법원에서 대장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동경고등법원(1982년), 대법원(1984년)에서도 1심판결을 지지하여 국가 측이 승소해서, 본 건은 “국가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로서 판례에 남았다. 본 소송 이전에 「조선편」 2와 9만을 합책복각한 것이 호북사(湖北社)에서 간행되었지만(『조선에서의 일본인의 활동에 관한 조사』, 1977년), 그 후 1985년에 한국의 고려서림에서, 2000년에 유마니서방에서 간행되었다.

59) 「제3회 편집회의기록」, 「역사적 조사 관계 조선부회」(『일본인의 해외발전에 관한 역사적 조사』 수록, 「우방문고」 M4-165). 또한 전계 「재외재산조사에 대하여」 가운데 「재외재산에 대한 역사적 조사」 항목에서도, 『역사적 조사』를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일단 일본의 해외재산 추계액은 산출할 수 있었지만, 과연 이 정도의 재산을 일본이 해외에 보유할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위의 재산액의 타당성이 흐려진다. 특히 조선, 대만, 사할린 혹은 만주국과 같은 구 영토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상당한 투자가 있었으며, 대일무역 등의 역사적 배경이 없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각 지역과 일본과의, 당초부터 역사적으로 영토의 범위, 인구, 광공업, 농업, 산업,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재외재산의 존재를 타당하게 만드는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역사적 조사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다수를 동원하여 전력을 다하여 조사를 실행하여, 현재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이로써 일본재외재산의 화룡점정(원문대로)을 기도한다.”

60) “역사적 조사에 관한 협의회 제1회 결정사항”, 전계 「역사적 조사 조선부회」.

61) 편집위원은 『역사적 조사』 「서문」의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이는 스즈키 다케오 · 이노마 기이치 · 기타

그런데 『역사적 조사』 편집회의에서 「총론」의 집필방침⁶²⁾에 대한 잇단 논의를 보겠다. 거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보이는 식민지 인식의 기본적인 시각이 답습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총론」 집필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본의 식민지 발전 및 대외지역 시책의 역사는 순연한 경제활동의 역사이며,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에서 국방상 필연적인 발전과정은 있었더라도,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언급할 정도로 의의를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오늘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조사에는 왜곡되고 비하하는 태도는 없어야 한다.⁶³⁾”

또 시기는 “대만영유” “조선합병” “만주사변발발” “태평양전쟁”으로 구분하는데, “일청전쟁까지, 혹은 일로전쟁까지라고 하는 방식은 일본이 무력으로 세력을 신장한 것처럼 보이기 쉬워서 이 조사의 취지와 상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외에 일본의 세력신장을 확인하기 적당한 사건”으로써 구분한 결과라고 한다⁶⁴⁾.

이어서 연구시각으로서는 (1)“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상관관계, 소위 외국무역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각지에 대한 이출입무역을 더한 의미의 무역을 중심으로 각지에 대한 경제적인 비중을 고려한다”, 2)“일본을 중심으로 한 민족인구이동의 역사” (3)“일본의 식민지정책 외지정책 일본정부의 대외적 기관의 변천” (4)“무역수지 주로 자금이동관계” (5)“민도향상”을 들어 기술의 중점을 드러냈다. 요컨대 「총론」에 강조해야 할 것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 ○○한 사정이 서로 얽혀 때로 침략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과 동아시아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소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며, 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요점이다.” 그리고 “금후 전쟁을 방기한 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포함해 남긴다”는 것을 지적한다. 게다가 “현지에서 민도의 향상에 어떻게 공헌했는가”를 구체적 사례(“조선 출생률 격증, 대만은 25년 간 인구 두 배 증가, 만주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 등)를 “총론의 결론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럭저럭 되지 않겠는가⁶⁵⁾”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총론」의 집필방향이 총체적으로 일본의 대외활동 역사와 순수한 경제활동의 축적이라는 것, 침략적인 요소는 어디까지나 한정적으로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역사인식으로서 이른 바 ‘자학’적인 자세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세력권으로 둔 지역

야마 후쿠지로 · 가네코 시게오이다. 스즈키에 대해서는 후술. 기타야마는 주14 참조. 이노마 기이치(1896~1969년)는 통계학 전문연구자로 전전에는 동경시정조사위원회 연구원 · 기획원동아연구소 차사원 · 내각통계국 사무총장 · 신경상공공회 상무이사를 역임하였고, 전후에는 주오대학, 고마자와대학 교수를 지냈다. 가네코 시게오(1898년~?)은 대만은행에서 타이베이지점과차장 · 은행업무부장을 역임하였고, 전후에는 일본 무역신용상무조사역을 지냈다. 또 제외재산조사회 「역사적 조사 사무분담표」(1947년 7월 17일, 전계 「역사적 조사 조선부회」)에 의하면, 총무부회의 총괄담당으로 위 4명 외에 마쓰오 히로시(松尾弘, 전전에는 타이베이고등상업학교 교수, 전후에는 메이지대학 교수를 지낸 마쓰오 히로시(松尾弘, 1907년~?)와 동일인물?)라는 이름도 보인다. 그리고 『역사적 조사』 각 편에 대한 편집위원의 관여에 대해서는 “편별 구성은 장별 구성 정도까지”이며, 집필내용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스즈키의 증언, 전계 『자료집』 제2집, 37쪽). 『역사적 조사』의 집필에 관여한 인물은 297명에 이른다고 한다(전기 재판에서 국가 측 「석명서」 1973년 10월 22일, 전계 『자료집』 29쪽).

62) 「총론」의 초안은 이노마와 기타야마가 7월에 제시하였고, 집필담당은 이노마와 마쓰오로 결정되었다고 한다(「제3회 편집회의」, 전계 「역사적 조사관계 조선부회」). 이노마는 나중에 집필한 「총론」(아마도 제3장 「일본 및 식민지지역의 인구발달」)에서 통계수치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을 「일본영유시대의 구 식민지의 위생 · 교육통계에 보이는 사회적 후생의 증진」(『경상논찬』 제56호, 1954년)으로 발표하였다.

63) 「총론의 집필방침」, 전계 「역사적 조사관계 조선부회」.

64) 「제1회 편집회의기록」(1947년 7월 14일), 전계 「역사적 조사관계 조선부회」.

65) 위와 같음.

에서 일본이 다양한 형태로 “민도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일시적인 “침략”이나 “전쟁”으로는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과 아시아의 경제적 관계는 숙명적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다. 편집위원회에 스즈키 다케오가 관여하고 있던 탓이기도 하겠지만, 기출 사료에 드러난 논점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조사』의 편집회의에서 「총론」의 집필방향이 논의되던 시기에 작성된 외무성과 기업 측의 문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전자에는 외무성 관리국 경제부 「재외재산의 배상처리에 관한 건」(1947년 7월 5일)이 적어도 사할린·기타치시마(北千島)·조선·대만 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재외일본인은 평화적인 이주민으로 그 재산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주민의 개발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따라서 “해외재류 일본인은 팽창정책의 앞잡이로서, 그 자산, 기업 등은 경제적 현실의 과실(果實) 혹은 형태”라고 하는 연합국 측의 인식은 적합하지 않다(따라서 재외재산의 “징벌적 의미”에서 배상으로 충당은 “공정”하지 않다, 고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⁶⁶). 또 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중앙협의회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에 관한 진정서」(1946년 7월 27일)에서 같은 논리가 전개되는 외에, 1946년 7월 25일 사할린·조선·대만의 관계사업자가 관계각료 및 귀중 양원 의장 앞으로 제출한 「재외재산보상에 관한 진정」에도 “일본의 해외발전은 모두 군벌적 배경에 의해 확장되었다는 전제에서 징벌적 의미로 보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사할린·조선·대만의 일본영유는 “과거”에 행해진 것이며 “평온공연하게 일본관도에 속한 지역에서 내지인이 내지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생산적인 거주, 경영을 하여 현지의 산업개발에 힘쓰고 현지인의 경제, 문화의 발전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⁶⁷)”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지향점은 각각 다르지만 각 방면에서 단발적인 주장이 조사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하나의 상으로 맺어져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인식으로 정비되고 공유되는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스즈키 다케오의 역할

위에서 서술한 대로 중앙관청, 식민지 등에 경제기반을 구축했던 민간기업, 식민지 등의 재류경험을 가진 학식자는 각기 의도를 가지면서도 상호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는 재외재산조사회의 조사활동에 규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의 인식을 만들어 냈다. 이 3자의 결합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실히 들 수 있는 사람이 앞서서도 종종 언급한 스즈키 다케오이다.

스즈키 다케오(1901~1975년)은 재정·금융분야가 전공인 경제학자로 동경제국대학 졸업(1925년) 후 1928년에 조교수로 경성제국대학에 부임(1935년 이후 교수)했다. 「대륙병참기지」론이나 「북선 루트」론 등 전쟁수행 상 조선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관한 논으로 이름을 날리고, 전시에 가장 활발하게 언론활동을 전개한 인물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경성제국대학 재임시대 단행본으로 『대륙병참기지원 해설』(녹기연맹, 1939년), 『조선 금융론 10강』(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40년), 『조선의 경제』(일본평론사, 1942년), 『조선 경제의 신 구상』(동양경제신보사경성지국, 1942년), 『조선의 결전태세』(아사히신문사,

66) 외무성관리국 경제부 「재외재산의 배상처리에 관한 건」(1947년 7월 5일), 14쪽, 「조사집(제1권)」(「점령하 대일배상관계 1건」, 외무성기록 제4회공개분: B'3.1.1.1-7), 256쪽.

67) 전계 『재외재산보상요청에 관한 자료』, 4쪽.

1943년), 『결전 하 조선경제』(만주상공회중앙회편, 1945년. 만주경제연구회의 강연내용을 수록한 소책자)가 있다. 패전 후는 무사시대학교수 · 동경대학교수 · 무사시대학 학장을 역임한 외에, 재정 · 금융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남기는 등, 그 분야 권위자였다.

1973년 『이코노미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즈키는 조선의 남북에 “나의 제자”가 요추의 지위에 있어서 “좀처럼 움직이기 어려운” 일, “전시에 상당한 협력을 했고, 그 반성”도 하기 때문에 “전후에는 일체 조선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⁶⁸⁾”고 하였다. 인터뷰시기로 보자면 확실히 “조선문제 발언을 멈춘다⁶⁹⁾”고 한 말과 다름없는 경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패전 직후로 시기를 한정해서 보자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서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지 않고, 패전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한 때부터 1947년 『역사적 조사』 편집 작업에 참가하기까지 스즈키의 활동을 좇아 보겠다.

스즈키는 1945년 8월 15일을 조선의 서울에서 맞이하였다. 서울재류 일본인 보호, 각지에서 온 피난민에 대한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경성내지인(후에 ‘일본인’)보호회’ 창립에 참가하여 조사부장을 맡았는데⁷⁰⁾, 11월에 조선을 떠나 일본에 돌아왔다. 사사오 노부오의 보고서에 「독후감」을 보낸 것으로 보면 귀국직후부터 이미 외무성과 접점이 있었는데, 다음 해 1946년 2월 ‘외지경제간담회’에 참석, 그리고 외무성의 위촉에 의한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 집필(『세계』 제5호(1946년 5월) 게재문 「조선통치에 대한 반성」은 그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등, 외무성과 관계가 깊어지는 모양을 엿볼 수 있다.

1946년 4월에 들어서면, 조선사업자회와 구체적인 접촉이 기록에 보인다. 3월 25일 조선사업자이사회에 출석한 스즈키는 “조선통치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보면 결코 침략주의적, 제국주의적 이념에 따라 다스렸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을 몇 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계요소에 제시하고자하는 참고자료의 복안”을 피로했다고 한다⁷¹⁾. 이것은 “조선사업자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갖가지 간난신고를 거듭하면서 반도의 경제발전, 민도의 향상에 기여공헌해 온 사실을 적절한 예로써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조선사업자회가 조사의 착수에 임하여 스즈키에 의뢰를 한 것으로, 회보지에 스즈키의 “복안”의 요점을 소개하고 회원기업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다⁷²⁾. 이 조사는 해외사업 전후 대책 중앙협의회에서 앞서 서술한 「우리 나라 해외사업 본래의 평화적 성격과 활동상황조사」와는 별도로 기획된 것 같다. 다만 중앙협의회의 조사제기가 1946년 3월 22일의 간사회에서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지만, 그에 대해 조선사업자회의 어떤 부회에서는 “성대교수(스즈키 다케오)의 논문을 골자로 하여 각 사로부터 재료를 정비할 것을 중앙협의회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한다”라고 보고되었다⁷³⁾. 이 기술에서 조선사업자회를 중간에 두고 스즈키의 이론이 중앙협의회로 제안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스즈키는 여섯 항목의 가상질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반증을 하는 형식으로 집필을 기획했다. 그 항목은 (1)“일본의 조선영유는 조선의 시장독점이라는 일본자본주의의 요구에 근원을 두는 것인가?”, (2)“일본통치 하 조선의 경제는 발전했는가?”, (3)“일본통치 하 조선의

68) 『스즈키 다케오-경제학의 50년』(스즈키 요코(鈴木洋子), 1980년), 110쪽.

69) 위와 같음, 110쪽.

70)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간난도(嚴南堂)서점, 1964년), 134쪽.

71)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2호, 1정.

72) 위와 같음, 4정.

73) 「제10회 조선사업자회 광업부회 보고사항과 의제」(1946년 3월 27일), 「부회관계」(「우방문고」 M3-43).

경제적 약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지만, 그것이 일본자본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은 역시 일본에 의한 조선착취를 의미하지는 않는가?” (4)“일본은 조선의 문화향상에 노력했는가?”, (5)“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사업은 오로지 일본군부와 결탁하여 일본의 군사적 침략적 대륙팽창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닌가?” (6)“일본은 조서에서 쌀을 수탈하였는가?”이며, 현재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논점을 예측한 듯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조선산업경제의 발전과 재선일본계 기업』으로 4월에 300부가 등사 인쇄되어, 회원에게 5엔에 배포되었다고 한다⁷⁴). 조선사업자회 측은 “내용은 조선에서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활용할 것을 호소하였는데⁷⁵), 조선사업자회로서는 자기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해준 존재로 스즈키가 떠올랐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후에도 외무성·조선사업자회의 관계는 유지된다. 스즈키는 외무성으로부터 일본경제에서 떨어져 나간 조선경제의 장래전망에 관한 분석을 위촉받는데, 집필에 임해서는 조선사업자회를 통해 “조선을 포함하여 일환의 사업을 운영한 각 사”에 대해 “조선이 가진 부문이 그 사업의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것이 분리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다⁷⁶). 이것이 『「독립」 조선경제의 장래』로 정리되는 것이다.

또 조선사업자회가 『재외재산 보상요청에 관한 자료』(1946년 7월 29일)를 작성할 때, 「구 영토내 재외재산에 대한 보상요청」을 보냈다. 스즈키는 모두에서 일본의 재외재산이 연합국 측의 배상에 내놓게 되는 것은 “패전국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전쟁의 국민적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 우리들로서 적어도 속죄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흔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⁷⁷). 그런 위에 국가 간 행위인 전쟁에 수반되는 민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조선·대만·사할린은 ‘적법’하게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군사침략의 요소가 거의 없다는 것, 재외재산 상실의 부담을 소유자에게 돌림으로써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기업의 주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재외재산의 국가보상을 요청하고 있다⁷⁸).

한편 스즈키는, 구 조선총독부의 관계자와도 끈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조선협회(전전기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계승한 ‘구우구락부(舊友俱樂部)’에 드나들고, 1946년 7월에는 “독립조선경제의 전도”라는 논제로 강연을 했다⁷⁹).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구우구락부의 사업으로서 “조선시정의 기록” 작성이 기도되어, 그 기획주임으로 스즈키가 추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 36년의 시정실적을 공평하고 확실히 조사해명하여 기록으로서 보존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같은 해 가을 중에 원안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다⁸⁰). 집필예정자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전 경성제대 교수)·미즈타 나옴사(水田直昌, 전 총독부재무국장) 등 16명으로, 조선총독부의 관료경험자와 경성제국대학의 관계자가 눈에 띈다⁸¹).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 가운데

74) 「제13회 조선사업자회 광업부회 보고」(1946년 4월 17일), 전계 「부회관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4호(1946년 4월 15일), 3정.

75) 전계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4호, 3정.

76)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7호(1946년 5월 13일), 5~6정.

77) 전계 『재외재산보상요청에 관한 자료』, 7쪽.

78) 위와 같음, 7~13쪽.

79) 『구우구락부 회보』 제1호(1946년 8월 5일), 「우방문고」 A키14), 12쪽.

80) 위와 같음, 10~11쪽.

81) 위와 같음, 11쪽. 스즈키·시가타·미즈타를 제외하고, 이름이 올려진 13명은 다음과 같다. 기타무라 데루오(北村輝雄, 전라북도 경찰부장·총독부경무국 방과과장 등 역임), 사토 히로시(佐藤豁, 총독부법무국 보호과장·고등법원검사 등 역임), 오타카 도모오(尾高朝雄,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 야마다 신이치(山田信一, 미

『역사적 조사』의 「조선편」 집필에 관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⁸²⁾.

마지막으로 재외재산조사회와의 관계인데, 스즈키 자신의 회상에 따르면, “쇼와 22년 여름 이전(3·4·5·6월 중 어느 달에) 대장성 관리국의 제의를 받은 관리과장이 나에게 재외재산조사회 일에 협력하도록 직접 의뢰하였다. 의뢰 내용은 (1) 조사에 관여할 인물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2) 나도 이 조사에 중사하면 좋겠다⁸³⁾”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스즈키는 편집위원으로서 이노마 기이치(猪間驥一) · 기타야마 후쿠지로(北山富二郎) · 가네코 시게오(金子滋男)를 추천하고, 자신도 재외재산조사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미키 마사히토의 논고에서 이미 지적이 있었듯이, 조사회에 참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7년 7월에 구우구락부의 재정핍박 때문에 일시 중단된 「조선통치의 결산보고서」 편찬이, “대장성의 호의적인 지원”을 얻어 스즈키를 중심으로 속행하게 되었다고 한다⁸⁴⁾. 이 「조선통치의 결산보고서」가 재외재산조사회의 『역사적 조사』로서 편입되는 과정과, 스즈키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미키 논고에서 이미 나타나지만, 앞서 서술한 “조선시정의 기록”을 “결산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⁸⁵⁾, 대조하여 생각하면,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

상), 시오타 세이코(塩田正洪, 총독부농림국장 · 광공국장 등 역임), 이시즈카 다카시(石塚峻, 전 총독부 기사, 곡물검사소장 등 역임), 이시다 쓰네토시(石田常英, 총독부농림국 임업과장 등 역임), 가사이 아키라(笠井章, 전 총독부기사, 총독부식산국 등에서 근무), 가토 간조(加藤韓三, 전 총독부기사, 총독부체신국 전기제1과기획계장 등 역임), 가토 가나에(加藤鼎, 전 총독부기사, 수산검사소장 등 역임), 사사키 다다시(佐々木仁, 총독부 체신국 공무과장 · 국제전기통신 경성지사장 등 역임), 니시카메(西龜, 니시카메 산케이(西龜三圭)인가? 총독부경무국 위생과장 · 소록도갱생원장 등 역임), 나카무라 신스케(中村信介, 미상).

82) 『역사적 조사』는 전편에 걸쳐 기명원고는 별로 없고, 집필자가 20명이 이른다(스즈키의 증언, 전계 『자료집』 제2집, 36쪽) 「조선편」도 기명원고는 「부록」으로 재수록된 스즈키의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 및 『‘독립’ 조선경제의 장애』뿐이다. 다만 『역사적 조사』 편집이후, 집필원고를 다른 공간물에 게재하거나, 회상록에서 밝히는 등, 어느 정도는 집필자가 판명된 경우도 있다.

조선편 제1장 「구래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격」 및 제2장 「조선개국부터 일한병합으로의 길」은 시가타 히로시(전 경성제대 교수)라고 여겨진다.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스즈키가 집필자로서 그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전계 『자료집』 제2집, 36쪽), 전자가 「구래 조선사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조선학보』 1~3, 1951년 5월·10월·1952년 5월), 후자가 「조선개국의 전후」(『경제과학』 1-2·1-4, 1951년 10월·12월)와 서술이 매우 유사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1993년도 와세다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학특론」(담당: 다카사키 소지)의 나가타 긴야(長田欣也)의 보고 「대장성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조선편, 제1분책)에 대하여」(1993년 5월 28일)에서 시사점을 얻었다)는 점을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이다. 전체에 대하여 시가타가 “본고는 쇼와20년도 여름 패전결과로 조선에서 귀환한 다음 해, 동경을 유유히 있을 때에 초고에 약간 가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시가타 히로시 『조선사회경제사연구』 하권(국서간행회, 1976년), 125쪽).

조선편 제10장 「농업의 발달」은 이시즈카 다카시(전 총독부 곡물검사소장)가 집필했으며, 이시즈카의 『조선의 미곡정책의 변천』(우방협회, 1983년)의 저작목록에 해당 글이 명기되어 있다. 그의 회상에 따르면, “총전 얼마 후에”, 호즈미 신로쿠로(전 총독부 식산국장)에게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 전 총독부 농사시험장 서산지장(西鮮支場)장)와 두 명이 “전전 일본인의 해외활동의 역사적 조사”의 일부로, 조선편의 「농업의 발달」 집필의뢰”를 받았지만, 다카하시가 귀향 후 급사하는 바람에 혼자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이시즈카 다카시 「호즈미 씨의 일」, 『호즈미 신로쿠로 선생 유필-내 생애를 조선에서』(우방협회, 1974년), 300쪽).

조선편 제17장 「재정의 발달」은 미즈타 나오마사(전 총독부 재무국장)가 집필자이다. 이것은 대장성소화재정사편집실 편 『소화재정사』 제16권(동양경제신보사, 1961년)의 「조선의 재정」으로 전재되어, 이후 보정을 거쳐 미즈타 나오마사 감수 『총독부시대의 재정』(우방협회, 1974년)으로 편찬되었다(전기 『총독부시대의 재정』, 10쪽).

또 스즈키의 증언에 따르면, 집필자로 후나다 교지(船田亨二,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도 포함되었다고 한다(전계 『자료집』 제2집, 36쪽).

83) 전계 『자료집』 제2집, 36쪽.

84) 전계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보론」, 325쪽.

85) 미즈타 나오마사의 전후 회상에 따르면, “나는 36년간 조선통치의 실적회고와 기탄없는 통치공죄에 대한 비판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여, 후대 우리들의 자손이 이민족을 접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야망 아래, 조선동화협회의 전신 구우구락부의 간사의 대표를 내가 맡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동지의 원조로

그룹에서도 스즈키가 당초부터 조사연구 측면에서 주도적 인물로 간주되었던 것, 그리고 조선관계자 그룹과 재외재산조사회를 이어 준 핵심인물의 하나였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스즈키 다케오는, 중앙관청(외무성·대장성), 조선관계 민간기업, 전 관료·학식자 등과 조선관계자 그룹 모두에 접점을 가졌으며, 그 3자를 주선하는 결절점으로서 위치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스즈키는 외무성과 조선사업자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회답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이며, 그런 까닭에 『역사적 조사』로 집약되는 식민지 인식의 이론적 지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즈키는 행정기구·자료·지식을 연결하는 조직화의 측면, 그리고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는 이론구축의 측면, 양쪽으로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정책적, 현실적인 입장⁸⁶⁾”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일본통치가 그 지역에 도움을 주었다는 ‘시혜론’ 내지 ‘근대화론’을 비롯하여, ‘제국주의’나 ‘착취’의 부정, ‘자학’적 자세의 배제 등,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로 계승된 식민지 인식이, 패전직후 어떠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다.

(1) 패전직후, 『역사적 조사』 편찬 이전 단계에서 각 방면으로부터 조사활동을 통하여, 전후 일본의 식민지 인식의 원형·골자가 되는 발상이 이미 준비되었다.

‘시혜론’을 비롯한 식민지 인식의 기본적 요소는, 패전직후부터 중앙관청·관계기업·식민지 경험이 있는 학식자 등이 단발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각 방면의 조사활동과 상호교류하는 가운데 상을 맺기 시작하여 일정한 인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집대성이 『역사적 조사』였다. 그리고 일단 짜여진 식민지 인식은 중앙관청을 포함하는 관계자에게 공유·정착·계승되어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가 지적한 대로, 이후 한동안 일본정부의 견해를 규정하게 되었다⁸⁷⁾.

(2) 이러한 식민지 인식의 내용의 방향성 제시에 임하여 재외재산을 둘러싼 배상·보상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또 그 이론화 하는 데에 이런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긴장관계 아래, 일종의 작위가 작용했던 형적을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인식은 총체로서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형성된 것일 테지만⁸⁸⁾, 지금까지 살펴 본 사료를 거울삼아 보면, 패전 후 일본의 관계관민의 눈앞에 들어 온 현실 문제가, 오히려 이런 식민지 인식을 필요로 한 측면이 있었다고 추정하게 된다. 물론 재외재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보상 가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계기업 양자에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착수하였지만, 자금난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라고 되어 있다(미즈타 마사나오 『오치바카고(落葉籠)』, 1980년, 151쪽).

86) 전계 『외지경제간담회 의사개료』, 4쪽

87) 전계 『검증 일한회담』, 64쪽.

88) ‘시혜론’자체가 전전에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식이며, 동시대적인 ‘실감’으로서 그대로 패전 후로 미끄러지듯 들어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경제상·생활상의 곤란과 관계없이, 식민지 등에서 ‘침략착취’가 아니라 현지의 ‘향상발달’을 위해 경주해 온 노력의 축적 그 자체를, 일본정부·일본사회가 ‘공정’하게 인지하라고 호소하는 논리도(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접혀진 제국-전후 일본의 ‘귀환’의 기억과 전후적 가치」, 호소야 치히로(細谷千博)·이리에 아키라(入江昭)·오시바 료(大芝亮)편 『기억으로서의 펼 하버』 (미네르바서방, 2004년, 298~299쪽) 보이듯이, ‘귀환자’에게 일종의 ‘공지’의식이 얽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소원함마저 있어서, 협력관계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외재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그것이 결코 침략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평화적”인 경제활동의 성과물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는, 양자는 보조를 맞췄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그 내실에 상관없이 “가장 입맛에 맞게 조합하”기를 거리까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사가 토로된 장면도 보였다.

다른 한편 장래 아시아 각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내다 본 자세도 놓쳐서는 안 된다. “현격하게 빈약한 천연자원부존과 인구과잉, 협소한 토지의 악조건”을 지닌 일본에게 “외국 무역에 고도로 의존하는 평화적 공업국가 건설만이 남은 유일한 생존의 길⁸⁹⁾”로 상정할 수 밖에 없었던 패전직후에는, 일본에 의한 통치·점령을 경험한 아시아 각 지역과 금후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전전 일본의 통치·점령에 대한 ‘총괄’작업은, 앞으로 다가 올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경제 진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통치·점령으로 발생한 현지의 다양한 “오해”를 누그러뜨리는 설명이, 이 지역과 상대할 때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생각된다.

어떤 대체나 경제조치도 없이 무조건 재외재산을 잃은 채로 끝나는 것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아시아 각 지역에 대한 경제진출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등에서의 통치와 활동이 “침략”이나 “착취”가 아니라 “평화적”이며 현지에 “기여” “공헌”한 점이 다대했던 것으로 해야만 했다—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국면이 존재했다.

(3) 이러한 식민지 인식의 ‘창출’에 조직면과 이론면에서 조선관계자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즈키 다케오를 통해 이미 확인했는데, 스즈키 이외에도 조선관계자의 작용이 어른거린다. 예를 들면 앞서서도 이름이 나온 미즈타 나오마사의 전후의 회상을 보면, 구우구락부에서 중단했던 「36년에 걸친 조선통치의 실적회고와 기탄없는 통치공죄의 비판」에 관한 기록 작업을, “이 회(재외재산조사회)의 일로 취급하여 조선뿐 아니라 전 지역의 통치 일반을 편찬할 필요를 역설하여 상당한 예산을 받아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라는 제목 아래 각기 전문인에게 조사 집필을 요청하여 33책으로 정리하였다”⁹⁰⁾고 한다. 이 말을 믿는다면, 조선이란 지역단위에서 구상된 통치기록편찬 작업을 일본의 세력권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조사』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된 것은 역시 조선관계자였다. 다른 지역보다 조선남부에서 귀국이 비교적 빨랐던 것, 관계자에 의한 조직기반이 이미 존재했던 데 더하여, 스즈키 다케오나 미즈타 마가나오와 같은 행정·기업·학식자를 이어주는 핵심인물의 존재가 『역사적 조사』로 전개되는데 있어, 조선관계자가 견인차가 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포츠담선언 수락직후부터 내무성의 요청에 응하여 조선총독부 종전사무처리본부 정리부가 「법인권익의 현상조사」를 행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⁹¹⁾, 재외재산조사회 설치를

89) 외무성조사국 『일본의 배상능력에 관한 일연구』(조3자료 제1호, 1945년 12월 3일), 전계 『자료 전후일본의 경제정책구상』 제1권, 81쪽. 또 “식민지라는 점령구역을 상실한 전후 일본은 다른 외국과의 국제경제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한층 커졌다”(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야나이 가쓰미(楊井克巳) 『국제경제론』, 고분도(弘文堂), 1955년. 『야나이하라 다다오 전집』 제5권, 이와나미서점, 1963년, 8쪽)는 관점에서 보자면, 전전의 대학에 설치되었던 ‘식민정책강좌’가 패전 후에 ‘국제경제론강좌’로 개칭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도 이해된다.

90) 전계 『오치바카고』, 151쪽.

91) 모리타 요시오·나가타 가나코(長田かな子) 편 『조선전쟁의 기록 자료편』 제1권(간난도서점, 1979년), 49쪽, 140쪽.

전후로 조선관계단체가 조선의 기업재산이나 개인자산액을 독자적으로 산출하여 정리하였
다⁹²⁾. 이러한 조선관계자의 움직임은 타지역의 관계단체와 비교하여 돌출된 위치를 차지하
는 존재였는지, 다른 지역의 대응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그 독자성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
성도 있다.

전전의 일본통치에 대한 ‘총괄’은, 수치화작업이 베이스로 존재했다. 제외재산의 구체액
의 산출은 원래 식민지 등에 대한 “기여공헌”을 논증할 때에도 종종 “계수적으로 비교설명”
할 것, 혹은 “숫자에 중점을 둘 것⁹³⁾”이 강조되었듯이, 통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호소하
는 지표로서 수치 데이터가 중시되었다. 『역사적 조사』에도 통계자료가 부단히 구사되어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숫자의 배경에 있어야 할 “식민지 통치 = 이민족지배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본질적 모순⁹⁴⁾” 뒤로 물러나고, 수치의 변화만이 식민지 측의 수익과 연결되어
파악하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역사적 조사』의 「서」 1절에는 “이 통계가 궁극적으로 의
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있는데 『역사적 조사』는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긴 하지만,
“그 수치에 내면화되어 있는 당시의 한국인들의 삶의 실제 모습과 생각을 살아있는 역사상
으로서 그려내야 한다⁹⁵⁾”는 문제의식에서, 다시금 그 수치의 의미를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냉전의 진전에 수반한 점령정책의 전환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패전직후의 식
민지 인식의 형성을 규정하였던 외재적 요인은 자취를 감췄다⁹⁶⁾. 그러나 이 시기에 쌓아
올린 식민지 인식은 그 이후에도 계승되어, 그 기간부분은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와
그 협력자가 독자적으로 식민지 인식의 체계화를 추진해간 한편, 그에 대치할 만한 움직임
이 민간에서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것⁹⁷⁾, 『역사적 조사』의 편집 시 “극단적으로 말하면

92) 조선사업자회에서는 1946년 4월말까지 갖추어진 107사 분의 재산조사를 의무성에 제충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조선관계사무정리사무소에서도 주요기업 831사 분의 재산산정을 했다(『조선사업자회 회보』 제34호
1946년 11월 18일, 4정), 1947년에 『재조선일본인 개인재산액조』(『우방문고』 M4-91)로 정리되었다.

93) 중앙협의회에 의한 조사과정에 대한 가와노 시게토의 조언. 『조선사업자회 회보』 제11호(1946년 6월 10
일), 3정.

94) 전계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304쪽.

95) 방기중(方基中) 「논평」, 『광복50주년 국학의 성과』(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년), 153쪽. 원문 한글.

96) 점령정책의 전환으로 배상부담은 초기방침에 비해 경감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사실상 일본의 제외재산 몰수
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것”(전계 『소화제정사』 제1권, 539쪽)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제외재산
반환은 사실상 길이 막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정부는 보상의 법
적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귀환자급부금”(1957년) 및 “귀환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1967년) 지급조치를
취했다(기무라 겐지(木村健二) 「귀환자지원사업의 추이」(『연보 일본현대사』 제10호, 2005년), 『재외재산문
제의 처리기록-귀환자특별교부금의 지급』(서지사항없음)).

97) 이노우에 하루마루(井上晴丸)·우사미 세이지로(宇佐美誠二郎) 「전쟁경제의 유산(3) 일본의 국가독점자본주
의와 식민지」(『조류(潮流)』 제3권 제10호, 1948년 11월)등의 업적도 있지만, 패전 후 한동안은 식민지화·
식민지 통치에 관계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본이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를 ‘잃었다’는 것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물으면서, 식민지화·식민지통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충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강화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중국
의 존재는 매우 강하게 의식되고 있는 반면, 조선 등 구 식민지와 관련하여 논한 것은 영토변경 관점 이외에
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잡지 『세카이(世界)』 강화문제특집(제70호, 1951년 10월)에서도 그런
문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쓰네토 교(恒藤恭, 오사카시립대학 학장)가 기고한 글에서, 대일강화조약
은 “화해와 신뢰의 조약”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조선·대만·괘호도·사할린 남부의 주권포기에 대하여 “그러
한 기득의 중요한 권익포기가 일본에 대한 징벌, 혹은 제재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서술되어 있다(「화해의 강화조약이라는 것에 대해」, 71쪽). 스즈키 다케오 역
시 전계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에서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분리를 “패전의 결과로서 부득이한 보상이다”(1
쪽)라고는 하지만, 쓰네토의 경우 이들 지역을 “과거에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한 지역”(전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스즈키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어디어디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선 이 보고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⁹⁸⁾”고 상정해야만 했던 것의 의미, 즉 식민지 등의 상실이란 사실이 일본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 인식의 형성과 전개 양태를 내재적으로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고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민지화 ·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논쟁을 상대화하여 볼 수 있는 시점을 조금이나마 제시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겠다.

98) 전개 「제3회 편집회의기록」 .

* 본고는 와세다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의 1993년도 「일본사학특론」 (담당: 다카사키 소지) 및 1997년도 「일본사학특론」 (담당: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성과에 근거한 것이며, 그 논의에서 배운 것임을 덧붙인다.

제2부 : 귀환 일본인들의 조선·한국 인식과 ‘공적기억’

3. 귀환한 조선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과 조선인식-우방협회를 중심으로-
: 이형식(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4. 경성제대 교수들의 전후
: 정준영(서울대)

사회 : 송규진(고려대)

토론 : 서민교(동국대), 송병권(고려대)

귀환한 조선관계자¹⁾의 조선통치사편찬과 조선인식

-우방협회를 중심으로-

이형식(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들어가며

패전 후 식민지 문제를 망각하고 있던 전후 일본 사회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발신했던 사람들은 식민지를 직접 체험했던 귀환한 식민자들과 재일조선인들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전후 일본 사회에서 재조일본인을 비롯한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자'로 둔갑하였다. 패전 후 일본사회에 복귀한 해외 귀환자들은 좌파로부터는 '침략의 주구'로 비판받았고, 우파로부터는 본토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빠듯한 식량이나 축내는 '민폐집단'으로 경원시되었다.²⁾ 당시 일본 사회 전체가 전전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국가'론의 유행은 지식인, 문화인의 실제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면서,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전쟁책임문제, 식민지 지배문제를 추궁했다.³⁾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귀환한 조선총독부관료를 비롯한 조선관계자는 1952년 우방협회를 조직하고 식민지통치사료를 수집·정리·출판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식민자들의 식민지 경험과 기억은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관계와 동아시아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에 상존하는 역사 인식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그 연구가 절실하다. 하지만 식민자(귀환한 일본인)라고 하더라도 직업, 세대, 젠더, 지역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식민지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억이 집단 존재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집단을 존재하게 하는 정체성의 근원이다.⁴⁾ 전후 일본사회에는 식민지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들이 서로 경존(競存)하고 있었고, 이러한 '집단기억'들은 전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적기억(official memory)'로 수렴되어 간다는 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우방협회로 대표되는 조선관계자의 조선인식과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즐고, 「패전 후 귀환한 조선총독부관료들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그 영향」, 『韓國史研究』 153, 2011의 제5장(식민지통치사 편찬)을 대폭 수정하여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아직 미완고이므로 인용은 삼가주기를 바란다.

- 1) 본 발표에서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조선은행,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일보, 경성제국대학에 근무하면서 조선통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조선관계자'로 명명한다.
- 2) 이에 대해서는 이연식, 「전후 일본의 히키아게(引揚) 담론 구조 - 해외 귀환자의 초기 정착과정에 나타난 담론의 균열과 유포-」, 『日本思想』 24, 2012을 참조할 것.
- 3) 전후 '평화국가', '문화국가' 담론에 대해서는 赤澤史朗, 「戰中・戰後文化論」 『岩波講座日本通史 近代4』 岩波書店, 1995 ; 淺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國; 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の価値」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 (細谷千博, 入江昭, 大芝亮編), ミネルヴァ書房, 2004 ; 조관자, 「전후 일본의 문화정책과 인문학」, 『한림일본학』, 2012 를 참조할 것.
- 4)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Edited by Lewis Cose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본 발표에서 조선관계자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전후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공적기억’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선관계자들은 전후 일본사회에서 우방협회를 통해 문서보관소(우방문고), 전문적인 사료편찬(『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우방시리즈, 녹음기록 등)과 같은 기억 형태를 가시화함으로써 권력과 전통성을 광범위하게 확립시키고자 하였다.⁵⁾ 본 발표자는 이렇게 확립된 조선관계자들의 ‘집단 기억’은 ‘식민지’의 기억으로 나아가 전후일본의 기억으로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배적 서사를 접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방협회에 대해서는 한일교섭과 관련해서 중앙일한협회와 함께 다룬 정병욱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본 발표는 이러한 조선관계자의 ‘집단적 기억’을 규명하기 위해 우방협회의 설립과, 한일교섭과정에서의 역할, 통치사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로는 당시의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우방협회의 내부분서, 우방협회 간부의 개인문서(『君島一郎關係文書』, 기미지마⁷⁾는 우방협회 회장), 學習院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관료의 녹음기록, 회고록을 사용하여 조선관계자가 전후 어떠한 식민지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일교섭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우방협회의 설립

1) 설립준비

귀환한 조선총독부관료들은 중앙조선협회의 후신인 舊友구락부를 중심으로 36년간의 시정의 실적을 기록하려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1950년 가을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전 식산국장)는 동화협회⁸⁾의 관계자,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전 경성제대 교수), 후나다 교지(船田亨二, 전 경성제대 교수),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 전 경성제대 교수),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 전 조선전력사장), 켄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전 조선총독부 촉탁) 등과 함께 조선에 관한 제반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조선연구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⁹⁾

이러한 가운데 1950년 말 법무부는 재일본조선인연맹(1949년 9월 해산)을 파괴하고 동연맹이 가지고 있던 재산 1억 6천만엔 중에 1500만엔을 재일조선인의 후생, 복지 시설자금으로 하부할 취지를 전 조선은행 조사과장 시부야 레이지(渋谷礼治¹⁰⁾)를 통해 조선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조선관계자들은 이 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론을박하였는데 처음에는

5) 집단기억에 대해서는 제프리 K. 올릭/강경이 번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년을 참조할 것.

6) 정병욱, 「조선총독부관료의 일본 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1950, 60년대- 同和協會・中央日韓協會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 2005,

7) 기미지마 이치로(1887-1975)는 1887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나 一高를 거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은행에 들어간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은행 부총재와 중앙조선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전후 중앙일한협회 이사, 우방협회 이사를 거쳐 1970년 호즈미 우방협회 이사장이 사망하자 우방협회 회장에 취임한다.

8) 동화협회는 1947년 7월 재외사업체재산의 보상을 위해 설립한 朝鮮事業者會(1945년 11월 설립), 中央朝鮮協會의 후신인 旧友俱樂部(1946년 2월 설립), 귀환자 단체인 朝鮮引揚同胞世話會(1946년 3월 설립)의 3자 합동으로 설립된 귀환자단체였다. 동화협회는 1952년 11월 귀환자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중앙일한협회로 개칭되었다. 호즈미나 시부야 등 우방협회의 간부는 동화협회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9) 『同和』 37, 1951.1 ; 『財団法人友邦協會設立要綱』.

10) 시부야는 1877년 홋카이도에서 출생하여 1905년 동경전문학교(와세다)를 졸업하고 1907년 한국정부 顧問部附로 초빙되었다. 병합 후에도 조선에 근속하여 함경북도 이재과 주임을 역임하고 1916년 퇴직하고 나서 조선은행에 들어가서 조사부 司事, 조사역, 조사과장, 이사를 역임했다. 조선무역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체로 받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법무부 자금이 복잡한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 60만의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 복지 시설 자금으로서는 너무 금액이 적다는 점, 조선인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은 총독부시절부터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에 조선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재일조선인문제도 그 일환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 후생, 복지시설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조선민족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기관이 창설될 필요가 있고, 조선문제의 성질을 생각할 때 그 구성에는 각계에서 널리 유능한 사람을 구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특이한 성격'을 숙지하고 있는 조선관계의 유식자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관계자들은 이 제의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동화협회 다나카 다케오 회장은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전 경무국장), 이케다 기요시(池田清, 전 경무국장) 등 동화협회의 유력 간부들을 모아서 이를 논의하였다.¹¹⁾ 동화협회에서는 “朝鮮学会 정도 순수한 학문의 입장에 서 있는 단체라면 독립할 이유가 명료하지만, 우방협회의 (설립) 목적이 조선 연구와 재일한국인문제 해결에 있다고 하면, (독립된 별도의 협회를 설립할 필요없이) 동화협회의 일부로 사업을 하면 (지속하면) 된다.”고 하여 별도의 재단 설립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결국 호즈미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산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 재단설립을 주장하여 조선통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연구·보급하는 목적으로 우방협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¹³⁾

이후, 우방협회는 1951년 1월 말에 법무부를 통해서 G.H.Q 당국의 승인을 얻고 법무부 당국과 의논하여 '기부행위'를 작성했다. 4월 호즈미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우방협회 산하에 韓國調査研究所, 日韓懇話會, 對韓國協力委員會, 在日韓國人厚生福祉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財団法人友邦協會設立要綱』)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6월에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기본재산 200만엔을 목표로 기부를 종용했는데, 조선은행 조사과장과 조선무역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시부야가 재계인맥을 이용하여 알선하였다. 호즈미와 시부야는 일본 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전 조선은행 부총재 기미지마 이치로(君島一郎, 전 중앙조선협회이사)에게 기부금 모집을 의뢰했고¹⁴⁾, 기미지마는 기부금 알선에 조력했다.

설립발기인으로 호즈미를 비롯하여, 오가타 다케토라(緒方竹虎) 이케다 기요시,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 시부야 등이 참여하여 오가타 국무대신을 통해서 우방협회의 사정을 요시다 수상에게 전달하고 그 협력을 구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자금모집이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2월 6일에는 후쿠오카상공회의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방협회 발기인으로는 호즈미, 시부야, 곤도 겐이치(近藤銀一), 오가타가 출석하였고, 스키모토(杉本勝次) 후쿠오카 지사를 비롯하여, 고니시(小西治夫) 후쿠오카 시장, 야마와키(山脇正次) 후쿠오카상공회의소 회장이 참가하였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규슈로 귀환한 조선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64만엔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이후 일본은행(30만엔)을 비롯하여 은행, 금융기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으로부터 각각 3만엔씩을 기부받았다. 하지만 경제계의 불황

11) 『友邦月報』 제1호, 1951년 12월.

12) 穂積眞六郎, 「中央日韓協會と友邦協會の關係」, 『同和』 60, 1952.12.

13) 당시 동화협회가 관료적 색채가 너무 강했다는 점, 다나카의 동화협회 자금 유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나카 회장은 1953년 참의원선거에 출마를 위해 동화협회의 기금(약 3000만엔 추정)의 대반을 유용했다고 한다(田坂常和, 「協會刷新のために」, 『友邦』 昭和61年7月, 460号).

14) 1952년 6월 28일자 『君島一郎日記』(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研究科附屬近代日本法政史料センター原資料部 소장 『君島一郎關係文書』).

과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8월 30일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9월 19일 동경도 지사를 경유하여 외무대신에게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무대신인 오가타의 알선을 통해서 10월 4일 설립 허가를 받았다.

2) 간부 및 재정

표1. 우방협회 간부

職位	성명	전전의 경력	歸還 後 경력	비고
理事長	穂積眞六郎	殖産局長	中央日韓協會副會長、參議院議員	1970年 死亡
	水田直昌	財務局長	東京銀行協會專務理事	1975年 會長
理事	林茂樹	學務局長	中央日韓協會理事	1964年 死亡
	近藤劔一	京城日報論說委員	株式會社テイハツ本社代表取締役	
	緒方竹虎	內閣情報院總裁	國務大臣兼內閣官房長官	1956年 死亡
	澁谷礼治	朝鮮銀行調査課長 朝鮮貿易協會理事長		1961年 死亡
	久保田豊	朝鮮電業社長	日本工營株式會社社長	
	善生永助	朝鮮總督府囑託	昭和女子大學教授、天理大學講師	
	小西治夫	朝鮮銀行大連支店長	福岡市長	
	鈴木武雄	京城帝大教授	武藏大學教授	
	上瀧基	殖産局長	東京簡易裁判所判事	
	末松保和	京城帝大教授	學習院大學教授	
	萩原彦三	咸南知事, 拓殖次官	弁護士、中央日韓協會理事	1967年 死亡
	塩田正弘	鉦工局長	關東築爐工業株式會社取締役社長	1972年 死亡
	君島一郎	朝鮮銀行副總裁		1954年 理事 1970年 會長 1975年 死亡
	工藤三次郎	朝鮮貿易協會專務理事		1970年 死亡
	神田啓三郎	三菱商事京城支店長	大成水産株式會社社長	
	高原丈夫	中外製作所理事		
	渡辺豊日子	學務局長	弁護士	1970年 死亡
監事	古市進	京城府尹	京王電器株式會社、中央日韓協會理事, 在外公館等借入金整備審査員	1963年 死亡
	蔭山正三	東産業理事, 朝鮮貿易協會專務	朝日放送代理店光廣告會社社長	
	櫻澤秀次郎	朝鮮銀行理事		
	奥村重正		日研化學株式會社社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同和』, 『鷄林クラブ會員名簿』(友邦協會所藏, 1960.11) 에서 작성. 굵은 글씨로 표시한 케이스는 나중에 취임한 사람들임.

초대 이사장에는 호즈미 신로쿠로가 취임하였고, 호즈미가 1970년 사망하자 기미지마 이치로가 회장에, 미즈타 나오마사가 이사장에 각각 취임하였다. 이사에는 총독부 국장 출신자, 국무대신 오가타 다케토라, 경성제대 교수 출신자(鈴木武雄, 末松保和), 조선은행 간부 역임자(小西治夫, 澁谷礼治), 경성일보 논설위원(近藤劔一) 등이 취임하였는데, 오가타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통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귀환자들이었다. 특히 조선총독부관료 출신들은 1910년대 조선에 부임해서 조선에서 관료생활을 마치고 총독부 관련기업에 재취업해서 조

선에서 오랫동안(약30년간) 생활했던 ‘조선형관료(生え抜き官僚)’들이었다.¹⁵⁾ 이사 대부분이 60세가 넘는 고령자이었기에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면 조선통치에 관여했던 새로운 멤버가 충원되었다. 이사 중에 시부야는 우방협회 설립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초기 협회를 운영하였다. 오가타 국무대신, 고니시 후쿠오카 시장은 시부야의 권유로 협회에 가입했다고 한다.¹⁶⁾ 시부야가 1961년 죽고 난 후에는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전 학부국장)가 협회를 주도했고, 하야시가 1964년 죽은 후에는 하기하라 히코조(萩原彦三, 전 함남지사), 하기하라가 1967년 사망한 후에는 고타키 모토이(上滝基, 전 식산국장)가 협회 살림을 맡았다. 시부야 사망이후에는 총독부 국장출신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협회 사무를 주도했다.

우방협회라는 명칭은 ‘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서 조선 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피했다고 한다. 당초 계획은 관청의 자문 및 조사, 연구, 기획의 위탁에 맞는 등 정책에 대응하는 내각이나 외무성의 외곽단체로 하여 매년 천만엔 내지 2천만엔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려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 한일회담과 우방협회

2-1. 예비회담에서 제3차회담까지

1951년 8월 6일 제2차 공직추방해제가 발표되었다. 제2차 공직추방해제 대상에는 다나카 다케오, 마루야마 쓰루키치, 기미지마 이치로 등 조선총독부, 동척, 식산은행, 조선은행, 경성일보 관계자들 다수가 포함되면서,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10월 20일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회의실에서 시볼드 외무국장의 입회 하에 한일회담(예비회담)이 개최하였다. 이 예비회담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양유찬 수석대표는 대표연설에서 “한일양국은 이제 선린우호관계를 맺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일본을 침략한 역사가 없지만 일본은 한국을 항상 괴롭히고 침략해왔다.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자행해왔는지 당신들은 잘 알 것이다. 학살, 고문, 징용, 공출 등의 폭력과 불법행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족을 분노케 했다.”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신랄하게 비난했다.¹⁷⁾ 이후 예비회담에서는 앞으로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설정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고, 기본관계의 수립, 재산청구권의 해결, 통상항해조약의 체결, 어업협정의 해결, 해저전선의 분할 등 6개의 의제를 채택하고 각 의제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¹⁸⁾ 공직추방의 해제와 한일예비회담의 시작을 계기로 조선관계자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조선관계자들은 회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외무성과 의견교환을 하면서 회담 담당자들에게 조선통치에 대해 조언하였다. 회담 담당자 역시 조선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면

15) ‘조선형관료’에 대해서는 즐고, 「1910년대 朝鮮總督府의 인사정책」, 『韓日軍史文化研究』 13, 2012를 참조할 것.

16) 오가타는 ‘경외하는 벗’ 시부야가 협력을 요청하자 발기인이 되는 것을 흔쾌히 승낙했다고 한다. 조선은행 대련지점장을 역임했던 고니시도 시부야로부터 발기인에 합류할 것을 의뢰받았다고 한다(『友邦月報』 第2号, 1952年1月). 시부야는 오가타와 동경전문학교(와세다) 동문이고, 고니시와는 조선은행에서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다.

17) 유진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일회담(23)”, 『중앙일보』 연재, 1983년 9월 26일자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45쪽에서 재인용.

18)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6쪽.

서 회담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였다.

표2.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한일회담	기간	수석대표	전직
예비회담	1951.10.20 - 1951.12.22	井口貞夫	外務次官
제1차회담	1952.2.15 - 1952.4.25	松本俊一	外務省顧問
제2차회담	1953.4.15 - 1953.7.23	久保田貫一郎	外務省参与
제3차회담	1953.10.6 - 1953.10.21	久保田貫一郎	外務省参与
제4차회담	1958.4.15 - 1960.4.15	沢田廉三	外務省顧問
제5차회담	1960.10.25 - 1961.5.15	沢田廉三	外務省顧問
제6차회담	1961.10.20 - 1964.12.2	杉道助	日本商工会議所副会頭 三菱電機相談役
제7차회담	1964.12.3 - 1965.6.22	高杉晋一	経団連經濟協力委員長

1951년 10월부터 제1차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개최되자 다나카는 동화협회 간부들과 함께 외무성 관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한일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¹⁹⁾ 1951년 12월 13일에는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전 중앙조선협회 고문), 마루야마 쓰루키치, 오오타 다메키치(大田為吉)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문제를 담당하게 된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 외무성 고문을 초대하여 공업구락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입국관리청을 비롯하여, 통산성, 경제안정본부, 법무부 민사국, 수산청, 운수성, 외교협회, 동화협회, 조선간화회²⁰⁾, 조선관계 단체의 수뇌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조선관계자로서는 마루야마,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전 정무총감), 히토미 지로(人見次郎, 전 경성상공회의소 회장), 하키하라, 와타나베 시노부(渡辺忍, 전 학무국장), 다나카, 호즈미, 시라이시 무네키(白石宗城, 동화협회 부회장) 등 동화협회와 우방협회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조선통치에 대한 일본의 공죄(功罪) 여하가 문제가 되었는데, 조선통치를 단순히 착취적 침략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²¹⁾ 우방협회의 곤도 게이이치(近藤銀一)는 조선통치에 대한 공죄 문제는 일본인이 앞으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근본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인들도 올바르게 추궁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한일관계의 조정이 긴요한 지금 재조일본인의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한일 제휴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이 간담회는 공식추방에서 해제된 조선관계자와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각성청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개최될 한일회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고, 여기에서 조선관계자들은 조선통치에 대한 입장을 회담준비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참고로 이 간담회에서 스즈키 하지메(鈴木一) 입국관리국장은 민간친화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제창하여 시모무라 히로시, 마루야마 쓰루키치, 오오타 다메키치가 발기인이 되어 1952년 6월 일한친화회가 설립되었다.

19) 「日韓交渉に備えて—外務省当局者と關係者の懇談」, 『同和』 55.1952.7.

20) 조선간화회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등 조선에 연고가 깊은 사람에 의해 '한일 양민족의 친선 증진을 위해' 조직되었다. 조선간화회는 한일회담 정부대표와 수시로 만나서 한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선관계자로는 미타라이 다쓰오(御手洗辰雄, 전 경성일보 사장), 에도 류사쿠(遠藤柳作, 전 정무총감), 다나카 다케오, 기미지마 이치로, 다나카 데쓰사부로(田中鐵三郎, 전 조선은행 총재), 나카야스 요사쿠(中保与作) 등이 참가했다.

21) 近藤銀一, 「松本顧問に寄す」, 『友邦月報』 第2号, 1952년 1월.

22) 近藤銀一, 「松本顧問に寄す」, 『友邦月報』 第2号, 1952년 1월.

1952년 2월부터 제1차 한일회담이 시작되고, 4월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등 새로운 한일관계의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우방협회를 비롯한 조선관계자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졌다. 1952년 4월 11일 열린 조선간화회에서는 마쓰모토 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하여 한일교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기미지마는 '유익'했다고 일기에 적고 있다. 이후 제1차 한일회담은 한국측의 대일 청구권요구에 대항하는 형태로 일본의 대한 청구권('역청구권') 주장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같은 해 11월 20일에 긴자의 교詢社(交詢社)에서 조선문제관민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법무성, 동화협회, 외무성, 우방협회,公安조사청, 입국관리국(鈴木一 入国管理局長) 관계자가 참석하였는데, 동화협회, 우방협회와 같은 조선관계단체 뿐 아니라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외무성 아시아국제2과),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외무성 아시아국제5과), 구도 마사미(工藤真澄, 총리부 조사관) 등 일본의 관청에 재취업했던 전 조선총독부 관료들도 폭넓게 참석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일교섭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제1차회담의 결렬로 우방협회의 회보(『友邦協會々報』)에는 한일교섭에 관한 의견과 감상이 늘어난다. 오가타는 한일수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지금의 한일문제는 세계 평화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는 일본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전진기지이고 일본은 한국에 이어 방과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공동의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²³⁾.

오가타는 반공의 전초 기지로서의 한국이라는 인식 하에 한일교섭 타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선총독부 촉탁을 역임한 젠쇼는 "일본의 조선통치에는 물론 다소의 실패나 과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 위정자는 선정을 베푸는데 항상 고심하고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중략) 일본의 조선통치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이민족통치나 식민정책에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실이고, 정치 개혁, 법률 정비, 경제적 진보, 산업 발전, 토목의 완성, 도로 정돈, 항만 수축, 교통의 발전, 교육의 보급, 문화의 발전, 위생의 개선, 생활의 향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일본의 패전과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의해 조선이 해방되어 독립되었지만, 일본의 조선병합과 통치는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금도 모략을 동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한 이상 우리들은 조선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우방으로 맞이하여 그 발전, 흥륭을 기대한다²⁴⁾"라고 통치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선통치가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젠쇼의 주장은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의 식민지인식과 일맥상통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한편 호즈미 이사장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하는데 단지 독립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잔무(殘務) 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리가 잘 되느냐 마느냐는 장래 양국의 국교에 오래 영향을 남길 것이다²⁶⁾"라고 하여 '잔무정리적인 문제', 즉 식민지청산문제

23) 緒方竹虎, 「日韓修好のために」, 『友邦協會々報』 第2号, 1952年12月, 1-2頁.

24) 善生永助, 「恩讐を越えて」, 『友邦協會々報』 第2号, 1952年12月, 7頁.

25)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 대해서는 宮本正明, 「敗戦直後における日本政府・朝鮮關係者の植民地統治認識の形成—『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成立の歴史的的前提」, 『研究紀要』(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 11, 2006를 참조할 것.

가 한일관계에 오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나카 다케오 중앙일한협회 회장은 제1차회담이 역청구권 주장으로 결렬된 데 대해, “일본정부도 한국측의 담당자도 한일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귀환자가 너무 청구권을 고집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무대책(無策)을 귀환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일양국을 비판하면서, 한일회담에 귀환자의 지식, 경험, 한국과의 인맥을 활용하기를 요구했다.²⁷⁾

이처럼 우방협회는 조선통치가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이 반공의 전초기지이므로 한일수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우방협회는 정부당국에게 한일회담에서 식민지청산문제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오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진중히 처리할 것과 조선관계자의 지식, 경험,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를 요청했다.

한일회담(제2차 회담)이 1953년 4월부터 재개되자 조선관계자는 회담대표에 접근하여 조선관계자의 희망사항을 전달하였다. 기미지마 이치로는 하야시 히사지로(林久次郎²⁸⁾)를 통해 회담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하야시는 구보타와의 면담 결과를 기미지마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일회담도 작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측 대표는 외무성참여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씨입니다. 어제 구보타씨에게 老兄(기미지마 이치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會談(구보타씨가 기미지마씨와 만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보타씨는 외무성 안에서 내선으로 통화합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뭔가 大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²⁹⁾ ()안 보충설명은 발표자주

기미지마는 하야시의 주선으로 6월 12일 구보타를 외무성을 방문하였는데, 기미지마는 그 날 일기에 “오늘 외무성에 구보타 간이치를 방문했다. 외무성참여 (구보타씨가) 한일회담을 걱정했다.”고 적고 있다. 기미지마는 구보타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조선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⁰⁾ 구보타는 같은 해 10월 15일 재산및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식민지통치를 긍정하는 발언, 소위 ‘구보타발언’을 한다. 1953년 10월 27일 참의원 수산위원회에서 모리사키 다카시(森崎隆)가 소위 ‘구보타발언’에 대해서 질문하자, 구보타는 이에 대해 “본인으로서 한국측이 총독정치에 대한 배상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측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었다면 일본측은 총독정치의 좋았던 점, 예를 들면 민동산을 푸르게 바꾸었고, 철도를 부설했으며, 항만을 건설했으며 또 水田을 상당히 늘렸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요구를 상쇄하였을 것이라고 응수했을 것입니다.”³¹⁾라고 답변했다. 구보타의 발언은 우방협회를 비롯한 조선관계자의 조선통치 인식과 일맥상통하고 기미지마를 비롯한

26) 穂積真六郎, 「對韓策を真劍に」, 『友邦協會々報』 第2号, 1952年12月.

27) 田中武雄, 「まず内を正せ」, 『友邦協會々報』 第5号, 1953년 3월.

28) 하야시(1882-1864)는 1882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나 1903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1906년 외무성 및영사관 시험에 합격하고 외무성에 입성한다. 福州總領事, 漢口總領事, 奉天總領事를 거쳐 주브라질대사를 역임한다. 1938년 재단법인남양협회 이사장에 취임하고, 1942년에는 자바군정감부최고고문에 취임한다. 고향 후배인 기미지마에게 외무성 후배인 구보타를 소개했다.

29) 1953년 5월 26일자 君島一郎 앞 林久次郎 편지(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研究所附屬近代日本法政史料センター-原資料部 소장 『君島一郎關係文書』) .

30) 참고로 기미지마는 “소위 진보주의자의 의견을 읽으면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에 무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선통치에 대한 비판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952년 1월 4일자 『君島一郎日記』).

31) 1953년 10월 27일 참의원 수산위원회 閉10号(일본국회도서관国会會議録檢索システム).

조선관계자가 구보타의 식민지인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한국의 김용식 수석대표가 구보타발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난하자 일본 정부는 구보타 대표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구보타발언’은 평화선 문제와 결부시켜 대한(對韓)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요시다 수상은 오가타 부수상, 기무라(木村篤太郎) 보안청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일 대표부 폐쇄 등 대한 강경책 8개 항을 결정했다. 오가타 부수상 등은 간담회에서 한국측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으며 평화선의 현상태 존치로는 1백억엔의 어획을 상실함은 물론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함으로써 정당한 일본의 권리가 유린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강경론을 주장했다.³²⁾

‘구보타발언’을 계기로 『동화』에는 회원들 사이에 조선통치를 긍정하는 회상이 이어졌고 한국 정부의 정책, 특히 배일정책에 신경질적인 반응이 커졌다.³³⁾ 호즈미 이사장은 ‘구보타 발언’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을 자극해서 국내의 사상통일을 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국이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한일양국의 장래에 큰 화근이 남을 것이다”고 한국측의 교섭태도를 문제삼았다. 또 호즈미는 정부 간의 교섭이 난항을 겪을 때에는 민간외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³⁴⁾ 호즈미는 11월 말 정부수뇌에 한일회담의 타결과 한일의 장래에 대해 그 대책을 진언하였다.³⁵⁾

2-2. 제3차회담에서 회담타결까지

‘구보타발언’으로 오랫동안 한일회담을 중단을 맞게 된다. 회담중단 기간에 기미지마는 외교협회의 인맥을 이용하여 외무성 관료와 접촉했다. 기미지마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외무성 관료였던 사와다 렌조(沢田廉三³⁶⁾)에게 종종 한일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와타가 1953년 3월 국제연합일본정부대표 특명전권대사에 부임하게 되자 기미지마는 한일문제를 UN 입장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³⁷⁾ 이에 대해서 사와타는 “드디어 UN행도 정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일문제는 물론 UN으로서 생각해야 할 현재의 조선동란의 처리, 장래 한국의 정치적 안정 문제 등에 대해서 저도 현지의 정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욕에 출발하기 전에 잠시 한국시찰을 다녀오고 싶다고 오카자키씨(외무 대신 岡崎勝男, 발표자주)에게 이야기해 둘 참입니다.”고 답장했다.³⁸⁾ 기미자마는 1956년 4월 5일 한일회담 예비교섭을 맡은 사와다에게 편지를 보내고, 4월 6일 중앙일한협회에서 다나카와 호즈미에게 사와다가 이번에 한일회담 교섭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³⁹⁾ 1958년 사와타가 한국측의 요청으로 한일회담 수석대표 취임이 결정되자 사와다는 기미지마에게 다음과 같이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32) 김동조, 『回想30年君韓日會談』, 중앙일보사, 1986, 65쪽.

33) 앞의 정병욱 논문, 98쪽.

34) 穂積眞六郎, 「民間外交の推進を」, 『朝日新聞』 1953년 10월 23일자.

35) 渋谷礼治, 「友邦の繁榮を」, 『同和』 73, 1954.1.

36) 사와다 렌조(1888-1990)는 도토리현에서 태어나 제1고등학교를 거쳐 1914년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입성한다. 외무성의 요직을 거쳐서 1938년 외무차관에 임명된다. 1953년 국제연합일본정부대표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되고 1955년 외무성고문을 거쳐 1958년 한일회담 수석대표에 취임한다. 기미지마와는 일고, 동경제국대학 동문이고 두 사람은 一遠社, 一匡社의 회원이다. 1958년 6월 11일 조선간화회 석상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제휴를 강화해서 38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올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소위 ‘사와타발언’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37) 1953년 2월 18일자 『君島一郎日記』.

38) 1953년 2월 20일자 君島一郎 앞 沢田廉三 서한(앞의 『君島一郎關係文書』).

39) 1956년 4월 6일자 『君島一郎日記』.

교섭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항목뿐입니다. 용이하게 수습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는 이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공명정당한 입장과 요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극동의 한쪽 구석에서 한국과 일본이 진흙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고 세계 여론에 호소한다는 격조 높은 회담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세계여론이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선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⁴⁰⁾

1960년 8월 1일 기미지마는 외무성고문실을 방문하여 사와다와 한일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⁴¹⁾

제6차 회담이 시작되자 조선관계자는 회담 대표 스기 미치쓰케(杉道助)와 접촉한다. 1961년 12월 8일 외무성고문실에서 제6차회담 대표인 스기와 조선관계자와의 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에는 기미지마, 호즈미, 기쿠야마 요시오(菊山嘉男, 中央行政監察委員會事務局長) 전 총독부 회계과장이 참석했고,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외무성 사무관이 배석했다. 이 회담에서 다나카 다케오 회장의 명의로 재산청구권, 평화라인, 문화재청구권 등 총 6개 항목이 제출되었다. 기미지마는 12월 11일에는 중앙일한협회에서 스기 회담대표와의 면담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담했다. 이 간담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62년에 들어서자 조선관계자는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에 접근했다. 중앙일한협회에서 2월 20일 기미지마, 호즈미, 하야시 시게키, 구도 산지로, 기쿠야마 요시오 등이 모여 라이샤워 대사와의 회담 준비회의를 가졌다. 기미지마는 라이샤워에게 제출할 초고를 작성하고 수정 검토했다. 중앙일한협회에서 사전조율을 거쳐 8월 2일 주일미국대사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은 미국측은 라이샤워 대사, 코린즈 2등서기관, 협회측은 다나카, 호즈미, 기쿠야마, 기미지마가 참석했다. 기미지마는 당일 일기에 “라이샤워 미국대사와 면담. 다나카, 호즈미, 기쿠야마, 자신. 40분 정도 이야기했다. 코린즈 2등서기관이 면담 통역, 완전 엉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미지마는 라이샤워에게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부하(子分) 간의 싸움은 두목(親分)이 중재합니다. 두목이 중간에서 중재에 나서면 부하는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목이 거기에서 한잔 마시게 하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두목입니다. 부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중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국의 교섭만으로는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서 라이샤워는 “양국의 일은 모두 양국이 해야 할 일로 미국은 간섭할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면담에서는 포츠담 선언의 “일본은 조선인을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기미지마는 Slave로 삼은 적이 없다, Merchandise로 삼은 적 없다고 말하자, 라이샤워는 노예와 마찬가지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고 회상하고 있다.⁴²⁾ 조선관계자들은 라이샤워 대사에게 한일교섭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라이샤워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번복할 뿐이었다. 기미지마는 이러한 라이샤워의 태도에 대해서 “전쟁이 종결되는 사정을 생각해 봐도 미국이 너무 뻔뻔스럽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김종필, 오오히라 회담을 통해 청구권문제가 일단락되자 한일회담은 타결 직전 국면

40) 1958년 3월 7일 君島一郎 앞 沢田廉三 서한(앞의 『君島一郎關係文書』).

41) 1960년 8월 1일자 『君島一郎日記』.

42) 君島一郎, 『私の銀行ライフ』, 日本銀行, 1974, 333쪽.

으로 접어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돌발한 ‘다카스기발언’은 한일교섭 당사자를 긴장시켰다.⁴³⁾

일본 외무성은 이 발언이 회답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일본기자단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였지만,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赤旗(아카하타)」가 이 발언 내용을 게재하여 다카스기의 식민지인식을 문제삼고 비난하였다. 기미지마는 이에 대해서 1965년 1월 21일자 일기에 “다카스기 발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저께 사와타가 말해 준 것이다. 이것은 구보타발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대다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赤旗」가 문제삼았다. 회답 성립에 강력하고 집요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강조점은 발표자)라고 적고 있다. ‘다카스기발언’이 ‘구보타발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대다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조선관계자의 식민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후 ‘다카스기발언’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이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赤旗(아카하타)」는 이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처럼 기미지마를 비롯한 조선관계자는 한일회담 수석대표와 접촉하거나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주일미국대사에게도 접근하여 한일관계의 중재를 의뢰하는 등 조선관계자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한일회담의 현안에 미친 영향력은 비록 미비할 지라도, 회담 당국자의 식민지인식에는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민지인식은 ‘구보타발언’, ‘다카스기발언’과 같이 회담을 중단시키거나 파탄시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 우병협회의 조선통치사 편찬

한국으로부터 귀환자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이라고 비판받았고, 일본사회에서조차 조선을 확대했던 것은 재조일본인과 조선총독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⁴⁴⁾ 심지어 일본의 위정자로부터 ‘군국주의의 주구’이고 조선통치를 멋대로 자행했다고 비판받았다. 일본사회 전체가 전전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국가’론의 유행은 지식인, 문화인의 실제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면서,⁴⁵⁾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전쟁책임문제, 식민지 지배문제를 추궁했다.

1945년 10월 마르크스주의자, 민족주의자가 주도하는 재일조선인의 전국조직인 재일조선인연맹이 결성되었고, 동 연맹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조선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여 조선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⁴⁶⁾ 또 일본공산당원이자 시인인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次⁴⁷⁾)는 1948년 4월 『新日本文学』(신일본문학회의 기관지)에 개인 체험

43) 다카스기는 1965년 1월 7일 다카스기 수석대표가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한일문제는 지금 최종 고비에 와 있는데 이 교섭은 보다 대국적 입장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차제에 형이 된 기분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과거의 통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이야기도 있다지만,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분명히 조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조선을 보다 낮게 하려고 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중략) 20년쯤 더 조선과 상종했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노력은 결국 전쟁으로 좌절되었지만 20년쯤 더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赤旗」1965년 1월 10일자).

44) 穂積眞六郎, 『わか生涯を朝鮮に』, 友邦協會, 1973.

45) 전후 ‘평화국가’, ‘문화국가’ 담론에 대해서는 앞의 淺野豊美 논문 ; 赤澤史朗, 「戰中・戰後文化論」 『岩波講座日本通史 近代4』 岩波書店, 1995, 를 참조할 것.

46) 도모무라 마사루 지음/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464쪽.

47) 쓰보이 시게지 (1897—1975) 는 가가와에서 출생하여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등단하고 나서 일본프로레타리아작가동맹 중앙위원을 역임한다. 전후에는 일본공산당당원으로 신일본문학회, 시인회의 리더로도 활약한다.

을 바탕으로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그린 서사시 「15엔 50전(十五円五十銭)」을 발표했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선인학살문제를 제기했다.⁴⁸⁾ 소설가 야스타카 도쿠조(保高德藏)는 1952년 3월 24일, 25일 『東京新聞』에 「민족적 고뇌의 문학」이라는 연재를 통해 김사랑, 장혁주, 青木洪(本名·洪鐘羽), 金達寿의 작품(『飢魂道』, 『草探し』, 『耕す人々の群』, 『玄界灘』)들이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 신음하는 조선인의 민족적 고뇌를 잘 그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조선사 연구자인 하타다 다카시(旗田巍⁴⁹⁾)는 1951년 이와나미 서점에서 『朝鮮史』를 출판했다. 하타다는 『朝鮮史』의 서문에서 전전의 조선사 연구가 일본의 대륙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한국전쟁으로 고뇌하는 조선인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사적으로 서술된 『朝鮮史』는 정체론적 기술이 남아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통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타다는 1952년 7월 18일, 19일 2회에 걸쳐 『東京新聞』에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반성-향토를 버린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재일조선인이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전시기의 강제노동과 같은 식민지통치로 인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타다에 의하면 『朝鮮史』가 출판되었을 때 조선총독부 관계자들로부터 총독정치를 나쁘게 말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동화협회의 기관지인 『同和』에는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실린 조선(한국)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관계자들은 일본 언론계와 지식인들이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에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경성일보 주필 나카야스 요사쿠(中保与作)는 일본의 조선통치와 조선에 있던 일본인을 무척대고 매도하고 있는 일본인을 ‘자학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칭하고 일부 인텔리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일부 조선인의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⁵¹⁾

하지만 식민지통치하의 한국인을 노예화의 상태로 규정했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일본으로서 GHQ의 점령하에서 과거 총독정치를 정당화하는 논의는 피해야만 했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추방의 해제(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체결(1951년)을 통한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복귀, 한일회담의 개시(1952년) 등을 계기로 GHQ의 검열과 전후 일본 사회에의 사상지형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관계자들은 우방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조선통치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선다.

우방협회는 그 설립요강에서 패전 후 전일본을 전율케하는 재일조선인의 ‘테러선봉’은 일본의 패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피압박민족의 ‘반동적 행위’라고만 이해되고 그 진인(真因)은 깊이 탐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선인들이 역으로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⁵²⁾ 또 이승만이 극단적인 반일정책을 펴서 일본 통치시대의 치적을 매도하고 한국인의 반일사상을 선동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

48) 관동대지진 40주년이 되는 1963년에는 한일회담반대운동과 한일우호운동이 연계되면서 각지에서 조사활동과 위령행사가 전개되었다. 『歴史評論』은 관동대지진에 대한 특집호 『日本と朝鮮一大震災朝鮮人受難四十年によせて』(1963년 9월호)를 마련했고, 사료집이 편찬되었다(板垣龍太, 「韓會談反對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想』 1029, 2010, 234~235쪽).

49) 하타다 다카시에 대해서는 고길희 『하타다 다카시』 지식산업사, 2005를 참조할 것.

50) 旗田巍, 「나의 韓國史研究 回顧」 『日本人의 韓國觀』(旗田巍著·이기동역), 일조각, 1983, 287쪽.

51) 中保与作 「自虐症の日本人」 『同和』 56호, 1952년 8월.

52) 앞의 『財団法人友邦協會設立要綱』.

인이 여기에 호응하여 조선통치를 비판했다고 인식했다. 특히 우방협회는 일본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들 언론은 대개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선입관으로부터 연역해서 지금 결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과장 또는 무시로 가득차서 일종의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저명한 언론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폐해는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는 일본 국민의 긍지와 자신을 상실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 제 국민, 특히 동아시아 민족의 일본 국민에 대한 오해를 이식시키게 되어 특히 한국 국민과의 우호관계상 중대한 폐해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⁵³⁾ (밑줄은 발표자)

우방협회는 이러한 언론의 식민지인식을 ‘시정’하고 조선사정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선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급 및 선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방협회는 설립 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간행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1953년 10월의 ‘구보타발언’이 한일회담을 중단시키는 빌미가 되자, 조선관계자들은 한국대표의 태도에 분개하면서 조선통치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조선관계자들은 이승만정권의 반일적인 태도에 한일회담 타결을 비판적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내의 정권 교체와 같은 국면의 전환을 기다렸다. 호즈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들 그룹만 이야기하고 세상에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전부 옳다고 맹신해서 쓸데없이 싸우기만 하면 우리 쪽의 결점만 먼저 머리에 주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판단하여, 총독부 관료들의 행적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날을 참고 기다리며 가능한 한 통치사료를 수집하고 편찬하고자 했다.⁵⁴⁾

호즈미의 이러한 구상은 1954년 조선산업발달사료편찬계획과 조선자료실설립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사료편찬의 목적은 근대 조선의 산업경제가 일본의 통치에 의해 경이적인 발전을 달성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⁵⁵⁾ 사료편찬사업은 식민지 지배가 모두 침략과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정확한 통치사’(우선 산업사)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우방협회와 중앙조선협회의 공동사업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조선 산업 가운데, 광업(금)에 관한 기록과 편찬을 기획하고 필요한 경비로 300만엔을 예상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다.

표3 우방협회 간행 주요 문헌

신조선독본	近藤 劔一	1953년
조선재정금융참고자료	近藤 劔一	1956년
조선의 병합 및 보호	近藤 劔一	1956년
조선총독부 종전의 기록	山名 酒喜男	1956년
조선전기사업관계중요문헌집성	岸謙·近藤 劔一	1958년
조선 토목사업 개요	榛葉 孝平	1959년
한국사(제정러시아 정부간)		1959년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1호	조선사료연구회	1959년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2호	조선사료연구회	1961년

53) 앞의 『友邦協會史』.

54) 1965년 6월 25일 上瀧基 앞 穂積眞六郎 서한(우방협회 소장, 上瀧基, 1972, 『穂積さんのこと』에 수록).

55) 田中武雄·穂積眞六郎, 『朝鮮産業發達史料編纂計畫』, 1954.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3호	조선사료연구회	1964년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4호	조선사료연구회	1965년
조선농업발달사 정책편	小早川九郎編著	1960년
조선농업발달사 발달편	小早川九郎編著	1959년
조선농업발달사 자료편	小早川九郎編著	1959년
조선토지개량사업사	古庄逸夫	1960년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및 대만	近藤劔一	1961년
태평양전쟁하 종말기 조선의 치정	近藤劔一	1962년
조선관계문헌·자료총목록	近藤劔一	1961년
재정·금융정책에서 본 조선통치와 그 중국	水田直昌 土屋喬雄編·	1962년
柏蔭余滴	武者鍊三	1959년

1954년은 35만엔, 1955년은 150만엔의 찬조금이 있었지만, 1956년부터 1958년까지는 결산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방협회의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1959년에 가서야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표4 우방협회 찬조금결산

*단위 만엔

연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금액	35	150	자료없음			130	137	55	175	181
연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금액	181	161	295	401	205	348	428	600	465	860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금액	400	115	20	10	20	214	360	370	354	435

『友邦協會史』에서 작성, 만단위 이하는 반올림했음.

한편, 자료실은 조선에 관한 일본의 지식, 경험이 ‘역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의 추이에 적응하기 위해 조선인식 내지는 조선관의 현실적인 ‘윤리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치가 제기되었다. 조선에 관한 신·구 저서, 문헌, 자료를 전국적으로 조사, 수집해 분류하고 정리해서 손실을 막고 일반연구자에게 개방해서 조사,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후 우방협회는 원래 의도했던 조선통치사편찬(「朝鮮總督府史」編刊)은 100년 후로 미루고 통치사편찬을 위해 필요한 실증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당면한 급무라는 판단하에 통치사료대계의 편찬과 조선통치경험자의 구술녹음과 기록을 중심으로 한 ‘우방시리즈’ 편찬에 주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현존하는 경험자의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확한 통치사’를 목표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총독부관료가 자신들의 식민지 경험을 출판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나면서부터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렬과 재개를 거듭하는 한일교섭과정을 지켜보는 귀환한 총독부 관료들은 조선통치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억제했다고 생각된다. 한일교섭이 진행되는 중에는 조선통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기미지마(君島一郎, 전 朝鮮銀行副總裁)의 의견에 고타키 모토이(上滝基)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선배님(기미지마)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중략) 한일교섭 중에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은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선배님이 “교섭타협 후는 과감하게 하고

싫은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이 갑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毀譽褒貶) 모든 진가는 후세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든지, 敗將은 말이 없다라든지, 진보적인 문화인과 학자 등이 일본의 통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보처럼 다투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구식민지관료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독단적인 추측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고타키) 일본 통치를 욕하는 논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설 용기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인텔리 사이에는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견식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조선통치 비판에 대한 변명은 확고하고 충분한 자료와 조직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⁵⁶⁾ (밑줄은 발표자)

기미지마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일회담 타결을 압둔 상황에서 ‘다카스기발언’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해서는 한일회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고 조선통치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고타키는 한일회담 중에 조선통치에 대해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직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면서 회담이 타결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일교섭 타결 후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재원이 풍부해지자 하기하라는 “일본인, 그 가운데에서도 지식인 계급이 조선통치의 실적에 무지한 데에 분개하여 조선통치에 관한 간단한 해설서를 편찬·간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의 주장은 한일교섭 타결 후 우방시리즈 발간으로 구체화 된다.⁵⁷⁾ 이후 1966년부터 조선근대사료연구-우방시리즈가 간행되기 시작되어 1986년까지 총 30편이 출간되었다. 우방시리즈는 조선통치비판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일본 및 해외 각지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배포되었다.

<표5> 우방협회 시리즈

제1호	조선의 토지조사	萩原彦三	1966년
제2호	朝鮮米와 일본의 식량문제	石塚峻 [述]	1966년
제3호	자료: 일본 통치하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	萩原彦三	1966년
제4호	資料 : 조선 사법제도 근대화의 발자취	座談會記錄	1966년
제5호	宇垣 총독의 농촌진흥운동	山口盛講述	1966년
제6호	한국재정의 정리개혁 :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郎의 업적	萩原彦三	1966년
제7호	조선말기 通貨의 그 정리	高久敏男	1967년
제8호	조선의 국토개발사업	榛葉孝平, 本間孝義, 本間德雄 [述]	1967년
제9호	조선의 救癩事業과 소록도 갱생원	萩原彦三	1967년
제10호	조선근대광업의 창성	遠藤鐵夫/穂積眞六郎	1968년
제11호	명치 일본의 對韓政策	深谷博治	1968년
제12호	朝鮮水産의 발달과 일본	穂積眞六郎講述	1968년
제13호	朝鮮酒造業界 40년의 궤적	平山與一	1969년

56) 1965년 5월 30일 君島一郎 앞 上瀧基 편지.

57) 『萩原彦三功績調書』 (우방협회소장,NY290-93).

제14호	일본통치 하 조선의 법제	萩原彦三著	1969년
제15호	朝鮮總督府官制와 그 행정기구	萩原彦三述	1969년
제16호	齋藤總督의 문화통치 : 朝鮮總督府資料選集	近藤劔一編	1970년
제17호	朝鮮農地令과 그 제정에 이르는 제 문제	塩田正洪	1974년
제18호	통감부시대의 재정 : 조선근대재정의 준비 :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자료에서	水田直昌監修	1974년
제19호	總督府時代의 재정 : 朝鮮近代財政의 확립 :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자료에서	水田直昌監修	1974년
제20호	한반도의 삼림	財団法人土井林學振興會編	1974년
제21호	資料選集·東洋拓殖會社	水田直昌監修	1976년
제22호	朝鮮의 産業金融事情에 대해서	金谷要作	1980년
제23호	朝鮮財政余話	水田直昌口述	1981년
제24호	조선 미국정책의 변천	石塚峻著	1983년
제25호	資料選集·조선의 農村振興運動	水田直昌監修	1983년
제26호	朝鮮의 墾業	水田直昌監修	1983년
제27호	朝鮮總督府回顧錄	渡辺豊日子述	1984년
제28호	朝鮮金融組合回顧錄	水田直昌監修	1984년
제29호	朝鮮金融組合回顧錄(續) 머나먼 추억 :	松木孝道監修	1986년
제30호	歷代總督統治通觀 : 歷代總督統治通觀을 읽고	穂積眞六郎口述 / 前田利一筆	1986년

우방시리즈의 제1호(조선의 토지조사)와 제2호(朝鮮米와 일본의 식량문제)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비판했던 하타다 다케시에 대해서, 제3호(일본 통치하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는 총독부의 조선어금지를 비판했던 쓰보이 시게지에 대한 반박이었다.

1965년 한일교섭의 체결되자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 경단련의 알선으로 기업들로부터의 우방협회 찬조금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한일국교 수교로 더 이상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조선통치관을 분출시켰다. 우방협회는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학자들의 식민지인식을 문제삼았다. 1966년 10월 교토대학 법학부 교수 이노키 마사미치(猪木正道)가 사토(佐藤栄作) 총리와 TV대담에서 총독부가 조선어교육을 금지하는 등 조선인을 압제했다는 발언을 하자, 우방협회는 우방시리즈(『자료: 일본 통치하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를 송부했다. 또 야나이하라 다다오의 장남이자 철학자인 야나이하라 이사쿠(矢内原伊作)가 1967년 3월 16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조선어사전편찬에 관한 글을 게재하자 호즈미는 야나이하라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선생님께서 지난 1967년 3월 16일 일본경제신문 석간 「내일의 話題」란에 쓰신 「朝鮮語辭典」이라는 문장은 매우 인식이 부족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매스컴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와 같이 쓰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일본의 조선통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만(그것은 당시의 일본의 경제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나 조선인의 문화, 경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중략) 조선민족에게 조선어를 금지하고 일본어의 사용을 강제한 일이 없습

니다. (중략) 별책 「일본통치하 조선에서의 조선어교육」을 꼭 일독하시고, 인식을 바꾸시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⁵⁸⁾ (밑줄은 발표자)

호즈미가 지적한 것처럼 「朝鮮語辭典」은 이미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되었다. 하지만 황민화정책 시기에 조선인에게 조선어를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호즈미였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있다. 이렇듯 우방시리즈는 조선통치의 실정에 ‘무지’한 지식계급의 조선통치인식을 ‘시정’하기 위해 편찬되고 활용되었던 것이다.

맺으며

패전과 함께 식민지를 상실한 전후 일본사회는 식민지제국일본으로서의 기억을 망각하려 하였다. 식민지를 망각하려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조선사학자),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治)로 대표되는 일본 지식인·문화인과 재일조선인들은 식민지(조선)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GHQ의 명령에 의해 전시기의 사상·문화적 통제가 철폐되고, 전전의 군국주의자가 침묵을 지키는 열린 공간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문제 삼았다. 또한 재일조선인은 ‘피식민자’로서의 ‘집단지억’을 통해 일본사회 마이너리티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추방의 해제,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복귀, 한일회담의 개시,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론의 악화 등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GHQ의 검열과 전후 일본사회의 사상지형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식민자’들은 억압과 착취라는 ‘피식민자’의 ‘집단지억’에 대해 개발과 발전이라는 ‘식민자’의 ‘집단지억’을 확산시켜 나가자 하였다. 물론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식민지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지억’들이 경합하고 있었고, ‘식민자’라 할지라도 식민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측위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식민자’ 중에서도 조선관계자는 우방협회를 조직하고 ‘식민지 아카이브’(우방문고, 우방시리즈 등)를 구축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식민지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65년 한일회담이 정치적으로 타결되면서 식민지 지배책임이 ‘봉인’되자 조선관계자의 ‘집단지억’은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식민자의 ‘공적기억’으로 자리매김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제프리 K.올리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억들 사이의 체계적 관계도 유동적이며, 상이한 장(field)의 경계 자체 역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공적기억’이라는 형태 자체도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문제,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기억’을 둘러싼 각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58) 1967년 3월 20일자 矢内原伊作 앞 穂積真六郎 편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전후(戰後)1)

-법문학부 교수들과 동창회지 『紺碧』-

정준영(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문제제기

최근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은 한국 학계에서도 꽤 관심을 가지는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추적 작업을 통해 ‘식민통치’와 ‘해방 이후’ 사이에 존재했던 인식적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편, 한국 근대학술의 형성과정에서 경성제대가 미친 영향들이 다양한 학제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종전까지의 모국과 식민지라는 이항대립적인 틀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식민지제국 전역을 관통했던 지식-권력의 회로(回路)를, 경성제대라는 결절 지점을 통해 규명하려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이에 더해 경성제대의 존재방식과 운영형태에 대한 연구도 자료의 제약 속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²⁾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학계 뿐 아니라 일본의 학계에서도 경성제대가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상황은 얼마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성제대는 왜 그렇게 철저히 망각된 존재로 남아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945년 이후 경성제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우리의 대학’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과 관련이 깊지 않을까 한다(정준영, 2010: 161-170).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경성제대란 그저 ‘그들의’ 학교일뿐이었다. 애초에 식민 통치를 위해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교수진과 70% 가까운 학생들이 일본인이었던 학교를 한국 근대교육사의 흐름 속에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편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도 경성제대는 ‘더 이상’ 우리의 대학이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구실로 식민지의 역사를 일본사의 흐름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주류 학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했다. ‘외지(外地)’라는 표현도 자제했던 일본이, 패전 후에는 거꾸로 현재 일본의 영토로 규정된 열도(列島)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일본적인 것”에서 배제해 버리곤 했다.³⁾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경성제대는 ‘침략’과 ‘패전’을 상기시키는 잊고 싶은 기억 중 하나일 뿐이다.

1) 이 발표문은 이미 발표된 정준영(2013),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귀환과 전후 일본사회」, 『사회와 역사』 99를 이 심포지엄의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들이引領 이후 일본학계에 어떻게 다시 정착해나갔는지 그 양상과 원인을 본격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를 이 발표문에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추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2) 이상 경성제대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정근식 외(2011), 정준영(2009) 등을 참조할 것.

3)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히 식민지문제를 주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 근대사에 대한 체계적 왜곡을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던 지역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현재의 일본영토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식민지제국’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준영(2009)를 참조.

이렇게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학계 모두가 그 존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태를 거부하고 경성제대를 망각의 늪에서 구출해내려 했던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성제대에 재직했던 일본인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이들이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한 직후인 1947년부터 학부 단위의 동창회를 결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1950년부터는 우선 법문학부와 이공학부의 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소식지 『청구(靑丘)』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학부동창회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1954년 대학 단위의 동창회, 즉 ‘경성제국대학 동창회’를 출범시켰다.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옛 스승들을 구심점으로 긴밀한 연락을 계속하면서 모교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 및 증언들을 수집, 정리했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대학의 의의에 대한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청구』를 계승한 동창회 소식지 『紺碧(紺碧)』을 통해 동문들에게 공유되었다. 1974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묶어 74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대학기념지 『紺碧遙かに』를 발간하게 되었다.⁴⁾ 대학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흩어진 상황에서, 기억을 더듬고 남은 자료를 추슬러 만들어낸 이 기념지는 당시로서는 경성제대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대학통사’였고, 최근 경성제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주 참조하는 자료로 남아있다.⁵⁾

하지만 경성제대 동창회의 활동은 단지 사라진 모교의 기억을 공유하고 되살리는 데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식민지의 엘리트에서 일개 귀향자로 전락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게 있어서 동창들과의 연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일본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적 자원이었다. 동창회는 ‘식민지조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로서 일본정부가 한일국교 수립을 위해 수행했던 기초조사의 숨은 인적, 조직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동창회 결성 초기부터 옛 경성제대 교수들과 정·관·학계에 진출한 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도 경성제대 동창회가 단순한 동창들의 사교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지에서 활동했던 귀환지식인들의 활동거점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성제대동창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경성제대 출신 귀환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경성제대 교수들에게 ‘전후(戰後)’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이들이 패전 이후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다소 피상적이고 거칠게나마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경성제대 출신의 귀환지식인들 중에서 경성제대 교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이들이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스승으로 동창회를 비롯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활동에서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이겠지만, 애초 경성제대 교수들이 일제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도 총독부 고위관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유력자 집단이었고, 식민지 유일의 대학에서 “高等學術技藝”를 가르쳐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자 집단이었으며, 스스로 개별 학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식민지 ‘조선’에 관한 학지(學知)⁶⁾를 창출했던 연구자 집단이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패전으로 대학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이야말로 경성제대를 사실상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귀환자로서 어떻게 일본에 돌아갔으며, ‘귀환자’ 지식인으로서 정체성은 어떠했으며, 연구자 또는 교육자로서 일본 학계에 어떻게 편

4) 京城帝國大學同窓會(1974),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耕文社. 이들 동창 중 이공학부 출신들은 이 기념지와 별도로 1988년 『遙かに佛岩山』(慶昌堂, 1988)을 발간하기도 했다.

5) 경성제대 관련 자료의 소장상황 및 특징에 대해서는 정준영(2010)을 참조.

6) 학지란 “<學>문의 내재적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지>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이해하려는 복안적(複眼的) 시점”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酒井哲哉, 2006: v).

입해 들어가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곧 전후 일본 사회에서 경성제대의 ‘유산(遺産)’을 묻는 작업에 있어서도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귀환 이후 경성제대 교수 ‘출신자’들이 일본인 귀환 지식인으로서 전후 일본사회에 어떻게 편입해 들어갔고,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특히 여기서는 경성제대 동창회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전후 경성제대 교수출신자들이 일본학계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것을 전부 다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 발표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귀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동창회가 단지 같은 학교출신자들이 모교를 추억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인 모임이라는 사전적 뜻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오랜 ‘외지(外地)’ 생활을 하면서 일본 본토에서의 생활기반과 인적 연계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동창회는 학연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의 활로를 찾는 거점이 될 수 있었으며, 귀환자로서의 집단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장(場)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성제대 동창회의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후 경성제대 교수출신자들의 근황과 경성제대 출신자로서의 그들의 목소리를 부분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발표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따라서 먼저 ‘귀환’ 지식인으로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게 전후 동창회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후, 동창회 회보에 나타난 경성제대 교수들의 일본사회 편입양상과 귀환자로서의 정체성이 가진 특징적 양상들에 대해서 각각 검토하겠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경성제대 교수들은 식민지 제국대학의 교수로서 개별학문의 엄밀한 방법론에 기반 해서 식민지 ‘조선’에 관한 학지(學知)를 창출했던 연구자 집단이었다. 따라서 식민지관학을 대변하는 이들이 전후 일본학계에 어떻게 편입되었으며 ‘귀환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의 질문은 곧 식민지에서 축적된 제국 학지(學知)의 전통이 전후 일본의 사상·학술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변용, 유지되고 있느냐의 질문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경성제대 교수들의 개별 연구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학문 활동이 가진 실천적 맥락이 패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용, 재규정되는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현재로서는 발표자의 능력을 넘어서며, 여기서는 그 예비적 고찰로서 경성제대 교수 출신자들, 특히 법문학부 교수⁸⁾들이 전후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사회에 어떻게 편입되었으며, 그 편입의 특정한 양상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주로 동창회 자료에 한정해서 검토하는 데 그치겠다.

2. 경성제대 교수들의 귀환과 전후 동창회 활동

7) 재조일본인의 ‘귀환’ 문제에 관해서는 귀환과정을 다룬 최영호(2003), 정병욱(2003), 노기영(2006), 이연식(2013)의 연구, 일본귀환 이후의 활동을 다룬 정병욱(2005)의 연구, 귀환자들의 식민지배경험과 인식 문제를 다룬 김경남(2008), 이형식(2010), 최영호(2008)의 연구, 귀환자의 정체성 문제를 환기시키는 成田龍一(2003), 淺野豊美(2004)의 연구 등 이미 많은 뛰어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다만 경성제대 출신자의 귀환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 및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칠 뿐, ‘경성제대’와 관련 지워 고찰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최근 일본학계에서 경성제대 관계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사회회의 활동을 정리하려는 시도(永島広紀, 2012)도 있었지만, 관계자의 이력을 나열하는데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8) 이 발표에서 분석대상을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출신자에 한정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가용(可用)한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동창회의 활동이 주로 법문학부 출신자로 이루어졌고, 특히 교수출신자들은 의학부, 이공학부에 비해 중앙학계 지향성이 강했기 때문에 戰後의 동향이 비교적 쉽게 파악된다는 사실도 고려되었다.

(1) 일본의 패전과 경성제대 교수들의 귀환

집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성제대 교수들은 식민지배자들(colonizers)의 사회, 즉 재조(在朝) 일본인사회 내에서도 독특한 위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객관적인 규모로 본다면, 이들은 매우 작은 규모의 일본인 전문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의 학부로 출범한 경성제대는 당시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교수의 수가 작은 것은 따라서 당연했는데, 1926년 개교 당시 경성제대 교수는 25명에 불과했으며, 조교수 7명을 더해도 40명이 되지 않았을 정도였다.⁹⁾ 이후 대학제도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교수들이 합류하게 되지만, 대체로 법문학부는 60명, 의학부는 50명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1941년 신설된 이공학부의 교원 60여명을 더해도 경성제대 교수집단은 대략 170명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¹⁰⁾ 하지만 규모만 가지고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이들의 위상과 역할을 가늠하는 것은 다소 설부들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경성제대 교수들은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도 최상위 유력 집단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식민당국으로부터 고위 관료와 동등한 지위와 위상을 부여받았던 엘리트 집단이었고, 식민지의 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좌우했던 교육전문가였다. 또한 이들은 식민지조선에 관한 학술적 지식을 주도적으로 창출했던 직업적 연구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제국대학이라는 학연을 기반으로 조선총독부 및 본토의 관학아카데미즘과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제자들이 경성제대를 졸업한 후 ‘식민지’ 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재조일본인 사회 내부에서 영향력 또한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일본의 ‘갑작스런’ 패망으로 식민공간의 지배자들이 순식간에 해방공간의 ‘패전국민’으로 전락하게 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¹¹⁾

대부분의 재조일본인들에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뜻밖의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¹²⁾ 전쟁의 공포와 패전의 예감은 보도 통제 속에서도 악화일로로 전황(戰況)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져갔지만, 정작 패전의 결과가 무엇이며 자신의 운명이 이를 통해 어떻게 바뀔지를 각오하고 있었던 재조일본인들은 드물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패전 직후 “조선인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패전 후 자신이 왜 조선을 떠나야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이연식, 2012: 33). 이처럼 재조일본인들이 일본의 항복에 당황했던 것은, 식민권력이 ‘일선동조’, ‘내선일체’를 부르짖고 있었지만, 정작 식민공간 속에서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인과 분리되어 마치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다.¹³⁾ 조선인에 대한 총체적 무관심과 무

9) 1926년에 발행된 『경성제국대학학보』의 인사발령 항목을 정리해보면 연말까지 교수로 합류한 이는 법문학부 15명, 의학부 11명이었고, 조교수는 각각 7명, 4명이었다. 경성제대 교수집단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는 정근식 외(2011: 314-317)의 논의를 참조할 것.

10) 경성제대가 존속했던 동안, 교수 혹은 조교수를 역임했던 이는 모두 합해 275명으로 확인된다. 학부별로는 법문학부 97명, 의학부 109명, 이공학부 66명이었다.

11)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경성제대 교수들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준영(2013)의 2장을 참조.

12) 패전 직후 재조일본인 사회의 동향과 심리상태는 특히 이연식의 저서(2012)에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하 논의를 전개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었다.

13) 박찬승은 재조일본인의 존재방식과 식민통치를 연관시켜 식민지 조선의 ‘이중사회화’라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과연 식민지 공간이 얼마만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중사회로 분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패전 이후 재조일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식민자의식의 결여’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한

지는 특히 ‘문화통치’ 시기에 이주해 왔거나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20년대 이후 조선인의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이 적어도 한반도 안에서 만큼은 점차 사라지게 되자, 조선사회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소수의 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은 조선인과 사실상 격리된 공간에서 이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살 수 있었던 것이다(이연식, 2012: 27). 해방을 기뻐하는 조선인들의 환호와 집단적인 시위를 목격하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전략한 자신들의 처지를 직시하는 과정에서 재조 일본인들은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은 조선인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와 무관심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강고해 보였던 식민권력은 ‘패전’과 더불어 속절없이 극도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전쟁이란 명분’ 속에 강제로 봉인되어왔던 식민지 사회의 모순은 극명하게 드러났고, 재조일본인 사회 내부에 총독부에 대한 불신감은 극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여 은닉하려 했고, 밀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줄을 이었다(최영호, 2013: 2장). 총독부는 최소한의 치안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행정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軍과 官에 의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는 사태에 깜짝 놀랐”¹⁴⁾을 정도로 당시 재조일본인들의 혼란과 동요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다. 패전 이후 ‘외국’에 남겨지게 된 ‘패전국민’ 일본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독부가 갈팡질팡 하는 상태에서 귀환문제가 사실상 재조 일본인들에게 맡겨지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는 이른바 세화회가 재조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1945년 10월 이후부터는 일본인 귀환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부상했던 것이다.¹⁵⁾

그런데 일본인 귀환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경성세화회의 핵심 지휘부는 대체로 재조일본인 사회의 최고 상층부에 있었던 전직 관료그룹이었지만, 이런 지휘부와 별도로 세화회 조직의 중견에서 ‘잔류 일본인’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 경성제대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경성제대를 졸업한 출신자들이었다. 경성세화회의 활동 중에서 특히 경성제대 관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은 재조일본인 집단의 실태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도하는 조사부 사업과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사업, 그리고 재조 일본인들의 치료, 위생을 담당하는 의료 사업이었는데,¹⁶⁾ 이들 사업은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임무라 할 수 있는 것들로써, 사실상 세화회 활동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관료만큼 높은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교육가, 전문가, 연구자로 활동했던 경성제대 교수들은 졸업 이후 재조일본인 사회에 정착하여 상당한 연락망과 인적 기반을 갖춘 1,300명 가까운 일본인 졸업생을 묶어주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들 경성제대 관계자들이 패전 직후부터 집단적인 형태로 귀환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인적 연결망과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엘리트의식을 바탕으로 세화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귀환자로서의 자각과 동창회의 결성

시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박찬승(2010), 「일본의 식민지배와 식민지 조선의 이중사회화」, 제53회 역사학대회 공동주제발표, 2010년 5월 28일을 참조.

14) 당시 서울의 치안상황에 대해서는 今村勳(1981)의 회고를 참조.

15) 경성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 세화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森田芳夫(1964), 노기영(2006), 최영호(2008)의 연구 등을 참조.

16) 교수를 포함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세화회 활동에 대해서는 정준영(2013)의 3장을 참조.

그런데 일본으로 귀환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식민지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산층 이상이라는 안정적인 사회적 배경과 식민지 엘리트라는 특권의식과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인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일반 ‘귀환자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시혜적인 귀환활동 지원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우월했던’ 기반은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대부분 상실되고 말 성질의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귀환 이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전개했던 것일까.

우선 이들은 식민지에서 구축했던 안정적 경제기반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패전 직후 재조일본인 유지들 중 상당수가 일본 귀환보다는 ‘잔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식민지라는 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안일함(成田龍一, 2003)에서 기인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귀환’ 자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냉정한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했다. 재조일본인들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교육여건 등에서 같은 수준의 본토인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귀환 이후 상황의 변화는 더욱 급격한 것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제국대학 교수, 학생 또는 출신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던 확고한 엘리트의식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엘리트의식의 기반이 되었던 경성제대는 사라져버렸고, 일본사회 내에서 귀환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성제대가 누려왔던 ‘제국대학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귀환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마저 당시에는 불투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총독부관료를 제외하고 경성제대 교수의 지위 및 학생들의 학력이 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학부와 예과의 재학생들이 문제였다. 이들 귀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려면 (舊制)고등학교, 제국대학에의 편입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은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학력을 문제삼고 이를 검정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¹⁷⁾

대학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조직적 대응을 불가피했다. 그런데 이런 조직적 기반 또한 귀환 후 상당부분 붕괴되었다. 무일푼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의탁할 수 있는 연고를 찾아 지역적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귀환과정에서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학력인증 문제와 취업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귀환 이후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활동이 동창회의 재건과 이들 통한 집단적 활동의 모색에 집중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귀환의 과정에서 이들은 그들 자신이 한 사람의 귀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조선에서의 삶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기정체화’와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경성제대’가 단순히 추억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자기정체성’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성제대 동창회의 설립움직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집단귀환이 일단락된 1946년 초였다고 한다(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532). 조선총독부의 도쿄출장소는 패전 이후 ‘조선관계 잔무정리사무소’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귀환 이후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활동거점이 되었다. 잔무정리사무소에는 귀환학생의 전학, 졸업, 자격부여 등의 업

17) 경성제대 예과재학생들의 편입경위에 대해서는 동창회보에 실린 예과교수 大關將一の 「予科生徒轉学始末」(京城帝大同窓會, 1974: 511-522)이 자세하다.

무를 담당하는 학무(學務)처리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성제대 및 예과 재학생의 전학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먼저 귀환한 일부 교수들이 합류하면서 산하에 경성제대 연락반이 결성된 것이다. 경성제대 연락반에는 최후의 총장 야마가(山家信次)를 비롯하여 법문학부의 도리아마(鳥山喜一, 동양학제1강좌) 교수, 이공학부의 우노(宇野利雄, 수학강좌), 미즈타(水田準一, 광산학제2강좌), 도우케(道家欽, 광산학제1강좌) 교수, 의학부의 우에다(上田常吉, 해부학제1강좌) 그리고 예과교수 오제키(大関将一)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에서 가져온 학적부를 기반으로 경성제대 및 예과 재학생들의 전학, 자격부여 업무를 처리했다. 이들은 한편으로 흩어진 재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자신들의 학연과 지연을 총동원하여 구제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학을 탄원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경성제대 예과재학생은 1945년 말 각 구제고등학교에서 시행한 제1차 전형에서 186명이 합격하여 해당 학교로 전학했으며, 이후 탈락자 132명도 추가 전형을 통해 전학의 기회를 부여받았다(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512).

하지만 구제고등학교의 1차 전형에서 예과재학생 132명이 탈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제대 귀환학생들의 전학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나마 전학대상자들 중에서도 귀환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속출했다. 야마가(山家信次) 前총장은 이러한 어려움은 귀환자의 전략한 사회적 지위, “内地當局의 外地狀況에 대한 인식 결여”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성제대 교관, 졸업생 및 학생들을 포함해 동창회를 설립”하여 재학생들의 학자원조, 졸업생의 취업알선을 모색하는 한편, 대학사를 편찬하여 식민지사정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실제로 그는 당시 잔무사무소 소장으로 있었던 법문학부 1회 졸업생 기타무라(北村輝雄), 경성제대 조수로 오랜 기간 재직했던 사쿠라이(桜井義之), 그리고 교수들 중에서는 귀환업무의 실무를 맡았던 스즈키(鈴木武雄) 등과 더불어 동창회 발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경성제대 연락반이 있었던 잔무처리사무실에는 도쿄 근처의 많은 경성제대 출신자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찾아와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532), 먼저 전학업무를 합동으로 진행했던 법문학부와 이공학부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1947년 봄부터 법문학부와 이공학부의 동창모임이 속속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¹⁹⁾ 법문학부와 이공학부의 동창모임은 야마가 총장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교적 상호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상태였다.²⁰⁾ 이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졌던 법문학부 동창모임은 총동창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법문학부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임의 명칭을 ‘청구구락부(靑丘俱樂部)’로 정했고, 여러 귀향자 및 조선관련 단체에 관여하고 있었던 기타무라(北村輝雄), 사쿠라이(桜井義之) 등이 중심이 되어 여러 귀향자 단체에 흩어져 있는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자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근황을 수집하여 1950년 1월 대략 완전한 형태의 법문학부 동창명부를 완성했다. 이 동창명부의 구축을 계기로 1950년 4월, 야마가(山家信次) 총장, 법문학부장을 역임했으며 전후일본에서 문부대신을 지내기도 했던 아베(安倍能成) 교수 등이 참여하는 법문학부 모임을 열었다. 교수 12명을 비롯해서 80명이 넘는 경성제대 출신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청구구락부의 규약이 심의,

18) 인용한 야마가 전총장의 발언은 조선인양자소식지인 『連絡船』(제1호, 1947. 3)의 실린 내용이다. 京城帝國大學同窓會(1974: 533-534)에서 재인용했다.

19) 경성제대 동창회의 구체적인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櫻井義之(1954), 「城大同窓会のあゆみ」, 『紺碧』 26호를 참조.

20) 경성제대 최후의 총장인 山家信次는 이공학부의 초대 학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공학부 동창모임과 총동창회 건설을 지향했던 법문학부 동창모임에 있어서 공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었다.

확정되었는데, 모임의 성격을 “구 경성대학 교원, 졸업생, 및 직원의 간친(懇親)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계를 긴밀히 하여 회원 상호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규정하여 법문학부만이 아닌 경성제대 전체동창회를 지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536).

그런데 의학부의 동창모임은 이러한 법문학부, 이공학부의 동창모임의 활동과는 별개로 꾸려졌던 모양이다.²¹⁾ 의학부 동창들은 최소한 도쿄에서는 다카쿠스(高楠榮, 산부인과학교실), 혼나(本名文任, 제2외과교실) 교수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온고회(溫故會)’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은 1950년대 초반까지는 ‘청구구락부’와는 별개의 행보를 보였다(櫻井義之, 1954: 3). 이런 동창회 모임의 차이는 같은 경성제대 출신이라고 해도 학부에 따라 ‘귀환’ 이후에 처했던 상황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성제대 출신자들도 다른 재조일본인 귀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대체로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일본 내의 연고지로 귀환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당시 패전국으로 전락했던 일본의 상황 속에서 취업 및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경성제대 출신자들, 그중에서도 법문학부 출신자들은 점차 연고지를 떠나, 오히려 선생과 동창들, 그리고 ‘외지출신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잔무처리사무소가 있는 도쿄에 법문학부 출신자들이 집중되었다. 동창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법문학부 교수들은 압도적으로 동경제대 출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성제대의 연출과 더불어 이들 교수들을 매개해 동경제대 학연(學緣)에서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신생학부였기 때문에 그나마의 인적 연계도 거의 없었던 이공학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이공학부의 교수진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동경제대 출신이었다.²³⁾

하지만 의학부 출신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는데, 교수 및 졸업자들은 의사면허를 통해 연고지에서 병원개업이나 취직 등 상대적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또한 의학부 재학생들의 경우도 희소성 때문에 다른 학부 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학이 용이했다. 의학부 교수들도 법문학부·이공학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동경제대 출신이 적고 지방의과대학 출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학부 동창들의 구심점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할 수 있다. 즉 의학부 출신자들은 다른 학부 출신자들과 달리 연고지역에 정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며, 동문회 활동도 인근 지역에 정착한 스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학부단위의 동창회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활동을 개시한 것과는 달리, 동창회의 통합은 경성제대 출신자들이 일본사회 속에서도 나름의 기반을 마련하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각 학부의 동창회는 1954년 4월 ‘경성제대동창회’의 하부조직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후 총동창회는 동창회 소식지 『감벽』을 매개로 근황을 공유하는

21) 대체로 현재 남아있는 경성제대동창회의 설립과정에 관한 자료, 서술은 주로 법문학부 동창회, 즉 청구클럽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의학부동창회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알기는 쉽지 않다. 소식지 『紺碧』의 경우에도 의학부보다는 법문학부 및 이공학부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총동창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의학부 동창들의 활동은 다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동창회 발족 당시 의학부 1회 財田重가 『紺碧』 2호에 투고한 「城大同窓會發足の感激」이라는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財田은 총동창회 발족의 의의와 감격을 피력하면서 온고회의 의학부동창들에게 청구구락부가 동창회 일체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2)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초대 교수들 중 동경제대 출신자가 95%가 넘을 정도로, 애초부터 법문학부는 ‘동경지향성’이 매우 강했던 학부였다.

23) 패전까지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부임한 강좌교수는 모두 37명이었는데 이 중 3명(구주제대 2명, 경도제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경제대 출신이었다. 92%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었다.

한편, 교수와 학생들의 회고, 방담, 소장 자료의 수집을 통해 ‘잊혀진’ 모교의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서론에서도 언급한 대학기념지 『紺碧遙かに』의 간행이었다.

이와 같은 동창회 활동의 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동창회 활동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조선인양동포세화회’(1946년 3월 설립), ‘조선사업자회’(1945년 11월), ‘舊友俱樂部’(중앙조선협회의 후신) 등 귀환자단체들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가 귀환 및 일본사회의 편입과정에서 확인된 ‘귀환자들’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이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창회 또한 일본 내의 부정적 분위기 속에서 ‘제국대학 출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

3. 경성제대 교수들의 ‘정착’-전후 일본 학계로의 편입양상

그렇다면 귀환 이후 경성제대 출신자, 그중에서도 교수들은 전후 일본사회에 어떻게 정착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온전히 답하기 위해서는 경성제대 교수, 직원, 졸업자 전체의 전후 행적을 추적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규칙성의 의미를 추적해야 할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적지 않다.²⁴⁾ 다만 경성제대 교수들의 전후 행적은 동창회의 소식지를 통해서도 불완전하게나마 근황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구구락부의 소식지 『청구』 2호(1950년 12월)에 게재된 2개의 기사는 단지 교수들의 근황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시점에서 경성제대 교수들이 일본의 학계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으며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1950년 4월의 청구구락부 결성 모임에 참여한 후 감상을 적은 스즈키(鈴木武雄, 경제학 제2강좌) 교수의 「조선부락(朝鮮部落)のこと」이라는 글과 아이치대학 교수가 된 아키바(秋葉隆, 사회학강좌) 교수가 아이치대학과 나고야대학에 자리 잡은 경성제대 교수출신의 근황을 소개한 「청구의 자연과 사람(靑丘の自然と人)」이라는 글이 그것이다.

(1) ‘조선부락’의 출현-경성제대 교수출신들의 정착양상

이 글에서 스즈키(鈴木武雄)는 청구구락부 결성모임이 열렸던 도쿄예술대학이 당시 일본 학계에서 ‘조선부락(朝鮮部落)’ 또는 ‘성대부락(城大部落)’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점차 이런 평가를 얻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가 정말 東京인가”하는 착오가 생길 지경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조선부락(朝鮮部落)’ 또는 ‘성대부락(城大部落)’이란 경성제대 출신자들이 여러 명 교수가 되어 마치 ‘부락’을 형성했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스즈키는 대표적인 ‘조선부락’으로 도쿄예술대학, 도쿄대학, 가쿠슈인(学習院)대학, 무사시(武蔵)대학을 들고 있다. 한편 아키바(秋葉隆)는 조선의 자연과 귀환 후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다행히 조선에서 느꼈던 “대륙문화의 향기”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로서 아이치(愛知)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대북제대, 동아동문서원대학 등 다른

24) 동창회의 명부는 지금 단계에서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미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출신자 개별의 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대학의 교수들과 더불어 많은 경성제대 교수들이 대학에 모여들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두 글은 1950년 들어서 일본의 대학 중에서도 경성제대 교수들이 집결하여 특유의 학풍을 계승하고 있는 곳, 스즈키의 표현을 빌자면 ‘조선부락(朝鮮部落)’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부락’을 이룬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며, 왜 부락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부락민’의 면면은 어떠한가,

우선, 스즈키가 첫 번째로 거론했던 도쿄예술대학은 패전 이전까지 문부성 관할의 관립전문학교였던 東京美術학교와 東京음악학교가 패전 이후 통합된 것으로 1949년 5월 국립예술대학으로 승격된 대학이었다.²⁵⁾ 당시 학장은 미학자 우에노(上野直昭)였는데, 1926년 경성제대 창설 당시 조선에 부임해 ‘미학미술사제1강좌’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44년 교수직을 물러나 내지(内地)로 돌아갔는데, 잠시 오사카 시립미술관 관장이 되었다가 동경미술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여기에서 패전을 맞게 된다. 이후 그는 전문학교 수준인 동경미술학교와 동경음악학교를 통합하여 이를 국립예술대학으로 승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경성제대 시절의 동료 교수, 직원 그리고 제자들이었다. 우에노는 경성제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패전 당시에는 제1고등학교 교수로 있었던 아소(麻生磯次)²⁶⁾를 강사로 초빙하였고, 1949년에는 경성제대 ‘조선사학제1강좌’ 교수였던 후지타(藤田亮策)를 교수로 영입했다. 조선고고학이 전공인 후지타는 이후 1959년까지 동경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서관장, 대학평의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²⁷⁾ 1950년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1936년 졸업)인 니시모토(西本順)가 조교수로 취임했다. 미학을 전공했던 니시모토(西本)는 경성제대 조수로써 미학연구실에 근무했던, 우에노(上野直昭)의 직계 제자였다. 그는 1963년 교수로 승진해 1965년 사망할 때까지 근무했다. 한편 우에노(上野直昭)는 그가 경성제대 법문학부장을 맡았던 시절 법문학부의 사무주임이었던 구마모토(熊本正男), 법문학부 조수였던 사쿠라이(櫻井義之)를 발탁하여 도서관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사쿠라이(櫻井義之)는 곧 동경도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를 대신했던 우메다(梅田)이란 사람도 경성제대 의학부 사무를 맡던 이었다.

아베(安倍能成)가 원장으로 있었던 가쿠슈인대학도 경성제대 출신 교직원들의 근거지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애초 천황 및 황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이었던 가쿠슈인(學習院)은 패전 이후 성격을 달리해서 사립대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산파 역할을 했던 이가 아베였던 것이다. ‘이와나미 철학자’로서 일본본토에서도 저명했던 그는 1926년 조선에 부임하여 1940년까지 경성제대 교수와 학부장을 역임했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는 제1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다. 패전 이후에는 아베는 문부대신을 잠시 역임한 이후, 전환기의 가쿠슈인을 떠맡게 되었는데 도쿄예술대학의 우에노와 마찬가지로 대학승격에 사활을 걸고 경성제대 출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아베를 보좌하는 역할은 ‘조선사학제2강좌’의 스에마쓰(末松保和)가 맡았는데 그는 1949년부터 1975년까지 가쿠슈인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특히 도서관장으로서 조선관련 문고의 정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²⁸⁾ 아베는 대학 운영의 실무도 경성제대 교직원 출신들에게 맡겼는데, 경성제대 사무관이었던 오카노(岡野幹雄)를 학교교무, 세키노(關野)를 도서관사무를 담당하게

25) 도쿄예술대학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東京藝術大學 編(1987), 『東京藝術大學百年史』 2卷, 東京藝術大學을 참조.

26)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소는 제1고등학교가 도쿄대 교양학부로 통합되자 교양학부 교수로 취임했고(49~66), 정년 이후에는 아베(安倍能成)의 뒤를 이어 가쿠슈인대학의 원장(총장)이 되었다.

27) 도쿄예술대학 교수(49~59). 정년퇴임 이후에는 奈良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59~60).

28) 가쿠슈인대학 교수(47~75). 정년퇴임 후에는 같은 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했고, 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미즈타(水田直昌)를 사무총리로 초빙하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다카(尾高朝雄), 우카이(鵜飼信成), 스즈키(鈴木武雄) 등이 강사로 활동했다.

9년제 고등학교로 출발했던 무사시(武藏)대학의 총장[學長]도 경성제대 교수출신의 미야모토(宮本和吉)였다. 아베(安倍能成)의 매제이기도 했던 미야모토는 1944년 ‘철학철학사제2강좌’ 교수직을 버리고 무사시(武藏)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는데, 패전 이후에는 소규모 학교인 가쿠슈인(學習院)대학, 세이쵸(成城)대학 등과 연결시켜 영국식 칼리지 대학을 만들 구상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대학 승격의 실무를 당시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스즈키(鈴木武雄)에게 위임했는데 그는 무사시대학에 경제학부를 설립하는 한편, 오다카(尾高朝雄), 우카이(鵜飼信成), ‘로마법강좌’의 후나다(船田享二)²⁹⁾, 다카하시(高橋幸八郎) 등 경성제대 동료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처럼 도쿄 내의 일부 대학에서 이른바 ‘조선부락’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규모나 내실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조선부락’은 역시 신제대학으로 거듭난 도쿄대학이었다. 당시 도쿄대학에는 법학부, 문학부, 사회과학연구소, 교양학부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경성제대 교수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법리학강좌’의 오다카(尾高朝雄, 법학부), ‘국어학국문학제2강좌’의 토키에다(時枝誠記, 문학부)³⁰⁾ 등은 패전 이전에 이미 동경제국대학 강좌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국어국문학제1강좌’의 아소(麻生磯次), ‘영어학강좌’의 나카시마(中島文雄)³¹⁾도 패전 이후 신제대학으로 개편된 도쿄대학 문학부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한편 신설된 사회과학연구소에는 ‘민법제1강좌’의 아리이즈미(有泉亨)³²⁾, 서양사강좌 조교수였던 다카하시(高橋幸八郎)³³⁾, 정치학사를 담당한 조교수 하야시(林武)³⁴⁾, ‘헌법행정법제2강좌’의 우카이(鵜飼信成)³⁵⁾가 대거 연구소 교수로 자리 잡았다.³⁶⁾ 도쿄대학 교양학부는 제1고등학교가 신제대학 개편과정에 도쿄대학에 통합된 것인데, 여기에는 ‘지나철학강좌’의 아베(阿部吉雄)³⁷⁾, ‘국체공법강좌’의 소가와(祖川武夫)³⁸⁾가 교수로 취임했다. 이후 동양문화연구소에는 조교수였던 인류학자 이즈미(泉靖一)³⁹⁾가 메이지대학에서 자리를 옮겨 교수로 취임했다.

한편 지방 대학의 ‘조선부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학강좌’의 아키바(秋葉隆)가 재직하고 있는 아이치대학이었다. 아이치대학은 원래는 일본이 상하이에 설립한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을 모태로 한 것인데, 식민지대학이 본국에 다시 건너와 신제대학으로 정착한 매우 독특한 사례였다. 대학의 성격상, 교수진도 조선, 대만, 만주에서 건너온

29) 경성제대 교수출신자들이 대체로 패전 이후에도 학계에 남아 활동했던 데 반해, 후나다는 정관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중의원 의원, 국무대신(행정조정부총재, 배상청장관, 행정관리철)) 경성제대 시절 동료가 재직했던 대학에 강사로 출강하였다.

30)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49~66). 정년퇴임 이후에는 와세다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31)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47~65). 정년퇴임 이후에는 츠타주쿠(津田塾)대학의 교수(65~73)와 학장(73)을 역임했다.

32)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47~66). 사회과학연구소 소장(55). 정년퇴임 이후에는 상지대학 교수(67~77)를 역임했다.

33)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47~73). 정년퇴임 이후에는 와세다대학, 倉俣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34)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48~56)와 교수(56~73)를 역임했다.

35)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47~61). 사회과학연구소 소장(52). 정년퇴임 이후에는 국제기독교대학 학장(61), 성계대학 교수(67~74), 전수대학 교수(75) 등을 역임했다.

36) 전후 일본학계에서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학문활동에 대한 평가는 남기정(2013)을 참조.

37) 제1고등학교(46~48) 교수를 거쳐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정년퇴임했다(49~66).

38) 도쿄대학 교양학부(49~52)를 거쳐 東北대학 법학부 교수가 되었다(53~75). 법학부장(70). 정년퇴임 이후에는 東北學院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39)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조교수(49~51)를 거쳐 도쿄대학에서 동양문화연구, 교양학부의 교수를 역임했다.

식민지대학의 교수들이었는데, 경성제대 교수들도 상당수 여기에 포진해 있었다.⁴⁰⁾ 아키바(秋葉隆)에 따르면, 경제학부에는 ‘상법제1강좌’의 다케이(竹井廉)⁴¹⁾, 사회정책학 조교수 모리야(森谷克己)⁴²⁾, ‘형법제1강좌’의 하나무라(花村美樹),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의 마쓰바(松葉秀文), 그리고 도중에 사망한 ‘통계학강좌’의 오우치(大内武次) 등이 전임으로 활약했으며, 도중에 나고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학제1강좌의 시가타(四方博)⁴³⁾, 정치학제1강좌의 도자와(戸澤鐵彦)⁴⁴⁾, ‘민법제2강좌’의 마쓰자카(松坂佐一)⁴⁵⁾는 겸임으로 강의를 맡았다. 또, 문학부에는 ‘사회학강좌’의 아키바(秋葉隆)를 비롯하여 독일어 조교수의 다나카(田中梅吉)⁴⁶⁾, 경성제대 졸업자 요코야마(横山光治) 3인이 전임교수 있었다. 아키바(秋葉隆)에 따르면, 아이치대학만 한정해도 포함 12명의 경성제대 출신자들이 1950년 현재 재직 중이었으며, 여기에 가쿠슈인대학 원장인 아베(安倍能成)가 대학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들어 경성제대 교수들은 일본의 대학사회 내부에서 ‘조선부락’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단지 몇 년 전, 즉 경성제대 교수들도 일개 귀환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귀환 직후인 1946~47년의 시점에 경성제대 교수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패전 이전에 일본에 돌아와 학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일부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정규적인 직위를 가진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이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로는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얻어 가르쳤고, 이런 연고마저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심지어 마쓰모토(松本重彦, 국사학제2강좌)처럼 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랬던 경성제대 교수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주요 대학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2) 동창회 소식지를 통해 본 전후 일본학계 편입양상과 특징

물론 이러한 질문은 스즈키(鈴木武雄)와 아키바(秋葉隆)의 글만 가지고 온전히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글들은 1950년의 시점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상도 일부 교수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들의 경력에서 확인되는 빈번한 이동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창회 소식지에 담긴 스승들의 근황 글은 법문학부 교수들의 ‘귀환’과 일본 학계 편입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실마리로서는 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면적인 현상 중 하나는, 경성제대 교수들의 학계 편입이 개별적이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균질적이기보다는 특정한 대학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즈키가 썼던 “부락”이라는 표현은 매우

40) 아이치대학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愛知大学五十年史編纂委員会(2000), 『愛知大学五十年史』 通史編, 愛知大学을 참조.

41) 아이치대학 정경학부 교수(47~52)를 역임했다.

42) 아이치대학 교수(47~52)를 거쳐 히로시마대학(52~53), 오카야마대학(53~55), 무사시대학(55~64)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43) 아이치대학 정경학부 교수(47~49)를 거쳐 나고야대학 법학부 교수(49~62)와 법학부장을 역임.

44) 아이치대학 교수(47~49)를 거쳐 나고야대학 법학부 교수(49~57), 법학부장을 역임. 정년퇴임 이후에는 愛知學院 대학 교수(57~73)로 활동했다.

45) 아이치대학 정경학부 교수(47~49)를 거쳐 나고야대학 법학부 교수(49~59)와 총장(59~63)을 역임.

46) 아이치대학 교수 및 주오대학 교수를 역임.

적절해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글에 언급된 대학들 이외에도,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홋카이도대학, 도호쿠대학 등 일본 각지의 여러 대학들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확인된다.⁴⁷⁾

경성제대 교수들의 학계 편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교수들의 학계 편입이 철저하게 경성제대 출신이라는 학연(學緣)의 네트워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앞서도 보았지만, ‘조선부락’을 형성한 대부분의 대학에는 경성제대 출신을 불러들여 ‘클러스터(cluster)’를 만들게 하는 학연(學緣)의 코어(core)들이 존재했다. 도쿄예술대학의 우에노, 무사시대학의 미야모토, 가쿠슈인의 아베가 그와 같은 인물들인데, 이들은 경성제대 교수시절부터 교수사회를 주도했던 지도자급 인물들로, 전후 일본의 공간에서는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 수장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가 있었고, 합류하는 교수들 또한 식민지에서 제국대학 교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연에 따른 학계편입은 매우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연의 힘은 크기의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례에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대체로 경성제대 교수의 초기 학계 편입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도쿄대학, 규슈대학, 도호쿠대학, 홋카이도대학 등 경성제대 교수출신이 이미 교수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다. 경성제대 교수들 중에서 동경제대의 오다카(尾高朝雄), 토키에다(時枝誠記), 동북제대의 기요미야(清宮四郎) 등 패전 이전에 이미 중앙학계의 ‘인정’을 받아 ‘내지(內地)’ 제국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 이들은 이러한 학연의 네트워크에서 허브(hub)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찰되는 흥미로운 현상은 경성제대 교수들, 특히 법문학부 교수들의 전후 행적을 살펴보면, 도쿄 편향성, 더욱 명확하게는 도쿄대학 편향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문학부 교수가 의학부 교수들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실제로도 의학부 교수들 중 도쿄의 대학에 자리 잡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비해, 법문학부 교수들은 최대 규모의 ‘조선부락’을 형성했던 도쿄대학을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에 정착하는 많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들의 대다수가 동경제대 출신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경성제대의 설립과정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인데, 출신학교를 다양화시켜 특정 학벌의 발호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교수진을 구성했던 의학부와는 달리, 법문학부는 동경제대 출신을 의도적으로 영입하여 대학의 위상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정준영, 2009: 147-151). 그 결과, 상당수의 동경제대 출신 소장학자들이 경성제대 교수들로 임용될 수 있었고, 이들은 경성제대에서의 학문적 성과에 따라 제국학계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양상도 커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경제대’ 편향성은 패전과 귀환 이후 경성제대 교수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가령 도쿄대학의 경우, 패전 이후 전쟁에 적극 동조한 관변학자들이 상당수 물러나게 되었는데, 동경제대 출신인 경성제대 교수들이 그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커졌던 것이다. 실제로, 경성제대 교수들이 도쿄대학의 교수로 상당수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법문학부 교수들이 경성제대라는 학연과 더불어 동경제대 출신이란 학벌이 배경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등교육체제가 제국대학 중심의 엘리트체제를 벗어나 미국식 대중대

47) 이것은 경성제대 교수들의 이력을 면밀하게 고찰하게 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언급된 대학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후술하겠다.

학을 지향하게 된 것도 당시 교수들이 일본의 학계에 편입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도 부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패전 이후 제국대학과 일부 관립대학, 사립대학만을 대학으로 인정하는 종전의 정책을 버리고, 대학의 대중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업연한과 진학경로를 달리 했던 복선적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6-3-3-4’의 학제에 근간한 미국식 교육체제로 바꾸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따라서 형식과 위상을 달리 했던 여러 고등교육기관이 정리되어 ‘신제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제국대학의 예비교육기관’이었던 고등학교는 옛 제국대학의 교양학부로 통합하여 신제대학으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별도의 국립 또는 사립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기존의 전문학교도 대학승격이 가능성이 열려서 요건을 갖추어 대학승격을 모색하였다. 지방의 옛 제국대학들은 전시체제 과학기술교육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설립이 좌절되었던 인문사회계열 학부를 개설함으로써 종합대학의 면목을 쇄신하려 했다.⁴⁸⁾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승격과 학부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갑자기 대학이 급증하게 된 상황 속에서 ‘대학운영의 경험’을 가진 재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식민지이기는 해도 ‘제국대학 교수’였던 경성제대 교수들의 가치가 당연히 높아졌던 것이다. 실제로 경성제대 교수들은 신제대학의 승격, 학부의 증설에 적극 관여했고, 승격과 증설 이후에는 대학사회의 교수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동경의 세 대학, 즉 도쿄예술대학, 가쿠슈인대학, 무사시대학의 이른바 ‘조선부락’도 마찬가지로의 사정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방의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당국이 특정 경성제대 교수들에게 학부증설의 업무를 요청하고, 이런 요청에 응해서 동료 경성제대 교수와 같이 참여해서 학부를 창설하고 교수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나고야대학 총장의 요청에 응해서 당시 아이치교수로 있었던 시가타(四方博), 도자와(戶澤鐵彦), 마츠모토(松坂佐一)기 법문학부 창설에 참여했던 사례⁴⁹⁾나 가나자와의 제4고등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하는 실무를 학교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도리야마(鳥山喜一)가 동료교수 하세가와(長谷川理衛), 마쓰오카(松岡修太郎)를 끌어들이 대학승격과 학부창설에 참여했던 사례⁵⁰⁾가 그것이었다. 전후에 들어서 법문학부를 신설한 홋카이도대학에 경성제대 교수출신(鈴木榮太郎, 伊藤俊夫, 松岡修太郎)이 많았던 것도 비슷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창회소식지와 귀환지식인의 자기정체성

그렇다면 이들 경성제대 교수들은 귀환지식인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청구』, 『감벽(紺碧)』과 같은 경성제대 동창회의 소식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경성제대 출신자들으로써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기능했다. 『감벽』은 원래는 법문학부 동창회 청구구락부의 기관지 『청구(靑丘)』로 1940년 4월 출발했는데,

48) 전후 일본에서 신제대학의 탄생으로 특징 지워지는 1949년의 대학개혁에 대해서는 仲新 外(1979: 167-196)을 참조.

49) 전후 나고야대학 법문학부의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名古屋大学史編集委員会 編(1989), 『名古屋大学五十年史』 部局史1, 名古屋大学를 참조.

50) 전후 제4고등학교의 신제대학 설립구상에 대해서는 金沢大学50年史編纂委員会 編(1999), 『金沢大学50年史』, 金沢大学을 참조.

1954년 총동창회가 결성되자 명칭을 바꾸어 총동창회의 소식지로 확대되었다. 동창회의 사업을 공지하고 각 지부의 활동 및 동창들의 근황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동창회의 소식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청구』, 『감벽』은 최소한 1960년대까지는 이러한 ‘친목도모’의 역할 이외에도 다른 보통의 동창회 소식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경성제대의 大學史 복원이 소식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경성제대가 1945년 이후 한국사회와 일본사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로서는 대학의 역사를 기술할 주체도 소재가 되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동창회는 교수 및 동창들의 회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식지에 게재하는 한편, 대학 관련 인사들의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억의 복원’을 꾀했다.⁵¹⁾ 『감벽』은 동창들의 회고를 두고 받고, 좌담회의 결과를 동창들에게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1974년 경성제대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통사’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기념지 『紺碧遙かに』의 모태가 되었다. ‘주류(제국대학 출신)’이면서도 ‘비주류(식민지 출신)’인 경성제대 동창들은 大學史의 복원을 통해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중요한 수단이 『청구』와 『감벽』이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구』와 『감벽』이 한일국교 정상화와 같은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귀환지식인’으로서 자기의식을 표출하는 장(場)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1950년 12월 『청구』 2호에 수록된 오다카(尾高朝雄)의 「조선을 생각한다(朝鮮を想う)」, 1952년 4월 『청구』 7호에 수록된 야마가(山家信次)의 「일한기술문화의 교류를, 강화발효를 맞이하여(日韓技術文化の交流を-講和發效を迎えて)」 등의 글이 대표적이었는데, 미묘한 정치적 사안이었던 만큼 조선시절의 회상기나 한국인동창들의 근황소개 등을 빌어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다카(尾高朝雄, 법리학강좌)는 1928년 경성제대 조교수로 부임해서 독일 등에서의 재외연구를 거쳐 1930년 교수가 되었다. 그는 1930년대 후반 경성제대가 주도했던 만몽연구 및 학술탐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학생주사로서 총력전 체제 하에서 일어난 급격한 대학사회의 변화에 실무적으로 대처했던 인물이다. 그는 패전 직전인 1944년 5월 ‘영전(榮轉)’하여, 동경제대 법철학강좌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 글을 쓸 당시에 동경제대 교수의 신분으로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성립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 글에서 그는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을 “조선에 대해서 가지는 깊은 친밀감”으로 매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현재의 조선은 “위험한 도화선”이며 자칫하면 “세계의 비극”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 조선은 입술과 이빨과 같은 관계”이며, “조선의 안전 없이는 일본의 안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선의 비극을 외면하는 일본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불만이 컸다. “조선을 아는 것은 일본”이고, 따라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가진 40년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라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51) 이런 좌담회의 개최 및 결과의 수록은 1954년 4월 새롭게 발행된 『감벽』 1호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城大創草의 무렵을 말한다”라는 좌담회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이자 마지막 법문학부장이었던 松月秀雄(교육학제1강좌)과 경성세화회 이래 귀환일본인 단체활동에 깊이 관여해 온 鈴木武雄(경제학제2강좌) 교수, 예과교수였던 近藤時司, 법문학부 조수였으며 총동창회 발족에 깊이 관여했던 櫻井義之, 그리고 법문학부 졸업생인 北村輝雄, 森田芳夫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청구구락부의 핵심 멤버이자 일본인 귀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후에도 교수들,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성제대의 설립 배경, 당시의 대학상황들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감벽』에 수록된 후, 이후 기념지 『紺碧遙かに』에 실렸다.

더욱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조선의 평화로운 재건”에 일본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지점에서 “조선을 잘 아는” 우리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귀향 지식인, 특히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적극적 역할론은 야마가(山家信次)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야마가는 1941년 설치된 이공학부의 산파역할을 했으며, 총독부기사로써 전시체제기 식민지의 광공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1944년부터는 마지막 대학총장으로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귀환과 일본사회 정착에 진력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한국전쟁이 곧 수습되고 단교상태의 한일관계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던 시기에 쓴 이 글에서 야마가는 한국전쟁의 수습과 남한사회의 재건을 한일관계를 복원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산업과 기술의 측면에서 조선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회복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야마가에 따르면, 경성제대 출신자들이다. 그에 따르면, “청구구락부 회원은 누구라도 한국의 사정에 통달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며 “조선을 현지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래 양국의 수교가 단순히 정부들 사이의 국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들 사이에 우정으로 맺어지는데 가장 유력한 연결고리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동창회 소식지에는 경성제대 교수들이 한국전쟁과 국교정상화 등 한일(韓日) 간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귀환지식인’으로서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글들이 곧잘 실렸다. 이들 글에서는 ‘귀환지식인’들은 “한국의 사정에 통달”한 ‘지식인’이자, “조선에 깊은 친밀감”을 가진 귀환자로서, 앞으로 맺어질 한일 관계에서 우호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의 ‘허브’(hub)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그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한일국교 정상화가 일본사회 내에서 부정적인 ‘귀환자’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귀환자 단체들의 입장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했다.

요컨대 경성제대동창회는 많은 면에서 재조일본인의 귀환자 단체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것은 소식지인 『청구』, 『감벽』의 내용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단체는 후속세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속 회원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성격도 변화하고 소멸한 운명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귀환자 단체와 동일했다. 동창회는 출신자의 연령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은퇴할 시점에 되면서 점차 순수 친목단체의 성격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동창회 결성 및 유지의 중심점이 되었던 교수들이 점차 고령으로 사망하게 되자, 1970년대까지 출신자들 사이에서 활발했던 대학사의 복원 또한 점차 동력을 잃어 가게 되었다. 동창회의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식지의 발행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식지 『紺碧』은 1950년 4월 靑丘俱樂部의 기관지 『靑丘』로 발행된 이래 활동이 왕성했을 때는 년 4회 발행되기도 했지만, 이후 점차 발간 간격이 불규칙적이고 길어지다가, 2006년 9월 149호가 나오고는 더 이상 발행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소식지의 발행사항 및 회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본다면, 경성제대동창회는 2006년의 시점에 거의 사실상 자연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

4. 마치며

결과적으로 경성제대 교수들은 다른 귀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귀환’ 초기에는 일본학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제대학이 등장하는 전후 대학개혁의 와중에서 경성제대-동경제대 출신이라는 학연(學緣)과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제국대학교수였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1950년을 전후해서 일본의 학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성공’이란 ‘패전-귀향-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귀향지식인’으로서 경성제대 교수들이 겪었던 ‘체험’과는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에서 보았듯이, 경성제대 교수들은 재조일본인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경성제대 제자들과 더불어 잔류일본인의 귀환을 주도했지만, 귀환 이후 일본사회에서 맞닥뜨린 것은 ‘일개 귀향자’로 전락하는 현실이었다(成田龍一, 2006: 183~185). 경성제대 교수들과 출신자들의 동창회가 단순히 없어진 학교를 기리고 친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귀환자 지식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사회의 적대적 시선 속에서 “조선을 현지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그래서 “조선을 잘 아는” 자신들의 존재 필요성을 드러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성제대의 학문적 전통을 구현하는 존재로서 경성제대 교수들은 그 ‘식민지’의 경험 때문에 전후 일본의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성공적으로 합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몇 년간의 불안정한 상태를 거쳐 대부분의 교수들은 도쿄대학을 비롯하여 주요 지방 국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의 교수로 착실히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성제대의 학연(學緣)을 기반으로 대학 내부에서도 응집성이 강한 집단(예컨대 ‘朝鮮部落’)을 형성하기도 했다. 제도적으로만 본다면, 교수들이 구현하는 경성제대의 학문적 전통은 전후 일본의 제도 학문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합류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당시 경성제대 교수들은 주류 학계로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조선에서 온 패잔병[落武士]⁵²⁾”으로 생각하길 멈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재의 이 시점에서 왜 경성제대의 학문적 전통은 여전히 숨겨진 전통, 되살리거나 밝혀서 비판해야 될 전통으로 치부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경성제대 교수들 전반의 전후 행적을 추적하여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한편, 교수들의 연구 작업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해 현재 일본의 학문적 계보를 추적하는 시도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 尾高朝雄(1950), 「朝鮮を想う」, 『靑丘』 2號

제3부 : 재조일본인과 ‘제국의식’

5. 일본인 귀환자의 조선 회고와 조선관
: 이연식(시립대)

6. 식민자 2세 출신자의 문학과 '조선', 그리고 전후 일본사회
: 신승모(동국대)

7. 여성식민자의 식민지 경험과 그 변천 - 제국의 붕괴 · 귀환을 둘러싸고-
: 히로세 레이코(広瀬玲子, 北海道情報大學)

사회 : 정병욱(고려대)

토론 : 기유정(서강대), 홍윤표(성신여대), 한승미(연세대)

일본인 귀환자의 조선 회고와 조선관

- 귀환 국면의 '탈출' 체험이 회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이연식(서울시립대학교)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재조일본인사에 관한 연구는 근대 이래 일본인의 조선 도향이 곧 '서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조선 침략'이었다고 주장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¹⁾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그는 재조일본인에 대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악용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전위로서 기능했고, 식민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지배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집단이었다고 주장했다.²⁾ 즉 재조일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선 지배를 구현한 인적 기반이었고, 이들이 지닌 조선·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향된 조선관은 패전 후에도 별다른 비판 없이 일본 사회 안에서 수용되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문제 제기는 이후 기무라 겐지(木村健二)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이 가운데 기무라는 부산 개항에서 1910년 조선 강점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도선 배경과 역할, 역사적 성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논점을 제공해 향후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³⁾ 특히 그는 재조일본인이 발간한 『朝鮮(滿韓)の実業』과 『朝鮮(及滿州)』 등의 잡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판매 부수 및 독자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저널리즘을 통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부추기고 더 많은 인적 자원의 도향을 유도함으로써 조선 지배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차별적 조선관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장본인이었다고 보았다. 한편 다카사키는 개항기 일본인의 조선 이주·침략에서 해방 후 본토 송환에 이르기까지 재조일본인사를 통사로 정리하였다.⁴⁾ 그는 일본의 조선지배가 일부 정치엘리트나 군인만이 아니라 무명의 수 많은 일본 서민들의 침략, 즉 '민초(草の根)'들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통해 비로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전제 아래,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과 조선관을 처음으로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통사 체계 안에서 '밀항·탈출·송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일본인의 귀환과정을 담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 그가 주장한 3개의 유형이란 식민지에서 과거 자신이 행한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유형, 망향의 정서에 기초해 과거 자신의 조선 생활을 그리워하는 유형,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고 지난 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비판하는 유형으로서 다소 초보

1) 아오야기 준이치(青柳純一), 「일본 동양사학의 한국인식」, 『부산사학』 24, 2000.6, 가지무라 히데키(정재정 역), 「(강연유고)한국의 사회과학은 지금」, 『창작과 비평』 66, 1989.12, 舘野哲 編著, 『韓国・朝鮮と向き合った36人の日本人 -西郷隆盛、福沢諭吉から現代まで-』, 明石書店, 2002.4

2) 『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1992, 193-268쪽. 원문은 생전에 발표한 梶村秀樹, 「植民地と日本人」, 『日本生活文化史 8』-生活のなかの国家-, 河出書房新社, 1974.

3)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1989.

4)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02(번역본: 이규수 역,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재조일본인의 조선관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찍이 최영호는 서울에 거주하던 재경일본인의 귀환과정을 살폈다.⁵⁾ 이것은 재조일본인 귀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였다. 그의 관심은 향후 그 일본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귀환 후 한반도에 새로 수립된 두 개의 신생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귀환 당사자의 식민지배·한반도 인식문제로 발전했다. 그 결과물이 부관항로를 통해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 귀환자와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 귀환자의 상호 비교연구⁶⁾, 그리고 귀환 과정에 나타난 일본인의 식민지배에 관한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⁷⁾ 이들 연구는 해방 후 양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닌 역사적 함의를 천착하고, 민족 간 비교연구의 전망을 제시한 선구적 성과였다. 이 가운데 2008년의 저작은 귀환 과정에 나타난 일본인의 식민 지배에 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유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논문이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시대 변화를 안일하게 인식하였고, 그 결과 패전 초기에 일본인을 식민지에 잔류시키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재주하던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귀환자들은 패전 후 자신의 고통만을 토로할 뿐 피지배 민족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귀환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잔류보다는 귀환 지향성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인 귀환자의 식민지배 인식 유형을, ‘식민자와 식민지민은 같은 정치경제적 조건 아래 있었다’는 이해 방식을 비롯해서 ‘왜 더 나은 통치를 실현하지 못했을까’하는 반성형에 이르기까지 5가지 형태로 나누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일본사회의 식민지배 인식을 드러내는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필자는 재조일본인집단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이들의 조선관을 유형화하기보다는 당시 연구 환경 속에서 보다 시급한 작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귀환 일본인들의 회고록 속에서 조선 관련 내용을 추출하는 가운데 귀환 국면의 체험과 기억이 조선 거류 당시의 소소한 회고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밀도 있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하고자 한 바는 식민지에서는 가해자로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귀환지(구 식민지)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문제의 현장이자, 동시에 그 아픈 기억을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트라우마의 토포스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해방 후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들이 무엇을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의식을 주조한 시공간인 ‘조선에서의 패전과 귀환과정’ 전반을 줄곧 살피게 되었다.⁸⁾ 그 결과 일본인들이 귀환국면에서 체험한 강렬했던 기억의 잔상들이 곧 일본의 조선 지배와 종언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개인의 피해의식이 곧 집단의 기억, 내지는 공적 기억으로 확장되고, 급기야 구 식민지와 그곳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원흉이라는 전도된 인식을 양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패전 직후 출간된 후지와라 테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 流れる星はいきている』의 피해자 내러티브가 시간

5) 최영호, 「해방 직후 재경일본인의 일본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해방 직후 인구이동과 서울의 도시문제』 제9회 서울향토사학술대회, 2002.12(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전농사론』 제9집, 2003.3에 재수록).

6)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관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1, 2006.

7) 최영호,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9.

8) 필자의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제7장의 각주 1 참조.

과 공간을 넘어 21세기에도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의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돌아온 자신들을 멸시하던 일본 본토인 사회를 대상으로 귀환자들이 발화했던 텍스트마저 맥락이 교란되면서 이제는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그 예봉이 구 식민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귀환 1세들이 사망함에 따라 2~3세가 귀환 회고와 담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년기에 겪은 이들의 체험이 전전의 역사를 모르는 전후 일본세대에게 “이제는 말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전달됨으로써, 그것이 지닌 극적 요소 속에서 식민지배 문제가 형해화되고, 구조적으로 걸리지거나 소화되지 못한 귀환자 개인의 원 체험에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전도된 역사인식마저 조장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러한 ‘피해’의 극단적 형태였던 패전 후 북한 탈출을 다룬 NHK 스페셜 『知られざる脱出劇 ~ 北朝鮮・引き揚げの真実』(2013.8.12. 방송)의 내용을 살피고, 그것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패전 후 유년기에 원산에서 38도선을 넘어 본토로 돌아간 한 일본인의 회고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일본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지배적인 패전 후의 ‘귀환/귀향’담론의 문제점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2. 『知られざる脱出劇 ~ 北朝鮮・引き揚げの真実』의 주요 내용

이 다큐멘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확립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북일교섭에 박차를 가하고자 북한에서 돌아간 일본인의 ‘고향방문’과 일본인 묘지의 무연고 사망자 발굴, 그리고 유가족들의 위령제(성묘)를 약 70년 만에 허락한 2012년 가을부터 기획되었다. 약 2년간에 걸친 치밀한 자료 조사와 증언자 섭외를 통해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2013년 종전기념일에 맞추어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주요 도시와 시민들의 일상이 가감 없이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 전해졌고, 패전 후 북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자가 ‘3만 5천 명’에 달했다는 극적인 사실을 다룸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왜 그러한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일반의 반향이 적잖았다.

이 방송은 크게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는데, 북한의 어느 무덤가에서 노년의 유가족들이 고인에게 술잔을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일본인 사망자 대부분은 변변한 묘도 없이 산천에 매장된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출연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있던 약 30만 명이 오랜 역류 끝에 목숨을 건 탈출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온 사실을 전달한다. 그리고 북한의 관계자들이 삼으로 유골을 발굴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며 일본인 유골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방치되었는지를 되묻는다.(자료-1, 좌2단, 우1-2단) 이 장면에 이어 모스크바 국립도서관에서 발굴한 북한 역류 일본인 사망 관련자료,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귀환자가 탈출 전후에 작성한 탈출자 명부를 조명한다.(자료-1 좌5단, 우5단) 그리고 이마무라 료(패전 당시 11세)라는 노인이 취재진과 함께 평양 공항에 내려 고향인 청진까지 밀착 취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 과정에서 귀환 일본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일본인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유골조사 장면이 등장한다.(자료-1 좌4단, 우4단) 이어서 이마무라의 유년기 회고와 자료화면(재현)을 통해 일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함흥의 수용소에 집단수용되었고, 1945년 동절기로 접어들며 식량난과 전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진단한다. 이마무라도 이 때 부모와 큰 형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화면으로는 「북선전재현지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일본인들이 매일같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매장하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는 사료를 클로즈업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패전 후 성진에서 돌아온 요코타 기미코(92세)와 장녀 기쿠코(72)가 등장한다.(자료-2 좌1단, 우1단) 이들의 가장인 요코타 규지(패전 당시 31세)는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진주하자 매일같이 부녀자들을 단속하느라 맘고생을 하였다. 이 장면에서 부인 기미코와 장녀 기쿠코의 증언을 통해 매일같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소련군이 오면 지하 방공호로 숨어야 했던 상황을 증언한다.(자료-2 좌3단)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부녀자 강간과 자살 소식에 더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전한다. 이에 은신 생활을 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모아 아버지 요코타 규지는 탈출단을 조직하고 동해루트를 따라 주문진으로 밀항하였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함흥 일본인수용소에 집단수용된 사람들의 참혹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자료-2 우4단) 이것은 1946년 1-2월에 약 7천여 명의 일본인이 집단사망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가족을 잃은 이마무라는 신문지로 담배 마는 법을 배워 조선인에게 몰래 팔아가며 연명하게 되었다.(자료-2 우5단) 이것은 패전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식민자로서 특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일본인들의 일상을 묘사한 대목이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1946년 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집단탈출 장면을 그리고 있다. 먼저 러시아와 미군 자료를 통해 남한, 대만, 만주 등 여타 지역에서는 1946년 상반기에 송환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는데, 왜 북한의 경우 1946년 12월까지 일본인들이 억류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1946년 봄 만주 철군을 계기로 소련군이 북한의 일본인을 돌려보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표명했으나 미군에게 쌀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고, 그 후 미군이 일본인을 철도로 38도선까지 보내면 이들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송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소련 측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1946년 12월에야 비로소 송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자료-3 좌1단, 좌5단) 바로 그 사이에 죽음을 각오한 집단탈출이 이어지는데 요코타 규지가 150여 명의 탈출단을 이끌고 1946년 6월에 38도선을 넘는 과정이 재현자료를 통해 소개된다. 그 과정에서 앞서 간 일본인들의 수 많은 시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온다.(자료-3 좌3단, 우3-4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간에 송환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약 95% 이상의 일본인이 자력으로 38도선을 넘은 뒤였음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3. 다큐멘터리의 몇 가지 문제점

이 다큐멘터리는 자료조사에서 촬영에 이르기까지 3일 후에 한국에서 방송된 KBS의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조선총독부 - 최후의 25일 -」에 비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메시지 또한 조선총독부가 패전국면에서 발행한 청산자금으로 인해 해방 조선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상의 흐름이 아닌 주지적인 자막을 통해 60분 내내 반복만 했던 한국 방송에 비해 플롯 구성도 자연스런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첫째, 소련군과의 전투 → 피난 → 소련군의 진주와 폭행·약탈 → 체류기간의 사건(가족과의 이산·사별, 강제노역) → 목숨을 건 탈출 → 남한의 임시수용소 → 귀환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 내러티브 패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⁹⁾ 즉 아무리 영상미가 뛰어나고 꼼꼼

한 자료조사를 병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패턴의 전개는 곧 이러한 류의 출판물이 지닌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후지와라의 책이 패전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데에는 워낙 작품도 뛰어났지만, 귀환자로서 자신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구성·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다양한 연유로 ‘발화(發話)’할 수 없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문화소비층’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외지에서 돌아온 일본인들을 ‘피해’의 맥락에서만 파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시기 속에 나오는 개개의 사실이 지닌 ‘외연’과 ‘역사적 함의’를 독자로 하여금 놓치게 만들었다. 즉 이들이 식민자로서 행한 ‘가해’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 것이다. 가와시마 왓킨스 역시 이러한 해외 귀환의 전형적인 내러티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NHK의 전개 패턴도 같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¹⁰⁾

둘째, 일본인의 조선 회고가 늘상 그렇듯이 조선 또는 조선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단지 풍경으로만 처리될 뿐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요코타 가족이 은신 중에 있을 때 비상식량을 가져다 주고, 탈출에 즈음해서는 밀항선을 섭외해 준 강동석이란 자가 약 10초 정도 등장한다. 따라서 적어도 조선인이 약탈을 일삼는 소련군 길라잡이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혹은 조선인이 일본인들이 경험한 일련의 귀환(탈출) 체험 속에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결정 짓거나 영향을 미치는 팩터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준 그 조선인이 그 지역 조선인 사회에서 어떠한 인물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자신의 가족을 살려 준 고마운 은인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 속에서 형해화된다. 또한 일본인들이 집단수용되는 과정도 아무런 매개 없이 ‘소련군의 명령’으로만 설명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주거상황이라든가, 해방 직후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 속에서 일본인이 본토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조선인들이 억류 중인 일본인에 대해 구감을 표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런 명분도 없고, 조선인에게 식량난과 주거난만 가중시키는 소련군의 일방적인 억류 조치에 대해 조선인 사회의 동정론과 비판론이 존재했다는 사실, 일본인 처우에 대해 북한의 정치세력도 강은 양 과로 나뉘어 끊임없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점차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소련군에게 의견을 개진한 사실, 함경도 인민위원회 내부에서도 함흥 일본인의 ‘부평수용소’ 사망사건을 두고 인권문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인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이상복 같은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담배 밀매 또한 1946년 1월 이래 당국의 좌익모험주의와 민족배제주의를 비판하며 송환 국면까지 일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세력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¹¹⁾

셋째, 일본인의 억류와 탈출을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물론 1946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미소간의 송환협정이 체결된 것은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소련과 미국의 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탈출국면은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도 단위 위원회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1946년 12월 이전의 탈출

9) 創価学会青年部反戦出版委員会, 『死の淵からの出帆—中国・朝鮮引揚者の記録—』(福岡編), 第三文明社, 1979, 152쪽; 柿沼政子, 「朝鮮からの引き揚げ」, 千葉県広報協会, 『戦後50年記念誌 平和への祈り—県民の戦争体験手記集—』, 1995, 53~55쪽.

10)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제6장 참조

11)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2009,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7쪽의 자료-10 「이상복보고서 전문」 참조.

을 ‘자력으로 탈출’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구조와 조건을 보지 못하고 개개인의 체험에 매몰된 결과이다.

넷째, 등장인물의 직접적인 증언이든 자료 또는 재현을 통한 설명이든 그 어느 대목에서도 일본인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귀환국면의 일련의 체험이 배태된 원천적인 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탈출’ ‘억류’ ‘공포’ 등의 극단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하는 한 다큐멘터리가 기존의 피해자 내러티브를 체현하고 있는 어느 귀환자 개인의 회고록과 다를 바 없는, 역사와 시공간, 그리고 구조가 배제된,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전락하게 된다. 전후 일본의 공허한 평화메시지라든가 타자에 대한 배려가 배제된 자기만족적인 휴머니즘이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는 이유 또한 이것이란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4. 일본인 귀환자의 또 다른 이름, 식민자

그러면 과연 자신의 체험을 역사적 시공간과 구조 속에서 상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살피기 위해 유소년 시절 조선에서는 불과 3년 여 밖에 생활하지 않았으나 만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조선 체험을 끊임없이 반추하며 역사적으로 상대화하고자 노력한 마쓰나가 이쿠오(松永育男)라는 퇴직한 역사교사의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¹²⁾ 먼저 그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조선 도항에서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

이쿠오의 아버지(1906년생)는 본래 일본 시즈오카현(静岡県)의 한 소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는 당시 소학교 교사들의 꿈이었던 중학교교유문부성검정시험(약칭文檢)에 10년 여의 도전 끝에 성공해 1940년 어느 고등여학교의 역사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치솟는 물가고에도 불구하고 항상 박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던 중 남양 등지로 나간 해외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꿈을 안게 되었다.¹³⁾

그런데 1942년 말부터 전선이 확대되면서 물자마저 궁핍해지자 1943년 3월 그는 “오늘날 국가의 요청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일상의 궁핍을 생각해 보아도 외지로 나가야겠다”며 조선행을 결정했다.¹⁴⁾ 즉 그는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선행을 택했다. 결국 그에게 조선행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국가의 동원이테올로지, 개인적인 프로모션 욕구, 그리고 교원이라는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가 한데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면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는 경성과 원산의 모습을 각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동네(경성)는 완전히 내지와 같았다. 그리고 내지인들이 매우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12) 松永育男, 『北朝鮮からの「引揚者」といわれる体験』-今日の課題「植民者」とは-, 夢文庫, 1998. 그의 피로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937년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에다(藤枝)에서 출생하여 1961년 시미즈(清水)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1998년 고향인 후지에다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역사교육 관련 저서로는 『静岡県の戦後歴史教育改革』(民衆社, 1995)가 있다.

13) 위의 책, 3쪽.

14) 위의 책, 3-4쪽.

모습에서 무언가 국가의 힘이 느껴졌다...(열차에 올라타) 우리들이 탄 차량은 괜찮았으나 다른 차량은 조선인들이 많아 불결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여관은 불친절하여 식민지의 불쾌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1년 후 원산에 대해) 원산은 내지화되어 내가 그다지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 없이 마을 사람들과 지냈으나 도로에 산재한 우분(牛糞)과 인분을 나르는 수레의 악취에는 정말 정나미가 떨어졌다.¹⁵⁾

이를 보면 도항 초기 조선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보다 약 50년 전 청일전쟁기에 조선으로 건너온 어용 회선업 관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생활공간으로서 조선을 어떤 장소로 여겼을까. 그는 아들 이쿠오가 간간히 규슈 사투리와 조선어를 섞어 쓰며 현지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아쉬워하며 자신이 뭔가 다른 곳에 와 있음을 실감하기도 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에 와 있다는 생각보다는 “본토의 다른 지방(異郷)”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그는 원산중학교에 부임했으나 교육보다는 학도동원령에 따라 인근의 해군항공대, 농원, 문평의 스미토모정련소 등지로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1945년 2월에 군에 소집되어 제주도에서 패전·해방을 맞이했다. 이쿠오는 이러한 아버지의 도선 경위, 조선에 대한 인식, 조선에서의 생활상을 ‘식민지’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는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상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조선인에 대한 체험과 기억들을 정리해보면 그는 원산의 동척 사택 부근에 있는 메이지초(明治町)라는 곳에서 살았으며 1944년에 원산부립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전황이 악화되어 1945년 7월 이후에는 등교한 적이 없었다. 덕분에 그는 마음껏 하루 종일 놀 수 있었으나 조선 아이들과 논 기억이 없다고 한다. 즉 조선인과의 ‘관계’ 자체가 기억 속에서조차 포착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서 원산의 경우도 원산중학교와 같이 ‘내선공학’도 있었으나 대개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¹⁶⁾ 원산에서 비슷한 시기에 귀환한 카사이 히사요시(笠井久義)는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느낀 것은...우리 집 앞을 지나 저 멀리 있는 원산리의 보통학교까지 걸어가는 어린(조선인) 학생들이었다. 어린 아이들 중에는 오가다가 지쳐 길에 주저앉아 쉬는 학생도 있었다.”고 이러한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¹⁷⁾ 그가 지닌 조선인에 대한 기억은 종종 물건을 팔러 오던 조선인 아줌마¹⁸⁾, 그리고 어느 날 ‘원산리’ 시장에 어머니를 따라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조선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 정도가 고작이다.¹⁹⁾

이것은 그가 당시 어린 탓도 있었겠지만 조선인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음과 동시에 그만큼

15) 위의 책, 4-5쪽.

16) ‘내선공학’의 경우는 종종 일본인학생과 조선인학생 사이에 주먹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당시 원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다나카 구사타로(田中艸太郎)는 어느 여름날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학생을 죽도와 목도로 구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자신도 보복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다나카는 폭력학생의 퇴학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교사들은 적당히 무마하려 하였다고 한다.(다카사키 소지, 앞의 책, 163-164쪽). 이러한 상황은 해방시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듯하다. 한편 해방 후에는 피해를 입은 조선인 학생들의 보복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1946년 여름 16때 귀환한 카사이 히사요시(笠井久義)에 따르면 1945년 11월 경 살던 집이 접수당해 그는 공동주택인 나가야(長屋)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살게 된 원산중학교 동창생이 두들겨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 “그는 원래 흥남으로 근로동원을 갔어야 했으나 이를 빼먹고 영화관에 갔다가 그 앞에서 하급생들, 특히 조선인 하급생들을 두들겨 팬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러한 날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하루가마치(春日町)에 사는 S군도 「나도 당했다」고 말했다.”笠井久義, 『元山の思い出』, 1981, 개인출판본, 156쪽.

17) 笠井久義, 위의 책, 56쪽.

18) 松永育男, 앞의 책, 8-9쪽.

19) 위의 책, 21쪽.

조선의 일본인들이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폐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생활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하 원산의 민족별 거주공간을 보면 적전천(赤田川)을 경계로 강의 왼편은 일본인들의 공간 원산부가, 오른편에는 본래부터 조선인들이 살았던 원산리가 선명히 나뉘어져 있다.²⁰⁾ 원산부의 경우는 개항 후 일본인들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시가지인 만큼 영화관, 은행, 부민관, 상점가 등의 근대적 인프라가 집중되었고 구획 또한 바둑판처럼 정연하다. 반면 원산부에서 강을 건너자마자 펼쳐지는 조선인의 공간 원산리는 이렇다 할 시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원산부의 고토부키초(壽町) 공설시장은 연중무휴의 상시인 반면, 원산리의 상시(上市)와 하시(下市)는 10일장이었다. 이것은 곧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동일 시점에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귀환자들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S씨의 경우도 조선에서의 기억은 대개 원산부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조선인에 대한 기억 또한 원산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귀환 후 센자키에(仙崎)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²¹⁾ 따라서 이러한 생활패턴과 공간 속에서 자란 이쿠오로서는 그곳이 바로 일본의 식민지라는 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본 발표와 관련해 패전·해방 전후의 기억을 살펴보자. 그가 기억하는 8월 15일은 어머니에게 “오늘은 절대로 밖에 나가 놀지 말거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마음껏 놀 수 있어 좋기만 했던 날이었다고 한다.²²⁾ 또한 그의 집은 일본인 주택이 접수되면서 2세대가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그는 이 상황을 “그 집 가족 중 전기 기사가 있어 욕조에 크롬선을 넣어 물을 데운다거나 전기 곤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즐거웠던 경험으로 회상했다.²³⁾ 이처럼 어린 나이이다 보니 기억도 매우 단편적이며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코드로 상황을 인식하였다. 소련군이나 38도선을 넘었을 때의 기억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소련군에 대해 “팔다리에 시계를 몇 개씩이나 차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먹고 남은 음식을 트럭 밖으로 버리던”사람들로 기억했다. 또한 38도선을 넘을 때 만난 소련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소련병사가 우리 엄마를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피난민단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난민단장이 나와 내 여동생에게 빨리 엄마에게 매달려 크게 울어버리라고 지시한 듯한데, 동생은 곧 떠나가라고 울어댔지만 나는 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피난민단에서 시계(움직이는 것)와 보석·금속(번쩍이는 것)을 모아 소련병사에게 건네주어 엄마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⁴⁾

20) 笠井久義, 앞의 책, 17쪽.

21) 1933년 원산 출생, 현재 센자키 나가토시(長門市)에 거주. 나가토시의 신카이초(新開町)는 지명에서 보듯이 패전 후 외지에서 돌아온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새롭게 생긴 마을이다. 이곳에는 조선으로 돌아가려다 그대로 잔류한 조선인들도 상당수 거주하였는데 그의 기억에 의하면 본토인들로부터 겪은 소외감으로 인해 조선인들과 매우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학창시절 야구대회가 열리면 이들 일본인 귀환자 자녀들과 조선인 자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본토 출신 학생들이 중심이 된 다른 팀과 경기할 때 “죽기 살기로” 임했다고 한다. 동병상련에서 시작된 이러한 친화감은 주로 귀환 후 일본사회의 정착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2007년 7월 22일, S씨 자택에서 인터뷰) 해방 직후 센자키항 일대의 조선인 동향에 대해서는 萩原晋太郎, 『さらば仙崎引揚港』, 1985, マルジュ社; 鈴木久美, 「在日朝鮮人の帰還援護事業の推移-下関・仙崎の事例から」, 『在日朝鮮人史研究』 36, 2006.10. 참조.

22) 위의 책, 15쪽.

23) 위의 책, 16쪽. 원카사이 히사요시에 따르면 1945년 11월 말 현재 원산의 일본인 호수는 2,133호였으며, 그 중 접수나 동거를 하지 않은 호수는 1,030호였다고 한다(『元山の思い出』, 140-143쪽).

이를 보면 그는 나중에서야 왜 소련군들이 손과 발에 시계를 잔뜩 차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탈출과 관련된 기억도 출발 전 옷 속에 돈을 넣어 꿰맨 것, 신발 등 탈출에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 가서 구입한 것, 아버지의 책과 어머니의 기모노를 조선인 남성에게 팔았던 것, 매일같이 지고 갈 룡색의 짐을 풀어 몇 번이고 다시 썼던 것, 그리고 1차 탈출에 실패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새 모르는 조선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이 고작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짝막한 경험을 반추해 봄으로써 자신이 '식민자'로 살았던 3년여의 조선생활을 반성하고자 했다. 그러면 그가 조선에서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들을 한일간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자신의 단편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반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를 포함해 조선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에 대해 윤건차는 「일찌기 식민지에서 살았던 일본인은 피해자적 뉘앙스를 띤 귀환자(引揚者)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가해자적 의미를 지닌 '식민자'라고는 불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孤絶の歴史認識』, 岩波書店, 1990 중에서)...「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이 이전 세대 일본인에 의해 각인된 역사 속의 죄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사죄와 전후보상이 진정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지금 세대 일본인에 의한 현재진행형 죄이다....(『日本国民論』, 1997, 筑摩書房, 1997 중에서)」²⁶⁾

그는 위에서 보듯이 제일동포 연구자인 윤건차가 제기한 귀환자의 가해 사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의 문제를 축으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나간다. 먼저 그는 이에 기초에 일본사회에 만연한 귀환자의 '피해의식'에 비판을 가했다.

이 귀환에 관해서는 그저 음험하고 쓰라리고 괴로운 기억만이 내 맘 속에 살아있다. 혹은 내 몸의 세포가 그 때를 계기로 모두 뒤바뀐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모습이나 마음자세까지 바뀌었다(후지와라 테이)...나의 경우는 기운이 빠질 때마다 재빨리 수용소 시절을 떠올리며 그러한 어려운 경험도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일로 죽는 소리를 하는가 하고 항상 자신을 질타합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보물과 같은 귀중한 경험이지요 (후지타 후지에).²⁷⁾

이것은 조선에서 귀환한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좌담회 내용의 한 대목이다.²⁸⁾ 전자는 앞서 살핀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 저자의 소감이고, 후자는 다큐멘터리에서 집단사망자를 내었던 부평수용소에 수용되어 3대에 걸쳐 그 해 겨울에 가족을 잃은 여성의 코멘트이다.

24) 위의 책, 13쪽.

25) 위의 책, 21쪽.

26) 위의 책, 서문-IV.

27) 위의 책, 86-87쪽.

28) 毎日新聞社, 「生きぬいた女性の記録」, 『引揚の記録』, 1970.

그는 그것이 개인에게는 '귀중'한 경험일수는 있지만 그 체험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하거나 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⁹⁾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한 이와 유사한 담론들에 대해 그러한 피해를 입게 한 환경은 바로 일본제국이 만들었으며, 그곳이 과연 식민지 조선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는지를 반문한다.³⁰⁾

그는 이어서 이들 귀환자를 '식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38이북과 이남에서 각기 경험한 '탈출'과 '송환'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의 주요 내용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간다. 그는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지를 남한과 북한지역으로 대별할 때, 전자의 경우는 강제송환으로 인한 재산상실, 후자는 그것과 아울러 38선의 차단과 남하금지 조치로 인한 부가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의식의 형성과정을 보면 놀라움과 당혹감 속에서 종전을 맞이하고, 이어서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조선인들의 태도와 점령군의 강압조치를 뜻밖의 사태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패전'으로 인해 조선인과 점령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일련의 상황을 이해해버린다고 보았다.³¹⁾

그는 그 원인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식민자'로서 조선에서 살아왔다는 자각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인식의 오류를 도항 단계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그는 조선의 경우는 분명 개인 의사에 따른 도항이 많았으나 아무리 그것이 사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식민통치기구의 공적 행위로 인해 거류인프라가 형성되었고 그 나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적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³²⁾

그는 이렇게 일본인 귀환자들이 안고 있는 피해와 가해의 문제를 정리해 가면서 이를 자신의 어릴 적 경험에 투영한다.

조선인 마을에 돌을 던지고, 항아리를 깨고, 지붕에 구멍을 내도 저항이 없었다. 물론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 생긴 일들이었다. 그런데 권력의 말단에 위치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권력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정당화하기도 한다.³³⁾

이것은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의 일상의 가해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비록 장난이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인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 민족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에게는 흔히 자신의 귀환을 가로막고 고난을 가중시킨 요인으로만 각인된 38도선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이해방식을 보였다. 그는 일본정부의 포츠담선언 수락 지연이 결국 소련의 참전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으로 몰아가 38선을 낳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38선은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내가 사죄

29) 위의 책, 91쪽.

30) 위의 책, 89쪽.

31) 위의 책, 92-94쪽.

32) 그가 언급한 메리트란 급여생활자의 경우는 동일노동에 대해 본토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을 얻었고, 상공업자는 일본인에게 유리한 시장과 자원을 보장하고 값싼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일본의 지명과 건축물 등을 도입하고 조선인 학교를 분리함으로써 일본인들끼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의 책, 89-90쪽.

33) 위의 책,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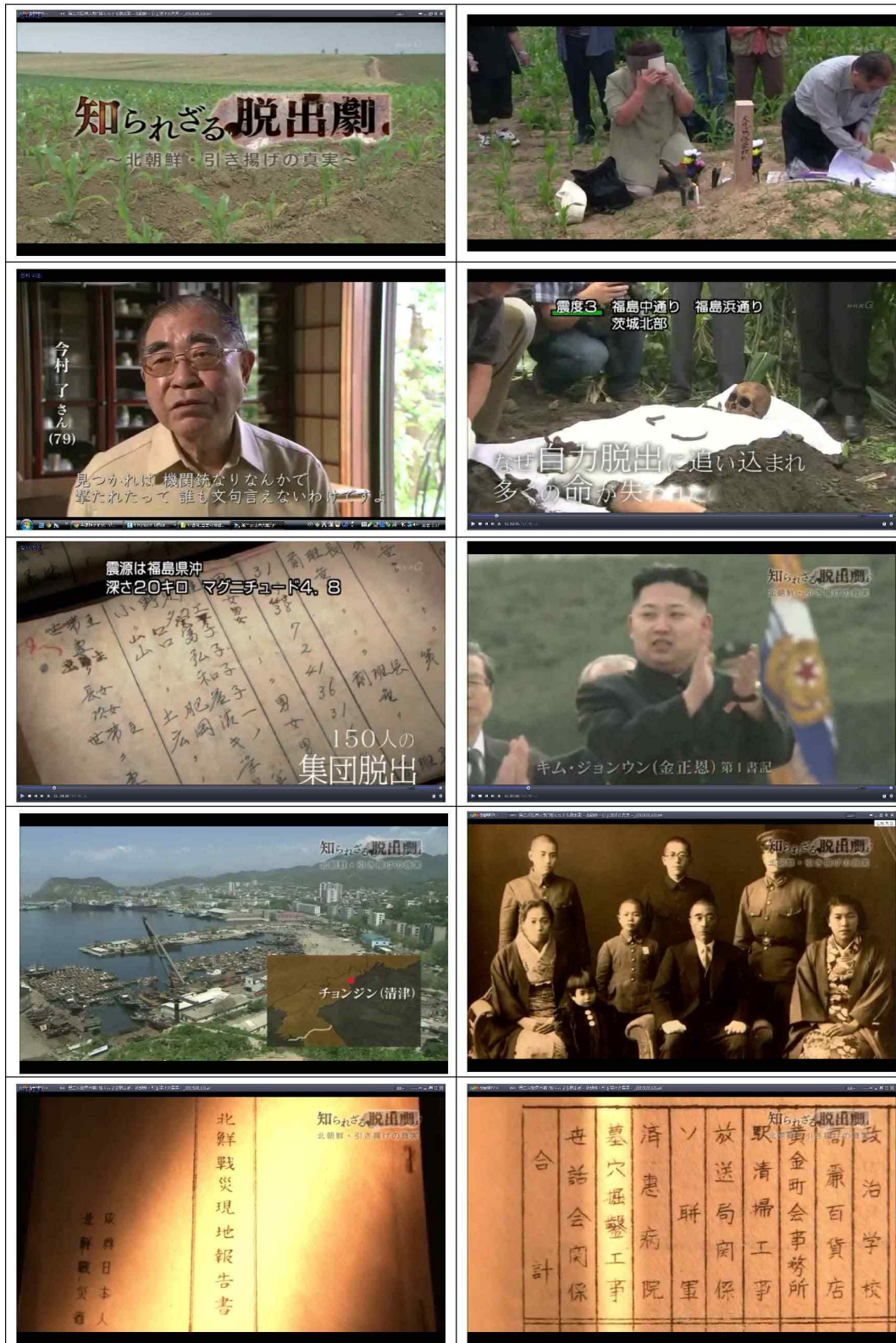
와 배상을 요구해야할 선이다. 동시에 그것이...(조선인에게는) 가해의 선”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³⁴⁾

그는 이렇게 귀환자들을 둘러싼 가해의식과 피해의식의 문제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리하면서 현재진행형의‘죄’를 극복하고자, 교사로서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어나가 교과서재판 지원활동과 아울러, 근대 일본의 침략행위에 관한 수업실천을 실천해왔다. 그의 프로필에서 역사교육 관련활동이 두드러진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³⁵⁾ NHK 다큐멘타리에서 누락된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 내지 증언자들의 이러한 태도 내지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었다고 생각된다.

34) 위의 책, 39쪽.

35) 필자는 1999년 여름 한 한일역사교육 관련 심포지움에서 그를 만나 해방 후 한일간의 인구이동 문제와 귀환자들의 피해의식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처럼 그가 퇴직 후에도 한일간의 역사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개인사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역사교육과 관련된 그의 프로필은 소개하자면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시즈오카현 연락회 사무국장과 시즈오카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일본역사학협회와 시즈오카현 교육문화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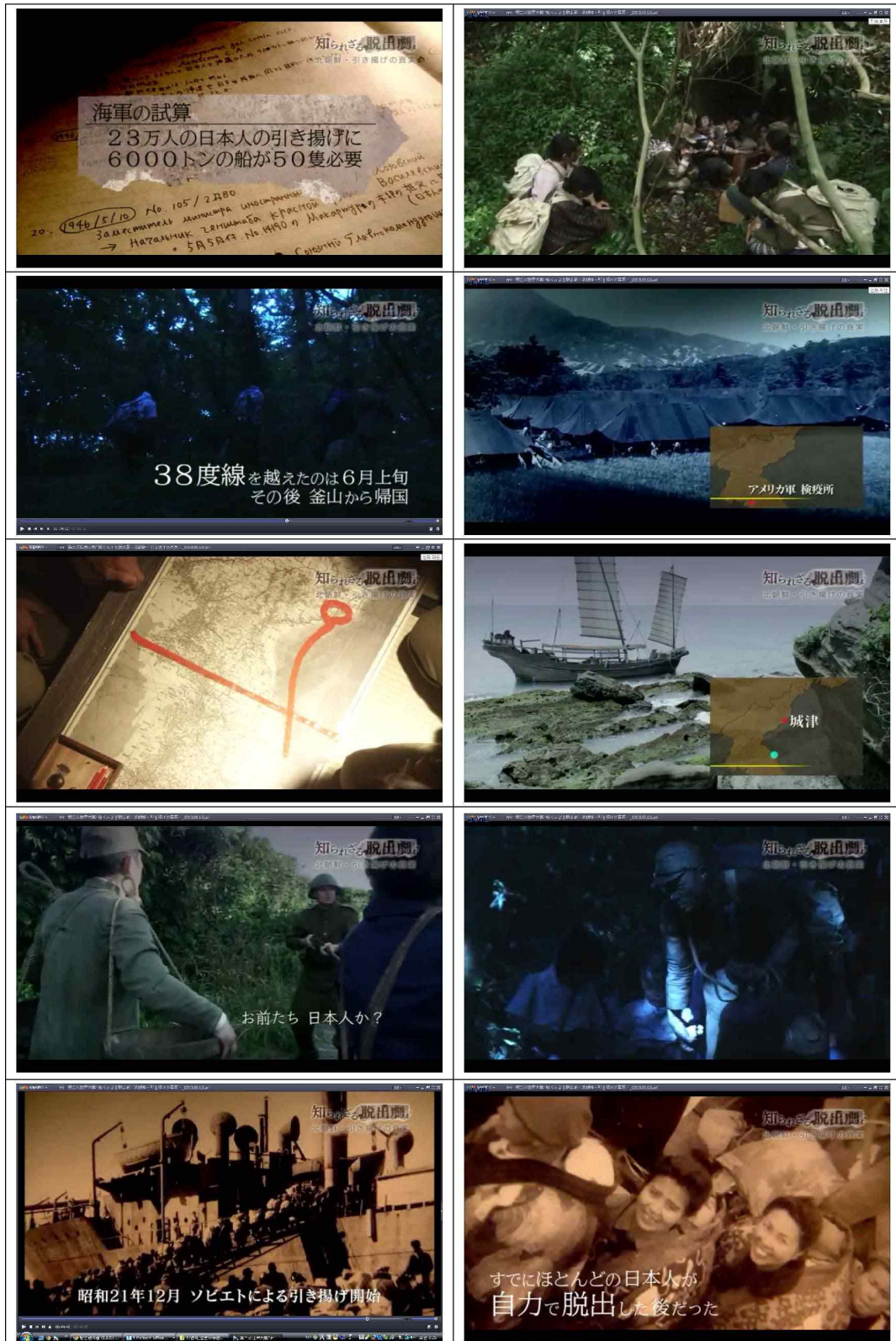
(자료-1)



(자료-2)



(자료-3)



식민자 2세 출신자의 문학과 ‘조선’, 그리고 전후 일본사회

신 승 모(동국대)

1. 들어가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2002)은 “우리가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는 대사로 유명하다. 하지만 인류는 20세기 근대의 역사적 제 국면에서 인간이 ‘괴물’로 전락하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도해왔다. 제국-식민지 체제 하에서 자행된 심적, 물적 가해와 폭력, 섬멸해야 할 ‘적’을 일원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 근대 전쟁에서의 학살 등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괴물’이 되면서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출했고, 피해자는 물론 이거니와 시대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성 파괴와 사후적인 고통 또한 ‘인간’이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보자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자 2세 출신이라는 중하(重荷)를 짊어지고 전후의 일본에서 ‘인간’이고자 한 소수의 일본인 작가들이 있다. 일본의 패전 후 ‘인양(引揚げ)’ 체험을 거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식민자 2세대들 중에는, 인양 당시 10대 중반의 학생이었다가 전후의 일본에서 성인이 되어 작가로 데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나 그들의 문학 작품 중에는 자신의 국가가 과거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성인이 된 전후의 일본에서 깨닫고¹⁾ 느끼는 부채의식과, 조선에서 있었던 유소년 시절의 다양한 개인적인 체험이 얽히면서 자아내는 복합적인 서사를 볼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등이 그러한 작가들인데, 1930년을 전후(前後)해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난 이들²⁾은 1950년대부터 60, 70년대에 걸쳐 일본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문단 내 굴지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에 올랐다. 각 작가마다 형상화하는 주제, 또한 각 작품마다 작품성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주로 전후의 일본사회에서 유소년 시절 자신들이 체험했던 ‘조선’에 어떻게 마주 대하고 기억할 것인가, 또는 자신과 ‘조선’(또는 한국/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란 문제를 작품

1) 가령 1927년에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이후 1945년 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만 16년간 조선에서 생활했던 고바야시 마사루는 「나의 조선(私の朝鮮)」이란 에세이에서 “나는 전후가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나라가 그 과거에 조선에 대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알았습니다. 내 탓은 아니라고는 해도,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서는 괴로운 심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小林勝, 「私の朝鮮」, 『チョッパリ 小林勝小説集』, 三省堂, 1970, p.299.) 또 1930년 ‘경성’에서 태어나 이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15년간 ‘경성’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도 훗날 자신의 에세이에서 “일본이 과거에 무엇을 했던가—라는 죄에 대해서는 나도 전후에 여러 가지 문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종전 때까지 어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자세히는 몰랐다.”고 기술하고 있다.(梶山季之, 「朴大統領下の第二のふるさと」, 『文藝春秋』1964年2月号, 文藝春秋社. 본 발표에서의 인용은 川村湊 編・解説, 『李朝殘影—梶山季之朝鮮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p.292.) 이 같은 식민자 2세 출신자들의 회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의 가부는 잠시 차치하고, 황민화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의 조선에서 초등, 중등교육을 받으면서 조선인과는 어느 정도 단절된 식민자들의 거류공간에서 성장했던 이들의 ‘무자각’과 ‘둔함’에도 나름대로 환경적인 이유는 있었다고 여겨진다.

2) 고바야시 마사루는 1927년 경남 진주에서, 가지야마 도시유키는 1930년 ‘경성’에서, 고토 메이세이는 1932년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태어났다.

속에서 치열하게 모색했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전후 일본사회에서 식민지 2세 출신자들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 정치, 사회적인 맥락과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2세들이 산출한 문학이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의 공유(sharing)와 계승을 가능케 할 개연성을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의 몇몇 작품을 논의하면서 찾고자 한다.

2. 식민지 2세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 ‘전후’의 변화와 배경

제국-식민지 체제를 통해서 “전방위에 걸친 집약적인 방사형의 식민지 제국 구조”³⁾를 형성하고 있던 대일본제국은 강압적 귀속에 의한 다민족국가였으나, 전후의 일본은 타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 ‘단일민족신화’라는 이데올로기⁴⁾로 회귀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일(在日)의 존재는 국민적 동일성에 수합되지 않는 이질적인 ‘외국인’으로 배제되어 갔고, 동시에 패전 직후 일본사회에서는 과거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 자체를 ‘소아병적’이라고 할 만큼 금기시해왔다. 이는 물론 과거의 역사를 망각·은폐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작위였다. 그리고 논의의 결은 다르겠지만 전후의 일본문학도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표현한 바 있듯이 ‘돌아오는 것(帰ること)’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⁵⁾ 잘 알려진 후지하라 테이(藤原てい)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1949)로 대표되는 패전 후의 인양 서사들은 주로 패전 국민으로서 인양 과정에서 겪은 갖은 고초(박해와 굶주림, 가족의 죽음 등)와 일본에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어려운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식민지로서 자신들이 해온 일은 무/의식 속에 봉인되고, 전도된 ‘피해자’로서의 자기상이 자연스럽게 전면에 묻어난다. 즉, 패전 직후 발표된 이들 인양 서사에서는 제국 일본으로 인해 이산되었던 피식민지민들의 고난이나 타자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식민지 2세 출신자들의 문학은 이런 패전 직후의 인양 서사와는 그 문맥과 성격을 달리한다. 우선은 1930년을 전후해서 조선에서 태어난 이들, 따라서 패전 당시 미성년이었던 이들이 20대 성인이 되어 1950년대 일본문단에 등단한다는 연령적인 조건이 전제되지만, 여기에 이들이 자신의 체험과 사상을 표현하게 되는 동시대 정치, 사회적 맥락과 이들의 창작을 촉발시킨 외적인 동인(動因)도 또한 개재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2세 출신자들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 ‘전후’적 변화와 배경을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소묘하면서, 내·외적인 요소가 조율하는 양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이로 인한 전쟁특수를 발판으로 삼아 진행된 일본의 전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정치경제적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후’라는 시공간은 한국/북한과 일본, 중국, 타이완만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냉전의 정치적 자장 속에서 영위되었고, 식민지 기억이라는 문제도 이 같은 현실 정치와 연동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패전/해방 당시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군사분계선이었던 38도선은 일본의 관동군과 조선군을 양국이

3) 姜尚中,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 岩波書店, 1996, p.86.

4) 小熊英二, 『単一民族神話の起源 <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社, 1995 참조.

5)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p.1.

분담해서 접수하기 위해 관할을 나눈 분계선에 불과했으나, 이후 동아시아 전역을 끌어넣는 냉전구조 속에서 고착화되면서 한국전쟁은 발발했다. 일본의 36년간에 걸친 식민지 지배는 패전/해방이라는 결절점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에 분단과 전쟁을 가져온 빌미를 제공한 셈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은 후방의 병참기지와 무기고 역할을 한 일본에 전례 없는 전시특수를 불러일으켰다. 해방 후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냉전과 열전(熱戰)이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전후 '부흥'과 '독립'에 기여하였고, 이 군수 호경기가 이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로 이어진다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식민자 2세 출신의 작가들은 반조적으로 자신의 '조선'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예잡지 『문학계(文學界)』 1960년 7월호에 발표된 후 그 해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 된 고바야시 마사루의 작품 「가교(架橋)」에서 식민자 2세 출신의 도다 아사오(戸田朝雄)와 한 재일조선인 청년의 연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며, 아사오는 이 재일조선인 청년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자신의 '조선'에 대한 기억과 복잡한 심성을 끊임없이 반추하게 된다. 이 소설의 서사는 1952년의 현시점에서 '조선전쟁' 중인 한반도에 보낼 미군 지프차, 트럭, 전차 등을 수리하는 일본의 한 공장 앞에서 두 청년이 대기,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사오는 양친과 '북조선'의 소련 국경 가까운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일본의 패전 후 인양을 거쳐 일본으로 귀환했다. 현재 19세인 아사오는 한국전쟁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전쟁특수를 누리 고 후방의 병참기지가 되어버린 일본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일본 공산당의 군사행동에 공감한다. 그래서 그 자신 당원은 아니지만 군수물자를 수리하는 공장에 화염병을 투척해서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려는 당의 이번 계획에 참가한 것이다. 이처럼 식민자 2세 출신 작가들의 '조선' 소재 작품에는 한국전쟁과 그 특수 경기에 의한 일본의 전후 부흥이나 안보투쟁 등과 같은 시민운동이 작품 속 현재의 배경으로서 배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미일안보시스템의 확립, 55년 체제의 성립, 60년의 신(新)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안보투쟁, 65년의 한일수교와 그에 반대하는 한일 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나는 등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사상적, 정치적으로도 격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식민자 2세 출신자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조선'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지야마 도시유키⁶⁾는 1964년에 발표한 「한국의 "소리 없는 소리"를 추리하다(韓國の "声なき声" を推理する)」(『中央公論』 1964년 2월호)라는 제명의 에세이에서 1963년 12월, 18년 만에 방문한 한국에서의 견문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일한회담'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노정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반일 무드'와 한일 양국민의 역사인식에서의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야마는 앞으로의 공생적인 미래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인식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노력한다. 여기에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현 박정희 대통령 하의 한국사회의 여러 면모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도 개재해 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통용되던 일본인 다수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둘 때, 이 같은 가지야마의 발언은 이채를

6) 가지야마 도시유키(1930-1975)는 아버지가 조선총독부의 토목기술자로 경성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1930년 식민지조선의 경성에서 태어났다. 경성중학 4학년 때(15세) 일본의 패전으로 귀환할 때까지 유소년 시절의 15년 동안을 조선에서 생활한 가지야마는 1952년 5월에 식민지시기 창씨개명을 소재로 한 소설 「족보(族譜)」를 잡지 『廣島文學』에 발표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가지야마는 이후 「이조잔영(李朝殘影)」(1963) 등 작가활동 초반에 '조선'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남겼는데, 전후에 식민자 2세 출신의 작가 중 조선시절의 체험을 소설로 쓴 것은 가지야마가 가장 빨랐다.

된다.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한 1세대들이 과거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오는 동안, 전후의 부흥과 고도경제성장 속에서 일본의 젊은 세대(전후 세대)들은 이웃의 한반도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지, 나아가 편견으로 시종했다. 한 가지 예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文學界』 1955년 7월호, 제34회 아쿠타가와상 수상) 발표 이후, 고도 소비경제사회가 시작되는 속에서 ‘연애 유희’나 ‘완전한 유희’에 탐닉하는 무쾌도적이며 분방한 젊은이라는 ‘풍속 현상’이 정착하였고, 이들은 ‘태양족’이라 불렀다. 이 역사인식을 결여한 일본의 젊은 세대들과 한국전쟁 특수를 누리며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가는 일본사회 속에서 동시대 식민지 2세 출신 작가들이 느낀 괴리감과 자기정체성은 그 윗세대나 전후 세대와는 이질적인 것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자신의 원향(原郷)으로서의 ‘조선’=‘고향’과 지금-여기 일본 사회와의 균열, 혹은 괴리와 같은 것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그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형상화되었다.

가령 북조선에서 맞은 자신의 패전 체험과 인양과정을 모티프로 삼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입지를 다진 고토 메이세이(7)는 단순히 ‘조선’에 얽힌 기억에만 천착했다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기억과 현재 ‘지금-여기’와의 관계성을 탐구하고자 했고, 작품 속 ‘현재’는 언제나 실제 집필, 발표 시기와 겹치면서 전후 일본에서의 생활감각과 사고에서 출발해서 과거 ‘기억’으로의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또한 그 과거로의 ‘기억’ 찾기 여행은 현재 화자의 일상에서의 의식 속으로 투입해 들어오면서, ‘지금-여기’ 일본사회에서 식민지 출생의 2세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영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고토의 작품은 어디까지나 화자 자신의 ‘현재’를 모색하는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父への手紙)」는 1972년의 현 시점에서 40세가 된 화자 ‘나’가 27년 전에 조선에서 죽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간문의 형식을 취한 작품이다. 이 서간문의 문면을 통해 죽은 아버지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대화의 시도는 물론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조선’에서의 기억과 그 이후 일본에서의 전후 생활을 의식 속에서 찾아 정리하고자 하는 독백에 가깝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저의 소년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태어난 고향’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요컨대 저희들은 ‘태어난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조국 일본’으로 귀환해 온 셈입니다. (중략) 일찍이 식민지로서 그곳을 지배하던 일본인 자손의 한사람인 제가 그곳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태어난 고향’에서 추방되었다고는 생각해도 결코 그곳을 빼앗겼다, 고는 생각지 않습니다.⁸⁾

여기서 식민지 2세 출신의 화자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조선에서 “추방되었다고는 생각해도 결코 그곳을 빼앗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이를 철저히 내면화된 식민

7) 고토 메이세이(1932-1999)의 작품군은 자신이 식민지 2세로 태어나서 자란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에서의 생활과 패전 직후 조선에서 사망한 부친에 대한 회상, 일본으로의 인양과정 등이 중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 덧붙여 고토와 마찬가지로 조선식민지 2세 출신인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 1932-)는 작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외지인양파(外地引揚派)’라고 표현하면서, 이 ‘외지인양파’로서의 아이덴티티와 발화위치를 다른 전후파 작가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경험적, 세대적 차이로 인식했는데, 고토 메이세이도 이 ‘외지인양파’의 일원으로 구분된다.

8) 後藤明生, 「父への手紙」, 『群像』1972년7月号, 講談社, p.45.

자의식의 오만한 발현으로 간주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태의 차원을 혼동함으로써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화자는 한반도가 본래 조선인들의 조국이자 땅이고, 그 조선인의 것이 일본의 패전=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조선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의심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이 동시에 자신들이 태어나고 유소년 시절을 보낸 '원향'임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2세들의 존재론적 자기주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토 메이세이 작품의 화자는 '그곳'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억' 찾기 여행을 끊임없이 떠나는 것이고, 그 영위는 다시 '지금-여기' 일본사회에서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묻는 아이덴티티의 모색으로 순환한다.

아버지, 지금 일본에서는 조선 및 조선인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해 저지른 '죄'에 관해서입니다. 확실히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고향'에 관한 저의 기억만큼은 누구도 거절할 수는 없을 터입니다.(p.45.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고토는 식민지와 인양 체험을 전후의 일본사회에서 '기억'의 문제로서 반추하면서 현대인의 자기 존재감이라는 문제를 내면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영위는 '지금-여기'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외지인양파(外地引揚派)'로서의 자신의 위치 정립과 아이덴티티의 모색에 다름 아닐 것이다.

3.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의 「눈 없는 머리(目なし頭)」와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学校)」—그로테스크한 기억과 '괴물'의 탄생

고바야시 마사루(1927-1971)의 사후에 출간된 작품집 『조선·메이지52년(朝鮮·明治五十二年)』(1971)의 후기에서 고바야시는 식민자 2세 출신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성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이 소설집에는 조선에 오랫동안 살면서 조선인에게 직접 폭력적인 유형(有形)의 가해를 끼치지 않고, 친한 조선인 친구를 많이 지니고, 평화롭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혹은 영위하려 한 일본인이 등장한다. 일찍이 평범한 일본인 대다수가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 혹은 지금은 중년이 된 그들의 아이들 대다수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조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 있어서는 내 안의 그리움을 거부한다. 평범하고 평화롭고 무해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이는 '외견'을 그 존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거부한다.⁹⁾

고바야시 마사루는 아버지 고바야시 도키히로(小林時弘)가 경상남도 진주농림학교 생물 교사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192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이후 만 16년간 조선에서 생활했는데, 그 체험은 43년이라는 그의 짧은 생애와 15여년에 걸친 작품 활동에서 대단히

9) 小林勝, 「あとがき」, 『朝鮮·明治五十二年』, 新興書房, 1971, p.219. 강조는 원저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어떤 부모와 환경 하에서 태어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비로소 자아를 자각하고 자기 인식을 지니게 될 때는 이미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상태(being)–‘존재’(being)인 것이다. 즉, 사태의 순서로 말하자면 개개의 인간은 우선 세상에 내보내진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자신이 자신임을 존재론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의식적으로 분별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식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식민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 고바야시 마사루와 같은 식민자 2세대들은 “무해(無害)한 존재”로서 식민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책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선 당사자인 고바야시 마사루는 ‘조선’에 대한 “내 안의 그리움을 거부한다”는 언명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에세이 「그립다’고 해서 안 된다(「懐しい」といってはならぬ)」(1971.1)에서도, 그 제명이 단적으로 표명하고 있듯이 ‘조선’을 안일하게 그리워하는 자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고바야시의 사유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같은 자신의 사상과 보조를 맞추듯 그의 후기 작품군에는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에 관한 기억으로 고뇌하는 식민자 2세 출신의 남자 주인공의 심리를 형상화한 소설이 많다.

문예잡지 『문예(文藝)』 1967년 11월호에 발표된 중편소설 「눈 없는 머리(目なし頭)」도 그 중 하나로 만년의 고바야시의 문학적 주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다.¹⁰⁾ 소설의 서사는 1967년 현지점에서 결핵으로 두 번에 걸친 폐 절제 수술과 3년간의 요양소 생활을 마치고 퇴원한 사와키 신(沢木晋)이 겪게 되는 내부와 외부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아내와 딸이 있고 40세가 되어가는 사와키 신은 결핵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출판사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사회 활동에 복귀하고자 노력하지만, 치료 후유증과 때때로 엄습해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¹¹⁾은 그의 ‘과거의 기억’과 어지럽게 얽히면서 그에게 착란과 공포를 가져온다. 작품 속에서는 이런 사와키의 심리상태를 극대화시키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그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 정기 진찰을 마치고, 산책 겸 거닐던 병동 옆 숲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기묘한 광경이다.

흰 레테르가 붙어 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이었다. (중략)

병 속에는 포르말린 용액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흰, 군데군데 희미하게 보랏빛을 띠고 한 면에 황 폐한 구멍이 송송 뚫린 작은 벽 조각 같은 것이 가라앉아서 사와키 쪽을 향하고 있다.(pp.187~188)

숲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스트 타운’과 같은 느낌의 목조 건물 속으로 이끌리듯 들어간 사와키는 그곳에서 유리병 속에 담긴 무수한 인간의 폐를 보게 된다. 그곳은 결핵환자의

10) 이 작품을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하라 유스케, 「그리움을 금하는 것 -조선식민자 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日本研究』제15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1; 朴裕河, 「小林勝と朝鮮—交通の可能性について—」, 前掲書; 磯貝治良, 「照射するもの、されるもの—小林勝の後期作品—」, 『季刊三千里』第30号, 三千里社, 1982年夏 등이 있다. 이 중 논문 전체를 통해 「눈 없는 머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하라 유스케의 글은 이 소설이 “식민주의 폭력의 복합적인 실상에 접근하려 한” 작품으로서,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각기 별개의 것이면서도 나눌 수 없게 얽혀 있는 것으로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고바야시의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 작품이 형상화하는 몇몇 인상적인 장면과 사건을 ‘괴물’과 연관시킨 논의를 통해 소략하게 재해석하고자 한다.

11) 小林勝, 「目なし頭」, 『チョッパリ 小林勝小説集』, 三省堂, 1970, p.167. 이하, 작품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폐 등 장기의 표본을 저장하는 병원의 보관동이었고, 표본은 각 방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사와키가 들어간 방에는 '쇼와(昭和)13년(1938년)'이라는 레테르가 붙어 있는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쇼와13년의 결핵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의 칼로 잘라 내어진 사자(死者)들인 것이다. 그냥 사자가 아니라 쇼와13년의 사자이자 쇼와13년의 결핵의 역사이고, 바꾸어 말하면 쇼와13년이라는, 영구히 소실되어 버렸다고 여겨지던 시간이 여기에 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p.189)

그 '폐의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서서 사와키는 현재인 "쇼와42년(1967년-인용자)에서 쇼와13년 한가운데로 갑자기 내던져진 듯한 기분에 빠지"(p.190)게 되는데, 이 같은 기분이 촉발하는 연상 작용은 쇼와13년에 있었던 한 사건의 '기억' 속으로 그를 다시 소환한다. 쇼와13년, 즉 1938년 당시 근처에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의 한 마을에서 소학교 5학년이었던 사와키 신은, 한여름 어느 날 어머니가 맡긴 계란을 들고 이경인(李景仁)의 집을 찾아간다. 18세의 이경인은 사와키의 아버지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 농림학교의 사환이자, 사와키의 동급생 이두식의 형이기도 했다. 평소 일본인 애들을 괴롭히는 난폭한 이두식과는 달리 형인 이경인은 사와키에게 친절한 '좋은 사람'이었고 소년 사와키도 이경인을 따르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 주었다. 장수잠자리를 잡아 주었다. 썰매를 만들어 주었다. 부엉이의 큰 등지를 짚으로 엮어 주었다. 포플러로 풀피리를 만들어 주었다. 중화 만두를 시장에서 몰래 사다주었다. 텃으로 종달새를 잡아 주었다. 물고기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장에서 건포도가 든 조선떡을 먹여주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모르는 것, 금지한 것, 그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사환인 이경인이다.(p.198)

그런데 이경인은 농림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심하게 피를 토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학교 사환직도 해고당한다. 평소 폐병이 있던 이경인은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다 무리해서 쓰러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와키의 어머니가 위문 차 그에게 계란을 갖다 주라고 사와키를 보낸 것이다. 이경인의 집 온돌방 앞에 선 소년 사와키는 어두운 문짝 안에서 흘러나오는 "콧속을 찌르는" "오싹할 정도로 사악한 냄새"(p.198)를 맡으면서 전율하지만 이경인을 불러본다. 하지만 그날 사와키 신이 조우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상냥한 웃는 얼굴이었던 이경인"이 아니라, "깜깜하고 사악한 냄새가 자욱이 끼는 저쪽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터널의 출구"(p.203)에서 기어나온 듯한 '괴물'의 형상이었다.

사와키는 어안이 병병했다. 그가 전혀 본 적 없는 미지의 얼굴이 그곳에 있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이(李) 상, 하고 불러보자, 그 낯선 얼굴이, 응, 하고 이경인의 목소리로 대답한다. 사와키는 무서워졌다. 이경인의 얼굴은 원래 희고 포동포동 둥글다. 눈꺼풀이 즐린 듯 두툼하고 약간 붉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얼굴은 전혀 살 같은 게 아니라 뺨도 눈도 움푹 패여 누

르스름했고 코가 무서울 정도 로 뽀족해져 튀어나와 있다. 머리카락이 더부룩하게 자랐고 움푹 패인 눈가는 그림물감으로 칠한 듯이 거무스름해져 있다. 그는 무서웠다. 그는 도망치고 싶어졌다.(pp.199~200)

제조일본인 사회 내에서 아이들에게 그 말조차 금기시되던 ‘독립운동’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사건’의 전말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와키는, 이경인의 모습이 왜 그렇게 변모할 수밖에 없었는지 영문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식민자 2세였다. 그런 소년 사와키 신에게 그 날의 이경인은 마치 어둠 저편 세계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로테스크한 괴물처럼 보였고, 이경인은 모습 뿐 아니라 태도까지도 돌변했다. 사와키의 어머니가 보내온 계란을 이경인은 차갑게 거부하면서 깨부순 것이다.

“엄마가 걱정하고 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눈의 흰자를 드러내고 그를 노려보며 차가운 웃음을 띠었다.

“너희들이 뭐 소릴 하는가”

이 때 사와키의 작은 가슴에 갑자기 증오가 끓어올랐다. 이두식이, 그리고 이 남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밉다. 그가, 어린아이인 그가 뭘 했던 말인가. (중략) 이 남자는 엄마가 특별히 들려서 건넨,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의 달걀을 눈앞에서 부셔서 물리치고 있다. 그로서는 영문을 몰랐다. 그나 엄마가 나쁜 짓을 두 사람에게 대해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참기라도 하겠다. 사와키는 몸을 떨었다.(pp.201~202)

이경인이 거부하고 깨부순 것은 총체로서의 ‘일본인’이 행하는 식민지에서의 폭력과 식민자의 ‘위선’이었지만, ‘무구’한 소년 사와키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것에 부딪친”(p.202) 느낌이었던 것이다. 이경인은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1938년 가을에 사망했고, 사와키 신은 훗날 성인이 된 전후의 일본에서 1938년의 이경인이 ‘괴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1938년 ‘대일본제국 조선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거주했던 일본인 총체가 ‘괴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설령 어린이로서 조선에서 지내는 동안 조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평범하고 무해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식민자 2세로서 자신이 그 때 그곳에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 그 역사적인 사태에 대한 ‘공동책무’¹²⁾를 사와키 신은 전후의 일본사회에서 사후적으로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 살게 되면서부터 사와키는 다소 학문을 배우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거기에 식민지 조선이 가로막고 있음을 보았다. 식민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그가 이해했을 때,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덮쳐오는 것을 느끼고, 일본인인 사와키는 조선인에 대해 부채를 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다. (중략) 사와키가 무모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의 군사방침에 따라 조선전쟁을 반대하는 비합법 데모를 하고, 조선인 소학생과 중학생에게 경찰부대가 덮치는 것을 저지하려

12) 발표자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쪽발이(蹄の割れたもの)」와 「가교(架橋)」를 검토한 글에서 같은 민족, 혹은 국민으로서 ‘동죄’는 아니지만, ‘죄 없는 책무’ 즉, 공동책무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한 바 있다. 신승모,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문학의 ‘가교’로서의 가능성」, 『일본 제국주의 시대 문학과 문화의 혼효성』, 지금여기, 2011 참조.

고 화염병을 던지다 체포된 것도 그걸로 조금이라도 조선에 부채를 갚고 싶다고 바란 것이 커다란 동기였다.(p.232)

이처럼 작품 속 서사는 사와키 신의 심리 과정과 전후 활동, 투병생활 등을 엮어 내면서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한 개인의 기억을 전후 일본사회의 '망각'=병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0년대 후반에 발표한 초기 작품군을 보면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많은데, 그 중 잡지 『문학계(文学界)』 1957년 2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学校)」는 고바야시 작품 중에는 드물게 작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제재로 삼아 재구성한 작품이다.¹³⁾ 소설 속 서사는 1942년 봄, 대구의 일본인 중학교를 무대로 젊은 신임 영어교사 우메하라 겐타(梅原健太)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 추이를 주로 3학년 학생 미즈토리 고로(水鳥五郎)의 시선과 의식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¹⁴⁾ 도쿄고등사범학교(현 쓰쿠바筑波대학)를 갓 졸업하고 대구중학교로 새로 부임한 우메하라 겐타는, 볼품없고 피곤에 찌들어 무기력해 보이는 기존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몸속에 투명한 태엽이 그 한계점까지 감겨 있어서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에너지로 충만해 있는” “개성적인 청춘”이었다.¹⁵⁾ 소년 고로는 세련된 스타일과 도쿄 사람 특유의 마키지타(まき舌: 혀끝을 말듯이 하여 강하게, 또는 빠르게 말하는 어조)를 구사하는 우메하라 선생님이 도쿄 토박이임을 확신하고, 이후 소탈한 성품의 우메하라는 고로뿐 아니라 “99퍼센트가 식민지에서 태어난”(p.105) 이들 식민자 2세 중학생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

우메하라 겐타는 몇 개월 지나기도 전에 학교 내의 인기를 그 한 몸으로 끌어 모은 듯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실로 유창했다. 강의는 문학적이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수학 교사와 같이 학생을 때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는 빠른 어조의 마키지타로 때때로 도쿄에서 보낸 학생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건 실로 자유롭고 신선해서 학생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는 금세 교사임을 내려놓고 그저 보통의 친구가 되었다.(p.109)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 사이에 우메하라 선생님이 실은 '조선인'일지도 모른다는 “꺼림칙한 의혹”(p.109)이 돌기 시작한다. 불신과 불온한 공기가 감도는 교실의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물끄러미 우메하라를 관찰하던 고로의 눈에는 이제까지 “순수한 도쿄”(p.111)를 체현한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메하라의 모든 것이 조선인의 특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변모해 보이기 시작한다.

13) 고바야시는 에세이 「그립다고 해서 안 된다」에서 자신의 소설 속 대부분의 등장인물과 설정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전제한 뒤에, 그러나 예외도 있어서 「일본인 중학교」의 경우 “이 이야기는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小林勝, 「懐かしい」といってはならぬ, 『朝鮮文学』, 新興書房, 1971. 1. 본고에서는 『小林勝作品集 第1巻』, 白川書院, 1975의 해설에서 재인용.

14) 이 작품을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하라 유스케,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사이간SAI』제 12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12; 李元熙,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 『日語日文學研究』제38집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01; 磯貝治良, 「原風景としての朝鮮—小林勝の前期作品—」, 『季刊三千里』제 29号, 三千里社, 1982년春; 安宇植, 「小林勝と朝鮮」, 『戦後文学とアジア』, 毎日新聞社, 1978 등이 있다.

15) 小林勝, 「日本人中学校」, 『小林勝作品集 第1巻』, 白川書院, 1975, p.104. 이하, 작품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선생님 머리는 묘하게 가르마가 확실하네. 저렇게 더덕더덕 포마드를 쳐바르고 있으니. 일본인 어른들은 점점 까까머리가 돼가고 있는데 저래서야 마치 조선인 모던 청년과 똑같지 않은가? 저만큼 포마드를 발랐는데 아직 뒤쪽 머리카락이 약간 서있는 것도 이상하다. 저건 머리 뒤쪽이 절벽이기 때문이야. 아기 때부터 딱딱한 온돌방에서 자는 조선인에게는 저런 머리 모양이 많으니까 말이야. 아, 웃었다.....저 깨끗한 새하얀 이는 어땠가? 조선인에게는 튼튼한 흰 이를 가진 자가 많지만, 저것도 일본인 처럼 어릴 때 단 것을 그다지 먹지 못하기 때문이야. 게다가 놈들은 실로 정성껏 이를 닦으니까 말이야. 치약을 살 수 없는 놈은 소금으로 닦으니까. 아, 말하고 있다.....저 마키지타는 어떻게 된 걸까? 조선말에는 마는 듯한, 짜내는 듯한, 혹은 굴리는 듯한 어려운 발음이 많으니까 마키지타 따위야 하려고 하면 쉬운 거겠지.(pp.111~112)

이처럼 고로의 의식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식민지 2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우월감은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가령 고로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경찰관(警部)인데, 그는 일찍이 ‘만세사건’=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를 부르짖는 마을 조선인들의 위세에 공포와 분노를 느끼다 그만 실수로 평소 안면이 있는 조선인 노인을 총으로 쏘 죽이고 만다. 이후 고로의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조선(인)에 대한 경멸과 증오로 전이시켜서 “조선인만큼 신용할 수 없는 놈들은 없다”(p.108)며 기회를 때마다 고로에게 부정적인 조선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조선인 사회와는 어느 정도 격리된 재조일본인 사회 속에서 ‘똥어져’ 자란 고로의 무/의식 속에서 왜곡된 조선인관은 서서히 뿌리내리게 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식민지 1세대인 부모들은 본국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오는 그리움으로 언제나 실제보다 이상화된 ‘고향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자라서 아직 한번도 ‘내지’에 가본 적이 없는 식민지 2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부모들의 고향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자의적으로 덧칠하면서 더욱 ‘이상화’된 내지의 이미지를 자신의 심상에 주조해낸다. 그런 이미지가 무조건적인 동경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실제 일본과는 유리된 ‘어디에도 없는 곳’(utopia)¹⁶⁾=이상향(Utopia)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자연과 풍물을 둘러싼 우열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지닌 식민지 의식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편견, 멸시감 등도 그대로 2세들에게 내면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라 유스케는 이를 아이들이 “식민지의 세계관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¹⁷⁾으로 파악하는데, 작품 속에서는 이 같은 오만한 식민지 의식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순진무구’한 아이에서 잔인한 ‘괴물’로 돌변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학년의 한 학생이 스모(相撲)를 한다고 벗어둔 우메하라 선생의 양복에서 ‘최(崔)’라는, 창씨개명 전의 성씨를 발견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 학생들 사이에는 탄식과 노성과 비웃음이 일어났다.

뉴스를 들은 다음날, 영어 시간을 앞두고 누가 말을 꺼냈다 할 것도 없이, 일은 갑자

16) 주지하듯이, 유토피아(utopia)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이다.

17) 하라 유스케,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p.147.

기, 게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교실 안은 이상한 활기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한 녀석이 좀 더러워진, 누덕누덕 기운창문 커튼을 힘껏 잡아 찢었다. 그러자 몇 명이 와—하고 환성을 질렀다. 교실 밖에서 새된 웃음소리를 내면서 3, 4명의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있었어, 히히, 있었어…… 그들은 양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소란은 한층 커졌다. 뒤쪽에 있던 녀석이 죽도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정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었을 깨진 오지그릇과 이가 빠진 찻잔이었다. 금세 준비는 끝났다. 교탁에는 그 커튼이 보란 듯 기운 자국을 드러내고서 씌였다. 그 위에 오지그릇과 찻잔이 늘어 놓였다. 기숙사생이 가져온 낡은 부채가 구석에 놓였다. (중략) 또 한 녀석이 교단에 올라가 흑판에 크게 글씨를 썼다.

야담 신·압록강타령 일룡 최정산 (講談 新·鴨綠江節 一龍 崔貞山)

그 녀석은 최(崔) 자 옆에 겹 동그라미를 덧붙였다. 그리고서 고로를 포함한 학생들은 괴이한 흥분에 휩싸여서 쥐죽은 듯 입을 다물었다.(pp.115~116)

이 섬뜩한 열기와 괴기한 정적으로 가득 찬 교실에서의 장면은 식민지에서 배태된 새로운 '괴물'들의 탄생을 보여준다. 이소가이 지로는 이 「일본인 중학교」를 비롯하여, 「소(牛)」(1956), 「개(犬)」(1959) 등 고바야시의 초기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일본인 소년들의 조선인에 대한 오만과 멸시는, 부정형(不定型)적인 어린 잔혹함을 포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모인 식민자들의 의식의 투영으로써”¹⁸⁾ 형성되었다고 파악하는데, 이 작품에서 고로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부모 세대의 왜곡된 식민자 의식은 그 2세대에게 대물러지면서 어린아이 특유의 잔인함과 어우러져 표출되고 있다. 이어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교실에 들어온 우메하라 겐타의 반응과 그 이후의 행적은 식민지조선 출신 지식인의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이 같은 식민지에서의 ‘이야기’를 전후의 일본에서 형상화해서 발화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위치와 문제의식이다. 한국전쟁과 그 특수 경기에 의해 일본은 전후 경제 부흥을 이뤄나갔고, ‘55년 체제’가 성립되면서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자신감이 점차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계 등 사회 여러 분야를 채워갔다. 더불어 식민지 기억을 완료된 과거로 간단히 정리해버리고 망각하려는 전후 일본사회의 풍조 속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는 그 식민지에서의 경험과 회한을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전해 내려가고자 의도했고, 그의 문학적 표현은 그 실친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을 보자. 우메하라 겐타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p.116)라는 말을 남기고 학교를 떠난 뒤, 고로는 우메하라와 곧잘 연습하던 배구 코트를 바라보다 다음과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인다.

갑자기 고로는 날카롭게 마음이 아파 옴을 느꼈다. 그 통증은 사라지려는가 싶더니, 다시 덮쳐왔다. 오른쪽 배가 옥신옥신 아프면 혹시 맹장염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듯이, 고로의 마음 속 어딘가가 어렴풋이 아프기 시작해, 그것이 무엇을 예고하는지도 모른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그의 몸에 들러붙은 것을 느꼈다.(p.118)

여기서 고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통증’과 ‘불안’은 괴물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한 개인이 사후적으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자 회한을 표현한 것일 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작품 속 형상화는 과거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망각·은폐하고자 했던

18) 磯貝治良, 「原風景としての朝鮮—小林勝の前期作品—」, 前掲書, p.212.

전후 일본사회의 풍조 속에서 일본인의 총체적 식민지 경험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하나의 제유(提喻)로서 기능할 수 있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 경험이 없는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세대간의 경험과 이야기를 전하는 내적 추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오며

일본의 패전 이전에 이미 등단해서 기성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기존의 재조일본인 작가들은 대개 전후의 일본에서 그 활동이 미약했다. 다만 이들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나 전후 일본에서도 작가활동을 계속한 사례가 있고, 수기와 감상과 같은 글을 통해 자신의 조선체험과 심성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사례는 상당부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조선’에 대한 자신의 향수와 애정을 피력하는데, 가령 같은 식민지 2세 출신일지라도 비교적 연령이 높아서 패전 이전에 성인이 되어 일본의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¹⁹⁾의 경우도 전후의 한 좌담회에서 “우리들은 아마 조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²⁰⁾이라고 명언하면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향수를 피력한다.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재조일본인 문학자, 예술가들이 전후의 일본에서 ‘조선’을 그리운 ‘고향’으로 향수하는 심성은, “과거에 대한 망각 또는 역사적 이해가 결여된 향수의 과잉”²¹⁾이 만연한 전후 일본사회에서, 일찍이 내면화하고 있던 식민지적 관념을 조선에 대한 ‘애정’으로 비틀어 전이하는 무의식적 작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기성 문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이들이 전전에 내면화하고 있던 식민지적 무의식을 전후에 안이한 ‘우호조선’으로 전이하면서, 조선을 그리운 ‘고향’으로 향수하는 심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발표에서 논점을 두고 있는 전후에 등단한 식민지 2세 출신의 작가들의 경우는 그 심상풍경이 달랐다. 이들에게 있어 ‘조선’은 유소년 시절의 ‘원향’임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와 (조)부모 세대가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사후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상흔(trauma)’이기도 했기에, 단순히 조선에 회향의 정을 품으며 안일한 향수를 느낄 수는 없었다.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소설 「잘 있거라, 경성(さらば京城)」(1971)에서 식민지 2세 출신의 여주인공 오다 야스코(小田康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경성’을 전후의 일본에서 그리워하면서도, 회향의 정을 품는 스스로에게 “그 착취와 압정(壓政)에 가담한 측의 인간이 과연 그리워하거나, 옛날 그대로라고 기뻐하거나”²²⁾ 해도 용인되는 것인지를 반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년의 고바야시 마사루도 ‘조선’에 대한 “내 안의 그리움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 같은 선언의 이면에는 실은 그 누구보다도 ‘조선’이 그림지만 그 그리워하는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식민지 의식을 내파(內破)하려는 통절한 의식이 잠재해있을 것이다. 또한 고바야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일본인’의 총체적 식민지

19) 유아사 가쓰에(1910-1982)는 1916년 부친이 조선에서 순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근무지인 경기도 수원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되었다. 수원공립심상소학교, 조선총독부립 경성중학교를 졸업하는 등 조선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유아사는 1928년 와세다 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쿄로 이주했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영구 귀환할 때까지 수원에도 집이 있었다. 1935년 4월호 『文學評論』지에 데뷔작 「간난이(カンナニ)」를 발표하고 나서는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면서 작가활동을 했다.

20) 湯淺克衛, 「座談會 朝鮮への郷愁—初秋のよるに語る」, 『親和』59, 日韓親和会, 1958.10, p.3.

21) 오미정, 「고바야시 마사루의 「포드:1927년」론 -중개는 가능한가?-」, 『日語日文學研究』第78輯2卷,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p.330.

22) 梶山季之, 「さらば京城」, 『李朝殘影—梶山季之朝鮮小説集』(川村湊編·解説),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p.209.

경험과 그 '공동책임'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끊임 없이 환기하고자 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텍스트는 일본인 세대 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의 분유와 계승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위치에 서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조선에서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15년 동안 일본인으로서 조선에 있었다. 식민자로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어린애였으니까,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마도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또한 아무런 변명도 되지 못한다. (중략) 역사라는 건 요컨대 그러한 것으로 내가 어린애고 무해했다손 치더라도, 나 혼자만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역사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역사라는 건 그런 흑독한 것이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일본인은 이 역사를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²³⁾

부모 세대의 식민자 의식, 차별의식, 멸시감을 거부하고 그와 결별하는 내면적 실천. 인간이 다시 '괴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전후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위. 본 발표에서 논의해온 식민자 2세 출신자의 문학은, 제국-식민지의 역사를 왜곡하고 내셔널리즘을 선동하는 작금의 일본사회에 들이대는 하나의 안티테제로서 현재도 유효한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23) 小林勝, 「体の底のイメージ」, 『新日本文学』1959年6月号, 新日本文学会, pp.80~81.

여성 식민자의 식민지의식과 그 변천

-제국의 붕괴·귀환을 둘러싸고

히로세 레이코(広瀬 玲子, 홋카이도정보대학)

1. 머리말

식민지 경험을 생각할 때 세대와 성별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식민자 1세의 남성 대부분은 스스로 식민지행을 결정하였다. 이른바 ‘한 밀천 잡으러 간 사람들’로서 관리라 할지라도 그러하였다. 거기에는 본인의 의사가 들어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친족이나 남편을 따라 식민지로 향했던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가족을 형성하였다. 하물며 식민지를 주어진 땅=고향으로 하여 자라난 식민자 2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식민지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한 식민자 2세의 식민지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또한 어떠한 변천을 거치게 될까.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제국 붕괴 때 여성 특유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 등을 생각하면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갖게 된다.

식민자의 정신구조와 제국의식에 관해서는 이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78, 240·242), 윤건차(尹健次 1989, 20·24), 미야케 치사토(三宅ちさと 1993, 62·64), 고길희(高吉嬉 2001, 247·303), 히로세 레이코(広瀬玲子 2013, 19·37) 등의 연구가 있다. 식민자 2세의 의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무라마츠 다케시(村松武司)·하타다 다카시(旗田麿)·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호리우치 준코(堀内純子)가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식민지 경험의 의미를 철저히 규명하여 내부의 제국의식에 맞서 극복·해체하려고 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들로서 이들이 고바야시 마사루·무라마츠 다케시·하타다 다카시·모리사키 가즈에 등이다. 이와는 달리 내면에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호리우치 준코에 관해서는 발표자가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스스로 식민지 경험을 자성적으로 돌아본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존재이며 주목된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나아가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 아래 식민지 생활을 보내었는가 하는 시각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발표자는 경성제1공립고등여학교 동창생을 대상으로 이 과제를 분석하였다.(平子(広瀬), 2012). 나아가 동창생들의 식민지 인식과 식민지주의 극복·해체의 과정을 가설적으로 5개의 타입으로 제시하였다(広瀬, 2014).

본 발표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여성 식민자 2세의 식민지 인식을 밝힌다. 여성 식민자 2세의 눈에 식민지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이 인식은 제국의 붕괴·귀환이라는 경험에 의해 어떻게 흔들리는가, 나아가 전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녀들은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돌아보는가. 이상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긴 안목에서 식민지 인식을 쫓고자 한다. 이처럼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당사자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의 의미를 당사자가 재해석하게 된다. 재해

석을 부추기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사이며,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의 정세=전체사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은 경성공립제1고등여학교(이하 제1고녀)¹⁾ 동창생이다. 지금까지 행한 앙케이트(21명)·인터뷰(16명), 동창회지 『백양(白楊)』(전 59책), 이 외에 동창생이 발표한 저작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가명(A씨 등)은 인터뷰 대상자이며, 앙케이트 회답자에 관해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실명을 적은 것은 저작을 간행한 사람이다.

2. 소녀들의 식민지 인식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자란 소녀들과 피식민자였던 조선 사람들의 접점은 있었을까. 응답자 가운데 여학교 시절 조선인 동급생과 친하게 지낸 사람은 없다. 본래 조선인이 다니는 여학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로서 일본인이 다니는 여학교는 따로 있었다. 따라서 제1고녀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인사회에서 매우 특수한 존재였다. ‘학급에 두 명의 귀족(양반)의 딸이 있었지만 이야기해봤는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학급에 혼자였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다. 다만 스케이트선수였던 사람은 스케이트경기를 통해 다른 학교의 조선인 학생과 우정을 나눴는데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소학교 같은 반에 조선인 여자아이가 있어 그 아이 집에 놀러가서 무척 넓은 저택에 놀랐던(양반의 딸이었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나, 이는 예외적이었다. 설령 학급에 조선인이 있어도 일본인 여학생으로서는 멀리하기 쉬웠던 것 같다.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은 많다. 아버지의 직업관계상 집에 조선인이 드나들었다는 사람, 일하는 사람과 가족 단위로 친하게 지낸 것을 경험한 사람, 신흥주택지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잡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화왔을 때 부르러 가는 등 친하게 지낸 사람 등이 있었다. 단 이러한 교류 가운데 ‘여보’라는 호칭을 깊은 의미도 모른 채 쓴 사람도 있었다.²⁾

식민지에 살면서도 그녀들과 조선인의 접점은 적었다. 동 세대의 조선인과 놀아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지만 그것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李, 1984). 잡거지역은 극히 소수였다. 아소 미호코(阿蘇美保子)는 ‘확실하게 나뉘져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길이 있고 거기서 한 단 낮아져서 조선인 집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J씨는 ‘중심가는 전부 일본인거리였습니다. 종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주변은 좀 무서워서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K씨도 ‘나는 종로 방면은 이상하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략) 역시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안 갔습니다.’ 라고 했다. 종로는 1919년 3.1독립운동의 발상지라서 부모(1세)의 공포의 기억이 거

1) 1908년(메이지 41)년 3월에 경성거류민회의 의결을 거쳐 고등여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즉시 교사 건설에 착수하여 4월 20일에 준공, 4월 25일에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84명이 합격하였다. 제1학년부터 제4학년까지를 4학급으로 편성하여 이튿날인 26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였다. 5월 23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학생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1910년에는 정원을 500명으로 하여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1911년에는 메이지천황의 초상을 하사받았다. 또한 보습과 설치의 허가를 받았다. 1922년(다이쇼 11) 5월 13일에 경성제1공립고등여학교와 경성제2공립고등여학교로 분리되었다. 경성제1공립고등여학교는 정동 1번지 8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학칙을 변경하여 정원 800명·보습과 40명으로 하였다. 이듬해인 1923년에는 보습과를 폐지하고 수업 연한을 5년으로 하여, 정원을 850명으로 하였다. 1945년 10월 폐교 시점에서 졸업생 6065명(1-38회)을 배출하였으며, 재학생 773명이 있었다. 전학생·퇴학생을 제외하고도 6838명의 학생이 여기서 배웠다.

2) 木村健二도 같은 지적을 하였다. 木村(2001,86).

가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상황은 ‘원주민이 사는 지대가 콜론의 거주지대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이 2개의 지대는 대립한다. (중략) 양 지대는 상호 배제원칙에 따르고 있다. 화해는 있을 수 없으며, 한쪽 항은 불필요하다.’ 라는 프란츠 파농의 지적과 일치한다.(파농, 1969, 25)

그녀들이 접한 가장 많은 조선인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응답자 가정의 대부분이 조선인을 고용하였다. 이는 항상 종속하는 존재로서 조선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는 사람을 ‘어머니(기혼여성)’, ‘계집애(젊은 여성)’라고 부르고 고유명사로는 부르지 않았다. 혹은 젊은 여성에게 ‘하나짱’같은 일본풍의 호칭을 붙였다. 일하는 사람은 일개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 같은 건 몰랐다.’ 라고 J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이것이 보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았다.’, ‘일하는 사람 집에 놀러가 맛있는 것을 얻어먹었다.’,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 등의 경험도 ‘거스를 수 없는 종속관계’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배·차별이라고는 느끼게 하지 않는 지배의 구조가 있었다.

조선에 살면서도 조선 요리를 먹지 않았다. 이는 일본인이 현지의 문화·풍속·습관을 경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이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소리로 과장되게 우는 것, 정좌하지 않는 것이 ‘뒤떨어진 것=비문명적’라고 비추어졌다(G씨). 유일하게 그녀들의 가족이 칭찬하면서 받아들인 것은 일하는 조선인이 해주는 김치였다. ‘김치만은 맛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을 식민지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은 응답자 중 3명이었다. ‘학교에서도 부모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학교도 거주구역도 나누어져 있어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이 외국 같았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깨달았다는 사람은 ‘소학교 때는 몰라서 하나의 지방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일부라는 생각이 강했다.’, ‘사이 좋게 함께 살아가자’는 인식이었다.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식민지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3명은 ‘국적은 다르지만 보통 느낌으로 지냈다. 중국인도 상업이나 농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화감 없이 지내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통하는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쓰기는 괴롭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접점이 없고 별로 구분도 안 되었고’ 라는 것이다. 식민지를 식민지라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강력한 식민지 지배가 식민자를 이처럼 맹목적으로 만드는 폭력으로 나타났다고 볼 필요가 있다. 지배의 불가시화이다.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은 이러한 형태로도 관철되었다.

한편, 식민지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식이 나뉜다. 조선인을 확실히 내려다보던 사람은 ‘일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다.’, ‘야마토(大和)민족이 최고이므로 가볍게 보았다.’, ‘일본인의 수하 같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다.’ 라고 하였다. 일본인 우위를 느끼면서, ‘성장하면서 뭔가 지배당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병합이라고 해도 항상 일본 우위이므로 조선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

식민지라고 알고서도 공평하게 교류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어머니가 공평하신 분이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시니까 자연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시다만’, ‘부모님도 나도 인간을 차별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후회없습시다.’ 라고 한다³⁾. 이 두 사람 모두

3)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어떤 일본인이, 자신은 조선인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의 이런 표현이 실은 그 일본인의 우월감을 지탱한다. 여기서 평등

1940년에 실시된 창씨개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창씨개명이라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창씨개명 건은 “왜?”라는 의문과 “심한 일을 한다”고 솔직히 생각하였습니다. 김씨가 가네야마상(金山さん)이 된다거나.’ 이처럼 소녀들은 식민지와 조선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식민지는 식민지 지배의 균열을 보았다. ‘집 밖, 밖에서 하는 노동은 조선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V씨는 수학여행으로 내지에 가서 집 밖에서 잠시 쉬는 노동자가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지 체험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본 것이다. H씨는 내지 수학여행 때 ‘조선에서 온’ 자신들에게 내지사람들이 차별적인 시선을 보낸 것을 굴욕스럽게 여겼다. 내지의 일본인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그리고 이것은 H씨가 조선인에게 차별의식을 품고 있었던 것을 투영한다. 호리우치 준코는 소학교시대의 체험을 기록하였다. 사생회의 아동들이 자고 있는 조선인 부랑자의 손을 밟았는데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는데 막걸리 냄새가 나는’ 남자가 아동들 앞을 가로막고 인술 교사와 자칫 충돌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남자에게 다가가 더듬거리는 조선어로’ 말을 걸어 ‘두세 마디’ 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고 한다. 아동들이 그 내막을 묻자 선생님은 아동들이 모르고 손을 밟았다고 했다는 것,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동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냈다고 한다.⁴⁾

3. 제국의 붕괴와 귀환-흔들리는 식민지 인식

붕괴를 예감한 사람이 있다. 졸업 후 해군무관부에 근무한 O씨는 사령부 앞으로 온 문서를 가장 먼저 개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오키나와전의 종결, 그리고 신형 폭탄(원폭)의 투하를 알았을 때 입에 담을 수는 없으나 패전을 예감했다고 한다. 와가 기미요(和賀君子)는 항공정보대 군속으로서 근무하고 있어 패전을 예감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은 8월 15일을 다양한 형태로 맞이하였다. 와가 기미요는 ‘8월 15일, 임무상 사령부 안 항공청사와 함께 옥쇄하는가 하고 각오하였다. 그런데 해고되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일제 소각, 짐은 배낭 하나, 집에서 가재도 마찬가지로 매일 정원에서 소각작업, 조선인의 반란, 만주, 북조선 사람들을 먼저 귀국시키기 위하여 경성 주재자는 소란스러운 경성에서 귀환을 기다린다.’하고 적었다. 결혼하여 평양 근처의 작은 시골에 피신해 있던 J씨는 ‘전쟁 종결 방송 후 작은 초가집 처마 밑에 본 적도 없는 깃발이 일제히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국기였다. 이토록 엄격한 관의 검열 속에 어디서 어떻게 감추었던 것일까, 무서워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적었다. 이 체험을 통해 조선 민족의 실체를 처음 접한 것이다. 경성여자의전에 진학한 아소 미호코는 뜨거운 하늘 아래서 옥음방송을 들었다. 방송이 끝났을까 말까 했을 때 동기들이 일제히 조선어로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재학생들을 안고 집을 향했으나 거리는 온통 흰색으로 넘쳐났다고 한다. 재학생들은 근로동원 장소 혹은 학교에서 옥음방송을 듣고 믿을 수 없어 ‘청천벽력’으로 받아들였다.⁵⁾ ‘제1고녀 생도로서

도 차별도 같은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동의어가 된다.’ 村松武司(1972,259).

4) 堀内純子「野菊」『静岡新聞』1980.9.6 夕刊.

5) 在1山口久子「戦後五十年に想うこと」『白楊』第46号、1995.10.19. 在1이란 1945년 8월 시점에 1학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의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교사의 말에 따라 서둘러 귀가 하였다.

초지야(丁字屋)백화점의 해군의류창에 배속되게 된 학생은 '밖은 만세, 만세의 소음, 조선 지도원이 커다란 재단가위로 우리들의 어깨에 있는 닳 마크를 잘라버렸다. 무슨 생각으로 집에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 학생은 그 길로 학교에 달려가 선생들과 '천황사진과 중요사진을 소각하고' 눈물을 머금었다.⁶⁾ 총독부 앞에서부터 '만세, 만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초지야 앞에서 만원전차에 매달려 경성역에 간 학생은 '일본인을 때려죽여라'하고 한 명의 조선인이 뛰어든 장면을 목격하고 몸을 던져 하차, 땅 위를 달려 만세,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다리 아래를 빠져나와 요시노초(吉野町)로 달렸다.⁷⁾ 육군조병창에 근무하던 R씨는 패전과 동시에 함께 근무하던 조선인들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사이토 나오코(齋藤尚子)는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齋藤, 1966, 202).

8월 16일 호리우치 준코는 진해에서 경성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있었다. 해군 군속 임무를 해제받아 귀가하는 도중이었다. '역이라는 역은 독립을 축하하는 조선인으로 넘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환호, 폭죽, 분노의 외침으로 역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일본인 승객에 게는 '창을 보지 마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 죽임을 당한다.' 하는 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호리우치는 '커튼을 조금 들어 올려 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구역에서 같은 나이 또래 소년을 발견하였다. 그때 일을 호리우치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일본이 억지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도, 조선인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는지도. 정말로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때 보았다. 소년의 기쁨에 빛나는 눈동자를. 그것은 두터운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 줄기 빛처럼, 오랜 고통의 역사를 나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문득 그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도 분명하게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⁸⁾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충격을 받으면서 귀환을 시작하는데 그것 또한 그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⁹⁾ 식민자에서 귀환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 같은 충격이었으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었다. 하물며 식민자 2세인 그녀들은 조선을 고향으로 하여 자랐기 때문에 '물러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O씨는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시다.', '처음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의식하였습니다.', '자신은 조선인이 되어도 좋으니 남고 싶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응답자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위험이 미칠 가능성 때문에 '집은 문을 잠그고 외출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여자아이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응답자도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일하는 안양에서 패전을 맞았지만 '근처의 불온한 공기는 느끼고 있었지만 조선인 직원이 매일 같이 있어주고 애 봐주는 처녀아이의 가족도와 주어서 불안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였다. 남편의 부하직원이나 일하는 사람의 가족(조선인)의 도움을 받으

6) 38回佐藤和子「38回中村智恵子様をお偲びして」『白楊』第53号、2002.10.23.。同「三十八回卒業証書授与謝辞」『白楊』第54号、2003.10.17. 38회란 제38회 졸업생이라는 의미이다.

7) 在1望月春子「終戦の日の思い出」『白楊』第50号、1999.10.20.

8) 堀内純子「一条の光」『静岡新聞』1980.8.16 夕刊.

9) 일본 여성의 귀환경험에 관해서는, 이연식「패전 후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 여성의 귀환체험-남북간의 지역차를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17』 2009.12 이하 일련의 dsurn가 있다.

며 귀환을 맞았던 것이다. 이처럼 철수할 때까지의 안전이나 식료품 조달로 그때까지 관계 있던 조선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반면, 약탈행위에 직면한 사람도 있었다. Q씨는 패전 후 아버지(병상에 있었음)가 쌓아온 재산관리·분배를 맡고 있던 김상(아버지가 신뢰하고 있던 부하)에게 ‘당신들은 36년 전에 맨몸으로 왔다. 36년간 일본인은 호강했다.’는 말을 들으며 전 재산을(조선인에게) 빼앗겼다. O씨는 조선인들이 집안에 들어와 피아노 등의 가구를 들어내가는(빼앗아가는) 것을 다만 보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반감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아소 미호코는 귀환할 때 조선인의 태도에서 일본인이 한 일(가혹한 지배-필자 주)를 어렵פות이 깨달았다.

내지로 귀국한 응답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내지 사람들에게는 종전으로 전쟁이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종전이 시작이었다.’ 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그녀들의 고뇌에 찬 전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내지로 귀환한 아소 미호코는 일본인이 육체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식민지에서 조선인을 육체노동자로서 낮게 보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노 미즈루(大野美鶴)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본인, 이상한 기분이었다. 짐차를 끄는 사람, 비료통을 지는 사람, 모두가 일본인이었다. 역시 이곳은 일본이다.’ 라고 당시의 느낌을 회상하였다.¹⁰⁾ 호리우치 준코는 하카타(博多)에 도착했을 때 ‘함부로 DDT를 막 뿌렸다.’고 적었다. 더욱 그녀를 절망하게 한 것은 부두 한구석에 ‘침략자인 너희들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굶게 된다.’ 라고 써 붙인 종이였다. 16세의 소녀에게는 가슴을 찢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이때부터 호리우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패전 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16세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라는 것이다. 도쿄에서도 구석진 벽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이 붙어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한다.¹¹⁾ 여기서는 식민자에게만 침략의 책임을 씌워 내지 생활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패전 직후의 풍조를 알 수 있다.

귀환자들에 대한 차별도 가해졌다. 호리우치는, 귀환자인 걸 알면 ‘너희들은 외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폐를 끼치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귀환 후 도쿄제1사범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출신지를 얘기하면 학우가 식민지·귀환자인 자신에게 차별적인 시선을 보냈는데, 그것이 일찍이 자신이 조선인 아이들에게 가졌던 인식이자 태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골로 귀환한 사람은 귀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회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생은 ‘여기저기 전전하며 이사를 해야 했던 것은 귀환자 공통의 것(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이었다.’라는 응답자의 말로 집약된다.

4. 식민지 경험을 돌아보다

귀환 후 전국으로 흩어졌던 동창생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재건하며 살아가기에 바빴다. 동창회인 백양회 재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패전 몇 년 후이며 중심은 전 음악교사였던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였다. 동창회지 『백양(白楊)』이 복간된 것은 1950년¹²⁾, 이후

10) 37B回大野美鶴 「歪んだ青春」 『白楊』 第59号、2008.10.30.

11) 堀内純子에 관해서는 줄고 「植民地から本国へ—ある女性植民者二世の葛藤—」 『移民研究年報』 第19号、2013 참조.

12) 단, 제1-2호는 『しのび草』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제3호부터 『白楊』이 되었다.

연 1회의 총회와 회지 발행이 2008년까지(개교 100주년) 계속되었다. 회원 수는 1979년 7월 30일 현재 국외 재주자를 포함하여 3884명이었다.¹³⁾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1957년에 나타났다. 한국전쟁이 휴전에 이르고 그 후 한일회담이 결렬되는 상황에서였다. 식민지로서 생활한 시대를 와타나베 유리코(渡辺由利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평화는 힘으로 쟁취한 평화였다.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오만, 우리들의 평온한 나날의 그늘에서 작은 분노의 불꽃이 끊임없이 타올랐던 것이다. 거기서 설령 어떠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황무지가 녹색으로 변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단결된 민족의 피는 일체의 은혜를 거부해 온 것이다.

그 젊은 날 품었던 의문, 그것은 조선인의 나라인데 왜 대다수 조선인들이 하층노동자일까 하는 것, 왜 아름다운 시가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가 일본인인가 하는 것, 대학을 나오기조차 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는가 하는 것, 이래도 되는가 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의 의문이 커져 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옛 일본이 수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현대 일본이 그 땅에 보내야 할 것은 모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라는 애정과 경의를 담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¹⁴⁾

이러한 기사와는 반대로 전직 교사들의 뻔뻔스러운 발언도 눈에 띈다.

어서 한일문제가 해결하여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되어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남산 위에서 경성 시가를 내려다볼 수는 없을까. 60만이 넘는 조선인이 자유롭게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안온한 생활을 마음껏 보내는데 우리 일본인은 억류라도 되지 않는 한 한 순간이라도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은 한심한 얘기다.¹⁵⁾

본래 일본과 한국의 병합은 결코 일본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조선은 예로부터 당·송·원·명·청 등을 종주국으로 해 온 사실상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인 이상 한일병합은 자연스러운 귀추로서 결코 일본의 침략 결과는 아니었습니다.¹⁶⁾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무반성, 재일 조선인문제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풍조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와타나베 유리코의 얘기가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에 한일국교회복 방향이 정해질까 말까 할 때 『백양(白楊)』에는 ‘한국여행 여행단 모집중’(긴키(近畿) 투어리스트)이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다.¹⁷⁾ 여행을 환영하는 ‘그리

13) 『白楊』 第30号、1979.10.25.

14) 21回渡辺由利子「玄海を超えて」 『白楊』 第8号、1957.11.10.

15) 大場勇之助「総会雑感同窓会病」 『白楊』 第9号、1958(발행일 기재 없음).

16) 客員石川頼彦「日韓の親善を早く実現したい」 『白楊』 第10号、1959.12.1.。石川는 마지막으로 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7) 『白楊』 第16号、1965.11.15.

운 고향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창생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듬해 『백양(白楊)』에는 노스텔지어 넘치는 한국 방문기가 게재되었다.¹⁸⁾

이 가운데 사이토 나오코는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한 6작품을 모은 『사라진 국기(消えた国旗)』를 간행하여 일본 지배에 의한 조선인의 가난, 황국신민서사·창씨개명의 강요,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 등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그렸다. 사토는 ‘내가 모르는 어두운 부분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생각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齋藤, 1966, 203)

70년대는 식민지 지배를 돌아보는 시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깨달음도 일찍이 등장한다.

저는 언뜻 전쟁중 조선의 젊은 여성에게 기모노를 입히거나 샤미센이나 콘필라프네프네(金毘羅船々) 같은 민요를 가르쳐서 전쟁에 내보낸 이야기를 들었다. 중일전쟁 후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상해에서 나는 그 여자들의 숙소를 보았다. (이하의 부분은 현재의 이야기-발표자) 무엇 때문에 조선인 여성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일본 군대가 중국에서(필리핀에서도) 여학교나 비구니절을 노리고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안내해준 회사분이나 시미즈(남편-발표자)가 웃음거리로 얘기하였으나 나는 그때 일본 남자의 비휴머니즘적인 태도에 놀랐다. 이 무슨 이기적인 이야기인가. 히로시마 피폭자 가운데 조선인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한국에 호소해도 그것은 일본의 책임이라고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을 잊어버린 일본인의 마음을 지금도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30년도 전에 화려한 기모노를 입어 언뜻 일본여성처럼 보였던 그녀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이미 거의 죽었으리라. 일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조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죽임을 당했든지 죽었든지 그 많은 여성들의 원혼이 되 돌아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남자들이 꾀한 나쁜 일에는 항상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¹⁹⁾

이 시미즈 에이코(清水英子)는 남성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자신이 지배의 공범자였다는 의식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미숙하기는 하지만 위안부라는 존재를 깨달았다든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71년에 아오야기 미도리(青柳緑)가 『고종의 자객(李王の刺客)』을 간행하였다. 김옥균을 죽이러 보낸 자객, 홍종우를 주인공으로 하여 한일병합의 내막을 그린 것으로서 픽션이기는 하나 등장하는 일본인은 실재하는 인물이며,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史實)’을 비교적 충실히 다루었다.’고 아오야기는 설명하였다. 아오야기 난묘(青柳南冥)의 딸로서의 식민지 생활은 ‘친애와 선의와 존경이 교차되는 환경이었으니 그 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은 컸다.’, ‘해방 후의 작품은 대체로 일본의 압제 아래의 비참한 삽화뿐이었다. 이민족의 통치를 받은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을까 하고 심판의 채찍을 건디는 마음이었다.’, ‘따라서 원점은 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한일병합이다. 심판의 채찍을 건디며 아픈 가슴의 응어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한일병합이 왜 어떻게 초래되었는가를 나는 어떻게 해서

18) 『韓国訪問記』 『白楊』 第17号、1966.10.25.

19) 15回清水英子 「“ふくざつ”と“うんざり”」 『白楊』 第21号、1970.10.30.

든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고 집필 동기를 설명하였다(靑柳, 1971, 283·284).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켜 ‘과거의 불행한 관계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하였던’ 아오야기는 그 해 방한하였다.

72년에는 동창회의 방향성에 대해 하나의 제안이 있었다. 무카이 미치코(向井道子)는 ‘회원이 얼마씩 돈을 내서 장학제도를 발족시키면 어떨까.’, ‘재일조선인들에게 제공해도 되고 서울에 있는 유능한 학생을 지원하는데 사용해도 좋다.’, ‘동창회 모임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임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노스텔지어에 젖기만 하는 동창회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77년에는 아소 미호코가 식민지생활을 자성적으로 정리한 『우리들의 기록(おいたちの記)』를 자비 출판하였다. 아소는 경성여자의전 재학 중 패전·귀국하여 나라여자대학에 편입하였으나 사회과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사회 구조를 통해 식민지를 인식하였다. 차별적 표현인 줄 모르고 ‘여보’라고 부른 것, 일본인에게 60% 봉급 가산이 있었던 것, 교통관계·행상·청소부는 조선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적혀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조선인에게는 매우 민폐 정도가 아니라 굴욕이었음에 틀림없다. (중략) 내선일체의 미명 아래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조선어를 금지하며, 신사참배 등을 시키고 비판적인 자는 경찰이나 헌병대에 연행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는 전혀 조선어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당시 우리들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다(阿蘇, 1977, 86)

아소의 이 책은 참고문헌에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의 『일본통치하의 조선(日本統治下の朝鮮)』,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조선종전의 기록(朝鮮終戦の記録)』, 김달수(金達壽)의 『조선』을 들고 있는데, 정확히 사실에 입각하였으며, 식민자로서의 반성이 적혀 있다.

80년대가 되자 전직 교원이, ‘종전이란 것이 집도 토지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강제송환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일본 정부의 한국 통치 그 자체가 남의 집에 신발신은 채 쳐들어가서 그대로 눌러앉은 꼴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생각이 얕았던 것이리라.’ 라고 썼다.²⁰⁾ 또한 이케다 마사에(池田正枝)는 40년 전 소학교 교사로서 조선의 아이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성으로 한국에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썼다. 이케다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오로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속죄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²¹⁾ 이케다에게는 죄를 범한 자로서 현재의 한국·한국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으며, 이것이 그녀의 후반생에 관철되었다.

‘침략자인 너희들이 돌아오니 우리가 굶게 된다.’라고 써 붙인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호리우치 준코는 아동문학가로서 『아득한 종소리(はるかかな鐘の音)』를 발표하여, ‘식민자 2세로서 살았던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전부 부정하는 것은 너무도 괴

20) 客員 勝谷初代 「三十八度線から」 『白楊』 第32号, 1981.10.19.

21) 33回 池田正枝 「ボランティアに生甲斐 韓国ハンセン氏病定着のワークキャンプに参加して」 『白楊』 第35号, 1984.10.19.

롭다.’라는 갈등을 적었다(堀内, 1982). 다카오 가즈코(高尾和子)는 『가나코의 해협(かなの海峡)』에서 조선 민족에 대한 식민자 일본인의 노골적인 차별의식을 묘사하면서, 이를 비웃으며 민족의 벽을 가볍게 넘어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아 자신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말하는 가나코라는 존재를 통해 식민자로서의 자기 반성을 표현하였다(高尾, 1984).

아소 미호코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면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 그곳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없는 외국이다. (중략) 전쟁이 끝났을 때 의학도였던 나는 귀국 후 교원생활 32년을 마치고 곧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부터 고향이 아닌 고향, 한국에 관해 너무 모르는 것을 이웃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역사상의 일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들 시대의 책임은 다음 세대 사람들도 함께 저야만 한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자신의 세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어학연수를 위하여 3개월간 유학하였다. 하숙집 주인이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나왔는데 너무도 깨끗한 발음의 일본어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경성여자의전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동창생과도 재회하여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인사를 하여 환영을 받았다.²²⁾

서울을 방문하여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조선총독부가 세워진 의미, 광화문을 부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사람은 ‘다시 방문한 서울에서는 그리움과 더불어 괴로움이 가슴 밑바닥에 깃들었습니다.’라고 적었다.²³⁾ 한국인 동창생과 재회한 요시자와 노부요(古沢伸世)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어렸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식민자의 자녀로서 살며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학교, 여학교에서 배웠다. 독립을 빼앗은 후 언어나 문자 등 그 문화까지도 빼앗아 갔던 식민정책 가운데서 의심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그 나라 분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는 생각하지 못 하였습니다. 진실은 깊이 감추어 졌고 왜곡된 정보에 파묻혀 살아온 유년에서 청춘에 이르는 패전까지의 긴 세월. 귀국, 전후의 혼란 속에 내 눈에 씌었던 것이 점차 벗겨지면서 어느 만큼의 많은 괴로운 진실이 보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를 위해 치른 희생의 무거움²⁴⁾

요시자와는 전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경험을 돌아보는 식민자로서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 겐모치 치에코(劍持千枝子)의 글에서도 엿보인다.

우리들은 한국에게는 ‘한’의 일체 36년간의 한복판에서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메이지 43년)의 한일병합 조인 전년에 한국의 애국자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22) 37A回阿蘇美保子 「韓国に留学して」 『白楊』 第37号、1986.10.

23) 37B回川村泰子 「残った光化門」 『白楊』 第37号、1986.10.

24) 27回古沢伸世 「懐かしい友宋銀璇さん」 『白楊』 第38号、1987.10.19.

메이지정부의 원로 이토 히로부미의 주선으로 개교한 유서깊다고 할 한국으로서는 인연 있는 여학교, 그것이 우리 백양회입니다. 즉, 우리는 한일병합에 따른 일본 통치 아래서 일상적으로 생생하게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의 통환을 우리들은 일본 관헌과 군대의 강한 방어막에 의해 알 수도 없었고 알려주는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²⁵⁾

겐모치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한일친선은 없다고 적었다.

츠노다 후사코(角田房子)의 『민비 암살-조선 왕조 말기의 국모(閔妃暗殺-朝鮮王朝末期の国母)』가 간행된 것은 1988년인데 이듬해에는 ‘일본 침략의 40년이 얼마나 한국인을 상처주고 짓밟았는가. 『민비 암살』을 읽고 나는 놀랐다.’라는 글이 실렸다.²⁶⁾ 또한 ‘어느 나라에게도 독자적인 언어, 풍속, 문화가 있고 그것이 존중되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 일본에서는 자국의 것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무서운 일입니다.’라는 글도 실렸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반성적인 기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쿠오카시(福岡市) 한일우호부인 파견단원으로서 방한한 사람은 ‘우리들은 일본인으로서 과거를 반성, 지금까지 어려운 역사의 어긋남을 넘어 사이 좋게 손을 잡고 아시아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적었는데,²⁸⁾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는가, 역사의 어긋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불명확하다. 이 같은 기사도 종종 눈에 띈다.²⁹⁾

90년대가 되어도 식민자로서의 자성이 보이지 않고 노스텔지어에 젖어있는 문장이 많았다.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도 차별의식은 없었고 김치, 조선 떡, 냉면 등도 매우 좋아한다. 오래 일했던 순아는 종전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귀국하는 날까지 도와주었다. ‘함께 일본에 가고 싶다.’고까지 말해준 따뜻한 마음이 기뻐다. 한국에 살게 해주었는데도 일본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한 것은 나조차도 화가 났다. 한국분들 죄송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정책과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비교하면 너무 졸렬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일본인이지만 조국의 피에 한국 피가 섞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은 없습니다. 정말로 슬픕니다.³⁰⁾

그러나 같은 호에 이케다 마사에가 다음과 같이 썼다.

엠네스티(amnesty) 회원이 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극심한 차별에 놀랐던 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민자로서 같은 짓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일하러 온 중년부인에게 본명도 모른 채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허드렛일을 시켰으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금지하고 일본의 역사를

25) 33回劍持千枝子「柳架の風景 22回青柳緑様を偲ぶ」『白楊』第39号、1988.10.20.

26) 21回渡辺由利子「棕櫚の蠅叩き」『白楊』第40号、1989.10.20.

27) 36回大原 濟「ある歌に思う」『白楊』第40号、1989.10.20.

28) 35回白石慶子「訪韓記」『白楊』第39号、1988.10.20.

29) 「お知らせ 日韓親善に尽くす方たち」『白楊』第38号、1987.10.19. 이 기사는 일한여성친선협회 발족 10년을 알리고 동창생 相馬雪香가 일본측 회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30) 21回鈴木辰子「故郷賛歌」『白楊』第42号、1991.10.17.

가르치면서 조선 역사를 알려고 하는 아이에게 위협한 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시대였습니다. 일본인에게는 60%의 봉급 가산이 이뤄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나는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백인 소녀의 모습,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옛 동기들이 정신대, 즉 위안부의 일로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저이지만 중군위안부문제에도 다가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년엔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동창회에서 꼭 여러분과 이런 문제를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³¹⁾

이러한 형태로 경험을 돌아보는 사례가 늘었다 ‘제작년에 저는 45년 만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한일간의 여러 가지 뿌리깊은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중략) 청춘시대를 그곳에서 보낸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 같은 것을 느낍니다.³²⁾’라는 문장에서도 책임을 불문에 부칠 수 없다는 사고가 보인다.

다카하시 기쿠에(高橋菊江)는 단편 소설집 『빨간 벽돌집(赤煉瓦の家)』을 간행하였다. 작품 의도에 대해 ‘이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자갈길을 삼으로 치면서 걷는 짐마차-말의 험퍽거림,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 등 지금이라도 눈에 선한 조각조각의 기억을 바탕으로 픽션의 힘을 빌려 소녀의 눈에 비친 조선민족의 고녀를 좇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³³⁾ 조선인을 애초부터 ‘성실하지 않다. 게으른 놈’이라고 단정한 아버지와 식민지 지배에 의문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고녀에 마음을 쓰는 큰오빠의 대립, 그리고 큰오빠의 죽음, 일하는 ‘어머니’의 가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해고되는 ‘어머니’가 ‘저에게는 일할 곳도 살 곳도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의 살아가는 것을 빼앗는 것은 당신의 아버님들 일본인들입니다. 영원히 안녕’이라고 한 말 속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담겨있다(高橋, 1996). 사이토 나오코는 ‘언문이라고 경멸하였던 한글을 지금 배우네. 귀환자인 우리가 져던 빛을 갚으며’라고 읊었다.³⁴⁾ 이케다 마사에는 아버지가 고부에서 금융조합에 근무하였던 것에 대하여 ‘국책이라고는 하나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를 빼앗는 일,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나 아버지가 조선인을 괴롭힌 일, 내 가슴 속에서 그 일은 검은 덩어리가 되었다.’고 아버지시대의 책임에 관해 언급하였다.³⁵⁾

2000년에 들어서자 북한과 한국의 대화가 진전되어 해빙되는 징조가 보였다. 와가 기미요는 ‘분단이라는 비극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전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았다. (중략) 아무것도 모르고 북한에서 태어나 경성에서 자랐고, 게다가 나는 일본군의 군속으로서 가해자 입장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³⁶⁾ 그녀는 『잔조모양(殘照模様)』을 간행하였다. 거기에는 와가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조선이란 무엇이었을까’, ‘전쟁이란 무엇이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해온 과정과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31) 33回池田正枝 「ソウルに旅して」 『白楊』 第42号, 1991.10.17.

32) 30回米倉蒼蒲 「宮崎支部だより」 『白楊』 第43号, 1992.10.17.

33) 35回高橋菊江 「短編小説集『赤煉瓦の家』を發刊して」 『白楊』 第47号, 1996.10.

34) 25回齋藤尚子 『白楊』 第48号, 1997.10.23.

35) 33回池田正枝 「身辺雜記」 『白楊』 第50号, 1999.10.20.

36) 34回和賀君子 「統一目指す南北合意の動きに寄せて」 『白楊』 第51号, 2000.10.26. 분단의 책임에 관해서는, 齋藤尚子 역시 「日本人皆引揚げし半島の地図に分断の線引かれるる」라고 읊었다. 『白楊』 第55号, 2004.10.22.

전후 56년간 살아남은 것은 운명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잘된 일일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그것은 역시 살아서 증인으로서 전쟁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여 미래에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조선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교코(京子, 이는 와가 자신-발표자 주) 등 일본인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림과 따뜻한 친근하게 한반도를 바라 보았다. 한국도 북한도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한 시대의 일, 그들의 ‘한’이 깊다는 것도 교 코 등은 조선에 살았던 시대에는 전혀 배우지 않았다. 전후 일본에 돌아가서 조선사인들의 국민운동으로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였다. 조선의 역사도 사람들의 생각도 더욱 이해하여 잘못은 사과하고 이웃나라로서 사이 좋게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和賀, 2003, 117,124·125)

와가는 『들어라 전몰학생들의 목소리를(きけわだつみのこえ)』(초판 1949), 『여성들의 태평양전쟁(女たちの太平洋戦争) 1·3』(1991·92) 등 많은 책을 살살이 읽었다. ‘2001년 와다즈미회(전몰학생회) 8.15집회’에도 참가하였다. 이처럼 읽고 행동하는 가운데 사색을 거듭하였다. 여기에도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있다.

호리우치 준코는 『포도색 노트(葡萄色のノート)』를 간행하여 소녀에게 제기된 식민지 지배의 죄, 조선의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던 부친을 침략자로 단죄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생각과 갈등을 묘사하여 식민지 지배와 개인 책임의 관련 여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 정부의 공범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본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高崎, 1998, 281)’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민자를 ‘국익에 관계했던 침략자라고 단정해버릴 권리가 누구에게 있겠는가. 나라의 방책과 그 가운데 살아간 사람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갖가지 사람이 있었다. 선의의 사람도 있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堀内, 2002, 저자 후기) 라고 말하였다.

다카하시 기쿠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빈부 차이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오랫동안 품어 온 의문이 풀리는 과정을 ‘잔광’에 썼다. 전후 몇 년 지나서 친구가 권해서 읽은 한 권의 책³⁷⁾이 열쇠가 되었다고 한다. 다카하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본과 조선이 식민지 지배라는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관계인 것이 마치 하늘의 구름이 개이듯이 차츰 이해되었다. (중략) 한 마디로 식민지 지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정치·경제·교육·문화·군사·경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모든 면에서 지배와 억압이 가해지는 내용이었던 점, 그 때문에 조선인은 35년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았던 것을 점차 알게 된 것이다. (중략) 자신들 가족의 생활-그것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였던 것을 알게 된 놀라움은 컸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저지른 일본인의 죄를 자신이 어리고 무지했다 해도, 아니 그렇게 때문에 일생을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高 橋, 2008, 139)

동창회지의 마지막 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37) 高橋는 이 책에 관하여, 양케이트에 회답하였으며 「殘光」 가운데 金達壽『ああ朝鮮』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달수의 저작에 『ああ朝鮮』은 없다. 高橋에게 확인해 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高橋의 식민지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명확하게 한 저작을 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식민지라는 의미를 모르는 채 자랐으며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의 생활이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지금 TV에서 보는 한국의 거리가 아름답다워서 방문 해보고 싶지만 아버지도 남편도 사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분들에게 죄송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도 식민지시대에 일본인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³⁸⁾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진 동창생도 확인되는 반면,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패전과 동시에 함께 집에서 일하던 조선인의 태도가 단편으로 변했던 체험을 한 R씨는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게 해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나라가 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쪽(조선-발표자 주)에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젊으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식민지였던 자신을 돌아보는 데까지는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였다.

2010년은 ‘한국 병합 100년’으로서 학회와 언론이 빈번히 다루었다. 이듬해인 2011년 8월에 발표자는 응답자 중 한 사람인 Q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종래의 제 인식이 얽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준 사람들은 잊기 쉬우나 고통받은 분들은 잊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병합 100년 행사가 그녀의 식민지 인식을 다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제국 붕괴·귀환으로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여성 식민지 2세가 경험을 돌아보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 경성제1공립고등여학교 동창생을 분석 대상으로 여성 식민지 2세의 식민지 인식의 변천을 고찰해왔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자라난 그녀들은 조선을 ‘고향’으로 하여 자랐다. 그녀들이 ‘조선은 식민지이다’라는 인식을 갖기는 좀처럼 어려웠다. 부모 세대의 교육 속에 배운 ‘야마토민족의 우수성’, ‘내선융화’ 등의 언사를 통해 혹은 사소한 체험으로 깨닫고 있었다 해도 그 본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배를 불가시화하는 식민지 지배의 폭력이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식민지 인식을 크게 흔들었던 것이 제국의 붕괴와 귀환이었다. 조선은 일본이 아니었다는 알게 되어 그녀들은 고뇌에 찬 체험과 더불어 그것을 받아들여갔다. 그녀들의 생각은 ‘우리들에게는 종전이 시작이었다.’라는 말로 집약된다.

식민지 체험을 자성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일찍이 1950년에 시작되지만 동창회지 기사의 주류는 식민지 지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였다. 60년대에 들어서자 회지 이외에도 저작을 통해 소수이기는 하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자책이 거론되게 되었다. 그 흐름은 70년대에 들어서 분명해지고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이 흐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 경험을 돌아보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스스로 제시한 의문에 맞서 사색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색 과정에서 스스로의 내부에 있는 제국의식을 극복·해체할

38) 26回村田敏 「身辺雑記 思い出すままに」 『白楊』 第59号、2008.10.30.

가능성이 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코 다수파는 아니지만 이러한 여성 식민자 2세의 존재에 희망을 걸고 싶다.

인터뷰 대상자 일람

기수	가명	생년월일	재학기간	졸업 후-패전까지	일하는 사람 유무	인터뷰 실시일	참고	
1	24	A	1915.2	1927.4-1932.3	관립경성사범학교여자연습과→소학교 교사→결혼 후에도 교사	○	2010.6.26	소학교 1학년 때 조부모가 말씀, 경성보통소학교의 교사가 와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반이 있었다, 조선신궁참배는 없었다.
2	24	B	1918.6	1931.4-1938.3	啓星女學院→洋裁學校→총독부 체신국 전기과→미쓰이물산	○	2010.8.24	부산에서 8.15를 맞이함.
3	31	C	1921.11	1934.4-1939.3	조선미국창구(주)총무과	○	2010.5.23	이들 학년까지는 4년차부터 영어과와 가정과로 나뉜다. 조선신궁 참배 시작. 황궁신민서사 제창을 기억, 약혼자 전사
4	32	D	1923.1	1935.4-1940.3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국민총력조선연맹→결혼→함흥고등여학교교사	○	2009.11.22	유골 마중, 군복 수리, 함흥고등여학교 교사로서 패전을 맞음.
5	33	G	1924.5	1936.4-1941.3	여자학습원 고등과 문과	○	2010.3.30	어린 시절 조선으로. 패전 전에 일본으로 귀환. 백의를 재봉.
6	34	H	1924.4	1937.4-1942.3	淸和女塾→경성의전의화학교실 부수→결혼	○	2011.11.5	강당에 모여 위문주머니 제작, 애국자녀단 발족식 기억(1937.12.21. 동아일보에 기사 있음), 辻교장이 부임해서 중간체조 개시. 여순에서 8.15→대련→舞鶴로 귀환, 동학년부터 육군장교의 강연을 듣고 3명이 육군간호부가 됨.
7	34	I	1923.1	1937.4-1942.3	淸和女塾→항공정보대군속(고용 직원)	○	2009.11.23	황궁신민서사 제창을 기억, 군복 수리
8	34	J	1925.7	1937.4-1942.3	압록강수력발전소→결혼	○	2009.8.23	34기생 중 3명이 중군간호부가 됨.
9	35	k	1925.11	1938.4-1943.3	淸和女塾→조선총독부관방인사과에서 회	○	2008.4.28.	高女の 수업료 월7엔(방세가 37엔), 35기생부터 노

					계 담당. 급여54엔→58엔		2009.10.4	동봉사 시작됨. 수확여행도 노동봉사로 대체. 1942.3.3. 梶山교장 부임. 이때부터 중간체조가 없어짐. 경성-인천 40킬로 행군.
10	35	L	1925.12	1938.4-1943.3	일본여자대학 국어과	○	2008.9.13	1940.4부터 일본의 고등여학교에 전학, 황국신민서사를 기억.
11	35	O	1928.3	1938.4-1943.3	彭德高女연구과→해군 무관부	○	2011.6.18	
12	35	P	1928.3	1938.4-1943.3	동경가정학원→町内會→육군 偕行社	×	2009.7.12	소학교 때 조선으로
13	35	Y	1928.3	1938.4-1943.3	동경여자대학	○	2008.11.29	
14	35	Q	1926.1	1939.4-1944.3	총독부 중앙시험소 전기화학부 고용직원. 급여 19원. 비행기 재료가 되는 알루미늄을 분석.	○	2009.8.14	
15	36	R	1925.8	1939.4-1944.3	육군 造兵廠, 급여 30-40엔 정도	○	2010.1.24	
16	37(A)		1927.12	1940.4-1944.3	경성여자의전	×	2009.5.24	梶山교장에 의한 玉振り, 44년까지는 영어 주1-2시간, 학칙 변경으로 4년으로 졸업, 1942-플레이스커트, 1943- 몸빼.

참고문헌

- 青柳緑(1971) 『李王の刺客』 潮出版社
- 阿蘇(橋本)美保子(1977) 『おいたちの記』 自費出版
- 池田正枝(1999) 『二つのウリナラ』 解放出版社
- 梶村秀樹(1978) 「植民地朝鮮での日本人」, 『地方デモクラシーと戦争』 文一総合出版, 327-359의 ち 『梶村秀樹著作集第1卷朝鮮史と日本人』 1992, 明石書店 所収
- 木村健二(2001) 「植民地新義州在住日本人の異文化接触」, 戸上宗賢編 『交錯する国家・民族・宗教—移民の社会適應—』 不二出版
- 高吉嬉(2001) 『<在朝日本人二世>의 아이덴티티 형성—旗田巍と朝鮮・日本—』 桐書房
- 齋藤(野上)尚子(1966) 『消えた国旗』 岩崎書店
- 平子(広瀬)玲子(2012平成21-23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帝国の少女の植民地経験—京城第一高等女学校を中心に』
- 高尾和子(1984) 『かな子の海峡』 皓星社
- 高崎宗司(1998) 『朝鮮の土となった日本人—浅川巧の生涯 増補新版』 草風館
- 高橋菊江(1996) 『赤煉瓦の家』 ドメス出版
- 高橋菊江(2008) 「残光」 『丘陵』 第17号
- 角田房子(1988) 『閔妃暗殺—朝鮮王朝末期の国母』 新潮社
- 広瀬玲子(2013) 「植民地から本国へ—ある女性植民者二世の葛藤—」 『移民研究年報』 第19号
- 広瀬玲子(2014) 「植民地支配とジェンダー—朝鮮における女性植民者—」 『ジェンダー史学』 第10号
- ファノン・フランツ, 鈴木道彦・浦野依子訳(1969) 『地に呪われたる者』 みすず書房
- 堀内(掛場)純子(1982) 『はるかな鐘の音』 講談社
- 堀内(掛場)純子(2002) 『葡萄色のノート』 あかね書房
- 三宅ちさと(1993) 「民衆とアジア—植民者としての日本人と現地民—」 『日本学報』 12
- 村松武司(1972) 『朝鮮植民者ある明治人の生涯』 三省堂
- 尹健次(1989) 「植民地日本人の精神構造—「帝国意識」とは何か—」 『思想』 1989.4
- 李惠恩(1984) 「京城府의 民族別居住地分離에 관한 研究—1935年을 中心으로—」 『地理学』 (大韓地理学会) 第29号
- わがきみよ(和賀君子) (2003) 『残照模様』 新風社

「敗戦後引揚げた日本人の記憶のダイナミズムと植民地・帝国意識」 女性植民者の植民地認識とその変遷

一帝国の崩壊・引揚げを挟んで

広瀬 玲子(北海道情報大学)

はじめに

植民地経験を考えるとき世代と性の違いを無視できない。植民者一世の男性の大半は自ら植民地行きを選択した。いわゆる一旗組であれ、官吏であれそうであった。そこには本人の意思が働いている。これにくらべ女性の場合は自らの選択ではなく、親族や夫に従って植民地に赴いたケースが多数ある。そうして植民地で家族を形成した。ましてや植民地を所与の地＝故郷として育った植民者二世の場合には、本人の意思とはかかわりなく植民地が目の前に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そのような植民者二世の植民地認識はどのように形成されるのだろうか。またどのような変遷をたどるのだろうか。なかでも女性たちの場合は、帝国崩壊時に女性特有の危険にさらされたことなどを考えると、男性とはまた異なる経験を持つことになる。

植民者の精神構造と帝国意識については、すでに梶村秀樹(1978,240-242)、尹健次(1989,20-24)、三宅ちさと(1993,62-64)、高吉嬉(2001,247-303)、広瀬玲子(2013,19-37)らの研究がある。植民者二世の意識については、具体的に小林勝・村松武司・旗田巍・森崎和江・堀内純子に言及されている。これまで明らかにされてきたのは、植民地経験の意味を徹底して突き詰め、内なる帝国意識に立ち向かい克服・解体しようとした、ある意味では突き抜けた地平に立ち得た者であり、これが小林勝・村松武司・旗田巍・森崎和江らである。それとは異なる、内面に葛藤を抱え込んで生きる堀内純子については、報告者が明らかにした。これらの人々は、自らの植民地経験を自省的にとらえ返している点で際立つ存在として注目される。しかしこれは植民地朝鮮で生まれ暮らした、膨大な数の日本人の植民地認識の氷山の一角にすぎない。さらに、普通の人々がどのような認識のもとに植民地生活を送っていたのか、という視角からの研究が求められる。報告者は京城第一公立高等女学校同窓生を対象にこの課題に迫った(平子(広瀬), 2012)。さらに同窓生たちの植民地認識と、植民地主義克服・解体の過程を追い、仮説的に5つのタイプを提示した(広瀬,2014)。

本報告では以上の問題意識に立ち、女性植民者二世の植民地認識を明らかにする。女性植民者二世の目に植民地は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たのか。この認識は帝国の崩壊・引揚げという経験によってどのように揺さぶられるのか。さらに戦後の生を生きるなかで、彼女たちは植民地経験をどのようにとらえ返していくのか。以上の三点に注目したい。つまり長いスパンで植民地認識を追いたい。このように時期を設定する理由は、経験の意味はその時点では当事者がとらえきれないことが多いからである。時を経ることによって、経験の意味を当事者が再解釈することが起きてくる。再解釈を迫るものは当事者の個人史であり、当事者をとりまく社会の情勢＝全体史でもある。

分析対象は、京城公立第一高等女学校(以下第一高女とする)¹⁾同窓生である。これまでにを行ったアンケート(21名)・インタビュー(16名)、同窓会誌『白楊』(全59冊)、これ以外に同窓

生が発表した著作を史料として用いることにする。以下仮名(A氏など)はインタビュー対象者についてのものであり、アンケート回答者については煩雑さを避けるため、いちいちことわらなかつた。実名を記したのは著作を刊行した者である。

2 少女たちの植民地認識

朝鮮で生まれ朝鮮で育つた少女たちと被植民者であった朝鮮の人々との接点はあつたのだろうか。インフォーマントの中で、女学校時代に朝鮮人のクラスメートと親しくした人はいない。そもそも朝鮮人が通う女学校は女子高等普通学校として、日本人が通う女学校とは別にあつた。したがつて第一高女に入学するのは朝鮮人社会の中では極めて特殊な存在であつた。

「クラスに二人の貴族(両班)の娘とかいう人がいましたが、話した事も覚えていません。孤立していました」「クラスに一人なので友人にはなれなかつた」との回答がある。ただスケート選手だつた者は、スケート競技を通じて他校の朝鮮人学生と友情を育み、戦後も継続させていた。小学校の同じクラスに朝鮮の女の子がおり、その子の家に遊びに行き、あまりの広大な屋敷に驚いた(両班の娘だつた)体験を持つ者がいたが、これらは例外的である。たとえクラスに朝鮮人がいたとしても、日本人女学生にとっては敬して遠ざけるというような関係になりがちだつたようである。

父母を介しての間接的接触は多い。父の職業関係の付き合いで家に朝鮮の人々が入り出していたという者、使用人一家と家族ぐるみの親しいつきあひを経験している者、新興住宅地で日本人と朝鮮人の雑居地域だつたので電話の呼び出しなど親しくしていた者などである。ただしこうしたつきあひの中で、「ヨボ」という蔑称を深い意味もわからず使っていた者もあつた²⁾。

植民地に住みながらも彼女たちの朝鮮人との接点は少ない。同世代の朝鮮人と遊んだことがないインフォーマントが大半であつたが、それは居住地が分離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李,1984)。雑居地域はごくわずかだつた。阿蘇美保子は、「はっきり分かれていました。うちの横が道になっていて、そこから一段低くなつていて、朝鮮人の家の屋根が見えました」と語つた。J氏は、「中心街は全部日本人街でした。それで、ショウロ(鐘路)というところがあるのです。あの辺りはちょっと恐くて、家の者に行つてはいけませんと言われていました」と語つた。K氏も「私は、鐘路方面には不思議なことに何となく行つていないのですね。(中略)やはり誰かに言わ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何となくあまり行かなかつたのです」と語つた。ショウロ(鐘路)は1919年の3.1独立運動発祥の地であり、親(一世)の恐怖の記憶がそこへいくことを妨げたのである。こうした状況は、「原住民の住まう地帯は、コロンの居住地帯を補うものではない。この二つの地帯は対立する。(中略)両地帯は、相互排除の原則に従っている。和解はあり得ず、一方の項は余計なのだ」というフランツ・ファノンの指摘に合致する(ファノン,1969,25)。

彼女たちが接した朝鮮人で一番多いのが使用人だつた。インフォーマントの家庭の大半が朝鮮人使用人を雇用していた。これは常に従属する存在としての朝鮮人を目にしてることを意味する。使用人を「オモニ(既婚女性)」「キチベ(若い娘)」と呼び、固有名詞では呼ばない。あるいは若い娘に「ハナちゃん」というような日本風呼称をつける。使用人は一個の人格として扱われていなかった。「オモニの名前なんて知らない」とJ氏は平然と言つたが、これが普通

だったのだろう。したがって「オモニとは仲良しだった」「使用人の家に行きごちそうしてもらった」「親切にしてもらった」などの経験も、「逆らえない従属関係」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これを支配・差別とは感じさせない支配の構造があった。

朝鮮に住みながら朝鮮料理は食べなかった。それは日本人が現地の文化・風俗・習慣を蔑視していたからである。朝鮮人がお葬式の時に「アイゴアイゴ」と言って大きい声で大袈裟に泣くこと、正座をしないことが、「遅れている=非文明的」と映っていた(G氏)。唯一彼女たちの家族が賞賛し受け入れたのが、朝鮮人使用人が漬けてくれるキムチだった。「キムチだけは美味しかった」のである。

朝鮮を植民地だとまったく認識していなかったのはインフォーマント中3名である。「学校でも親たちからもおしえてもらわなかった」「学校も居住区域も分けられていましたので、考えてみた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海のむこうの日本が外国みたいでした」。成長する過程でなんとなく悟ったという者は、「小学校の頃は知らないで一つの地方のように思っていた」「日本の一部との思い込みが強くあり」「仲良く共に暮らしてゆこう」との認識だった。

朝鮮人をどのように思っていたかについて、植民地だとまったく認識していなかった3名は「国籍は違うが普通で暮らしていた。中国の人も商人や農業をやっていたし、違和感なく暮らしていた」「朝鮮の人たちは日本人と同様に心の通うやさしい人と思っていた」「書くのはつらいのですが、全く気にしていませんでした。接点がなく、あまり見分けはつかなかったし」という。植民地を植民地と認識しないゆえにこのような認識を持ちえたともいえるが、強力な植民地支配が植民者をこのように盲目にする暴力として表れていることを見る必要がある。支配の不可視化である。植民地支配の暴力性はこのようなかたちでも貫徹していたのである。

他方、植民地と知っていた者の中では認識が分かれる。朝鮮人を明らかに見下していた者は、「日本人より下だと思っていた」「大和民族が最高なので軽く見ていた」「日本人の手下的存在と感じていた」という。日本人優遇を感じとり、「成長するにつれ、何か支配されているらしい」「日韓併合とは言っても常に日本優遇で、朝鮮人が可哀想だと思っていた」という者もあった。

植民地だと知っていても公平につき合おうという思いの者は、「母が公平な人でどなたとも同じ様につき合っていたので自然に親しみを感じていましたが」。「両親も私も人間を差別することがなかったのでその点は悔いが残りません」という³⁾。この二人が二人とも1940年に実施される創氏改名に対して疑問を述べている。「創氏改名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思っていました」「創氏改名の件は「えっなぜ〜?」という疑問と、「ひどいことをする…と正直思いました。金さんも金山さんとか」。このように少女たちは植民地と朝鮮人に対する多様な認識を持っていた。

少数の植民者は植民地支配の亀裂を見ていた。「戸外、外でする労働は朝鮮人がするものだと思っていた」V氏は、修学旅行で内地へ行き、戸外でひと休みしている労働者が、日本語で話しているのを聞いてショックを受けた。内地体験から日本人と朝鮮人の平等ではない関係を垣間見たのである。H氏は内地修学旅行の際、「朝鮮から来た」自分たちに、内地の人が差別的なまなざしをむけたことを屈辱ととらえた。内地の日本人が、朝鮮にいる日本人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かを示すエピソードである。そしてこのことはH氏が朝鮮人に差別意識を抱え込んでいたことをも照らし出す。堀内純子は小学校時代の体験を記している。写生会の児童たちが、寝ていた朝鮮人浮浪者の手を踏んでしまったので、「肩をいからし、はげしい息づかい

にマツカリの匂いがする」男が児童の前にたちはだかり、引率の教師とあわや衝突という瞬間があった。担任の先生が「男に近づき、たどたどしい朝鮮語で」話しかけ、「二こと三こと」と、男はうなずきながら立ち去ったという。児童たちがそのいきさつを聞くと、先生は、児童たちが知らずに手を踏んでしまったこと、「ごめんね」とあやまったこと、「あやまるのがあたりまえだろう」と、児童たちにさわやかな笑顔を向けたという⁴⁾。

3 帝国の崩壊と引揚げ～ゆらぐ植民地認識

崩壊の予感を感じていた者がいる。卒業後海軍武官府に勤務していたO氏は、司令部宛ての文書を一番に開封する役割を負わされていた。沖縄戦の終結、そして新型爆弾(原爆)の投下を知った時、口には出せないが、敗戦を予感したという。和賀君子は航空情報隊軍属として勤務しており、敗戦を予感していた。

そして彼女たちは8月15日をさまざまなかたちで迎えた。和賀君子は「8月15日、任務上司令部内防空庁舎と共に玉砕かとも覚悟した。が解雇となり、証拠になる物一切焼却、荷物はリュック一つ、家にも家財もタダ同然、毎日庭で焼却作業、朝鮮人の反乱、満洲、北鮮の人達を先に帰すため京城在住者は騒乱の京城で引揚げを待つ」と記した。結婚し、平壤近くの小さな村に疎開していたJ氏は、「戦争終結の放送後ワラブキの小さな家の軒下に見た事のない旗が一勢に出ていた。今の韓国の国旗であった。これ程きびしい官検(ママ)の目の中、どこでどうして隠していたのか、恐ろしくなり、深く考えさせられた」と記した。この体験を通して朝鮮民族のありようにはじめて触れたのである。京城女子医専に進んでいた阿蘇美保子は、炎天下で玉音放送を聞いた。放送が終了するやいなやクラスメートが一斉に朝鮮語で話し始めた。在学証明書を抱えて家に向かったが、街頭は白一色に溢れていたという。在校生たちは、勤労働員の場で、あるいは学校で玉音放送を聞き、にわかには信じられず「青天の霹靂」と受け止めた⁵⁾。「第一高女の生徒としての誇りを忘れず毅然として帰宅するように」と教師に告げられ、小走りに帰宅した。

丁字屋百貨店の海軍衣料廠に配属になっていた生徒は、「外は、マンセイ、マンセイの騒音、朝鮮の指導員の方が、大きな裁断ばさみで、私たちの腕に付けた錨のマークを切り落としていく。どんな思いで家路についたこととございましょう」と記した。この生徒はこの足で学校へ駆けつけ、先生たちと「ご真影や重要書類を焼却し」涙にくれた⁶⁾。総督府前から「マンセイ、マンセイ」の声が聞こえる中で、丁字屋前から鈴生りの人を乗せた電車にぶら下がり、京城駅に行った生徒は、「日本人を叩き殺せ」と一人の朝鮮人が乗りこむ場面に遭遇し、身を翻して下車、地面をはってマンセイ、マンセイと叫ぶ集団の脚の隙間をくぐり、吉野町へと走った⁷⁾。陸軍造兵廠に勤務していたR氏は、敗戦と同時に一緒に働いていた朝鮮人の態度がコロリと変わったと語った。齋藤尚子は「日本人は日本に帰れ」といわれて初めて、日本人と朝鮮人は別の国民であることに気づいた(齋藤,1966,202)。

8月16日、堀内純子は鎮海から京城へ向う列車にいた。海軍軍属の任務を解かれ帰宅する途中だった。「駅という駅が独立を祝う朝鮮人であふれ」白いチョゴリの人々の「歓呼、爆竹、怒号に、駅は沸き返っていた」。日本人乗客に対しては、「窓を見るな。目を合わせるな。殺されるぞ」と注意が飛んでいた。しかし堀内は「カーテンをちょっぴり持ち上げて、外をのぞいて見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そして大邱駅で同じ年ごろの少年を見つける。そのときのこ

とを堀内は次のように回想する。

何も知らない私だった。日本がむりやり朝鮮を統治していたことも、朝鮮人がどんなに独立を切望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も、ほんとうにつゆほども考えてみたことのない私だった。だが、私はこの時みたのである。少年の喜びに輝くひとみを。それは厚い雲間からさしこむ一条の光のように、永い永い苦しみの歴史を、私に感じとらせたのである。ふと、彼の目が私をみた。そして私も、はっきりとその目を見返した⁸⁾

このように、さまざまなかたちで衝撃を受けとめながら引揚げが始まるのだが、それもまた彼女たちには受けとめがたいことだった⁹⁾。植民者から引揚げ者になることは、天と地がひっくり返るほどの衝撃であり、転落であったからである。それにもまして、植民者二世の彼女たちは朝鮮を故郷として育っていたがゆえに、「引揚げる」ということが理解できなかった。O氏は「引揚げなければならない事がびんと来ませんでした」「はじめて日本人と韓国人の違いを意識しました」「自分は朝鮮人になってもいいから残りたかった」という。このような思いは多くのインフォーマントが共有していた。また、身に危険が及ぶ可能性から、「家には鍵をかけ外出できなかった」。父から「女の子は家から外に出てはあぶない」と言われたインフォーマントもいた。A氏は夫の勤務先の安養で敗戦を迎えたが、「土地周辺の不穏な空気は感じていたが、朝鮮人職員が連日詰めていてくれ、子守の娘の父兄も来てくれ、不安なく生活できた」と述べた。夫の部下や使用人家族(朝鮮人)に助けられて引揚げを迎えたわけである。このように、引揚げまでの安全や食料調達で、それまでつながりがあった朝鮮人に助けられた者は多い。

反面、略奪行為に直面した者もいた。Q氏は敗戦時、父(病床にあり)が築いた財産管理・分配を引き受けていた金さん(父が信頼していた部下)に「あなたたちは36年前裸で来たのだ。36年間、日本人が良い思いをしてきた」と言われ、全財産を(朝鮮人に)奪われた。O氏は家の中に朝鮮人が上がりこみ、ピアノなどの家具を運び出していく(奪っていく)のをただ見ていたが、不思議と反感はなかったという。また阿蘇美保子は引揚げ時の朝鮮人の態度から、日本人のしてきたこと(苛酷な支配一筆者注)にうすうす気づいた。

引揚げたインフォーマントたちが一様に言うのは、「内地の人たちにとっては終戦で戦争が終りだったかもしれないけれど、私たちにとっては終戦が始まりだった」ということばである。それは帝国の崩壊とともに、彼女たちの苦渋に満ちた戦後が始まったことを意味している。

内地に引揚げた阿蘇美保子は、日本人が肉体労働をしているのを見て、植民地では朝鮮人を肉体労働者として低位に置いていたことに初めて気づいた。大野美鶴は、「道で会う人々の誰もが日本人、不思議な気持ちがあった。荷車を曳く人、肥桶を担ぐ人、皆日本人である。やっぱり此処は日本なのだ」と、当時の気持ちを回想する¹⁰⁾。堀内純子は、到着した博多で「やたらにDDTをかけられた」。さらに彼女を打ちのめしたのは、埠頭の片隅にあった、「侵略者のおまえらがかえってくるから、われわれが餓える」という貼り紙だった。16歳の少女にとって胸を突き刺される痛みだった。このときから堀内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認識し始める。

「敗戦後、いろいろな人に聞きました。16歳でした。ショックでした」という。東京においても壁の隅などに同様の貼り紙を幾度も見たという¹¹⁾。ここには植民者のみに侵略の責任を負わせ、内地生活者にはその責任はないという敗戦直後の風潮が見て取れる。

引揚げ者に対する差別も降りかかった。堀内は、引揚げ者だとわかると「あんたらは外地で好きなことして迷惑かけて生きてきたんだから、これからは苦勞して当然だ」といわれた。帰

還後東京第一師範学校に入学したが、出身地を話すと学友が植民者・引揚げ者としての自分に差別的なまなざしを向け、それはかつて自分が朝鮮人の子どもに対していた意識であり態度であったと悟ったという。田舎に引揚げた者は、引揚げ者に対する差別的な視線に耐えきれず、都会へ居を移すものが多かった。その苦勞は、「転々と引越し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殆どの引揚者共通(プライドも何もあったものでは無かった)」というインフォーマントの言葉に集約されている。

4 植民地経験をとらえ返す

引揚げ後全国に散った同窓生たちは、家族と共に生活を再建し、生きることに忙殺された。同窓会である白楊会再建の動きがおこるのは敗戦の数年後であり、中心は元音楽教師の大場勇之助であった。同窓会誌『白楊』が復刊したのは1950年¹²⁾、以後年1回の總會と会誌の発行が2008年まで(開校100周年)継続した。ちなみに会員数は1979年7月30日時点で、国外在住者を含めて3884名であった¹³⁾。

植民地支配への反省は1957年に現れた。朝鮮戦争が休戦となり、その後日韓会談が紛糾するさなかである。植民者として生活した時代を渡辺由利子は次のように書く。

今にしておもえばその平和は力をもってかちとった平和であった。それを平和だと思った私達の傲慢、私達のだよかな日々の陰に小さな怒りの火がたえまなくいぶしつづけていたのである。そこで例えどのように善い政治がなされ荒地をみどりにかえ産業を起し文化的に向上した生活を約束したとしても団結した民族の血は一切の恩恵を拒否しつづけていたのであった。

あの若い日に抱いた疑問、それは朝鮮の人の国であるのに、なぜ大多数の朝鮮の人達が下層労働者であるかという事、なぜ美しい市街の中心を占めるのは、殆んどが日本人であるかという事、大学を出てさえ彼らに、希望をもって働けるような責任あるポストは殆どなかったという事、こんな事でよいのかと歳をとる毎に私の疑問が大きくなって行った。

長い勝れた歴史の中から古い日本は数限りない影響をうけた事をおもえば、現代の日本が彼地へ贈るべき数々のものは、すべてのしをつけて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愛情と敬意をこめたものでなくてはなるまい¹⁴⁾

こうした記事の反面、元教師たちの臆面もない発言も目立つ。

早く日韓問題も円満解決して自由に交流が出来るようにならないものか、そして今一度南山の上から、あの京城の市街を眺められないものか、六十万余の朝鮮人が自由に日本国内に居住し、安穩な生活を恣にして居られるのに我々日本人は抑留でもされない限り、一寸たりとも彼の地を踏めないことは情けない話だ¹⁵⁾

抑々日本と韓国との併合は、決して日本の侵略に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中略)朝鮮は昔から唐・宋・元・明・清等を宗主国として来て真に独立国であ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所詮独立ができぬ小国である以上、日韓の併合は自然の帰趨で、決して日本の侵略の結果ではありません¹⁶⁾

植民地支配への無反省、在日朝鮮問題への無理解があらわれている。むしろこうした風潮が支配的だったといえるだろう。だからこそ先の渡辺由利子のことばは貴重なものといえる。

1965年に日韓国交回復の方向が定まるやいなや、『白楊』には「韓国の旅 旅行団募集中」(近畿日本ツーリスト)の広告が載った¹⁷⁾。旅行を歓迎する、「なつかしい故郷を訪ねたい」と

いう気分が同窓生間にあ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翌年の『白楊』にはノスタルジー溢れる韓国訪問記が載っている¹⁸⁾。

このようななかで齋藤尚子は植民地時代を背景にした6作品を集めた『消えた国旗』を刊行し、日本の支配による朝鮮人の貧しさ、皇国臣民誓詞・創氏改名の強要、1936年オリンピックマラソン優勝者孫基禎選手の日章旗抹消事件など、植民地支配の実態を描いた。齋藤は、「わたしの知らない影の部分、知りたいと思いました。わたしはいっしょうけんめいに考え、本も読みました。すると、こんどはどうしても書かずにいられなくなりました」と述べている(齋藤,1966,203)。

70年代は植民地支配へのとらえ返しの助走期間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従軍慰安婦」への気づきが早くも登場する。

わたしはふっと戦争中朝鮮の若い女に和服を着せたり三味線をコンピラフネフネなんか教えて戦争に行かせた事を聞いた。支那事変後インドからの帰えり(ママ)に上海で私はその女たちの宿舎を見た。(以下の部分は現在の話—報告者注)何の為に朝鮮人の女を送らねばならなかったか?それは日本の兵隊が支那で(フィリピンでも)女学校や尻寺を一つの目的にして戦争を進めて行ったからその予防の為だったそうだ。案内して下さった会社の方や清水(夫—報告者注)たちは笑い話にして居たが、私はその時つくづく日本の男のヒューマンイズムのない事に驚いた。何と得手勝手な話だろう。広島に被爆者の中に朝鮮人がいて、今だに何も日本の政府からしてもらえないので、韓国に訴えてもそれは日本の責任だと取り合って呉れないそうだ。戦争を忘れてしまった日本人の心を今更の様に情けなく思う。私は三十年も前に派手な着物を着一見日本の女の様に見えた彼女たちの姿が忘れられない。もうほとんどがしんでしまったであろう。日本を恨み、呪い、朝鮮の故郷を想いながら殺されたか死んだかその沢山の女たちの怨念でもふりかかって来るのは当然だろう。男の人たちがたくらむ悪事は常に女が被害者になる¹⁹⁾

この清水英子は、男性の責任を問うているが、自分が支配の共犯者であったという意識には到達していない。その意味での未熟さはあるが慰安婦という存在に気づいた点に注目したい。

71年には青柳緑が『李王の刺客』を刊行した。金玉均の刺客、洪鐘宇を主人公にして、日韓併合の内幕を描いたもので、フィクションではあるが、登場する日本人は実在した人物であり、「彼らの思想と行動」については、「史実を比較的忠実に踏まえたつもり」と青柳は述べる。青柳南冥の娘としての植民地生活は、「親愛と善意と尊敬の交錯した環境であっただけに、その後、真実を知ったときの驚きは大きかった」。「解放後書かれた大ていの物語は、日本の圧制下の惨めな挿話ばかりだった。異民族の統治を受けたことが、すべての不幸の原因であったかと、裁きの鞭に堪える思いだった」。「したがって、原点はその悲惨な結果を招いた、日韓併合である。裁きの鞭に堪え、疼くような胸のしこりのはけ口としても、日韓併合は、なぜ、どのようにして招来されたかを、わたしはどうしても詮索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執筆の動機を述べている(青柳,1971,283-284)。この作品には韓国側から反響があり、「かつての不幸な関わりゆえに、韓国に行きそびれていた」青柳は、同年訪韓を果たしている。

72年には同窓会のあり方に一つの提案がなされた。向井道子は、「会員がいくばくかの拠金をなし、奨学制度を発足させてはどうだろうか」「在日朝鮮人に提供されてもよいし、在ソール(ママ)の有能な学生を育てることに使われてもよい」「同窓会の集りが過去を懐かしむ会に終わらないために、ぜひ実現をみたいものだと思う」と記した。ノスタルジーに浸るだけ

の同窓会をもっと建設的なものにしようという提案であった。しかしこの提案に対する反響はなかった。

77年には阿蘇美保子が植民地生活を自省的にまとめた『おいたちの記』を自費出版した。阿蘇は京城女子医専在学中に敗戦・引揚げとなり、奈良女子大学に編入したが、社会科学の洗礼を受け、社会の構造から植民地を認識していった。差別語と知らずに「ヨボ」と呼んだこと、日本人への6割加俵があったこと、交通関係・行商・清掃人は朝鮮人のする仕事だと思ってい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さらに以下の様に述べている。

朝鮮人にとっては大へんな迷惑どころか、屈辱だったに違いない。(中略)内鮮一体の美名の下に、創氏改名を強制し、朝鮮語を禁止し、神社参拝などにかりたて、批判的なものは、警察や憲兵隊に連行するという風であった。だから、街頭では、まったく朝鮮語がきかれなくなった。当時私たちは、政治的にはまったく無知であったから、何とも思わずすごしていたのである(阿蘇,1977,86)

阿蘇のこの本は、参考文献に山辺健太郎『日本統治下の朝鮮』、森田芳夫『朝鮮終政の記録』、金達寿『朝鮮』をあげているように、正確に史実を踏まえて書かれており、植民者としての反省が述べられている。

80年代になると元教員が、「終戦とは家も土地も奪われようとは思わなかったし、まして強制送還されよう等とは思っても見なかった。しかし、考えてみれば、日本政府の韓国統治そのものが、他人の家に土足で踏み入ってそのまま居座った様なものであるから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私どもの考えが甘かったことになるであろう」と書いた²⁰⁾。また、池田正枝が、40年前小学校教師として、朝鮮の子女に植民地政策を無意識におしつけたことへの反省から、韓国へボランティアに通う様子を書く。池田は「観光目的で韓国を訪問したことは一度もない」と、ひたすら植民地支配の罪をつぐなう行動を続ける²¹⁾。池田には罪を犯した者として、現在の韓国・韓国国民に対して責任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強い使命感があり、これが彼女の後半生を貫いていく。

「侵略者のおまえらがかえってくるから、われわれが餓える」という貼り紙に衝撃を受けた堀内純子は、児童文学者として『はるかな鐘の音』を発表し、「植民者二世として生きた自己を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全否定することはあまりにつらい」という葛藤を書いた(堀内,1982)。高尾和子は『かな子の海峡』で、朝鮮民族に対する植民者日本人の露骨な差別意識を描きながら、それを喰い、民族の壁を軽々と越えて男女関係を結び、子をなし、自分は「コスモポリタン」というかな子という存在を示すことによって、植民者としての自省を表した(高尾,1984)。

阿蘇美保子は韓国語の学習を開始するが、その気持ちを以下のように述べる。

私には故郷がない。そこはもはや、平然と顔をあげて歩くことはできない外国である。(中略)敗戦時、医学生だった私は、引揚げ後、教員生活32年で退職、直ちに韓国語を習い始めた。というのも、かねがね、故郷でない故郷、韓国について、あまりにも知らず、隣人として恥ずかしいと考えていたからであり、又、すでに歴史上のこととなったとはいえ、今なお終わったとはいえない植民地朝鮮の人々に対する贖罪の気持ちがあったからである。父祖の時代の責任は次代の者も又、負うべきもの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分が子供の頃に何がされてきたのか

ここでは植民地支配の責任を自らの世代が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確に述べている。彼女は語学研修のため三か月留学した。下宿の女主人が京城女子師範学校を出ており、そのあまりにきれいな日本語に衝撃を受けている。このときかつて京城女子医専で一緒に学んだ同窓生と

再会し、たどたどしい韓国語で挨拶し、歓迎を受けている²²⁾。

ソウルを訪問し、光化門と景福宮の間に朝鮮総督府が建造された意味、光化門を取り壊す動きがあったことを初めて知った者は、「再訪ソウルはなつかしさとともに、苦いものが胸の底によどみます」と記した²³⁾。韓国人の同窓生と再会した古沢伸世は次のように記す。

私は子供だったとはいえ、韓国に植民者の子女として住み、深い青空の下美しい自然の中で、小学校、女学校と学んで参りました。その独立を奪った後、言語や文字などその文化まで奪って行った植民政策の中で、疑うことも知らず、お恥ずかしい程の無知のまま過ごして来ました。ましてその国の方々の深い心の傷までは思い至る事が出来ませんでした。真実は深く隠され、歪められた情報に埋もれて過ごして来た幼年から青春へと敗戦までの長い年月。引揚、戦後の混乱の中に私の目の鱗は次第に落ちて行きどれだけ沢山の苦い真実が見えて来たことでしょう。そしてその為に払われた犠牲の重さ²⁴⁾

古沢は戦後の生を生きるなかで「目から鱗が落ち」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てきたと語っている。経験のとらえ返しが植民者としての自省を促している。

同様なことは剣持千枝子の文章からもうかがえる。

私たちは、韓国にとっては<恨(ハン)>の日帝三十六年間の真只中に、ソウルにいたことになります。1910年(明治43年)の日韓併合調印の前年に、韓国の愛国者安重根に撃たれた明治政府の元老伊藤博文の肝入りで開校した、由緒あるというべきか、韓国にとっては因縁つきの女学校、それがわが白楊会なのです。つまり、私たちは日韓併合による日本統治下の、そのお膝元で確かに日常的に、また生なましい韓国の現実を見て育ったのです。しかし当時の韓国の痛恨を、私たちは日本の官憲と軍隊の分厚いガードによって、知る術もなかったし、知らせる教育もされてはこなかったのです²⁵⁾

剣持は史実を正しく知ることなく真の日韓親善はないと書いている。

角田房子『閔妃暗殺—朝鮮王朝末期の国母』が刊行されたのは1988年であるが、翌年には「日本の侵略の40年はどんなに韓国人を傷つけ、ふみにじったか、「閔妃暗殺」をよんで私は慄然とした」という文が載っている²⁶⁾。また、「どんな国にも独自の言語、風俗、文化があり、それらが尊重されるべきは当然であるのに、当時の日本では自国のものを頂点にする思い上がった考えがまかり通っていました。今思えば恥かしくも恐ろしいことです」という文も載った²⁷⁾。

しかしこのような自省的記事ばかりではない。福岡市日韓友好婦人の翼派遣団員として訪韓した者は、「私共は、日本人として過去を反省、今日までのむづ(ママ)かしい歴史のずれをのり越え、仲良く手を携えてアジア発展のために協力して行かねばと感じた次第です」と記しているが²⁸⁾、何をどう反省するのか、歴史のずれとは何を指しているのかは不明確である。このような記事も散見される²⁹⁾。

90年代になっても、植民者としての自省が見られず、ノスタルジーに浸る文章も多い。歴史の真実に迫りえない、以下のようなものもある。

韓国の人に対しても差別感は無かったし、キムチ、朝鮮餅、冷麺等も大好き。長く居てくれたスーナーは、終戦になっても帰宅せず、引揚げの日迄手伝ってくれて。「一緒に日本に行きたい」と迄言ってくれた暖かい心遣いも嬉しかった。韓国に住まわせて貰い乍ら、日本名への改姓、日本語使用私でさえ腹立たしい政策でした。韓国の方ごめんなさい。英国の植民地政策と日本のそれとを較べると誠に拙劣だったのですね。私は純粋の日本人ですけれど、遠い祖国の血に韓国の血が交って居るのかしらと思う程、韓国が好きです。でももう私の帰省できる

故郷は無いのです。本当に悲しいことです³⁰⁾

しかし、同じ号に池田正枝が以下の様に書いている。

アムネスティ会員になって、南アでの差別のひどさに愕然とした日、考えれば私達が植民者として同じ事をしてきた事に気がつきました。幼児を家庭に残したままの中年婦人を本名も知らずとしないうま「オモニ」と呼んで下働らきを平気でさせていた事、学校では子ども達に朝鮮語禁止、日本の歴史を教えるも朝鮮の歴史を知ろうとする子どもは危険児のレッテルを貼る時代でした。日本人には六割の加俸がつきました。テレビ画面で観た「私は黒人を差別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と叫んだ白人少女の姿、それは私達そのままでした。無知だったのです。ソウルでかつての教え子達が挺身隊慰安婦ということで苦しんでいるのを知りました。あと僅かの人生の私ですが、従軍慰安婦問題にも取り組んでいこうと心にきめました。来年、福岡での同窓会に、ぜひ皆さんと、こうした事を考える時間が欲しいと思います³¹⁾

このようなかたちで経験のとらえ返しが強まっていく。「一昨年私は45年ぶりにソウルを訪ねましたが、あの当時には思い及ばなかった日朝韓の様々の根深い問題を改めて考えさせられました。(中略)青春時代を彼の地に過した私達には、次の世代に語り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の様なものを感じます³²⁾」との文章からも、責任を不問に付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思考が見えてくる。

高橋菊江は短編小説集『赤煉瓦の家』を刊行した。その意図を、「これは、炎天下の砂利道をスコップで連打されながら歩む荷馬車——その馬のあえぎや、優しかったオモニの面影など今も目に焼きついているきれぎれの記憶をもとに、フィクションの力を借りて、少女の目の底に写った朝鮮民族の苦悩を探ろうと試みたものです」と記している³³⁾。朝鮮人を、はなから「真面目さが無い。生来なまけ者」と断じる父と、植民地支配に疑問をもち、朝鮮民族の苦悩に思いを寄せる長兄の対立。そして長兄の死。使用人オモニの貧しさと、ある事件を契機に父に解雇されるオモニの、「ワタシニハ ハタラクトコロモ スムトコロモ アリマセン。ワタシトワタシノムスコタチノ イキルコトヲウバウノハ アナタノオトウサマタチ ニホンジンデス。エイキウニ サヨウナラ」という言葉には、植民地支配への強烈な批判が込められている(高橋,1996)。齋藤尚子は「諺文と蔑みしハングル今学ぶ引揚者われに時貸し給へ」と詠んだ³⁴⁾。池田正枝は、父が古阜で金融組合に勤務していたことについて、「国策とはいえ、農民にお金を貸しては土地をとりあげる仕事、父に問うたことはないが、父は朝鮮の方を苦しめた、私の胸の中ではその事は黒い塊になっていた」と、父祖の代の責任へも言及した³⁵⁾。

2000年に入ると北朝鮮と韓国の対話が進み、雪解けの兆しが見られた。和賀君子は、「分断の悲劇の遠因は日本にある…と戦後になってやっと私達は知った。(中略)何も知らず北朝鮮で生れ、京城で育ち、しかも私は日本軍の軍属として加害者の立場にあった」と記した³⁶⁾。さらに『残照模様』を刊行した。そこには和賀が半世紀以上かけて、「朝鮮って何だったんだろう」「戦争って何だったんだろう」と考え続けた過程と思いが綴られている。そして次のように記す。

戦後56年生き残って来た事は運命かもしれないが之で良かったのだろうか?何か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事、それはやはり生き証人として戦争の過ちを語り継いで、未来に繋ぐことかと思う(中略)朝鮮に生まれ育ち暮らして来た京子(これは和賀のこと—報告者注)達日本人は、殊の外望郷の思いで懐かしく暖かく親しく朝鮮半島を見つめて来た。韓国も北朝鮮も日本が植民地統治した時代の事、あちらの人びとの「恨」の思いが根強いことも、京子たちは在鮮時代何一つ教わらなかった。戦後日本に引き上げてから、朝鮮の人達の国民運動で初めて知った

位だ。朝鮮の歴史も人々の思いも、もっと理解し過ちは謝り、隣国として仲良く交流して行きたいものと思う(和賀,2003,117,124-125)

和賀は『きけわだつみのこえ』(初版1949)、『女たちの太平洋戦争1-3』(1991-92)など多くの本をむさぼるように読んだ。「2001年わだつみ会8.15集会」にも参加している。このように読み、行動するなかで思索を重ねていった。ここにも責任に向き合おうとする姿勢がある。

堀内純子は『葡萄色のノート』を刊行し、少女につきつけられた植民地支配の罪、朝鮮の山に木を植える仕事をしてきた父を、侵略者として断罪されることへのわりきれない思いと葛藤を描き、植民地支配と個人の責任の関連如何を提起した。「日本政府の共犯者であるという責任から免れられる日本人は、ただの一人として存在しえなかった」(高崎,1998,281)ことを承認しながらも、植民者を、「『国益にかかわった侵略者』とくくってしまう権利がだれにあるのだろう。国の方策と、そのなかに生きた人を一緒にしてはいけません。いろいろな人がいた。善意の人だった。それをきちんとすることは大切な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堀内,2002,あとがき)と述べた。

高橋菊江は「朝鮮人と日本人の貧富の差は何故?」という長い間抱き続けてきた疑問が氷解する過程を「残光」で書いた。戦後数年してから友人に勧められて読んだ、一冊の本との出会い³⁷⁾がそれであったという。高橋は次のように記した。

日本と朝鮮が、植民地支配という日本と朝鮮の不条理で不平等な関係であることが、まるで曇り空が晴れてくるように次第に理解されてきた。(中略)一言で植民地支配と言われているが、その内容は、政治・経済・教育・文化・軍事・警察など多岐にわたり、あらゆる面からの支配と抑圧が加えられる内容であること、そのため、朝鮮人は三十五年の間、言葉に尽くせない苦痛を味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漸く分かっていったのである。(中略)自分たち家族の生活——それが自国の利益だけを追求した日本の朝鮮にたいする「植民地支配」の結果であったことを知った驚きは大きかった。父や兄たちの犯した日本人の罪を、幼くそして全く無知な自分であったにせよ、いやそれだけにこれからは一生背負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高橋,2008,139)

同窓会誌の最終号にも以下のような文が寄せられた。

植民地という意味も分からないまま育ち、太平洋戦争が起ってから今迄の生活が砂上の楼閣であったことを思い知らされました。(中略)今テレビで見る韓国の町は美しく訪ねてみたいと思いますが、父も主人も司法に携わる仕事をしていましたので韓国の方々には申しわけなく行ってはいけないと心に決めています。今でも植民地時代に日本人と親しくしていた方々が罪人扱いされていると聞き心が痛みます³⁸⁾

このような自責の念を持つ同窓生も確認される反面、経験を総括しきれない者もいる。敗戦と同時に一緒に働いていた朝鮮人の態度がコロリと変わる体験をしたR氏は、「朝鮮語を使うのを止められて、日本語を習わせられたり、日本名に改名させられたりしたから、悪かったなと思います。私達ではなく国がしたのだけれども」「そうですね。向こう(朝鮮—報告者注)に居られたらまだ良かったかもしれないけれど。まあ、負けてしまったのだからそれを言っても仕方が無いです」と語った。植民者であった自己をとらえかえすところまではなかなか行き着かない地点にいる。

2010年は「韓国併合100年」で、学会・ジャーナリズムで盛んに取り組みが行われた。翌2011年8月に、報告者はインフォーマントの一人Q氏から書簡を受け取った。そこには、「併

合100年にあたって従来の私の認識の甘さを知りました」「痛みを与えた方は忘れ易く、与えられた方は忘れ難かったと思います」と書かれていた。併合100年の催しが彼女の植民地認識を再考させる契機になっていた。このように帝国崩壊・引揚げから今日にいたるまで、女性植民者二世の経験のとらえ返しは継続している。

5 おわりに

以上、京城第一公立高等女学校同窓生を分析対象に、女性植民者二世の植民地認識の変遷を考察してきた。

植民地で生まれ育った彼女たちは、朝鮮を「故郷」として育った。その彼女たちにとって、「朝鮮は植民地である」という認識はなかなか獲得しがたいことであった。親世代や教育のなかで教えられる「大和民族の優秀性」、「内鮮融和」などの言辭を通じて、あるいは小さな体験から気づいていたとしても、その本来の意味を知ることが不可能であったといえる。支配を不可視化する植民地支配の暴力が貫徹していたからである。

その植民地認識が大きくゆさぶられたのが、帝国の崩壊と引揚げであった。朝鮮は日本ではなかったとつきつけられて、彼女らは苦渋に満ちた体験とともにそれを受け入れてゆく。彼女たちの思いは、「私たちににとっては終戦が始まりだった」ということばに集約される。

植民地経験の自省的とらえ返しは、早くは1950年代に始まるが、同窓会誌の記事の主流は、植民地支配の罪に無自覚なものであった。60年代にはいると、会誌以外にも著作を通じて、わずかではあるが植民地支配への自責の念が語られるようになる。この流れは70年代にはいるとはっきりとしたものになり、80年代から90年代にかけては主張者の数も増えて行った。2000年以降もこの流れは現在まで継続している。このように植民地経験をとらえ返し、責任を負わねばならないと考える女性たちに共通しているのは、自らにつきつけられた問いに真摯に向き合い、思索を重ねたことである。こうした思索の過程で自らの内なる帝国意識を克服・解体する可能性が開かれてゆくと考える。決して多数派ではないが、このような女性植民者二世の存在に一筋の希望を託したい。

-
- 1)1908年(明治41)年3月に京城居留民会の議決を経て高等女学校を設立することになり、ただちに校舎建設に着手し4月20日に竣工。4月25日に入学試験を行い84名が合格した。第1学年から第4学年までを4学級に編成して翌26日から始業した。5月23日には開校式を挙行したが、初代統監伊藤博文が来臨した。生徒は順調に増加し、1910年には定員を500名とし、新築校舎へ移転する。1911年には明治天皇の御真影を下賜されている。また補習科設置の許可を得ている。1922年(大正11)5月13日に京城第一公立高等女学校と京城第二公立高等女学校に分離した。そして京城第一公立高等女学校は貞洞1番地8の新築校舎に移転し、学則を変更し生徒定員を800名・補習科40名とした。翌1923年には補習科を廃して修業年限を5年とし、定員を850名とした。1945年10月の閉校時点で、卒業生6065名(1-38回生)を出し、在校生773名がいた。途中転校生・退学生を除いても6838名の生徒がここで学んだことになる。
 - 2)木村健二も同様な指摘をしている。木村(2001,86)。
 - 3)こうした語り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な批判がある。「ある日本人がいて、自分は朝鮮人に対してなら差別をしなかった、と言う。このような人は多いのである。この人のこの表現が、実はその日本人の「優越感」を支える。ここでは、平等も、差別も、同じ歴史を持つゆえに、同義語と化するのだ。村松武司(1972,259)。
 - 4)堀内純子「野菊」『静岡新聞』1980.9.6 夕刊。
 - 5)在1山口久子「戦後五十年に想うこと」『白楊』第46号、1995.10.19。在1とは1945年8月時点で1学年だったことを意味する。
 - 6)38回佐藤和子「38回中村智恵子様をお偲びして」『白楊』第53号、2002.10.23。同「三十八回卒業証書授与謝辞」『白楊』第54号、2003.10.17。38回とは第38回卒業生という意味である。
 - 7)在1望月春子「終戦の日の思い出」『白楊』第50号、1999.10.20。
 - 8)堀内純子「一条の光」『静岡新聞』1980.8.16 夕刊。

- 9) 日本女性の引揚げ経験に関しては, 이연식 「괘전후한반도에서돌아간일본인여성의귀한체험-남북간의지역차를중심으로-」 『한일민적문제연구 17』 2009.12 以下一連の研究がある。
- 10) 37B回大野美鶴 「歪んだ青春」 『白楊』 第59号, 2008.10.30。
- 11) 堀内純子については, 拙稿 「植民地から本国へ-ある女性植民者二世の葛藤-」 『移民研究年報』 第19号, 2013を参照されたい。
- 12) ただし, 第1-2号は『しのび草』と題され, 第3号から『白楊』となる。
- 13) 『白楊』 第30号, 1979.10.25。
- 14) 21回渡辺由利子 「玄海を超えて」 『白楊』 第8号, 1957.11.10。
- 15) 大場勇之助 「総会雑感同窓会病」 『白楊』 第9号, 1958(発行日の記載無し)。
- 16) 客員 石川頼彦 「日韓の親善を早く実現したい」 『白楊』 第10号, 1959.12.1。石川は最後の校長を務めた人物である。
- 17) 『白楊』 第16号, 1965.11.15。
- 18) 「韓国訪問記」 『白楊』 第17号, 1966.10.25。
- 19) 15回清水英子 「“ふくぎつ”と“うんざり”」 『白楊』 第21号, 1970.10.30。
- 20) 客員 勝谷初代 「三十八度線から」 『白楊』 第32号, 1981.10.19。
- 21) 33回 池田正枝 「ボランティアに生甲斐 韓国ハンセン氏病定着のワークキャンプに参加して」 『白楊』 第35号, 1984.10.19。
- 22) 37A回阿蘇美保子 「韓国に留学して」 『白楊』 第37号, 1986.10。
- 23) 37B回川村泰子 「残った光化門」 『白楊』 第37号, 1986.10。
- 24) 27回古沢伸世 「懐かしい友宋銀璇さん」 『白楊』 第38号, 1987.10.19。
- 25) 33回剣持千枝子 「柳絮の風景 22回青柳緑様を偲ぶ」 『白楊』 第39号, 1988.10.20。
- 26) 21回渡辺由利子 「棕櫚の蠅叩き」 『白楊』 第40号, 1989.10.20。
- 27) 36回大原 済 「ある歌に思う」 『白楊』 第40号, 1989.10.20。
- 28) 35回白石慶子 「訪韓記」 『白楊』 第39号, 1988.10.20。
- 29) 「お知らせ 日韓親善に尽くす方たち」 『白楊』 第38号, 1987.10.19。この記事は日韓女性親善協会の発足10年を知らせ, 同窓生相馬雪香が日本側会長になったことを報じている。
- 30) 21回鈴木辰子 「故郷賛歌」 『白楊』 第42号, 1991.10.17。
- 31) 33回池田正枝 「ソウルに旅して」 『白楊』 第42号, 1991.10.17。
- 32) 30回米倉菖蒲 「宮崎支部だより」 『白楊』 第43号, 1992.10.17。
- 33) 35回高橋菊江 「短編小説集『赤煉瓦の家』を発刊して」 『白楊』 第47号, 1996.10。
- 34) 25回齋藤尚子 『白楊』 第48号, 1997.10.23。
- 35) 33回池田正枝 「身辺雑記」 『白楊』 第50号, 1999.10.20。
- 36) 34回和賀君子 「統一目指す南北合意の動きに寄せて」 『白楊』 第51号, 2000.10.26。分断の責任については, 齋藤尚子も 「日本人皆引揚げし半島の地図に分断の線引かれぬ」と詠んでいる。『白楊』 第55号, 2004.10.22。
- 37) 高橋はこの本について, アンケートへの回答・「残光」のなかで, 金達寿 『ああ朝鮮』と記している。しかし筆者が調べたところ, 金達寿の著作に 『ああ朝鮮』は無い。高橋に確認したところ, 記憶が定か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ここでは高橋の植民地認識に再考を迫り明確化する著作との出会いがあったことが重要である。
- 38) 26回村田敏 「身辺雑記 思い出すまに」 『白楊』 第59号, 2008.10.30。

《インターネット-実施者一覧》

回生	仮名	生年 月日	在校時期	卒業後～就職まで	使用人の有無	インターネット- 実施日	備考
1	24	A	1927.4-1932.3	官立京城師範学校女子補習科→小 学校訓導→結婚後も教師	○	2010.6.28	小1の時朝鮮の祖父母に引き取られる。京城普通小の教師が来て朝鮮語 を教えるクラスがあった。朝鮮神宮参拝はなかった。
2	28	B	1931.4-1936.3	啓星女学院→洋教学校→総督府通 信局電気課→三井物産	○	2010.8.24	釜山で8.15を迎える。
3	31	C	1934.4-1939.3	朝鮮米国倉庫(株)総務課	○	2010.5.23	この学年まで4年次から英語科と家庭科に列れる。朝鮮神宮参拝始まる。 皇国臣民の誓詞斉唱を記憶。婚約者戦死
4	32	D	1935.4-1940.3	梨花女子専門学校文科→国民総力 朝鮮連盟→結婚→成興高等女学校 教師	○	2009.11.22	遺骨出迎え。軍服修理。成興高等女学校教師として8.15を迎える。
5	33	G	1936.4-1941.3	女子学習院高等科文科	○	2010.3.30	子ども時代に朝鮮へ 敗戦前に内地に戻る。白衣を縫う
6	34	H	1937.4-1942.3	清和女塾→京城医専医化学教室副 手→結婚	○	2011.11.5	講堂に集まり慰問袋作成。愛国子女団発足式記憶(1937.12.2)東亞記事あ り。辻校長赴任し、中間体操開始。旅順で8.15。→大連→舞鶴へ引揚。同 学年から陸軍学校の講演を聞いて3名が従軍看護婦となる。
7	34	I	1937.4-1942.3	清和女塾→航空情報隊軍属(雇員)	○	2009.11.23	皇国臣民の誓詞斉唱を記憶。軍服修理。
8	34	J	1937.4-1942.3	鴨綠江水電→結婚	○	2009.8.23	34回生から3名が従軍看護婦となる。
9	35	K	1938.4-1943.3	清和女塾→朝鮮総督府官屋人事課 で会計の仕事。給与54円→58円	×	2008.4.28/ 2009.10.4	高女の授業料月7円(家賃が月37円)。35回生より勤労奉仕始まる。修学旅 行も勤労奉仕となる。1942.3.31樺山校長赴任。この頃より中間体操なくな る。京城一仁川40 ^分 の行軍
10	35	L	1938.4-1940.3	日本女子大学国語科	○	2008.9.13	1940.4より内地の高等女学校へ転校。皇国臣民の誓詞斉唱を記憶。
11	35	O	1938.4-1943.3	彰徳高女研究所→海軍武官府	○	2011.6.18	
12	35	P	1938.4-1943.3	東京家政学院→町内会→陸軍借行 社	×	2009.7.1.2	小学生時に朝鮮へ
13	35	V	1938.4-1943.3	東京女子大学	○	2008.11.29	
14	36	Q	1939.4-1944.3	総督府中央試験所電気化学部雇 員。給与19円。飛行機の材料となる アルミ分析を行う。	○	2009.6.14	
15	36	R	1939.4-1944.3	陸軍造兵廠。給与30-40円<51。	○	2010.1.24	
16	37(A)	S	1940.4-1944.3	京城女子医専	×	2009.5.24	樺山校長による五振り。44年までは英語週1-2時間。学期変更により4年で 卒業。1942～フレアースカー ト 1943～もんぺ

<参考文献>

- 青柳緑1971『李王の刺客』潮出版社
- 阿蘇(橋本)美保子1977『おいたちの記』自費出版
- 池田正枝1999『二つのウリナラ』解放出版社
- 梶村秀樹1978「植民地朝鮮での日本人」,『地方デモクラシーと戦争』文一総合出版,327-359
のち『梶村秀樹著作集第1巻朝鮮史と日本人』1992,明石書店所収
- 木村健二2001「植民地新義州在住日本人の異文化接触」,戸上宗賢編『交錯する国家・民族・
宗教—移民の社会適応—』不二出版
- 高吉嬉 2001『<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桐書房
- 齋藤(野上)尚子1966『消えた国旗』岩崎書店
- 平子(広瀬)玲子 2012平成21-23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帝国
の少女の植民地経験—京城第一高等女学校を中心に』
- 高尾和子1984『かな子の海峡』皓星社
- 高崎宗司1998『朝鮮の土となった日本人—浅川巧の生涯 増補新版』草風館
- 高橋菊江1996『赤煉瓦の家』ドメス出版
- 高橋菊江2008「残光」『丘陵』第17号
- 角田房子1988『閔妃暗殺—朝鮮王朝末期の国母』新潮社
- 広瀬玲子 2013「植民地から本国へ—ある女性植民者二世の葛藤—」『移民研究年報』第19号
- 広瀬玲子2014「植民地支配とジェンダー—朝鮮における女性植民者—」『ジェンダー史学』第
10号
- ファンロン・フランツ,鈴木道彦・浦野依子訳1969『地に呪われたる者』みすず書房
- 堀内(掛場)純子1982『はるかな鐘の音』講談社
- 堀内(掛場)純子2002『葡萄色のノート』あかね書房
- 三宅ちさと1993「民衆とアジア—植民者としての日本人と現地民—」『日本学報』12
- 村松武司1972『朝鮮植民者ある明治人の生涯』三省堂
- 尹健次 1989「植民地日本人の精神構造—「帝国意識」とは何か—」『思想』1989.4
- 李 惠恩1984「京城府의 民族別居住地分離에 관한 연구—1935年을 中心으로—」『地理学』(大
韓地理学会)第29号
- わがきみよ(和賀君子) 2003『残照模様』新風社

본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